■ 2015년 전문자료집 ■

사 례 연 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5년 전문자료집 - *사례연구*

▩ 목 차 ▩

◦ 15-01	타악기 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김효중	5
◦ 15-02	긍정적 장애체험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박성묵	30
◦ 15-03	자기결정능력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력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박은영	27
◦ 15-04	공예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정다예	48
◦ 15-05	PIE체계를 활용한 사정과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진애	71
◦ 15-06	만성정신장애인의 자아정체감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송현식	88
◦ 15-07	사회적 지지정도가 정신장애인의 자아정체감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	101
◦ 15-08	과제중심모델을 활용한 사례관리 강화 방안	황수빈	140
◦ 15-09	미술심리지원이 지적장애 아동의 시지각 협응에 미치는 영향	서미례	168
◦ 15-10	체간근의 근력 증가를 위한 수동적 운동요소가 영아의 근력 증가에 미치는 영향	임주성	176
◦ 15-11	상호작용 중심의 놀이활동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승영	184
◦ 15-12	수증에서 이루어지는 obstacle course 훈련이 긴장성편마비 아동의 균형반응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임현주	188
◦ 15-13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를 통한 언어재활이 무발화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가인	193
◦ 15-14	수중치료를 통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뇌성마비 아동의 앉기 자세와 하지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	김진봉	201
◦ 15-15	체중부하이동훈련이 경도 뇌성마비 아동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전진영	210
◦ 15-16	그룹 음악활동이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김서영	220
◦ 15-17	석고방향제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금민희	228
◦ 15-18	강점관점 접근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보호작업장 이용인의 직업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김지혜	252

◦ 15-19	미술치료가 보호작업장 이용인의 효능감과 정서행동력에 미치는 영향	류수진	262
◦ 15-20	사회적 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여향	양정현	274
◦ 15-21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윤성호	292
◦ 15-22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은숙	307
◦ 15-23	사회적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임명호	314
◦ 15-24	복지쿠폰서비스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형식	324
◦ 15-25	여성장애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윤혜림	335
◦ 15-26	노인무료급식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종수	344
◦ 15-2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6차산업 중심으로	강명진	361
◦ 15-28	해맑음땀방울농장 프로그램이 성인지적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정혁	369
◦ 15-29	지원고용 현장훈련 만족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이주미	393

사례연구 15-01

타악기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연구자	김효중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3.24.~ 2015.11.20. / 총 26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상호작용이란 두 사람 이상이 언어, 신체, 정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언어, 몸짓, 표정 등의 상징을 이용하여 의미를 교환하는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다.

자폐성 장애인 특징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함을 들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적응이 어렵고, 미래의 독립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이 개발.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다양한 방법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신장시키기 위해 활용되어지고 있다. 구광서(2000)는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적 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연구를 한 결과, 사회적 책임감.자기 주장.친사회적 신체 자세 수행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즉흥연주는 자신만의 정신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유기체적인 자연적 소리, 발성, 신체의 움직임과 동작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즉흥적인 소리를 마음껏 발산하게 하여, 이 소리의 구조 속에서 치료사와의 만남을 가지 게 하는 음악경험이다(김태련,1994). 즉 음악 외적인 시점에서 이들의 삶과 연결 시켜 이들의 마음과 생각 등을 음악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 교류하게 하는,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음악경험인 것이다(김군자,1998).

어떠한 형식과 틀을 가지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마음껏 연주할 수 있게 하는 즉흥연주의 융통성과 적용 가능성은 자폐성 장애인의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게 하는 한편 그들 자신의 내적인 통합과 발전이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김진아,1997).

Hudson(1973)은 음악의 요소 중 리듬의 기능을 강조하였는데 리듬은 원시적, 생리적인 단계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라포형성에 도움을 주므로 치료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음악적 접근법들이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여러 능력들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음악활동과 자폐성 장애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다루기 쉽고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타악기를 이용한 즉흥연주 기법이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인 눈 맞춤과 주시행동, 대인 관계 형성 행동 및 자발적 시도 행동에 긍정적인 여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타악기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의 목적은 난타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타연주를 통한 사회성 향상도를 알아본다.

둘째, 난타연주를 통한 환경 및 타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3.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9년 3월부터 재활전문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의 이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인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인 '남동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동대학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의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대학교육 커리큘럼을 접목하여 이용 장애인에게 대학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고등교육 이후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적사고와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건전한 성인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존의 성인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과 달리 1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직업탐색·직업인식·일상생활·사회성·여가문화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차별성을 지닌다.

현재 '남동대학'을 참여하는 이용인은 총 9명으로, 8명의 지적장애인과 1명의 자폐성 장애인으로 되어있어, 자폐성 장애 이용인만 부적응과 이용인간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 간 C't를 관찰 한 결과 난타연주에 흥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정기적인 타악기 연주를 통해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폐성 장애 특징

자폐증(Autism)은 그리스어의 Autos에서 유래된 말로서 self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anner(1943)에 의해 처음으로 자폐증이 학계에 보고된 이후 50여 년 지난 지금 이를 전반적인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의 범주 안에서 자폐성 장애(AutisticDisorder)로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자인 Rutter(1984)는 자폐성 장애와 다른 장애를 구분하는 범주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부모와 가족 구성원,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아주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의사소통 장애로 언어발달이 지연 또는 결핍되었거나 반향어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 한다. 또한 구두 언어 발달이 지연되거나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며 말을 하는 경우에도 대화를 지속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특히 인칭대명사 '나' 와 '너' 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이며 괴상한 언어나 소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동기가 되어 언어발달이 이루어져도 대인관계에서 언어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이미 기억하고 있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상동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억양과 어투에서 단조롭고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셋째, 신체적 반복동작이나 상동적 행동, 손 또는 손가락 뒤틀기 등 제의적인 행동, 또는 장난감이나 가구 줄지어 늘어놓기 등의 행동을 한다. 또한 발달수준에 맞는 상징적 놀이와 사회적 모방놀이가 결여되어 있으며, 놀이기구를 또래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함께 놀이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있는 경우도볼 수 있다.결국 혼자서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을 하고 제한된 것에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면서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등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행동양상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행동들이 3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쁨, 슬픔, 관심, 성공 등과 같은 사회적, 감정적 상호 교류가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Frith(1989)는 자폐성 장애는 기본적인 인지결함에서 오는 것이며 정서적인 면과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결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Peter- Hobsson (1989)은 자폐증을 근본적인 정서적 장애로 설명하는 등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 의사소통의 부적절성, 상상놀이의 결핍, 지적 능력의 이상 형태,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폐성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개선시키는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2. 자폐성 장애의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도적 행위와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 사람 이상이 언어, 신체, 정서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행동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사람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언어, 몸짓, 표정 등의 상징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의미를 교환하는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자폐성 장애의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눈 맞춤의 결여이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눈 맞춤은 상호교환적 형태에 있어서 정상 아동과 양적으로는 같으나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단순히 응시 회피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자폐성 장애인도 비장애인의 눈 맞춤 빈도와 같은 지속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응시형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Yoder,1983). Tinbergen(1972)도 자폐성 장애 아동의 주요결함으로 눈 맞춤 회피를 지적 하였는데, 이는 사회성과 관련된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눈 맞춤 회피행동을 각성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행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시행동과 눈 맞춤 결함이 아동의 환경에 대한 관심부족,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 혹은 다른 종류의 결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폐성 장애의 동료관계 형성에 대하여 김은경(1999)은 ㉠동료와 어떠한 우정도 보이지 않는다(친구를 사귀는데 관심이 없다). ㉡동료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 ㉢장난감을 바꾸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동료에게 관심이 없다. ㉥동료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등의 동료관계 관련 증후가 50%이상의 자폐성 장애에게서 발견 된다고 한다. 비록 출현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동료 관계 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시도가 동료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은 자폐성 장애가 보이는 보편적인 증상이며 이들의 인지, 언어 그리고 사회적 지식과 자아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자폐성 장애의 타악기 연주

타악기를 뜻하는 'percussion'은 흔들거나 긁거나 두드리는 충격으로 소리 내는 악기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타악기의 모양, 크기, 악기 제조에 쓰인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소리 내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타악기 연주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의 집중시간을 증가시키고 악기 소리를 냄으로써 즉각적인 성취감을 부여한다.

타악기는 다른 악기들보다 다루기가 단순하고 쉬우며 일정한 또는 소수의 리듬패턴

을 만들어 활동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애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고 악기 소리를 낼 수 있어 타악기를 이용하여 연주가 가능하다.
대부분 지체가 심한 경우에도 리듬악기, 즉 타악기는 사용할 수 있고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도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리듬활동으로부터 음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임진아,1998).
타악기를 이용한 연주활동은 음악적.비음악적으로 의사소통, 인지 발달, 자아표현 등을 자극하는 음악적 개입의 수단이 된다. 인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함께 탬버린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다른 어떤 형식으로도 불가능했던 두 사람(치료사와 내담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할 수 있게 해 준다. 타악기 연주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거나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 즐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데 이들은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표현 방식을 통해 외부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김태련.염현경 역,1994).
데커-포이커트에 따르면 음악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모든 악기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드러날 때까지는 드럼과 같은 타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Louise와 Edgar(1978)는 정서.학습.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능동적이고 리듬에 기초한 타악기 연주활동이 자기표현을 촉진시키고 공격, 적대감 감소에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북을 치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리듬과 소리로 변형시키는 행동이고 초조감이나 자극적인 감정, 고통 등을 손으로 느끼는 신체 경험을 통해 분노, 격분, 증오와 같은 감정이 연주를 통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진,2002,재인용). 그러므로 타악기 이용한 연주는 비언어인 표현으로써의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는 경험들을 반영하는 자아 표현에 필요한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다.타악기 연주의 빠르기 변화는 구조화된 음악 활동에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동일한 빠르기와 강약으로 반복되는 리듬의 박자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Hollander(1974)는 자폐성 장애인이 언어적인 지시보다는 비언어적인 지시에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며 음악 속에 그들의 행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듬, 반복, 규칙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언어 지식을 음악활동 속에 포함시켜 비언어적인 반응을 사용한 간접적 지시로 다양한 학습과제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
타악기를 이용한 연주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음악적 접촉을 자폐성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음악적 유동성이 병리학적으로 발생된다면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자폐성 장애인의 전반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민○○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3. 09. 15				
장애명	자폐성	급수	2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4동 ○○ 주공A				
전화번호	032) 229-○○○○		핸드폰	010-327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 장애발생배경

C’t는 1993년생으로 모는 C’t 임신 중 약복용이나 질환은 없었으나 조부의 별세로 충격이 있었음. 생후 8개월 경 장염으로 설사가 1개월 정도 진행 것 이외에는 질병 없이 정상발달 하였음. 그러나 생후 36개월 경 언어적 부분의 지체가 보여 소아정신과 진료 결과 반응성애착장애 소견을 받음. 이후 1997년 6월 길병원에서 발달장애로 장애진단 받았으며, 초등학교 1학년 때 발달장애 3급에서 중학교 때 2급으로 재진단 받음.

- 교육력

장애 진단 이후 4세경부터 조기교육실에서 7세까지(2년 6개월간) 자폐성 장애 또래 친구들과 학습하였으며, 인하대병원 언어치료실(7세, 6개월간), 김태우 언어치료실(8세, 6개월간), 관내 언어치료(7세, 3개월간) 및 놀이치료(11세, 1년간)를 받았으며 관내 방과후 교실 사회서향상프로그램을 중학교 3학년 때 이용하였음. 이외에도 피아노, 미술, 컴퓨터, 수영 등 취미교육을 다양하게 하였으며 통합학급으로 조동초등학교, 만수중학교, 만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추홀 전공과 이용 후 현재 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남동대학’을 3월부터 이용 중임.

- 양육태도 및 가족역동

부와 모는 교육에 관심이 많으나 엄격하지 못하고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짐. 부모가 C’t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과보호적이며 학창시절 담당 치료사를 불신임하는 경향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함. 2살 위인 형은 C ‘t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유년기에 같은 방에서 자랐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형은 현재 지방대학교 재학 중으로 지방에서 자취 중이며, C’t는 현재 부모와 동거 중임. 부는 자동차 영업과 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맞벌이로 C’t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홀로 보내고 있음.

⑶ 주호소 내용

- C ‘t의 아동기에는 또래 아동이 물건을 뺏어도 다시 뺏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눈맞춤이 가족하고만 이뤄지는 모습이 보였음. 또한 기분 좋음을 양손을 흔들며 괴성을 지르는 것으로 표현함. C’ t는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고, 상호작용이 어려워 중학교 때 또래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음. 그로 인하여 또래 남자친구들과의 스킨쉽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 모습이 보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어려워 함. 주호소 내용으로는 사회성이 부족하며, 수동적인 태도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험으로 사회성이 향상되기를 희망하였음.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최초 등록일 1998. 03. 21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동대학(2015.03~)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없음(미추홀 전공과 2015년 2월 졸업)

- 2012년 남동대학 응시하여 2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였으나, 2014년 남동대학 입시에 재응시로 합격하여 현재 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간 이용 계획에 있음.

*남동대학 소개

- 남동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4세미만의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바리스타・마술 특화교육, 지역사회통합훈련, 일상생활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성인기를 준비하고 대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 본 프로그램은 대학문화 향유와 건전한 성인기 준비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 교육과정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직업준비론, 지역사회관계론, 생활체육과 건강, 문화예술론, 특별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공교육 학교운영형태를 도입하여 1년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목요일(10:00~16:00), 금요일(10:00~12:00)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 연구일정

구 분	시기	내용
현 상태 파악	3월 30일	-대상자 선정 및 현 상태 분석
사전검사	4월 1일	-사회성 검사
난타연주 진행	4월 1일 -11월 4일	-주 1회(매주 수요일, 10시- 12시) 그룹 난타연주 진행
활동내용 관찰	4월1일 -11월 5일	-주 1회 c't의 프로그램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
사후검사	11월 12일	-사회성 검사를 통한 변화 확인
결과보고	11월 12일-20일	-사례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각 회기별 프로그램 참여 후 C 't의 행동을 주1회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사회성검사지는 정범모(1971)가 제작한 초등학교 인성 검사지 중 사회성을 검사하기 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현(2004)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성 측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 등 4개의 하위 영역에 총 30개의 문항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사회성검사지 구성>

사회성 하위영역	문항번호	a계수
준법성	5,9,16,19,22*	.70
협동성	4,7,13,23*,24,27,28*,30	.71
사교성	2,3*,6*,8,10,14*,15*,17,18 20*,25,26*	.68
자주성	1,11,12,21,29	.70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환경 및 타인 인식의 발생률을 그래프로 그려 C ‘t의 행동 변화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Ⅳ. 연구 결과

1. 진행사항

가. 사회성 검사지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회성 하위영역	사전검사 점수 (4월 1일)	사후검사 점수 (11월 12일)
준법성(5점)	2점	2점
협동성(8점)	1점	1점
사교성(12점)	1점	2점
자주성(5점)	0점	1점
합산(30점)	**4점**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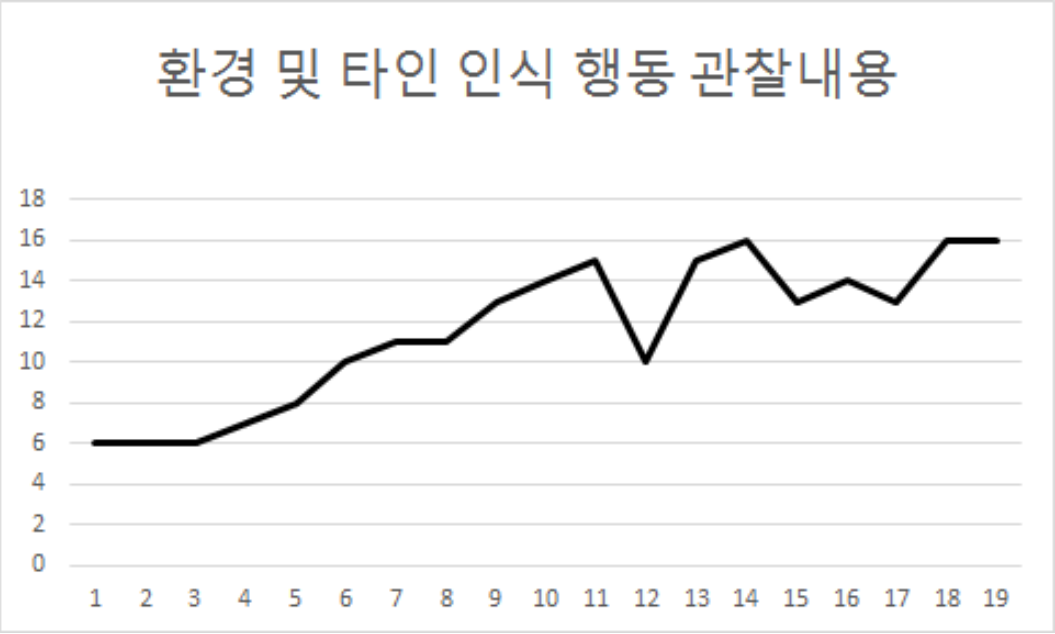
나. 난타연주 진행 및 관찰 결과

(1) 환경 및 타인 인식 행동 관찰 내용

내용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
A.스스로 수업의 준비를 할 수 있는가?					
B.소리가 들리는 곳에 반응 하는가?					
C.강사의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는가?					
D.짝과 함께 난타 연주 할 수 있는가?					
E.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1	2	3	4	5	6	7	8	9	10
A	1	1	1	1	2	3	3	3	4	4
B	1	1	1	1	1	1	2	2	2	3
C	1	2	2	3	3	3	3	3	3	3
D	1	1	1	1	1	2	2	2	3	3
E	1	1	1	1	1	1	1	1	1	1
계	6	6	6	7	8	10	11	11	13	14

	11	12	13	14	15	16	17	18	19
A	4	3	4	4	3	3	2	3	3
B	3	1	3	3	4	5	4	5	5
C	4	2	4	4	3	3	3	4	4
D	3	3	3	4	2	2	3	3	3
E	1	1	1	1	1	1	1	1	1
계	15	10	15	16	13	14	13	16	16



(2) 난타연주 진행 내용

구분	월	일	내용
1	4	1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월드컵송)을 활용한 난타 연주
2	4	15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곰세마리, 빠빠빠)을 활용한 난타 연주
3	4	22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곰세마리, 빠빠빠)을 활용한 난타 연주
4	4	29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곰세마리, 빠빠빠)을 활용한 난타 연주
5	5	6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빠빠빠, 월드컵송)을 활용한 난타 연주
6	5	20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월드컵송, 빠빠빠)을 활용한 난타 연주
7	5	27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빠빠빠)을 활용한 난타 연주
8	6	10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월드컵송, 코리아)을 활용한 난타 연주
9	6	17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곰세마리, 빠빠빠, 코리아)을 활용한 난타 연주
10	6	24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쿵푸팬더, 곰세마리, 빠빠빠, 코리아)을 활용한 난타 연주
11	7	1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곰세마리, 코리아)을 활용한 난타 연주
12	7	8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허니, 곰세마리, 코리아)을 활용한 난타 연주
13	7	15	기본 타법 연습 및 음악(쿵푸팬더, 곰세마리, 월드컵송, 코리아)을 활용한 난타 연주
14	7	22	음악(허니, 쿵푸팬더, 월드컵송)을 활용한 난타 연주 학기말 평가
15	9	3	기본가락 익히기(기차장단 8·4set, 다가다가타법, 테치기 등), 음악난타(고래아가씨와 코끼리 아저씨 등)
16	9	24	기본타법 익히기, 뱅뱅뱅 익히기
17	10	8	기본타법 익히기, 뱅뱅뱅 익히기
18	10	22	음악난타 "뱅뱅뱅" 복습, 데치기 배우기, "츠나각성" 익히기
19	11	5	기본타법 연습, 츠나각성 익히기, 뱅뱅뱅 복습

2. 평가 결과

가. 연구의 변경사항 : 난타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4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 1회(수요일) 총 24회기로 계획되었던 난타수업이 남동대학 2학기 시간표 변경으로 9월부터 2주에 1회(목)로 진행되었으며, 강사도 변경되었음.

나. 목표1 - 난타연주를 통한 사회성 향상도를 알아본다. :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성검사지를 통해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 4점에서 사후검사 6점으로, 사교성과 자주성에서 각 1점 씩 총 2점이 향상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목표2 - 난타연주를 통한 환경 및 타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 위의 그래프로 확인결과 1회기 진행 시 6점이었으나 회기가 진행 될수록 꾸준히 향상되어 19회기에는 16점으로 10점이 향상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타악기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폐성 장애인 1명을 대상으로 19회기 동안 대상자의 환경 및 타인인식 행동 관찰을 측정하였으며, 사전사후로 사회성검사를 실시하였다.

타악기를 이용한 타악기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난타연주를 통한 사회성 향상도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악기를 이용한 연주가 사회성인 준법성, 협동성, 사교정, 자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난타연주를 통한 환경 및 타인인식 행동의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악기 연주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악기 연주가 성인 자폐성 장애인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대상이 1명의 단일연구였으며, 중간에 강사와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면서 질 높은 연구들이 많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기적인 강사가 일정한 일정에 타악기 연주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기간이 장기화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 해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련.박랑규(역)(1996).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
이화(2005).자폐아동 행동 발달 평가 도구.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
민윤정(2005).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증진과 문제행동 향상을 위한 자유즉흥연주 사례연구.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안경애(2001).타악기 연주 활동이 자폐성 장애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유효정(2006).자폐아의 타악기 연주 활동이 주의집중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정림(2001).음악활동을 통한 자폐성 아동의 외부세계 인식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경화(2008).즉흥연주 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수진(2002).집단음악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이진영(1995).악기놀이 활동이 자폐아동의 상동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혜원(2001).음악활동이 통합된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정혜영(2003).음악치료 활동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최영춘(2002).타악기 연주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템퍼 텐트럼 행동에 미치는 효과.미간행석사학위청구논문.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회성검사지』

번호	문항내용	예	아니오
1	아픈사람을 간호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2	사람들이 나를 싹싹한 아이라고 한다.		
3	우리 반에는 보기 싫은 애들이 많다.		
4	모둠 학습을 할 때 함께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다.		
5	나는 학급어린이회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킨다.		
6	친구들은 나더러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라고 한다.		
7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논다.		
8	이웃에 사는 친구를 보면 내가 먼저 아는 체를 한다.		
9	한번 시작한 일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한다.		
10	새 친구가 반에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보다 친절하게 대해준다.		
11	하루 생활 계획표를 짜서 내 생활을 해 간다.		
12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는 주장할 줄 안다.		
13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기쁘다.		
14	인사하기 어려워서 아는 사람도 못 본체하고 지나간다.		
15	친구가 나보다 잘 하는 것이 있으면 화가 난다.		
16	복도에서 뛰고 싶지만 규칙을 잘 지킨다.		
17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곳에 가서 즐겨 논다.		
18	내 잘못을 친구가 지적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며 듣는다.		
19	선생님의 말씀이 좀 지루할 때도 끝까지 잘 듣는 편이다.		
20	아는 집에 심부름 갈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 가기 싫다.		
21	친구가 청소 당번이면 기다려서 같이 간다.		
22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찻길을 건너갈 때도 있다.		
23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을 때 귀찮아 그냥 지나간다.		
24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늘 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		
25	친구가 기분나쁜 일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밝혀서 기분전환을 하도록 한다.		
26	친구가 벌을 받고 있을 때 옆에 가서 골려준다.		
27	숙제를 할 때 친구들과 같이 하는 때가 많다.		
28	청소 당번 때 선생님의 눈치만 살펴가며 대강 한다.		
29	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다.		
30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례연구 15-02

긍정적 장애체험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연구자	박성묵 대리
연구기간	2015.10.02.~ 2015.11.18. / 총 개입횟수 4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화합과 소통이 중요한 시대이다. 개인과 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사람들은 이러한 서로의 개성과 특성을 '틀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얻어진다. 아동들은 교육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화 과정을 시작한다.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도 그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개성과 특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fortine(1987)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아동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왔으며, Clore와 Jefferey(1972), Wilson과 Alcon(1969)은 모의 장애체험을 사용하였고, 비디오 등 교육 자료를 이용한 연구(Westervelt&Mckinney, 1980) 등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단순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에게 거부되고 있고, 비장애아동들 사이에서 통합된 장애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분리 배치된 장애아동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보인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이양섭, 1995; 김종삼, 2000) 이러한 경과들은 장애아동과의 접촉 자체가 긍정적이고 편견이 없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장애아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리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들은 대게 체계적이며 구조화된 프로그램 및 자료를 제공한 것들이었다(Donaldson, 1980).

하지만 이렇게 교육과 더불어 진행되는 장애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휠체어 이용, 유도블럭 체험, 흰지팡이 체험, 시지각 체험으로 구성되어 일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체험하도록 운영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가진 어려움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장애인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구나'라는 식의 부정적 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종의 부적강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식개선에 있어서 '장애인'의 역할은 전무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대상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스포츠(골볼, 보치아, 시각장애축구)를 활용한 긍정적 장애체험이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는 긍정적 장애체험이 기존의 장애체험과 비교하여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식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장애체험을 통한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식이 기존의 장애체험과 비교하여 학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둘째, 긍정적 장애체험을 통한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식이 기존의 장애체험과 비교하여 체험별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3년부터 전국의 유,초,중등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가 권장되어 왔다. 2008년부터는 연 2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되었으며,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2)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중학교의 경우 연 2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93.6%에 달한다. 점차 학교 현장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가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화하여 왔고 교사 연수, 학부모연수 등 대상을 달리하며 늘어나고는 있으나 연 2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실제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진정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오늘날의 학교는 정규교육 외에도 교육과 복지적 성격을 겸한 역할이 점차 많아지고 학사일정 안에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나 연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내용과 비장애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Ⅱ. 이론적 배경

가. 장애이해교육

더욱 많은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고 그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점차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라 2003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가 권장되었고 2008년부터는 연 2회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2012). 장애학생이 통합환경에서 학습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비장애학생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우호적인 반응을 얻어야하는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 통합되었을 때 장애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 및 신체적인 활동에서 각자 다른 수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장애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배척하거나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이유훈,권택환,김희규,유장순,최세민,2003).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상호작용 기회가 적고 놀림이나 비난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우이구 외,2004). 경쟁적인 학급 분위기로 인한 낮은 사회적 위치와 개인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한 고립 등 예상 가능한 어려움은 비장애학생들과 교사들의 이해 부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장애학생들이 통합된 환경에 잘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기에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며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비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수용적이며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장애체험

모의장애체험은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여 체험해 보게 하는 것이다. 장애를 가졌을 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동원,2000)으로써 신체장애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프로그램 기술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장애에 대한 태도 개선 프로그램에 빈번히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 방법은 장애아동들에게 장애인들의 요구와 경험들을 느끼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다(김희규,2002). 학생들이 모의 장애체험에 참가한 후 장애아동과 그들이 배운 것을 토론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동숙,2002).

모의장애체험은 일반인이 장애체험을 하는 것으로 청각장애는 보청기 착용하기, 시각장애는 눈 가리기,지체장애는 휠체어타기, 지적장애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풀기 등을 하게 한다. 이러한 모의장애체험은 주로 장애아동과 상호 작용하기 위해 비장애아동을 준비시키는데 사용되어졌다. 태도 변화를 위한 모의장애체험에 관한 연구는 Clore와 Jeffuey(1972:박현주,2000에서 재인용)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그들은 한 피험자 그룹에게는 25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좁은 길과 언덕을 다니게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게 했고, 다른 피험자 그룹에게는 뒤에서 체험하는 피험자 그룹을 관찰하면서 일반인들의 반응을 관찰하게 하였다.그 결과 짧은 시간 동안의 체험이었지만 태도 변화의 효과는 4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정선화(1993)의 연구에서도 정신지체 아동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과 복잡한 지시에 따르는 활동들을 사용하여 일반급우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Willson과 Alcon(1969: 이동숙,2002에서 재인용)은 피험자들에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눈을 붕대로 감고 걸어 다니게 하는 활동과 보청기를 사용하는 활동,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장애를 경험하는 기회는 장애인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아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성인이라도 그다지 큰 효과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모의장애체험의 목표, 상호작용 기술, 토의 등을 함께

사용해야 효과적이다(성수자,2001). 모의장애체험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모의장애체험을 통한 태도 개선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동정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재미있는 단순한 게임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와 같은 한계는 가능한 실제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야기해 주거나,모든 활동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도록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장애체험활동을 하는 동안 필요하다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관찰하고 도와주기 위한 관찰자를 배치할 수도 있다(김희규,2002).

Ⅲ. 연구 방법

1. 연구계획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진행될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을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함. 학년 별로 동일한 장애이해교육(장애유형별 특징 및 에티켓,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시하고 장애체험을 시각장애인 축구, 골볼, 보치아경기와 휠체어, 지팡이, 구화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표 Ⅰ-세부사업계획>

학년	교육	장애체험	학년	교육	장애체험
○○초등학교			△△초등학교		
4	장애유형별 에티켓	시각장애인 축구	4	장애유형별 에티켓	구화
5	장애인 차별금지법	골볼	5	장애인 차별금지법	흰지팡이
6	장애인 편의시설	보치아	6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

2. 연구일정

내용 \ 기간	3월 4주	4월 3주	5월 4주	5월 5주	6월 4주	7월 2주	7월 4주	11월 4주	12월 1주
사례연구계획	■								
○○초등학교(5)		■							
○○초등학교(6)			■						
○○초등학교(4)				■					
△△초등학교(4)					■				
△△초등학교(5)						■			
△△초등학교(6)							■		
설문통계								■	
보고서작성									■

3. 자료분석 방법

연구에 참여하는 ○○, △△초등학교 4~6학년의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거리척도[1]를 활용한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학년별, 체험별 변화정도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본다.

<표Ⅱ-사회적거리척도>

번호	문 항	정말 괜찮다	괜찮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1	장애 어린이가 우리 학교에 와도 괜찮다.				
2	장애 어린이가 학교의 과학실이나 도서실에서 나와 같이 있어도 괜찮다.				
3	장애 어린이가 학교의 매점에서 나와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어도 괜찮다.				
4	장애 어린이가 우리 반에서 내 옆에 앉아도 괜찮다.				
5	장애 어린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어도 괜찮다.				
6	장애 어린이가 나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도 괜찮다.				
7	장애 어린이가 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가도 괜찮다.				
8	장애 어린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특별활동반에 들어와도 괜찮다.				
9	장애 어린이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자도 괜찮다.				
10	장애 어린이가 내 자전거를 빌려타도 괜찮다.				

1)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통합지원프로그램 가이드북' 발췌

Ⅲ. 연구 진행사항

1. 연구의 진행

4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은봉, 만수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형태는 이론교육 1시간과 체험 1시간으로 구성하였고 이론교육의 내용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여 두 학교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학교	학년	반	총원	일자
은봉초	5	1	22	04월 07일
		2	23	04월 08일
		3	22	04월 15일
		4	23	04월 22일
	6	1	29	05월 19일
		2	29	05월 19일
		3	28	05월 20일
		4	27	05월 20일
	4	1	26	05월 26일
		2	28	05월 26일
		3	28	05월 27일
만수초	4	3	19	06월 10일
		1	17	06월 24일
		2	18	06월 24일
	5	1	22	07월 01일
		2	22	07월 01일
		3	23	07월 07일
	6	1	23	07월 08일
		2	24	07월 08일
		3	24	07월 14일
		4	24	07월 15일

위의 표와 같이 비교집단의 인원수가 상이하므로 은봉초등학교 5학년 4반을 제외하여 비교집단 간의 학급수를 동일하게 조절하였고 인원수는 평균점수 비교분석으로 조절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지는 은봉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수거되었으나 만수초등학교는 사후설문이 진행되지 않아 학교 내 특수교사의 협조로 사후설문지를 배부하였고 9월 중 회수하여 통계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담당자의 관찰평가로는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장애인의 불편함을 느껴보는 체험보다는 장애인스포츠를 활용한 체험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고 이후 소감나눔에서도 장애인의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관찰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후 사전·사후 검사지를 통하여 이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15-03

자기결정능력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연구자	박은영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03.05.~ 2015.11.20. / 총 28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표현하는데 서투르다보니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결정은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부모나 교사 혹은 전문가가 중요한 선택을 대신해 주며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자기결정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부터 정상화 원리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독립생활운동, 자조 및 자기권리 옹호운동 그리고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의 서비스이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이 당사자의 전체적인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자신의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가질 때 자기결정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기부터 자기결정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지적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삶을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Wheeler와 Richey(2005)는 자기 결정은 인간이 평생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결정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근본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말한다. 자기결정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아는 증거가 되며, 자아인식을 통한 결정은 자신이 원하는 삶 즉, 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은 질적인 삶과 완전통합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결정능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므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인이 삶의 주체가 되어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결정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결정력의 향상은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기결정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현재 c’t는 낯가림이 심하여 낯선 환경에서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중, 담당자가 결정을 맡겼을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한 강사가 c’t에게 두 가지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을 때 결정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거나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에게 결정한 것에 대해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결정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c’t의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결정

1)자기결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기결정이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자기결정이라 할 것이다.

2)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특성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 능력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로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Wehmeyer와 Metzler(1995)는 5,000명의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의 자기결정능력 연구에서 인지적인 장애를 가진 성인의 대부분이 빈약한 자기결정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Stancliffe와 Wehmeyer(1995)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재검토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은 자기결정의 하위요소인 자율성,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에서 기회가 부족하거나 제한이 있다. 즉 자기결정의 대부분의 구성요소에서 제한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자기결정의 모델

자기결정의 모델에는 Wehmeyer의 모델, Mithaug, Campeau, Wolman의 모델, Abery의 모델, Field와 Hoffmam의 모델 등이 있으며 Mithaug, campeau, Wolman의 모델은 자기규칙이론에 기초를 두고, Abery의 모델은 생태계 구조이론에 입각하여 자기결정의 생태학적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Wehmeyer의 모델은 자기결정이란 ①자신의 기호, 관심, 능력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자율성,

②자신의 능력과 기호를 바탕으로 환경과 조화해서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활동하며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규칙, ③인지, 인성 및 동기화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영역인 심리적 역량, ④자아실현 등 네 가지 본질적인 특성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 특성이 행동에 반영되어 자기결정 행동을 도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각 모델에 따라 자기결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Wehmeyer의 모델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3)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는 선택하기, 의사결정, 목표설정, 문제해결, 자기평가, 자기옹호, 자기인식 등이 있다. 이중 자기인식은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지식 장단점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관리는 외적이 아닌 내적인 관점에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변화된 행동을 유지 및 일반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기옹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를 알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선택하기는 선호하는 것에 대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며 목표설정은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기회창출을 통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자기옹호, 선택하기** 등 네 가지 자기결정의 구성요소를 선정하여 네 가지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가.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최푸름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2년 11월 24일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2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97-20 초록마을 0동 000호				
전화번호	070-4042-0000		핸드폰	010-2790-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남 1녀 중 막내로 장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유아기 때 다른 아이들보다 행동이 느렸음. 고등학교 때 갑상선 이상으로 길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복용을 하였으나 현재는 큰 이상이 없어 약복용을 중단하고 있음.

형제는 오빠가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음. 종종 c’t에게 작은 액수의 용돈을 주고 있고 c’t는 그 용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는 편임. 부모님 모두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며 父는 상조회사 대표로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 c′t는 주로 父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c’t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은 아니나 담당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편임. c’t는 가정에서 주로 혼자 지내는 편이며 부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특히 母와의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부모에게 잘 표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⑶ 주호소 내용

낯가림이 심하여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약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한 강사에게도 부끄러워 본인의 의사를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수업 중에 본인에게 결정을 맡겼을 때 눈치를 보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 새로운 활동이나 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음.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4년 2월 17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아카데미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대상 모집	2015. 03. 05	대상자 모집단선정
	2015. 03. 12	최종 대상자 선정
계획	2015. 03. 19	사례연구 계획서 수립
	2015. 03. 24	사례연구 계획서 작성
	2015. 03. 26	사례연구 계획서 수정
	2015. 03. 31	사례연구 계획서 제출
진행	2015. 04. 07	자기결정력 사전 검사 실시
	2015. 04. 14 ~ 2015. 09. 29	자기결정능력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세부관찰 및 개입
	2015. 10. 06	자기결정력 사후 검사 실시
최종 보고	2015. 11. 20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미국정신지체협회가 간행한 The Arc’s Self-Determination Scale(Wehmyer, & Kelchner, 1995)의 구조를 단일대상연구를 위한 지적장애인성인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손유나(2013)의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자율성 영역 15문항, 자기규칙 15문항, 심리적 역량 15문항, 자아실현 15문항으로 모든 문한의 총점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결정능력이 높은 것이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c’t의 자기결정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결정능력 검사 척도’와 자기표현을 검사하기 위한 ‘자기표현검사’를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실시할 것이다.

Ⅳ. 연구 결과

사례 진행 사항

(진행 사항 및 평가는 사례연구를 진행한 후 기술합니다. 중간 점검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에 기술하면 됨)

1. 사전 검사 결과

1)자기결정능력 검사

각 검사 영역은 자율성 15문항, 자기규칙 15문항, 심리적 역량 15문항, 자아실현 15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의 총점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결정능력이 높은 것이다.

검사 영역 중 자율성 영역 11점, 자기규칙 영역 9점, 심리적역량 영역 6점, 자아실현 영역 4점으로 총 30점으로 나타났다.

2. 활동 진행 사항

구 분		내 용	구성요소
1	4/14	**• 사전평가** **• 관찰내용**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사전검사 진행하였음. -이해하지 못 하는 문항은 담당자가 예시를 보여주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에게 불분명하게 대답을 하거나 본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다시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임. -자율성 영역 11점, 자기규칙 영역 9점, 심리적역량 영역 6점, 자아실현 영역 4점으로 총 30점으로 나타남.	-
2	5/19	**• 활동주제** -자신에 대해 쓰는 활동지를 이용한 자기소개 및 자기모습 그리기 **• 관찰내용** -거울로 본인의 모습을 관찰 한 후 자기 모습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할 때에 본인의 모습을 작게 그리며 표현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임. -본인이 그린 그림을 들고 이름, 나이, 생일, 장애 등에 대해 소개를 할 때에 허리를 숙이며 크게 이야기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임. -다른 그룹원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담당자가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부분이 제일 예쁜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게 하였음. 본인의 자신 있는 부분은 코라고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음.	자기인식

3	5/26	**• 활동주제** -본인이 잘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 대해 알기 **• 관찰내용** -본인이 잘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본인이 잘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못 하여 담당자가 현재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수업 중에서 생각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음. -본인이 잘 하는 수업은 없는 것 같으며 못하는 수업은 아쿠아피트니스라고 이야기 함. 왜 잘 하는 수업이 없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못 하였음. 본인이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물었을 때는 댄스, 난타라고 대답을 하였음. 댄스와 난타가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음악을 들으며 수업을 할 수 있어서라고 함. c't는 음악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매우 즐거워하여 열심히 하는 만큼 잘 한다고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었음.	자기인식
4	6/2	**• 활동주제** -다양한 표정 이해 및 표현하기 **• 관찰내용** -활동지를 통해 기쁨, 화남, 즐거움, 슬픔, 당황함, 궁금함, 미안함 등 다양한 표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 표정에 대해 익힌 후 짝을 지어 서로 표정을 따라한 후 어떤 표정을 따라했는지 맞춰보는 게임을 진행함.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하나의 표정을 가리키며 어떤 표정인지 물었을 때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음.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그룹원이 쳐다볼 때에는 몸을 숙이면서 말을 잘 못 하는 모습을 보임. -짝꿍게임을 하기 앞서 담당자가 짝을 지어주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그룹원과 짝꿍을 이루게 하였음. 아카데미에서 타 그룹원보다 더 친밀한 사람과 짝을 이루었으며 표정을 따라하고 맞추는 게임에서 활발히 참여하였음. 친밀한 그룹원과 게임을 진행했을 때 본인이 먼저 활동을 참여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자기인식
5	6/9	**• 활동주제** -보고 싶은 영화 의견 나눔 **• 관찰내용** -아카데미 여가기술론 활동으로 영화를 보게 되어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카데미 반장이 회의를 진행하였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찾아왔으며 상영예정작인 쥬라기 월드를 조사해옴.	자기옹호 선택하기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 할 때에 그룹원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개입을 하지 않았음. 반장의 진행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발표하였음. -회의가 끝난 후 담당자와 따로 회의 소감을 물어보았음. 발표를 할 때에 매우 떨렸다고 함. 떨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을 잘 이야기 해주어서 좋았다고 긍정적 지지를 해주었음.	
6	6/16	**• 활동주제** -상황에 따른 감정 및 표정 이해, 타인 감정 이해하기 **• 관찰내용**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지에 대해 나눔. -즐거움, 슬픔, 화남, 짜증 등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의견이 나왔으며 c't는 화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음. 짝꿍과 함께 즐거움, 슬픔, 화남, 짜증을 언제 느끼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음. c't는 친한 친구와 놀 때 즐겁고 친구와 싸울 때 화가 난다고 표현하였음. 그 외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음. -각자 즐거움을 느낄 때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낄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 c't는 내가 화를 내면 친구도 같이 화가 날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으므로 타인의 감정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함.	자기관리
7	6/23	**• 활동주제** -상황에 따른 감정 및 표정 이해, 타인 감정 이해하기 **• 관찰내용** -상황을 설명하고 활동지를 통해 각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음. -상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담당자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었음. 동그란 원 안에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표정을 그려넣는 활동을 하였으며 c't는 그림을 작게 그리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상황 중에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상황에 슬픈 표정을 그려넣는 모습을 보임. 각 표정을 그린 이유를 묻자 그냥 그렸다고 하였으며 즐거운 표정보다는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그리는 모습이 보였음.	자기관리

8	6/30	**• 활동주제** -가족그림 그리기 및 그림 이용한 가족 소개하기 **• 관찰내용** -사전에 가족의 이름, 하는 일,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A4용지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음. 사람을 작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며 담당자가 여백부분에 배경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리지 못 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을 가지고 가족 소개를 할 때 허리를 조금 숙이며 쑥스러워했으나 프로그램 초기보다는 명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음.	자기인식
9	7/7	**• 활동주제** -직업의 종류 이해 및 차별에 대해 이해하기 **• 관찰내용**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마다 가지는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을 하였음. 가족 및 주변 사람의 직업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였음. -직업의 종류에 대해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담당자보다는 그룹원에게 작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임. 직업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고 어떤 직업인지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을 때 다른 그룹원이 이야기 하지 못 하는 것을 작게 말하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것을 크게 이야기하며 그룹원을 집중시키며 본인이 크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음.	자기인식
10	7/14	**• 활동주제** -역할극을 통한 위생교육(손씻기) **• 관찰내용** -손씻기에 대한 만화를 이용하여 역할을 정하고 역할극을 진행하였음. 역할은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발표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c′t는 대사가 많은 역할보다는 적은 역할을 희망하였음. -역할을 정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10분정도 가졌으며 다른 그룹원과 다르게 큰 목소리로 연습하지 않았음. -본인의 차례를 모르는 그룹원은 담당자가 알려주며 역할극을 진행하였음. c′t는 만화의 흐름을 이해하여 본인 및 타인의 차례를 인지하고 있었고 옆 사람이 본인의 차례인지 몰랐을 경우에 알려주는 행동을 보였음. -역할극을 할 때에 큰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긍정적 지지를 해주었으며 큰 무리 없이 활동하였음.	자기관리

11	9/1	**• 활동주제** -여행을 가기 전 챙겨야 할 준비물 선택하기 **• 관찰내용** -제주도 여행을 가기 전 여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 준비물을 먼저 보여주기 전 본인이 생각 했을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그룹원과 의견을 나누는 가지는 시간을 가짐. c′t는 본인이 생각하는 준비물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임. -본인의 의견을 정리 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c′t는 그룹원들보다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하였으나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웃는 모습을 보이며 부끄러워하였음. -학습지를 통해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o/x 표시를 하였으며 대부분 적절하게 표시하였으나 사용한 젖은 수건을 담을 비닐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함. -c′t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 지지를 해주었으며 먼저 발표하기 위해 손을 들었던 행동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였음.	선택하기
12	9/15	**• 활동주제** -복지관에 오기 전 해야 하는 행동 및 학습준비물 선택하기 **• 관찰내용** -복지관에 오기 전 일어나자마자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 4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고르는 시간을 가졌으며 씻기를 선택하였음. -아침에 씻을 때 가장 먼저 씻는 부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c′t는 세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대답하여 세수하는 방법 및 양치, 머리감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평소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c′t에게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c′t는 평소 잘 되지 않았던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c′t가 위생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할 때마다 긍정적 지지를 해주었으며 어떤 위생관리 방법을 몸으로 설명하여 수업의 참여도를 높였음.	자기관리 선택하기
13	9/22	**• 활동주제** -카페 이용 시 메뉴선택하기 및 주문 실습하기 **• 관찰내용** -카페 메뉴판을 보여주고 본인이 희망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음. 선택한 메뉴의 가격을 찾고 총 금액을 알아본 후 역할극을 통해 카페 상황극을 진행하였음. -c′t가 자유롭게 역할극을 진행할 그룹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음.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룹원과 함께 역할극을 진행하였으며 연습시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선택하기

		-타 그룹원 앞에서 역할극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를 할 때에는 부끄러워 하였으나 역할극을 끝까지 진행하여 담당자가 긍정적 지지를 해주었음.	
14	10/6	**・활동주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알고 적절한 도움 요청법 익히기 **・관찰내용**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본인이 아플 때, 모르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등을 이야기 함.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묻자 도와달라고 이야기 한다고 함.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 일 때 도와주세요를 크게 외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함. -수업 시간 내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여 이야기했으며 담당자는 이에 대해 긍정적 지지를 해주어 c't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자기옹호
15	10/13	**・활동주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기관 및 주변인에 대해 알기, 도움요청 실습하기 **・관찰내용**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 기본적으로 경찰을 이야기 하였으며 그 외에 친구, 가족, 선생님 등에 대해 알려준 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때 누구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 묻자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답함. -상황에 맞는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불이 났을 때, 도둑을 만났을 때, 폭력을 당할 때 등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고 c't가 상황에 맞는 도움 요청법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기옹호

2. 사후 검사 결과

1)자기결정능력 검사

각 검사 영역은 자율성 15문항, 자기규칙 15문항, 심리적 역량 15문항, 자아실현 15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의 총점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결정능력이 높은 것이다.

검사 영역 중 자율성 영역 12점, 자기규칙 영역 12점, 심리적역량 영역 7점, 자아실현 영역 6점으로 총 37점으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 결과보다 7점이 향상되었으며 검사 영역 중 자기규칙 영역 점수가 제일 많이 향상되었음. 검사를 진행하면서 c't가 사전 검사에서보다 본인이 먼저 질문을 하거나 담당자의 지도가 없이 질문에 체크하는 등 자신감이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음.

Ⅴ. 결론 및 제언

본 사례연구는 자기결정능력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실시하였으며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자기결정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c′t가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감이 향상함에 따라 자기결정을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본 사례연구는 지적장애인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다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향상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20회기의 프로그램은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유의한 향상을 가져올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의한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세분화 하고 본 복지관 외에도 가정에서도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별첨 1. 자기결정능력검사지
2. 자기결정능력 향상 프로그램 활동지

별첨 1. 자기결정능력 검사지

자기결정능력 검사

이 질문지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자율성 영역	
1) 옷 고르기	
① 옷장 앞으로 가서 옷장을 연다.	
② 사이즈와 계절에 맞는 옷을 선택한다.	
③ 옷장안에 있는 상의를 골라서 빼낸다.	
④ 옷장안에 있는 하의를 골라서 빼낸다.	
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르 다듬는다.	
2) 방정리를 스스로 한다.	
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② 방에 널려진 물건을 주워 담는다.	
③ 빗자루를 가져와 쓴다.	
④ 쓰레받이로 쓰레기를 담는다.	
⑤ 깨끗한 걸레로 구석구석 닦는다.	
3) 필요한 물건 사기	
①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적는다.	
②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준비한다.	
③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으로 간다.	
④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맞는 돈을 지불한다.	
⑤ 거스름 돈을 돌려 받는다.	

2. 자기규칙	
1) 나는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 뜻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②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뜻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③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친구들의 뜻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④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의 뜻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상대의 뜻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2) 나는 친구들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쁘다고 말한다.	
① 친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편지나 문자로 불편함을 나타낸다.	
② 친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표정으로 불편함을 나타낸다.	
③ 친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행동으로 불편함을 나타낸다.	
④ 친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말이나 억양으로 불편함을 나타낸다.	
⑤ 친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편함을 나타낸다.	
3)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나는 가정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② 나는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③ 나는 아카데미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④ 나는 내가 원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심리적 역량	
1)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① 왜 좋은 성적을 얻지 못 했는지 생각해본다.	
②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방법들을 적고 생각해 본다.	
③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④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한다.	
⑤ 한두번 실패해도 계속해서 노력한다.	
2)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활동을 잘한다.	
① 혼자서 하는 활동보다는 여럿이 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② 친구들이 활동에 잘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내 것만 고집하지 않는다.	
④ 여러명이 함께 하는 활동과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	
⑤ 친구들과의 활동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양보한다.	
3)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	
① 새로온 친구와 함께 있어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다.	
② 새로운 친구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③ 새로운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챙겨준다.	
④ 새로운 친구와도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⑤ 새로운 친구와 짧은 시간에 친해질 수 있다.	

4. 자아실현	
1)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 일을 한다.	
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② 나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③ 나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④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⑤ 나는 계획에 실패했을 때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2) 나는 내가 무엇이든 잘 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	
② 나는 다양한 도전을 즐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③ 나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④ 나는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	
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성곡하고 결국은 잘된다고 생각한다.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 볼 때도 나는 나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다.	
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어색하지 않다.	
②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말을 더듬지 않는다.	
③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도 두렵지 않다.	
④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다 한다.	

별첨 2.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활동지

♥ 인권과 성 ♥

○ 나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해봅시다.

1.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3. 나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4. 나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5. 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려봅시다.

6.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7.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인권과 성 ♥

○ 어떤 표정인가요? 다음 표정을 따라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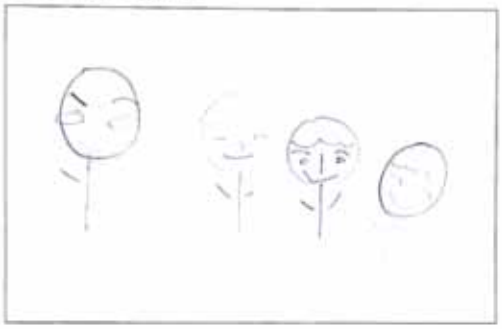
○ 상황에 맞는 표정을 그려봅시다.

1. 실수로 친구의 옷에 물을 흘렸어요.	2.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3.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오지 않아요.	4. 무서운 개가 내 다리를 물었어요.

○ 여러분의 표정 중에 가장 예쁜 표정은 무엇인가요?
예쁜 표정을 여러분의 얼굴로 표현해보세요~

♥ 인권과 성 ♥

○ 나의 가족을 그려봅시다.



○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 인권과 성 ♥

○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나요?

○ 우리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 인권과 성 ♥

날 짜 _____ 이 름 _____

○ 계단의 순을 맞추세요.

○ 손을 계단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인권과 성 ♥

○ 여행 준비물을 챙겨봅시다.

○ 여행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X 표시를 해보세요.

1. 선생님과 멀리 떨어져서 구경한다.	X
2. 같은 조원을 잘 챙긴다.	O
3. 신기한 것을 보면 꼭 먹어본다.	X
4. 재밌는 것을 보면 사진을 오랫동안 찍는다.	X

○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제주도

♥ 인권과 성 ♥

○ 일어나서 어제데이에 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① 씻기 ② 버스타기 ③ 운 엉기 ④ TV보기

○ 어제데이에 오기 전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 인권과 성 ♥

○ 메뉴를 골라봅시다.

Coffee		Drink		Dessert	
아메리카노	2000	오렌지스무디	6000	롱롱핫스	2000
카페라떼	3000	딸기스무디	6000	머니송	3000
바닐라라떼	3000	망고스무디	6000	허니브레드	7000
민하엔터테이너	3500	자몽에이드	9500	아이스크림	3500
카페모카	3500	복숭에이드	9500		
그적더라떼	4000	유자에이드	9500		
카푸치노	3000	초코밀스무디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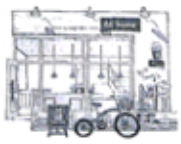
아메리카노 바닐라라떼

○ 본인이 고른 메뉴 가격은 얼마인가요?

2000 + 3000 = 5000

○ 직접 점원 역할극을 해봅시다.

- 계산점원 : ...
- 손 님 : ...



♥ 인권과 성 ♥

○ 도움을 요청해요.

○ 도와달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친구, 가족, 선생님, 경찰서, 119, 소방서, 경찰서

○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아봅시다.

119 112 남동경의인특가

사례연구 15-04

공예프로그램이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팀 명	가족문화지원
연구자	정다예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3. 5.~ 2015.11. 20. / 25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자기표현의 욕구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 중의 하나이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자기표현 욕구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표현 수단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이유로 인해 자폐성장애인들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으며 외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들이 빈약하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본인이 선택하여 상황과 사람들을 접촉하기보다, 가족이나 시설직원, 혹은 의도적인 방법에 의해 많은 부분 제한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폐성장애인들의 사회성 발달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자폐성장애가 심할수록 의사소통이 많이 떨어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교사와의 활동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감정과 행동의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며 성취감이나 동기유발을 형성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와의관계 뿐만 아니라 친구, 교사 등 사회적 관계 및 적응을 어렵게 하고 이는 또다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공예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감각활동 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공예품을 만들어 내면서 얻어지는 성취감으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공예프로그램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그룹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협동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활동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그룹원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이렇듯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예프로그램은 정서 안정 및 인지 발달, 신체적 발달과 사회성 향상, 창의력 유발, 두뇌 발달 그리고 표현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

최근 공예프로그램의 유용성이 제기 되면서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공예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예프로그램 연구 및 개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상 외부와 차단되고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인위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예프로그램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창의성 및 성취감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외부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성인평생교육 남동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사회·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폐성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공예능력을 익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예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c′t는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담당자에 대한 의존성이 저하 될 것이다.

둘째, 공예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c′t는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내적통제가 증가 될 것이다.

셋째, 공예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c′t는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그룹원과의 상호작용이 증가 될 것이다.

넷째, 공예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c′t는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안정감이 증가 될 것이다.

다섯째, 공예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c′t는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 할 것이다.

3.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본 연구의 대상자(이하 c′t)는 2011년 3월부터 남동아카데미 프로그램을 5년째 이용 중이다. c’ t가 남동아카데미 첫 이용 당시 작성된 초기면접지에 의하면 지원 동기로 ‘사회성 향상’ 을 꼽았으며,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는 ‘공예’ 라는 답변을 주었다. 이에 지금껏 남동아카데미 담당자는 c’ t에게 일상생활훈련 외에도 문화예술의 이해, 건강과 자기관리, 직업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성인기 장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장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c’ t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매년 이루어진 새로운 교과목 개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c’ t는 남동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수업에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업도중 손톱을 뜯거나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며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 이에 담당자가 c’ t의 행동을 자폐성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면 “이상해!”, “다른 생각하면 안 되지!” 라는 표현을 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본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으며, 쉬는 시간에는 주로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c’ t는 평소 손재주가 뛰어나 남동아카데미가 제공하는 도예, 한지공예, 가죽공예, 닥종이공예, 천연비누 등 공예수업에서 뛰어난 미적능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2015년도 새롭게 신설된 D.I.Y 수업을 통해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공예활동이 소근육 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성

사회성의 개념은 사람과의 맺어가는 관계로 정의된다(김혜진,2013). 즉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원활히 유지하는 능력이다. 아동기의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행동이 발달되는 과정을 말한다(최병숙,1988). 아동기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좋은 가족관계가 사회성 습득의 중요성으로 꼽히고 있다(경숙, 2007).

국내에서 사회성을 연구한 정범모(2002)의 사회성 요인을 살펴보면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으로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고안한 척도를 바탕으로하여 윤다혜(2011)가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6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로 축소하여 준법성, 사교성, 협동성, 자주성의 하위영역 척도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사례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할 사회성 척도 4가지 준법성, 사교성, 협동성, 자주성 요인 특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표1] 사회성 하위요인 특성

구분	사회성의 하위요인 특성
준법성	사회적인 규범이나 학교의 질서를 잘 지키고 집단생활에서의 도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사교성	다른 사람과 스스럼없이 친밀하게 지내며,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어려움 없이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다.
협동성	친구나 타인의 일을 옆에서 잘 도와주며, 집단활동에 또래와 잘 어울리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성	자신의 일을 스스로 계획, 실천하고 자기의 의견을 소신 있게 표현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이 사회성의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긍정적인 성취감을 도모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형성을 통해 어려움 없이 사회적으로 적응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2. 공예프로그램

1) 공예 프로그램의 개념 및 특성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와 개인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사람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면서 생활하는 인간다운 존재를 양성하는 것이 공예활동을 포함한 미술 교육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다.

공예활동이란 넓은 뜻으로 미술 또는 조형예술의 한 부문으로 옛날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서오던 용어로 활을 쏘는 것, 글씨를 쓰는 것, 물체의 형상을 그리거나 채색하는 것, 기물을 만드는 것 등으로 기를 단련하여 숙달한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이란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공예활동은 자기 돌보기, 일 그리고 독립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한 놀이 활동, 발달 강화의 장애예방에 대해 치료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최대한 독립성을 성취하기 위해 과제 또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공예 프로그램이 지니는 효과

첫째, 공예활동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내며 창조적이면서도 조형성이 매우 강한 활동이며,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냈다는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다.(정임영, 2011). 둘째, 공예활동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감정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활동으로 기분을 환기시키고 이완시키는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두려움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다. 셋째,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섬세하고 반복적인 소근육 운동능력을 향상시켜 모방, 지각, 큰 근육은동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발달시켜 줌으로써 신체적 치료효과를 증대시켜 준다.(한근석, 2007). 넷째, 공예활동은 스스로 작품 활동을 하고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시킬 수 있다. 공예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을 높이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예활동은 타그룹원들과 협동하고 격려, 칭찬의 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한다(김동연, 1995).

장애인에 있어서 공예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창의성 및 성취감을 고양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 자폐성장애인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남동아카데미에 재학중이다. 연구 대상자는 수년간 공예수업은 물론 일상생활훈련・사회성향상훈련・문화여가 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병행 해 왔다. 본 연구에 바탕이 되는 공예프로그램은 2015년 4월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1)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정지○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0.02.○5				
장애명	자폐성장애	급수	1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임광그대가APT ○동 ○호				
전화번호	032-472-20○		핸드폰	010-6784-22○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 t의 장애는 선천적이었으며, 생후 18개월경 자폐성향 진단을 받은 이후, 1997년 성모자애병원에서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다고 함. 신체발달은 정상적으로 발달하였으나 신변처리는 조금씩 늦었다고 함. 이후 2010년 서울신경정신과에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았다고 함.

c’ t는 2009년 3월 ~ 2011년 2월 본 관의 남동대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남동아카데미를 이용 중임.

c’ t는 1남 1녀 중 장남으로 부모.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부는 현재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모는 전업주부임. 모는 c’ t의 특성을 잘 알고 장애를 수용하고 있으나, c’ t의 활동 및 행동에 개입하여 지도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음. 평소 c’ t가 요구하는 것을 모가 해결해주지 못할 시에는 담당자가 대신하여 해주길 바라는 모습을 보임.

c’ t는 현재 아카데미 수업을 마친 후 제빵(매주 화요일) 및 풍물(매주 목요일) 수업을 받고 있으며, 수업이 없는 날에는 본관의 디딤돌 운동실을 이용하고 있음. 주말에는 모와 함께 공원산책 및 스포츠 활동, 쇼핑 등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편임.

(3) 주호소 내용

c’ t는 평소 쉬는 시간에 타인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핸드폰 게임을 함. 또한 수업도중 손톱을 뜯거나,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며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이에 담당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c’ t에게 주의를 주면 “이상해!”, “다른 생각하면 안 되지!” 라는 표현을 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

자신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으며 특정 그룹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 관찰됨. “○○과 사진찍고 싶어요”, “○○의 전화번호가 뭐예요” 등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며 특정 그룹원에게 관심을 표현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이 발생함에 따라, 담당자가 행동을 제지하면 그 순간에만 행동이 소거될 뿐 다시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

평소 c’ t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미적 감각이 있어 도예, 한지공예, 가죽공예, 닥종이공예 등 지금까지 아카데미에서 진행 된 공예수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바 있음. 이에, 공예수업을 통해 타그룹원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사회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1년 3월 7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아카데미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제빵(주1회), 풍물(주1회)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대상자 선정	2015. 03. 05	사례연구 대상자 모집단 선정
	2015. 03. 07	사례연구 대상자 선별 및 최종 대상자 선정
계획	2015. 03. 17	사례연구 계획서 작성
	2015. 03. 20	사례연구 계획서 수정
	2015. 03. 31	사례연구 계획서 제출
진행	2015. 04. 01 ~ 09. 23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세부관찰 및 개입 (리본공예, 가죽공예 외)
	2015. 07. 22 ~ 08. 10	사례연구 중간보고서 작성
	2015. 08. 31	사례연구 중간보고서 제출
정리	2015. 09. 02 ~ 10. 01	자문결과를 통한 관찰 및 개입 수정 / 개입
	2015. 10 .04 ~ 10. 17	만족도 조사 / 조사분석 / 만족도 결과 작성
결과 도출	2015. 10. 22 ~ 10. 28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작성
	2015. 11. 20	사례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공예활동이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 발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일 집단 사전·사후 반복 측정 설계로 연구가 진행되며 독립변인은 그룹공예활동이며 종속변인은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이다.

1) 사회성 검사 척도

사회성 검사는 정범모(1971)가 제작한 초등학교 인성검사지 중 사회성을 검사하기 위한 30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20문항을 선별 하였으며,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여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4개의 하위 척도가 있으며, 각 문항은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음으로 채점 된다.

아래 [표2]은 사회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성에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0.822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준법성0.686, 협동성 0.696, 사교성 0.608, 자주성 0.691로 나타났다.

[표2] 사회성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구성	신뢰도
준법성	3	1, 15, 20	0.686
협동성	5	4, 6, 8, 13, 19	0.696
사교성	8	2, 5, 7, 9, 12, 14, 16, 17	0.608
자주성	4	3, 10, 11, 18	0.691
계	20		0.822

2) 사회성 관찰기록 변화

공예활동을 통해 사회성 발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 발달 평정척도를 통하여 사전에 주 담당자인 사회복지사가 공예활동 일주일 전에 관찰하고 기록하며, 공예활동을 종결 한 후 관찰하고 기록한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정서적 검사에서 하위척도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빈도분석을 통하여 총 점수를 비교·분석한다.

Ⅳ. 연구 결과

1. 사례 진행 사항

1) 진행과정

구분 \ 일정		4/1	4/15	…	…	7/8	7/15	7/22	9/1	…	…	10/27	11/3
사전검사													
사업 진행	리본공예												
	비즈공예												
	가죽공예												
중간평가													
사후검사													

2) 세부관찰 및 개입

회기	관찰내용	작품사진
1회기	•사전검사 - 공예수업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사회성기능척도 사전검사를 실시함. - 사회성 검사 결과 분석 방법으로는 c’t의 사회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위요인을 분석하여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선별함.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자주성(1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교성(13점), 협동성(10점), 준법성(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점수는 46점으로 나타남. c’t의 사회성을 알아 본 결과는 [표3]과 같음. [표3] 대상자의 사회성에 대한 결과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c’t의 낮은 하위요인으	-

구분	하위변인	점수
사회성	준법성	7
	협동성	10
	사교성	13
	자주성	16
	계	46

	로는 준법성과 협동성인 것으로 나타남.	
2회기	**•리본공예 (플라워리본 머리끈 제작)** - 수업 시작 전, 담당자 및 그룹원과의 자기 소개 시간을 마련하여 간단한 본인 소개 후 수업에 임하는 각오나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함. 수업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는 그룹원들과는 달리, c’t는 이름, 나이를 소개하고 마무리 함. - 담당자가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옮길 것을 c’t에게 부탁하자, 크게 관심을 보이며 도와줌. 수업재료를 확인 후 “오늘 뭐해요.” 라고 담당자에게 언어적 표현을 하며, 수업에 흥미를 느낌. -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순서에 맞게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룹원들과 비교하여 작품제작 속도가 빠른 편임. - 수업을 마친 후, 첫 수업에 관한 소감을 묻자 “재미있어요.”, “또 하고 싶어요.” 라고 답함.	
3회기	**•리본공예 (아기자기한 플라워 집게핀 제작)** - 담당자가 ‘가장 빨리 손을 드는 사람’에게 재료의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손을 들지 않음. 그룹원들 및 담당자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손을 들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임. - 양면테이프를 붙이는 과정 중,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모습을 보임. 계속해서 테이프를 뗀다면 리본이 망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 번만 붙일 수 있도록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족 할 때까지 리본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모습을 보임.	
4회기	**•리본공예 (리본 볼륨 머리끈 제작)** - 리본공예 수업 재료를 c’t에게 주며 그룹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나, 본인 재료만 가져 올 뿐 그룹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음. 이에, A그룹원이 재료를 달라고 했을 때 본인의 재료를 뺀 나머지 재료를 모두 A그룹원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가 A그룹원에게 모든 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그룹원에게 한가지씩 재료를 나누어 주어야 함을 알려줌. 담당자의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고 그룹원들에게 재료를 나누어 줌.	

5회기	•**리본공예 (베이비 라인 집게핀 제작)** - 리본공예에 필요한 양면테이프를 자르는 과정을 c’ t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정확한 크기로 자르는 모습을 보임. - 소근육 활용이 어려운 B그룹원의 양면테이프를 c’ t가 잘라 줄 것을 지도하자, B그룹원의 테이프를 뺏는 듯이 가져가서 자르는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자가 “내가 도와줄게” 혹은 “도와주어도 될까?” 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상대방이 도와주어도 된다는 대답을 했을 때 도와주어야 함을 알려줌. - 담당자의 지도 후, B그룹원에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다시 물은 후에, 양면테이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임.	
6회기	•**리본공예 (삼각패턴 원단 집게핀 제작)** - 재료인 리본이 평소 사용하던 리본보다 두꺼워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음. 지속적으로 모양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임. 손가락으로 리본을 계속해서 스치는 상동행동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리본을 풀어 해치는 모습을 보임. - 담당자가 수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 손가락으로 리본을 스치는 행동의 빈도가 더욱 잦아짐. - 수업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작품을 마무리하지 못했더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공지함. c’ t는 본인의 작품을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했으며, 담당자가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 “아니오!” 라고 소리 지르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리치는 모습을 보임. - 수업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그룹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임을 설명함. 또한 담당자의 언어적촉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작품을 다시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함. 그룹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치는 행동은 수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어긴 것임을 설명함.	

7회기	•**리본공예 (깜찍이 볼륨머리끈 제작)** - 작품제작 마지막 과정에 '니퍼'를 사용하여 악세사리를 장식함. 처음 시도해 본 니퍼사용이 능숙하였으며, 올바른 위치에 악세사리를 장식함. - C그룹원이 c' t의 능숙한 니퍼사용 및 악세사리 장식과 관련하여 칭찬하자, "네!" 라고 대답함. - 수업에 참여한 모든 그룹원들에게 c' t의 제작품을 보이며 완성도가 가장 높은 제작품임을 설명하자,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	
8회기	•**리본공예 (카네이션 제작)** - 리본에 고정된 실을 잡아당겨 꽃 모양을 만드는 제작과정을 진행함. 이 과정에서 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게 잡아당기면 안된다는 점을 수업 전 강조함. - 꽃 모양을 만들던 중 c' t가 실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겨 실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함. 주어진 재료를 망가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작품을 제작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함. 이에 "아니오!" 라고 소리 지르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려 침. 담당자가 수업 시작 전 강조했던 사실을 다시 인식시키며 담당자의 공지를 듣지 못하고 제작품을 망친 것, 수업시간 중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친 점과 같은 c' t의 잘못 된 행동을 되짚음. - 홍분이 가라 앉은 후에 담당자에게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와 같은 사과의 표현을 함. 또한 "다시는 못 만들지", "더 만들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며 공예작품을 만들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냄.	
9회기	•**리본공예 (오트밀 도트 리본 집게핀 제작)** - 담당자가 수업 재료를 하나씩 모든 그룹원들에게 나눠 줄 것을 권유하자, 본인 옆 사람에게만 재료를 나눠 줌. A그룹원이 하나씩 모든 그룹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야 모든 그룹원들에게 재료를 하나씩 나눠줌. - 작품제작 마무리 후 담당자가 재료 및 도구를 교실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함. 담당자의 지시를 듣고 재료 및 도구를 교실로 옮김. - 제작품 완성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제작품의 사진을 찍고 싶다는 D그룹원의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에게 "사진 찍고싶어요" 라고 표현함.	

10회기	•**리본공예 (큐티 마름모 집게핀 제작)** - 작품제작 과정에서 리본의 실이 풀리는 일이 발생함. 담당자가 수업 시작 전, 리본의 실이 풀리더라도 잡아당기지 말고 그 즉시 담당자에게 알릴 것을 공지하였으나, c’ t는 실이 풀리자마자 잡아당김. 실이 풀리며 리본의 모양이 잡히지 않자, 매우 당황 해 하는 모습을 보임. - 담당자가 실을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며 바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임.	
11회기	•**리본공예 (버드 쉐도우 머리끈 제작)** - 지금까지 진행 되었던 리본공예 과정보다 비교적 단순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빠른 속도로 작품을 제작함. - 작품을 완성한 후 자발적으로 본인의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자가 스스로 자리를 정리·정돈 한 점을 칭찬하자, “네!” 라고 대답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	
12회기	•**리본공예 (밍크 진주 집게핀 제작)** - 작품제작 마지막 과정에 ‘글루건’을 사용하여 공예 재료인 밍크털 및 큐빅 악세사리를 스스로 붙여볼 수 있도록 함. 리본공예를 시작한 초반과 비교하여 글루건 사용이 능숙해짐. - 수업이 끝난 후, 담당자의 언어적 지시가 없어도 수업에 사용한 재료 및 도구를 교실로 옮김.	
13회기	•**리본공예 (3단 리본 머리끈 제작)** - 담당자가 제작과정을 예시로 보여주지 않고 언어적 표현으로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시함. 예시로 제작품을 보여 주었을 때보다는 속도가 더디지만, 담당자의 언어적 지시를 따라 순서에 맞게 작품을 제작함. - 제작품 완성 후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 작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임.	
14회기	•**비즈공예 (나뭇잎 장식 컬러팔찌 제작)** - 수업시작 전, 리본공예 수업이 아닌 비즈공예 수업을 진행한다고 공지함.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새로운 공예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큰 흥미를 느낌. - 그룹원들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구슬을 실에 꿰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의 지시가 없이도 구슬에 규칙성을 부과하여 자발적으로 모양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임. - 구슬의 크기가 작아 책상에서 떨어트리면	

	찾기가 어려워 본인의 재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업 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료를 떨어트리는 모습을 보임. 책상 밑으로 떨어진 구슬을 찾지 못하자 “어디 갔어요”, “선생님 구슬 없어요” 라고 다소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 - 본인의 재료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개인별로 재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진 구슬을 새로 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아니오!”, “구슬 찾아야지!” 라고 소리 지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	
15회기	**•비즈공예 (나뭇잎 장식 컬러팔찌 제작)** - 우레탄 줄을 구슬 안으로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함. 실이 구슬을 한 개만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슬 안에 실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임. - 본인이 만든 제작품은 본인이 착용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해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자 자발적으로 김◯◯ 사회복지사에게 선물함.	
16회기	**•가죽공예 (원형거울 제작-무늬 찍기 및 염색)** - 수업시작 전, 새롭게 가죽공예 수업이 진행될 것임을 공지함. 가죽공예 수업내용 및 방법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 c’t는 또다시 새로운 공예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큰 흥미를 느끼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임. - 제작품의 무늬를 판화 형식으로 찍어내는 과정을 위해 무늬판을 고를 수 있도록 지도함.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고르는 모습을 보임. - 염색과정에서 염색약이 c’t의 손에 묻음. 손에 묻은 염색약이 지워지지 않자 계속해서 손을 문지르며 크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가 지금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서 샤워를 하고 나면 지워질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손을 계속해서 만지는 모습을 보임. - 수업이 끝난 후 완성된 작품을 모아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짐. 줄을 서서 차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자가 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줄을 설 수 있도록 지도함.	

17회기	•가죽공예 (원형거울 제작-바느질 및 마무리) - 제작품의 가장자리에 구멍을 내고 그자리에 실을 끼워서 동일한 방향으로 바느질을 하는 작업이 진행됨. 그룹원들과 비교하여 작업을 정확히 해 냈으며,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작업을 마무리 함. - 소근육 활용이 어려운 C그룹원의 제작품의 바느질 작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도하였으며, C그룹원의 제작품을 말없이 가져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자가 그룹원을 돕기 전에는 도와주어도 되는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을 다시 강조하자,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며 C그룹원에게 물어보는 행동을 보임.	
18회기	•가죽공예 (삼각형 동전지갑 제작) - 담당자의 언어적 촉구 없이도 본인이 원하는 무늬판을 가져가서 무늬판화 과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임. - 이번 제작품에는 바느질과정이 없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바느질 없어", "바느질 해야지!" 라고하며 다소 흥분하여 큰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모양의 특성상 바느질 작업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켰으며, 수업시간에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함. - 제작품 완성 후 완성된 모든 제작품을 모아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짐. 차례로 줄서기는 잘 지켜졌으나, 사진을 찍지 않고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행동을 보임.	
19회기	•가죽공예 (카드지갑 제작-무늬찍기 및 염색) - 지난시간과 동일한 무늬판을 선택하여, 새로운 무늬판을 고를 수 있도록 지도하자 "새로운걸 골라야지!" 하며 담당자의 언어적 지시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의 말을 따라하지 않을 것을 당부함. - E그룹원과 동일한 색상으로 염색약을 선택함. 염색약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E그룹원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줌. 또한 한 번씩 번갈아가며 사용 할 것을 당부함. 담당자의 언어적 지시를 따르며 E그룹원이 염색약을 사용한 후에 염색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임. - 한 부분만 지속적으로 염색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염색약이 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0회기	•가죽공예 (카드지갑 제작-바느질 및 마무리)	

	- 수업 시작 전, “선생님 바느질 하고 싶어요” 라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며 바느질 과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임. - 작품제작 마무리 후 수업에 사용한 재료 및 도구를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담당자의 지시 없이 완성된 제작품 및 도구를 교실로 옮김.	
21회기	**•가죽공예 (다이어리형 카드지갑 제작 -무늬찍기 및 염색)** - 그룹원들과 달리 c't에게만 두 가지 색을 혼합해서 염색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을 알려줌. 본인만 두 가지 색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아 구강기 자극을 통한 상동행동을 보임. - 담당자가 두 가지 색을 사용한다면 c’ t의 제작품과 잘 어울릴 것이며, c’ t가 염색과정을 가장 잘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색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려주며 칭찬하자, 상동행동을 멈춤.	
22회기	**•가죽공예 (다이어리형 카드지갑 제작 -바느질 및 마무리)** - 본인의 제작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함. 소근육 활용이 어려운 C그룹원이 c't에게 ‘ 본인의 제작품을 마무리 해줄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부탁하자, “네!” 라고 대답하며 즉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임. - 작품제작 마무리 후 수업에 사용한 재료 및 도구를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담당자의 지시 없이 완성된 제작품 및 도구를 교실로 옮김.	
23회기	**•가죽공예 (지퍼지갑 제작-무늬찍기 및 염색)** - 본인이 사용할 무늬판을 고른 후, 그룹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무늬판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임. - 염색과정을 진행하는 도중 염색약을 엎지름. 이에, 담당자가 항상 염색약의 뚜껑을 닫아 놓아야 함을 알려주었으나, c’ t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함. 본인의 실수를 지적하자 “아니오!”, “뚜껑 닫아야지!” 라고 크게 소리지르며 구강기 자극을 통한 상동행동을 지속함. - 본인이 엎지른 염색약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함. 휴지 및 걸레를 사용하여 정리함.	
24회기	**•가죽공예 (지퍼지갑 제작 - 바느질 및 마무리)** - 소근육 활용이 어려운 C그룹원의 제작품을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임.	

<table>
<tr><td></td><td>- 수업을 마무리 한 후 지금까지 진행 된 공예수업에 관한 소감을 묻자, “재미 있었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함. 가장 재미있었던 공예는 무엇인지 묻자 “리본공예”라고 대답함.
- 수업이 끝난 후, 수업에 사용한 재료 및 도구를 자발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완성된 제작품 및 도구를 교실로 옮김.</td><td></td></tr>
<tr><td>25회기</td><td>•사후검사
- 사회성기능척도 사후검사를 실시함.
- 사회성 검사 결과
분석 방법으로는 c’t의 사회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위요인을 분석하여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선별함.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사교성(2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협동성(21점), 자주성(16점), 준법성(1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점수는 78점으로 나타남. c’t의 사회성을 알아 본 결과는 [표4]과 같음.

[표4] 대상자의 사회성에 대한 결과
<table><tr><th>구분</th><th>하위변인</th><th>점수</th></tr><tr><td rowspan="5">사회성</td><td>준법성</td><td>13</td></tr><tr><td>협동성</td><td>21</td></tr><tr><td>사교성</td><td>28</td></tr><tr><td>자주성</td><td>16</td></tr><tr><td>계</td><td>78</td></tr></table>
사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c’t의 낮은 하위요인으로는 준법성과 협동성에서 준법성과 자주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성 및 협동성 점수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td><td>-</td></tr>
</table>

3) 최종평가

(1) 사회성 발달 변화

c’t는 초기에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행동을 지적했을 때 박수를 치거나 벽을 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제작품을 완성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과제에 집중하였으며, 그룹원들의 제작품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작품 활동에 있어 담당자의 언어적 지시에 의존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언어적 지시가 없이도 제작품을 완성하였다. 종결에는 수업재료 및 도구를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타그룹원의 제작품 완성을 도와주는 등 활기찬 활동을 하였다. 그룹공예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담당자의 언어적 지시 없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재료 및 도구를 정리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담당자에 대

한 의존성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그룹원의 제작품 완성을 돕거나, 그룹원들의 칭찬을 듣고 기뻐하는 등 그룹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되었다. 또한 재료 및 작품제작과정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완성한 제작품에 만족해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리본공예 외 다양한 공예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작품제작에의 호기심을 증가시켰다.

이상으로 종합해 보면 그룹공예프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당자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켰으며,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 하며 자발적으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호기심을 갖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사전-사후 검사지 비교

아래 [표5]는 대상자의 사회성 발달 검사 사전-사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전검사 결과에서는 자주성(1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교성(13점), 협동성(10점), 준법성(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점수는 46점으로 채점되었다. 반면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사교성(2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협동성(21점), 자주성(16점), 준법성(1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점수는 78점으로 채점되었다.

[표5] 대상자의 사회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비교

구분	하위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감
사회성 검사	준법성	7	13	+6
	협동성	10	21	+11
	사교성	13	28	+12
	자주성	16	16	-
합계		**46**	**78**	**+32**

4개의 하위변인 중,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은 사전검사와 비교하여 각각 +6점, +11점 +12점으로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자주성” 의 항목만 점수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사전검사에서는 “자주성(16점)” 의 항목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사교성(21점)” 의 항목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사회성 발달 사전-사후검사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사후검사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공예프로그램이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성인평생교육 남동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사회·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예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석이 대상자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유의미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성과 공예프로그램에 대해서 찾아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및 개입방법, 연구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정범모(1971)가 제작한 초등학교 인성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20문항을 선별 하였으며,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평정방법은 각 문항별로 검사자가 피검사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5점 Liket척도에 표기하였다.

사회성 발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사후 사회성 검사, 회기별 관찰기록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대상자의 언어와 행동적 특징을 분석하여 검사결과의 유의미한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성을 적용한 그룹공예프로그램은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 발달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요인(준법성, 협동성, 사교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성을 적용한 그룹공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언어, 행동 등을 분석 한 결과 사회적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변화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질적 분석인 회기별 관찰기록을 통해 연구대상의 사회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해 보면 그룹공예프로그램은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에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와 같은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심리적인 접근의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붙임1. 사회성검사(사전검사)_2015.04.01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에 V 표시 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킨다.			√		
2. 그룹원은 나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3.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낸다.					√
4. 활동을 할 때, 그룹원과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좋다.		√			
5. 공예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다른 모든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		√			
6. 그룹원과 함께 활동할 때 마음이 상해도 참고 활동한다.			√		
7. 그룹원이 벌을 받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놀리지 않는다.	√				
8. 그룹원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기쁘다.			√		
9. 새 그룹원이 반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보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먼저 다가간다.		√			
10.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주장을 한다.			√		
11. 생활계획표를 짜서 계획에 맞게 하루의 내 생활을 한다.			√		
12. 내 잘못에 대해 그룹원이 지적해주면 고맙게 생각한다.		√			
13. 청소시간에 담당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대충 청소하지 않는다.	√				
14. 그룹원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	√				
15. 수업시간에 큰소리로 떠들고 싶지만 규칙을 잘 지킨다.			√		
16. 그룹원들과 모여서 함께 자주 논다.	√				
17. 그룹원이 선생님과 상담중이면 기다려서 함께 귀가한다.	√				
18. 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다.					√
19. 수업시간 외에 과제를 수행 할 때 그룹원과 같이 할 때가 많다.	√				
20.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찻길을 건너지 않는다.	√				

붙임2. 사회성검사(사후검사)_2015.11.03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에 V 표시 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킨다.				√	
2. 그룹원은 나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3.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낸다.					√
4. 활동을 할 때, 그룹원과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좋다.				√	
5. 공예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다른 모든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				√	
6. 그룹원과 함께 활동할 때 마음이 상해도 참고 활동한다.				√	
7. 그룹원이 벌을 받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놀리지 않는다.					√
8. 그룹원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기쁘다.				√	
9. 새 그룹원이 반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보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먼저 다가간다.		√			
10.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주장을 한다.			√		
11. 생활계획표를 짜서 계획에 맞게 하루의 내 생활을 한다.					√
12. 내 잘못에 대해 그룹원이 지적해주면 고맙게 생각한다.			√		
13. 청소시간에 담당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대충 청소하지 않는다.					√
14. 그룹원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				√	
15. 수업시간에 큰소리로 떠들고 싶지만 규칙을 잘 지킨다.				√	
16. 그룹원들과 모여서 함께 자주 논다.			√		
17. 그룹원이 선생님과 상담중이면 기다려서 함께 귀가한다.			√		
18. 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다.			√		
19. 수업시간 외에 과제를 수행 할 때 그룹원과 같이 할 때가 많다.				√	
20.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찻길을 건너지 않는다.					√

사례연구 15-05

PIE 체계를 활용한 사정과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개별 사례 사정과 개입을 중심으로)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연구자	김진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1.12.~ 2015.11.20. / 총39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정신보건 세팅에서 사정은 주로 심리사회적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에서 구조화된 개입을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심리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개입을 형식화하기 위한 도구로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계획수립과 개입을 위한 통합적 선행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사정에는 기본 인적사항, 의뢰과정과 주 호소, 현 병력 및 현 문제, 과거력, 정신상태검사, 자살 사고 및 시도에 대한 평가, 개인력, 전반적 기능, 가족력, 심리사회적 문제(영역-일차집단과의 문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 교육적 문제, 직업적 문제, 주거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문제의 우선순위, 문제해결을 위한 강점 및 약점 사정, 활용 가능한 자원체계, 개입 목표 및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사회적사정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처함 심리사회적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체계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며, 그에 따른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 그에 적합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의 결과가 장황한 서술로 보고하고 있어, 다소 비효율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과정에서 훈련되지 못 한 사회복지사들은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덜 초점화 된 평가는 결국 덜 초점화 된 그래서 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귀착 될 수 있다(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제임스칼스.카린 완드레이 편저, 나남출판).

실제로 본 시설에서는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에서 사용하는 심리사회적 사정에 준하여 보다 간소화된 형식으로 사정을 하고, 이후 사례관리 과정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개입, 평가에서 서술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장황한 서술로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전체를 다 읽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정과 개입의 연결성이 부족하고, 환경 속의 개인이라는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PIE를 활용한 사정과 개입으로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IE는 통합된 실천모델로서는 가장 잘 설명된 체계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복잡한 전체의 문제가 제시되고 개입을 위한 표적의 포괄적 범위도 제시하고 있다. 사회사업의 핵심적인 개인과 환경에 관한 내용과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PIE를 통해 사정과 개입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증상보다 사회적 기능 중심, 약점보다는 강점 중심, 통합적인 심리사회적 사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간주할 수 있다(정신보건

사회복지 실천방법, 권진숙.김정진.전석균.성준모, 공동체).

나.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PIE 체계를 활용한 사정과 개입에 관한 효과성 검증**이다.

이에 따른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째로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 : PIE)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정**할 수 있다.

둘째는 **사정과 일치된** 개인과 환경에 적절히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셋째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기능수행의 문제사정과 개입계획을 위한 **표준화 작업**으로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PIE 체계의 구조와 매뉴얼 사용법 중심으로 개념과 PIE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PIE체계의 구조

PIE는 클라이언트가 경함하는 사회적 기능수행 문제를 상정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법을 제공한다. 기관에서 사용할 때, PIE는 그 세팅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일치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기술한다.

PIE체계는 클라이언트를 요소라 불리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기술되도록 한다. 그 각 요소는 상이한 수준의 정보군(群)을 일컫는다. 최상의 유용성을 갖는 분류체계가 되기 우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적절히 그려낼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그 기술이 개입계획을 세우는 데 혼돈 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PIE체계는 네 가지 요소를 갖는다. 처음 두 가지 요소는 사회사업의 핵심적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두 가지 요소는 타 전문직의 분류작업을 사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요소 모두는 클라이언트 문제에 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하다.

▣ PIE체계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기술한다.

요소 Ⅰ 사회적 기능수행 문제, 유형, 정도, 지속기간, 대처능력 요소 Ⅱ 환경문제, 정도, 지속기간 요소 Ⅲ 정신건강 문제 요소 Ⅳ 신체건강 문제

2. 매뉴얼 사용법

PIE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회복지 실천가는 요소Ⅰ과 요소Ⅱ에 있는 문제영역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요소Ⅰ는 네 가지 사회적 역할 영역과 아홉 가지의 흔히 발생하는 상호작용 문제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먼저 사회적 역할문제들과 유형들을 설명하고 예시한 후, PIE체계에서 사용하는 환경을 개념화하여 설명한다. 환경 속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6개 하위체계군이 사용되며, 그 후에 설명되는 심각성, 지속기간, 그리고 대처지표의 사용법을 읽으면 요소Ⅰ과 요소Ⅱ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서술설명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일관성 있고 요약된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숫자로 부호화하는 것도 소개한다.

▣ PIE 체계 매뉴얼 사용에 따른 일반 지침

.각 요소마다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서술되면, 그것을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설명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 하는 여러 시점(인테이크, 초기, 중기, 또는 종결 시점)에서 할 수 있으며 설명의 내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각 요소마다 확인된 문제를 모두 다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호화 체계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개입 초점을 명료화하는데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수행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가가 네 가지 이상의 문제를 기록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문제의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혹시 사정 당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사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문제라고 규명한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매뉴얼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양식(form)으로 성인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문제를 부호화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여기에서 성인이란 18세 이상인 자 또는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미성년자를 말한다.

.부호체계의 사용은 문제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부호화 체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문제의 서술에 숙달되어야 한다.

1) 요소 Ⅰ: 사회적 역할문제의 규명

사회복지 실천가는 사정 시 규명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기능수행 문제들을 요소Ⅰ에 기록해야 한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서술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 7단계를 따라야 한다.

①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 역할들을 규명한다. 만일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 문제 또는 제시된 문제를 명시한다.

② 각 문제의 유형을 규명한다.

③ 적절한 사회적 역할과 유형보호를 찾는다.

④ 심각성 정도를 결정해서 부호화한다.

⑤ 지속기간을 결정하고 부호화한다.

⑥ 대처 정도를 결정해서 부호화한다.

⑦ 요소Ⅰ에서 추가로 규명되는 사회적 역할문제들이 있다면 문제 각각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2) 요소 Ⅱ : 환경문제의 규명

요소 Ⅱ에서 사회복지사는 환경문제들을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서 환경문제라 함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내 사회제도 상의 문제를 말한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서술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 6단계를 따라야 한다.

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회체계를 규명한다.

② 환경문제가 존재하는 사회체계내의 하위부분을 규명한다.

③ 해당되는 하위부분 중에서 특정한 환경문제를 규명한다.

④ 문제의 심각성을 결정하여 부호화한다.

⑤ 문제의 지속기간을 결정하고 부호화한다.

⑥ 요소Ⅱ에서 추가로 규명되는 환경문제가 있다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

3) 요소 Ⅲ : 정신건강 문제의 규명

사회복지사는 요소Ⅲ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최근의 정신적 장애나 상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기록한다. 그와 같은 상태들은 DSM-Ⅳ의 축Ⅰ과 Ⅱ에 목록화되어 있다.

4) 요소 Ⅳ : 신체건강 문제의 규명

사회복지사는 요소Ⅳ에 관리되어야 하거나 이해되어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최근의 신체적 장애 또는 상태를 기록한다. 사회복지사가 ICD-9-CM에서 사용되는 부호와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ICD-9-CM를 참고할 수

없다면, 신체적 장애를 보통 사용하는 용어로 서술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는 신체적 장애나 상태에 해당되는 정보의 출처를 기록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보고에 의하면” 또는 “의사 X의 보고에 의하면”과 같이 정보의 출처를 기록한다.

5) 기타 고려사항

사회복지사가 한 요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규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요청하게 한 주요 문제를 일차적 문제로 명시해야 한다. 일차적 문제는 요소Ⅰ에서도 요소Ⅱ에서도 규명될 수 있다. 만일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제시된 문제가 일차적 문제가 아니라면, 사회복지사는 두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역할문제를 열거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 불확실성의 정도를 명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서술 끝에 ‘잠정적’이라고 덧붙인다.

어떤 경우에는 사정이나 평가를 통해 문제목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목록화하는 것을 연기(요소Ⅰ 9999.999 문제 목록화 연기)하고자 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요소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음(요소Ⅰ 0000.000 문제없음)으로 부호화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변○○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64.04.15				
장애명	정신장애	급수	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전화번호	032) 423-○○○○		핸드폰	010-41○○-○○○○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

.장애발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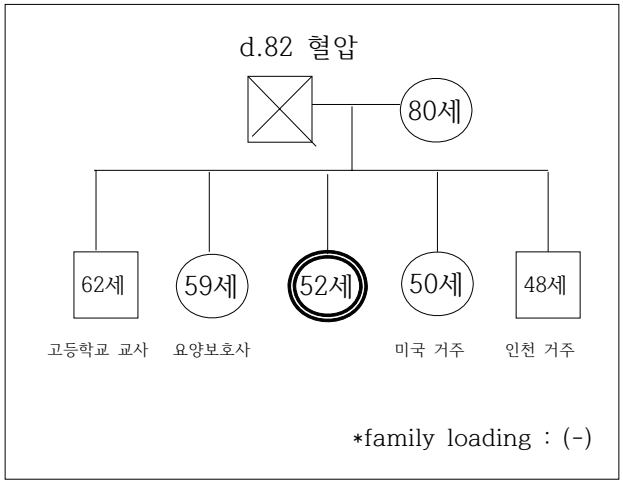
2남 3녀 중 셋째로 인천에서 출생. 성장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나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혼수상태가 되어 뇌수종 진단으로 두 차례 뇌수술 받았다고 함. 수술 후 당시 주치의는 뇌에 기생충이 있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 했다고 함. 수술 이후 건망증이 생겼고, 고등학교도 1년 늦게 입학하여 적

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집과 성당모임에만 참여하며 지내다가 2006년 주치의 소개로 본 시설 이용 시작함.

.가족관계

관계	나이	결혼 여부 및 거주지	c't와의 관계 및 내용
아버지	사망	-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고, 자상한 편이었다고 함. 82년도 혈압으로 사망
어머니	80세	c't와 동거	연로하여 건강상의 문제 발생하여 치료받으심. 최근 가정 내에서 쓰러지신 적 있음. c't의 증상 및 행동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며 대화 및 감정 전달이 다소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갈등상황 빈번하며 c't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음. 가족상담 실시
오빠	62세	기혼/ c't와 동거	고등학교 교사. c't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가족 구성원임. 올해 여름 정년을 앞두고 있으며, 배우자는 강원도 홍천에서 생활하고 있고, 퇴임 후 강원도에 가서 같이 생활 할 예정임. 아들은 결혼하여 며느리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c't와 母, 홍천 집, 아들 세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함. 가족 상담 실시.
언니	59세	기혼/ 인천	요양보호사. c't에게 실질적인 정서적 및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편이나, 간헐적으로 c't가 전화 연락을 시도하며
여동생	50세	기혼/ 미국	남편은 인하대 교수로 근무하며, 자녀들 교육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함. 스튜어디스로 근무 후 육아와 가정살림으로 일을 그만 둠.
남동생	48세	기혼/ 인천	가까이에서 지내며, c't에 대한 가족 상담 실시 될 때 남동생 및 배우자(c't 올케)와 진행 됨. 올케는 보다 객관적으로 c't를 평가하려고 하면서도 긍정적 인지지 체계로서 노력하려고 함. 가족상담 실시. 과거 c't와 母와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함.

.가계도



나. 서비스 이용현황

시설 등록일	2006.3.21.~현재 (이용기간 :9년)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
정신과 치료	**정신과의원

▣ 치료 및 재활과정

①**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 (주5일, 10시~15시)

사회성, 여가, 교육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참여함. 프로그램 시 발표 및 질문 등을 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및 취업에 대한 욕구 보이며 훈련에 대한 시도를 하기도 함.

②**출결상황** : 지각 및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이용하는 편이었으나 2015년도 간헐적인 지각과 일주일 혹은 며칠 동안 결근하는 경우 발생함.

③**대인관계** : 갈등상황에서 대화로 자신의 감정 및 의견을 전달하기보다 대화를 차단, 회피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경향이 컸음. 이에 자신의 감정 및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④**사회기술** : 화장실 이용, 외부 활동 시 이동 상황에서 소요시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길어 전체 회원들이 c't를 기다리는 횟수 빈번함. 독립수행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편이나, 스스로는 개인의 능력보다 더 잘 한다고 생각하며,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이 있음

⑤**위생 및 건강관리** : 손 씻기 및 깨끗한 의복 착용 등의 개인 위생관리 능력 있으며 단정한 편임. 그러나 시설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잘 씻지 않아 가족들의 불평 있음. 개인 사물함의 경우 많은 물건을 보관하지만, 나름의 규칙을 갖고 정리 정돈하여 사용함.

⑥**정신과 치료 상황** : 4주 1회 외래치료(**정신과의원)

- 주치의 소견서 내용 (2015년 3월 9일)

진단명	psychotic Disorder	자살시도 경험 및 위험성	시도 경험 : 없음 자살위험성 : 없음
잔류증상 및 문제점	피해사고 단기기억력 장애(경증)	공격성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복용약물 종류 및 용량	아빌리파이 2mg 트라진 25mg (취침 전 1회)	신체질환	있다(뇌병변/ 수술)
약물치료 협조정도	본인 : 양호 가족 : 양호	인지 및 학습능력 정도	부족함
사회적응 장애요인	불평, 피해사고, 요구사항 높음	주치의와 관계	양호

2. 연구일정

구분 및 내용	진행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상자 선정	●									
목표 설정		●								
사례연구 계획서 작성			●							
PIE 체계 스터디			●	●						
PIE 체계 활용 사정				●						
합의된 목표와 PIE 사정 후 목표 비교/ 재합의 (구체적 사정)				●						
목표에 따른 사례 개입				●	●	●	●	●	●	●
PIE 활용 사례 정보 수집 (일반)				●	●					
PIE 활용 사례 정보 수집 (정신보건 영역)					●	●				
클라이언트와 목표 달성정도 및 PIE 체계 활용에 대한 평가 (일관된 개입)							●			●
사례연구 중간보고서 작성								●		
시설 내 PIE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사례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구분	수집 및 분석 방법
클라이언트의 사정	개별 상담
PIE 활용 사례	논문, 전문 서적 등
PIE 매뉴얼	논문, 전문 서적 등
PIE 활용에 대한 평가	클라이언트 개별 면담/ 실무자 회의

Ⅳ. 연구 결과

1. PIE 분석

사정 결과	내용
요소 Ⅰ 사회적	
1320.415 **자녀역할 문제, 양가감정형, 심각성 높음, 5년 이상 지속, 부적절한 대처 능력**	母는 c't의 보호자로 오랜 시간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음. 동거 가족구성원으로서 c't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족한 능력 및 태도로 인한 갈등 상황 빈번함. 예를 들어 c't가 52세이지만, 가정 내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c't 스스로 독립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母가 해 줌. 또한 샤워 시 약 90분 이상 소요되고, 행동이 느리고 기억을 잘 못 하는 등의 어려움 있음. 이에 대한 c't는 母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크게 느끼고 있음. 母와 갈등상황으로 c't는 더 씻지 않고 집 밖에 나오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화를 표출하면서 시설 결근으로 연결됨.
1460.313 **형제역할 문제, 고립형, 심각성 보통, 5년 이상 지속, 보통의 대처 능력**	5남매로 c't를 제외하고 모두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음. 가족 모임 시 오빠와 남동생, 언니와 시누이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음. c't가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옆에 가면 나누던 대화가 끊기거나 c't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고 함. 섭섭한 마음이 들 때면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라고 함(감정표현 시 형제들을 비난, 비꼬는 말을 하거나 방에 문들 닫고 들어가 안 나온다고 함). 母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형제들에게 짐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있음.
2480.314 **구성원으로서 문제, 혼합형, 심각성 보통, 5년 이상 지속, 다소 부적절한 대처 능력**	시설 동료 회원들과 10년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회원들과 갈등상황 발생됨. 갈등 시 반응으로 c't는 상대방 옆에서 비꼬거나 비하하는 발언, 눈을 흘겨보는 등의 태도 발생됨. 이를 확인 중재하기 위한 상담 시에도 방어하는 태도보이며 차단하여 원활한 상담 진행에 어려움 있었음.

요소 Ⅱ 환경 문제	
5101.22 **규칙적인 식사 미흡, 낮은 심각성, 1~5년 정도 지속**	12년부터 시설 식당 이용 시 문제 발생하여 점심식사를 간단하게 집에서 과일, 떡, 빵 등을 챙겨 와서 먹고 있음. (문제 상황 : 복지관 식당 이용하고 있음. 복지관은 직원 및 복지관 이용자 약200여 명 매일 식사를 하고 있음. 이에 팀별 식사 시간을 배정하여 식사하고 있으며, 하루 식비 2,500원 정도 지불하고 있음. 이에 식당에서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식사를 준비하여 한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 양을 먹고 싶은 대로 여러 번 많이 가져가는 것을 자제하는 상황임. 그럴 경우 반찬이 부족하여 못 먹는 경우가 발생됨. 그러나 c't가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여러 번 담아가는 것에 대해 식당 영양사 선생님과 마찰 생기면서 c't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게 됨) 또한 식탐이 많아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고, 집착하는 경우 있음.
5302.31 **실직(지역사회 적절한 일자리 없음)문제, 보통수준의 심각성, 5년 이상 지속**	52세인 c't는 현재까지 취업 경험이 없음. 본 시설에서 취업관련 내.외부 훈련 제공하였으나, 느린 작업수행 능력, 낮은 이해력, 대인관계 갈등 등으로 지속적인 훈련 불가능했으며, 취업 시도까지 연결되지 못 함.
6102.32 **연령에 적절한 교육 및 훈련시설의 부족 문제, 심각성 보통, 1~5년 정도 지속**	연로한 母가 돌아가신 후 c't의 생활에 대한 준비 필요함. 현재는 母와 지내면서 갈등 발생되지만 부모-자식 관계로 지원이 단절되지 않음. 그러나 독거 생활을 할 시 의식주 해결에 대한 문제, 형제들과 지낼 시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 등이 예상되어 최소한의 독립수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그러나 c't의 현재 나이가 너무 많고, c't의 일상생활 능력으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다른 입소한 회원 및 실무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예: 화장실 사용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 보통 주거시설은 화장실 1개로 4~5명이 사용).

10102.51 **정서적 지지체계가 c't의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 한 문제, 매우 높은 심각성, 5년 이상 지속**	c't는 가족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c't와 가족은 모두 서로에게 언행으로 상처를 주기도하고 받기도 하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c't가 시설에서 보이는 언행은 가정 내에서도 동일하다고 함.

2. 개입 과정 및 변화

사정 결과	개입 과정 및 변화/ 계획	
①1320.415 자녀역할 문제, 양가감정형, 심각성 높음, 5년 이상 지속, 부적절한 대처능력 ②1460.313 형제역할 문제, 고립형, 심각성 보통, 5년 이상 지속, 보통의 대처 능력 ③2480.314 구성원으로서 문제, 혼합형, 심각성 보통, 5년 이상 지속, 다소 부적절한 대처 능력 ④10102.51 정서적 지지체계가 c't의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 한 문제, **매우 높은 심각성**, 5년 이상 지속 ④6102.32 연령에 적절한 교육 및 훈련시설의 부족 문제, 심각성 보통, 1~5년 정도 지속	개입 및 변화	사회적 역할(자녀, 형제, 구성원)과 환경적 문제(정서적 문제, 적절한 교육 및 훈련시설의 부족 문제)이지만, 그 원인으로는 c't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평가됨. 때문에 가족 및 동료 회원들과 잦은 갈등, 갈등 시 나타나는 양상이 동일함. 이에 c't의 **'자기인식→행동변화' 양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자 사례개입 함. ① 개별상담 1단계 c't의 마음 읽어주기 → c't의 노력, 감정 수용/ 사례관리자의 c't에 대한 신뢰감 전달 2단계 c't에 대한 객관적 평가 → c't의 언행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상대방의 감정, 입장 이해하기 ② 가족상담 - 가정방문하여 母와 상담(c't의 노력, 긍정적인 변화 전달, c't에 대한 감정 확인) - c't에게 母의 c't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전달 → 상호간의 긍정적인 감정 및 평가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신뢰 및 감사 ③ 시설 내 c't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 동료 회원들과 갈등 시 c't의 노력에 대한 전달, 변화, 과정 중에 대해 알리고,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을 부탁. - c't 또한 감정적 혹은 부적절한 대처(상대방 비꼬기, 일방적인 비난하기)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100%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갈등 빈도 및 정도 감소됨. 뿐만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에 대한 다짐을 하는 모습 관찰됨.

	향후 계획	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 가정 내 생활 : 샤워 시간 단축, 식사 및 청소 등의 독립 수행 능력 향상 ② 대인관계 개선 - 가족 : 가족에 대한 문제 심각성 및 대처능력 향상(PIE 기준으로 비교/가족의 평가) - 회원 : 갈등에 대한 빈도 감소, 회원들의 평가
①5302.31 실직(지역사회 적절한 일자리 없음)문제, 보통수준의 심각성, 5년 이상 지속	개입 및 변화	① 직업재활훈련 참여 - 상반기 직업재활훈련 조건부 합격하여 참여. 그러나 과거와 유사하게 작업량, 대인관계 갈등 발생함. → 작업 태도 및 다른 동료회원들과 갈등으로 인해 c't는 母와 논의 후 자발적으로 직업재활훈련 포기함. 객관적인 자기인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c't 나름대로 하기 시작함.
	향후 계획	① 경제관념 수립 - c't의 현재 연령, 직업능력 및 대인관계 측면에서 취업 시도보다는 향후 독거생활을 대비하여 은행업무, 지출 내역 등에 대한 관리 능력 점검 및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①5101.22 규칙적인 식사 미흡, 낮은 심각성, 1~5년 정도 지속	개입 및 변화	① 규칙적인 식생활에 대한 필요성 확인 - 상담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위한 규칙적인 식사의 필요성 확인. 최근 체중 증가에 따른 운동 및 식이조절 필요성 확인 → 과체중으로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로 체중조절해 오고 있음. 과거에 비해 체중 감량 되었으나 여전히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근 다시 증가됨.
	향후 계획	① 점심 식사 - 복지관 식사 or 도시락 준비에 대한 개입 - 복지관 식사 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점검 및 목표 수립 - 도시락 준비 시 c't 스스로 밑반찬 준비와 설거지 등으로 일상생활능력 향상으로 더불어 계획하기

Ⅴ. 결론 및 제언

1. 목표 달성 및 평가

PIE 체계를 활용한 사정과 개입에 관한 효과성 검증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른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목표 1.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 : PIE)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목표에 대한 평가로는 PIE 체계에 의한 사정을 통해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었고, 심각성의 수준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c’ t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은 ‘정서적 지지체계가 c’ t의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 한 문제’ 임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심각성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자녀역할, 형제역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서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두 5년 이상 지속기간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c’ t 개인의 문제라고 평가되어졌던 측면이 사회적 기능 수행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목표 2. **사정과 일치된** 개인과 환경에 적절히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평가는 c’ t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써 다양한 접근이 가능했다. 개인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측면이 ‘환경 속의 개인’ 이라는 측면에서 c’ t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는 가족, 주치의, 시설 내 실무자, 동료 회원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 물론 그 대상에 따라 개입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c’ t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대상과 그 대상들에게 c’ t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존중하는 태도의 실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c’ t의 직면한 어려움 자체가 정서적지지 및 역할에 대한 것으로 단순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1년 이라는 시간동안 해결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인문과학의 특성 상 관계의 본질, 양상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맥락 안에서의 c’ t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목표 3. 클라이언트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기능수행의 문제사정과 개입계획을 위한 **표준화 작업**으로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에 대한 평가로는 증상보다 사회적 기능 중심, 약점 보다는 강점 중

심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정신보건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질환 중심으로 병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조절 및 통제 능력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의 필요성에 따라 행동할 때 지나친 운동으로 수술 할 정도로 다친 경험이 있다. 적절한 수준과 횟수 등의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개인의 문제라고 사정하기보다, 그에게 적절한 운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의 부족이라는 '교육 및 훈련' 체계에 대한 환경 문제라고 사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현재 중심의 사정이기 때문에 잠정적 발생될 문제 및 어려움에 대한 사정에는 한계를 보인다. 물론 사회복지의 here and now 관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0세의 클라이언트가 80,90대의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생활 할 경우, 정신질환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32년을 보호받아 왔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독립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PIE 사정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에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곧 다가올 대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호화에 대한 훈련과 일반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PIE 사정의 강점 중의 하나인 간략한 사정에 대해서는 부호화만으로 사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 제언

표준화된 사정 틀이 없어 사회복지사 및 기관의 역량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정과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 : PIE)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정, 사정과 일치된** 개인과 환경에 적절히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 클라이언트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기능수행의 문제사정과 개입계획을 위한 **표준화 작업**으로 **시설에서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사례연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능 수행 측면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계획 수립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로써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실천할 수 있었지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사정을 할 수 없고, 부호화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설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를 시설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계획 수립 시 시설 내에서 활용 한 PIE sheet 작성까지 구상하였으나 진행되지 못 했기에 이후에는 본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여 sheet 작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기존 심리사회적 사정 틀에 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개인력, 가족력, 자살 사고 및 시도에 대한 평가와 PIE 사정(사회적 역할, 환경 문제,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더 세부적인 PIE 사정 각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 이다.

이로써 정신보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심리사회적 사정과 PIE의 장점과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시설에 맞는 새로운 사정틀을 제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정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PIE는 부호화하기 보다 항목 내용을 요약하여 누구라도 사정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권진숙 외(2013).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공동체.
제임스칼스 외(2000).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나남출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2015). 2015년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지침서.

사례연구 15-06

정신장애인의 자립(독립)을 위한 연구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연구자	송현식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1.~ 2015.11.20. / 총 22 개입횟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995년 정신보건법 재정과 함께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탈원화, 최소한의 규제, 사회통합, 정상화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이념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연결시켜줌으로서 그들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다른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양옥경, 2006).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그 서비스의 양과 강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장기입원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신 병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및 재원기간 역시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서규동,2008)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반복된 재발과 만성화 과정으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상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서규동, 2008).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로 인해 주변사람들과 대인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점차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독립생활을 해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상윤, 이경희, 2003). 또한 장기입원 경험은 시설증후군을 초래해 정신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쳐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해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서규동, 2008). 정동 둔마, 사회적 위축, 순종, 솔선성의 결여, 그리고 퇴원 거부 등은 모두가 장기입원의 결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병원 생활에 의존적으로 만들어 가끔은 퇴원을 지향하기도 하며, 외부 사회생활에 관심이 결여되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사회 지지가 부족하고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끊어진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현저한 임상증상이 없음에도 지역사회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정신요양원으로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계속 횡수용화되고 있다(이염문 외, 1999). 그리고 정신장애인을 직접 보호해야 하는 가족들은 정서적,경제적 부담과 함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본래의 긍정적 가족관계의 기능을 잃고 가정 내 복지에 위협을 받고 있어 가족들의 정신장애인을 불가피하게 장기입원 시킬 가능성이 높다(오연희,200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주거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하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약물치료를 포함한 다른 요소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양옥경, 2006). 또한 주거 서비스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치료와 지지적 서비스 체계에서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로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가족의 심리, 정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게 경감되기도 한다(최호진, 2005). 또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주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병원에 재입원을 하거나 노숙인이 되기도 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중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입소시설과 주거시설의 경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무연고자를 제외하고는 입소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입주자들의 욕구에 맞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해 주거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그 결과 입소시설이나 주거 시설에서 독립생활 훈련을 마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병원으로 가거나 다른 주거시설로 옮기는 횡시설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인은 준비 없이 지역사회로 나가게 되기도 한다(서동우, 2001)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 생활의 경험은 이제까지 그들이 생활했던 삶과는 달라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움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주거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정신장애인이 어떠한 경험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 생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주거에서 생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원조하여 성공적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가설 : 시설에서의 자립에 대한 지원은 정신장애인이 자립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c’t는 2012년 2월부터 본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 입원으로 인하여 본 시설 이용을 중단한 적 있다. 이 후, 2013년 9월부터 주거시설(미추홀하우스)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현재 안정적으로 약물 복용하고 있으며 본 시설 이용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c’t는 독립주거에 대해 희망하고 있으며 주거시설 담당자 역시 c’t를 독립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주거시설에서 2017년 9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c’t의 주보호자인 남동생은 결혼을 하여 c’t를 care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주거시설 가족휴가는 2주에 1회 진행되는데 c’t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휴식을 취하러 간다. 다양한 욕구에 의해 c’t는 독립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자립 및 독립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정신장애인을 이한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연구의 대부분은 주거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잉영희, 2005). 양옥경(2006)은 주거시설을 지역사회에 있는 주택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에 주거를 마련하는 주거프로그램 운영은 정신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독자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 원칙과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 15조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서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귀시설의 종류는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시설로 나누고, 주거제공시설을 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젖ㅇ원은 10명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공동가정생활이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은 물리적으로 일반주택이나 방을 임대할 수도 있고, 또는 독립된 건물로 존재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기능도 다양할 수 있으며, 관리나 운영 방법 면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수 있다(서규동, 2008). 따라서 주거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적절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활환경과 물리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 기능향상과 적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총체적 재활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박은주, 2002).

2. 사례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지지, 독립주거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없지만, 현실을 고려해보면 정신장애인에게 지지, 독립주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론할 수는 있다(서규동, 2008).

현재 운영 중인 거주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영의(2006)의 연구에 의하면 주거시설 입소 동기의 37.7%가 독립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가장 높았고, 28.1%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입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0.2%가 퇴소 시 독립생활을 게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은주(2002)의 연구에서도 주거시설 입주동기의

46.1%가 병원이나 정신요양원이고, 18.4%가 다른 주거시설이었으며, 퇴소 후 계획으로 36.9%가 독립하여 방을 얻는다고 보고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정신병원 혹은 정신요양원에 창기 입원 혹은 입소를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처할 만한 적당한 주거가 없어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많고, 주거시설도 3년이라는 입소기간의 제한 때문에 그 곳에서 사회복귀 훈련을 마친 후에도 독립주거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시설 입소자 대부분이 3년 만기 퇴소 후 병원으로 재입원하거나 다른 주거시설로 수평이동을 할 수 있다고 예측 할 수 있다.(이동훈, 2003)

Ⅲ. 연구 방법

가.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박○○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67. 4. 6.				
장애명	정신장애	급수	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구 도화동 ○○○○				
전화번호	032) 561-○○○○		핸드폰	016-791-○○○○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유년기 특별히 아팠던 기억이 없없다고 함. 고등학교 시절 '따로 노는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 정도라고 함. 학업 성적은 중간 정도를 유지하였다고 함. c't는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를 4-5명 정도 나열하였음. 발병 이후 친구들이 c't에게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함. 군대는 육군 수색대에서 근무하였으며, 체격이 좋아서 차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함(c't 남동생 보고). 이 당시에 일반병보다 훈련 강도가 높았다고 함. 그러나 훈련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구타가 많이 힘들었다고 함.

90년대 전문대 졸업 이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였으며 2년동안 차량정비로 근무하였다고 함. c't 남동생은 이후 같은 회사에 입사하였고,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함. c't는 그 때의 근무 당시의 기억을 '편하다' 라고 표현하였음.

한국통신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메트로'에 사직하였고,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고 함. 장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지만, 낙방을 계속해 낙담하고 좌절했기에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c't 남동생 보

고). 이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발전기관리사로 취업하였다고 함. 그러나 c't가 혼잣말을 하거나 '괴팍'한 모습 등을 보여 회사 측에서 사직 권유를 했었다고 함. 발전기관리사로는 6개월 정도 근무하였다고 함.

'서울메트로' 근무 당시 c't, c't남동생, c't여동생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경제적 관리를 c't母가 담당하였다고 함. c't의 남동생은 이때 당시 c't母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그러나 경제적 활동을 한 1년 이후 정도 쯤 c't母가 시장으로 물품을 팔러나가다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이후 10개월간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함.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퇴원했고, c't 남동생과 여동생이 간병하였지만 사망햐였다고 함.

c't가 30대 초반에 친구의 사망, c't母의 사망이 있었으며, 하는 일이 지속적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이 때 당시 c't가 혼자 생활하였는데, 대화 상대가 없어, 혼잣말하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생각함(c't 남동생 보고).

c't 초기 입원 당시 외출하였다가 복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함. c't는 재발 시 공격적인 모습이 보였다고 함. 이 때 c't남동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잠복해 입원하게 하는 등 어려움 있었다고 함.

현재 미추홀하우스 주거시설 이용하고 있으며, 주거시설 실무자를 통해 본 시설에 대한 정보를 들어 2012년부터 시설 이용하고 있음.

⑶ **주호소 내용**

- "정상적으로 과거 사회생활 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 독립 주거 및 취업(전기분야)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2. 2. 13.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주간재활반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미추홀하우스(주거시설), 참사랑병원(외래진료)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현상태 파악 및 자립생활 준비단계	1월	① 상담을 통한 c't 욕구 확인
	2월	① 자립을 위한 개별 목표 수립 ② 인터넷을 통한 임대주택 정보 수집
	3월	① 임대주택(LH주택공사) 신청을 위한 서류 주비 ② 임대주택 신청
	4월	① 임대주택 결과 발표
	5월	① 자립 준비
	6월	① 공공주택 정보 확인(인터넷)
	7월	① 공공주택 정보 확인(공인중개사)
	8월	① 공공주택 신청 및 가계약
자립생활 전환단계	9월	① 공공주택 계약
	10월	① 주택 수리 ② 물품 구입(가전제품, 식기류, 조리도구 등)-중고매장 ③ 의류 및 이불 정리 ④ 짐 옮기기(주거시설→이사갈 집) ⑤ 각종 민원 신청 ⑤ 주거시설 종결
자립생활 전환단계 및 종결보고	11월	① 이사 ② 적응하기 ③ 자립생활 유지 ④ 종결보고서 작성 ⑤ 지속적으로 자립에 대한 지원 예정

3. 자료수집 방법

- 개별상담을 통한 자료 수집

Ⅳ. 연구 결과

사례 진행 사항

구분	상담일자	내용
현상태 파악 및 자립생활 준비단계	2014년 12월 22일	- 2015년 서비스계약 상담 실시 2015년 본 시설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상담 진행하였으며, 시설 욕구 나타냄. 이에 목표 수립함. 2015년 주거시설에서 독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립에 대한 목표 수립 계획 예정
	2015년 1월 27월	- 2015년 서비스계약서 작성 및 서명 2015년 목표수립 ① 독립준비하기 → 생활비 관리, 임대 주택 입주 관련 서류 준비, 의식주 해결방안 수립, 여가활용 등 ② 체중관리 →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c't에게 적합한 운동법 제시
	2015년 2월 23일	- 임대주택 신청 기간 확인 및 안내 (인터넷 LH주택공사 홈페이지) : 관련 서류 준비하여 3월에 제출 예정 : 매월 수급비로는 한 달 생활비 부족함. 이에 대해 가계부 작성에 대해 안내 드림.
	2015년 3월 16일	- 임대주택 서류 정리 및 취합
	2015년 3월 17일	- 독립주거 신청(서류 제출) → LH주택공사
	2015년 4월 16일	개인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상담내용 → 자조모임 참여권유 - 주말에는 주거시설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바둑을 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함. - 가족휴가가 주어지면 병원에 입원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내서 별다른 일 없이 보낸다고 함. - 월 1회 주거시설에서 퇴소한 회원들과 함께하는 자조모임에 참여한다고 하며, 이번 달은 인천대공원에 간다고 하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함. - 바둑에 대한 관심이 있어 취미활동 시간에 종종 다른 회원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지만 기원은 가본 적이 없다고 함. - 같은 세대의 남자 회원들과 함께 자조모임을 참여해볼 것

		을 권유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함. - 금주 금요일 회의 진행시 참여를 약속함.
	2015년 5월	- 임대주택 서류 합격 : 이에 대해 독립과 관련하여 정보 확인
	2015년 5월 15일	- 여가활용 자조모임 참석 - 바람의 파이터(영화관람)
	2015년 6월 8일	여가활용 자조모임 참석
	2015년 6월 29일	6월 개별 목표 확인 관계 맺은 사람 : 이윤섭- 현재 독립생활을 하고 있음. 앞으로 8월에 독립할 계획인데, 도움이 되고있음. 아인스월드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음 독립준비를 마음의 각오로 하고 있다고 하심. 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독립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림.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계획을 하여 7월 3일 다시 상담 진행하기로 함.
	2015년 7월 15일	상담내용 질문. 독립주거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 해주세요. - 현재 주거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께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독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함. 이에 나도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음. 특히 친한 회원이 독립을 하여 집에 자주 놀러갔는데, 독립하여 살고 있는 삶이 무척 부러웠음.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음.
	2015년 7월 20일	여가활용 자조모임 참석 - 영화관람(영웅본색2) - 온라인 바둑 사용방법 공유
	2015년 7월 21일	주거시설 담당자 상담 전세임대 관련하여 미추홀하우스 한진숙사무국장 전화주심 시설 휴가기간동안 7/27-8/7 에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며 알아볼 계획임. 또한 그루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남동구에 알아본다고 함. 7월 마지막주에는 미추홀하우스에서 지내고, 시간적 여유가 됨에 따라 주거시설에서 지원할 예정임. 8월 초는 미추홀하우스 휴가기간임에

		따라 지원 요청하여, 이에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림. 메르스 예방 자율이용기간 동안 c't는 고열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갔었음. 그 때 남동생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 후 남동생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함. 이번 전세임대 관련하여 c't역시 남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것 같다고 함.
	2015년 7월 22일	시설 하계방학기간 전세임대 알아볼 예정 남동구 만수2동(만수시장인근) 쪽으로 임대주택 예정 8월 초 만수2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에 방문할 때 실무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씀드림.
	2015년 7월 27일 - 2015년 8월 7일	공인중개소에서의 임대주택 정보 확인 본 시설 종결하여, 독립생활하고 있는 이*섭회원과 함께 동행하여 정보 확인함. **이에 따라 본 시설의 도움은 원치 않는다고 함.**
	2015년 8월 10일	상담내용 금일, 집(임대주택) 관련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 방문 한다고 함. 이에 출근이 약간 늦을 것이라고 말함. **남동생과 함께 동행 할 것이라고 함.**
	2015년 8월 25일	상담내용 c't :독립준비에 필요한 것들 : 식기류 구매(동암역 근처에서 구매 후 매달 예정), 전입신고(입주 일주일 전 서류 제출), 주거급여 신청(주민센터에서 신청) 사례관리자 : 독립준비에 필요한 것들: 생활비(수급 47만원 + 주거급여 7만원), 집안청소, 식사(반찬), 여가 시간 활용 등 생활비 관련해 수급탈락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취업에 대한 의견 나눔. 직업재활은 원치 않음. 토룡이마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욕구 나타냄. 미추홀하우스에서 배운 반찬을 만들수 있다고 함.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해 이윤섭회원 및 최성용회원처럼 살 것 같다고 말씀드림. 이에 대해 그런한 것도 좋지만 여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림.

자립생활 전환단계	2015년 9월 7일	2015년 8월 목표에 대한 확인 - 전세임대 계약함(만수동) - 미추홀하우스 자조모임에서 작년까지 근무했었던 김순옥 선생님과 함께 식사 한 것이 기억에 남음.
	2015년 9월 30일	2015년 9월 목표에 대한 확인 - 허리가 아프다고 함. (만성) 고등학생 때부터 통증이 있었음. 작년에 정형외과에 다녀왔음. - 미추홀하우스 종결회원인 최지환회원과 서로 연락(전화)하였다고 함. - 미추홀하우스에서 추석선물 구입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함. 남동생을 줄 예정이었으나, 만나지 못하여 이윤섭회원에게 주었다고 함. -물품 구매를 위해 이*섭회원과 3군데 정도 돌아다녔고, 동인천 근처에 있는 상점(중고판매)에서 구매 예정임. **본 실무자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함.** 10월에 미추홀하우스 종결하고 11월부터 이사할 예정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그루터기에서의 지원 필요없다고 하심.
	2015년 10월 1일	*독립준비 계획확인 -임대주택 선정으로 인하여 거주하고자하는 집을 미추홀도서관 인근에 잡아 놓은 상태로 현재 거주자가 나가면 바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함.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나 10월 말에 이사하게 될 것 같으며 이에 대해 미추홀하우스 사무국장님에게는 말해 놓았다고 함. 이사할 때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동암역 인근에 위치한 중고대리점에 아는 지인과 다녀온 상태이며, 구매해야하는 목록은 미추홀하우스 사무국장님이 도와줘서 우선적인 부분만 작성해 놓았다고 함. -해당사항에 대해 명일 오후 재확인하여 이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약속함.
	2015년 10월 1일	*독립준비 진행사항 확인 -주택공사 지원으로 인하여 3800만원의 전세금 지원을 받았으며, 200만원은 자비로 하여 집을 마련한 것이라고 함. 물건 구입 목록을 정리해 놓았으나 거주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독립시 구매가 필요한 물품 목록이 있음에 따라 참고하여 구매하면 된다고 함. 또한 이미 독립한 회원들을 알고 지내고 있음에 따라 물건 준비 및 이사 전 청소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함. 금일 계약한 집에 가서 정확히 언제 나갈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며, 계약시 약속한 날짜는 10/15이라고 함.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주택공사 지원으로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함. 준비를 하며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u>시설에서 도움 받을만한 것이 마땅히 없다고 함.</u>** 이에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점검을 같이하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돕고 추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함.
	2015년 10월 20일	남동생, 여동생 시설내방 - c't와 함께 임대주택 확인 후, 시설 내방함. 서비스 과정평가서 확인 후, 서명 받음 ct가 컴퓨터 구매요청하여, 내년 1월에 구매해주려고 함. 필요 이유에 대해 컴퓨터를 통해 바둑을 두려고 한다고 함. C't 가족들은 주거시설 종결 후, 임대 주택 생활 시, 여가활동에 대해 걱정 한다고 함. 이에 담당자 역시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여가활용에 대한 지원 말씀드림.
	2015년 10월 31일	미추홀하우스 주거시설 퇴소(종결)
	2015년 10월 31일	이사 (독립) → 만수동 소재 임대빌라
자립생활 전환단계 및 종결보고	2015년 11월 3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남동장애인종힙복지관 직업지원팀 농장 토룡이(지렁이)상자 관리 업무 - 지원함
	2015년 11월 4일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 진행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강명진 팀장 - 면접 합격
	2015년 11월 5일	합격안내 - 근무기간 : 11월-12월 - 급여 : 월 313,000원 - 직무내용 : 토룡이 상자 관리
	2015년 11월 5일	태화 샘솟는집에서 제작한 문서 사용 - 자립생활 목표 정하기 작성 -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구매 점검표 작성 - 생활 계획표 작성 ※ 태화 샘솟는집 자립 발간 책자 제공
	2015년 11월 6일	생활계획표 부분이 잘못 작성되서 재 작성함. - 평일/주말 각 1부씩 작성
	2015년 11월 11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16일부터 근무 실시/ 11월은 매일 13:00-18:00 참여 - 12얼은 월-목 13:00-16:30 참여 - 본 시설 프로그램은 미참여 - 점심식사는 복지관에서 함.
	2015년 11월 13일	아침은 우유 한잔으로 해결함. 점심은 복지관에서 하고, 저녁은 밑반찬을 구매하여 식사를 한다고 함. 특별히 어려울 것 없이 생활하고 있음. 여가활용에 대해 PC방에 가서 바둑을 3-4시간 정도 둔다고 함. 이에 PC방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씀드림. 이에 PC방에 가면 시간이 잘간다고 함. 독립을 하고 난 뒤, 개인시간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알차고 계획적으로 생활해야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다는 점 말씀드림. 11월 말에 가정방문 말씀드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독립을 원조하기 위해 실행하였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c’t의 욕구를 파악하였으나 본 시설의 도움 없이 c’t 스스로 또는 지인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c’t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본 연구자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c’t의 독립준비 상황을 체크하였다. c’t 스스로 독립준비를 하여 겪은 다양한 경험들은 c’t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c’t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되어 c’t에게는 금년이 독립과 취업 등 두 가지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다. 이는 사례연구자가 사례연구 계획에 다소 빗나갔으나, c’t에게는 보다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독립은 단순히 자립을 하고, 취업을 한 것이 성공하였다고 어렵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상담과 개입을 통해 c’t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

사례연구 15-07

사회적지지정도가 정신장애인의 자아정체감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연구자	정진옥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1.15 ~2015.11.20. / 52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능회복을 위한 접근이 대인관계나 직업유지 등 사회적응에 필요하지만 손상된 기능에 대하여 다소 기술적인 측면의 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술훈련 이전에 정신장애인 개인의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도 장애로 인한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사회적으로 발달과정을 거친다는 정상화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과거 및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정을 한 개인의 일련의 발달과정으로 이해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정신장애인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또한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와 관련지어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과제는 스스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정체성(자아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즉, 인생 전체를 정신질화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국한 시키는 방식으로써의 프레이밍이 필요하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① 정신장애인의 특성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의 특성상 심각한 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도 잔류증상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여 위축되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기 쉽다(양옥경, 1996). 즉, 일상생활기술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의 부족으로 친구들이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편견적인 태도와 사회의 낙인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s)와 소외를 경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유리,2001).

따라서 정신장애인도 증상이 호전되면 가족 및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직업 및 여가생활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구 있도록 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이며, 특히 사회적지지정도와

자아정체감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가설 1)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정도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정도는 회복의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근거

1) 정신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때의 정신장애(medtal disorder)는 단순히 병리학적인 용어로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규정 또한 쉽지 않다(문인숙・양옥경, 1991). 먼저 의료・진단적 정의는 '유병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되고 재입원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되며, 일상생활에서 역할수행을 하는데 장애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질환, 조현병(정신분열병), 주요정동장애, 일부 성격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1994).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신병(psychosis)과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어지며, 생각, 느낌, 행동 상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한다(Bruno, Frank J.1989). 또한 질병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문인숙・양옥경,1991).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질병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손상된 일상생활유지 기능, 대인관계 기능 사회적 기능 등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 대상군이라 할 수 있다(김여수, 1995).

반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용어로 기존의 '정신질환자'와 같은 용어가 주는 수동적인 존재인 환자 혹은 치료 대상자로서의 느낌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변화와 재활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질병'을 가진 어쩌면 치료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클라이언트를 정신장애인으로 명명함으로써 정신구조나 기능의 영구적 상실이라는 '장애'라는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김경미, 2002)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장애'라는 용어는 영구불변하는 불구의 의미가 너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영어의 'disorder'를 번역한 용어와는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있으며(양옥경,1996). 1999년 정신장애인의 범주에 만성적신질환자가 포함되기 이전에 정신장애를 대변하던 지체장애가 선천적인 지적 능력의 결손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정신장애라는 용어는 과거 정신질환과 거의 대체되어 사용되면서 더

이상 영구불변의 불구를 의미하지 않게 되었으며, 증상의 발병과 진행과정, 회복에 있어서 장기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박은주,2002). 더불어 증상의 치료적 입장은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사회적기능을 회복(restoration of function)시키고자 하는 개념에 비중을 두고 전인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최동애, 1992).

본 사례의 사정 이론으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두며 특히 이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아정체감'이라는 개념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다른 일반 대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 또한 자아정체감이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해 정신장애인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한 자아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며, 또한 회복의 관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삶의 태도, 가치, 감정, 목표, 또는 역할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과 질환으로 인한 한계 내에서도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기여하는 형태로 삶의 방식을 전환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며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자아정체감의 발달

Erikson은 자아정체감이 어느 한 시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에서 시작하여 청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계속적으로 발달해 간다고 보았다. 또한 성취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김형태,1989; 권묘희, 2002). Jacobson(1964)도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해서 계속 발달된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Murray, Douvan&Adelson(1969)등은 자아정체감은 청년기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그 사회 속에서 일생동안 형성, 재조정하면서 발달해 간다고 하였다(Murray, J. B. 1964; Douvan, E.&Adelson.J.1969;하형욱, 1983).

인간의 자아정체감은 자아와 객체가 분리되는 유아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노년기에 자아가 통합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유아가 자신을 주위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되는 개인으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유아와 어머니 관계의 경험에서 오는 일관성과 동질성으로부터 신뢰감이 형성, 발달되어 이것이 그 기저가 된다. 아동기에는 정체감이 감정적으로 정화되며 연속적인 동일시로부터 정체감의 요소들을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정체감은 청년기에 이르러 동일시의 유용성이 없어지는 데서 형성된다. 즉, 아동기의 동일시의 선택적인 거부, 새롭게 습득한 동일시와의 상호적인 동화 및 새로운 짜임새로의 흡수를 통해 정체감이 형성된다(Erikson,1968). 또 청년기에는 내적 행동의 질적, 양적 변화와 정신적 확장 및 새로운 사회적 요소로 인해 이전의 정체감의 결정들이 새로운 갈등에 부딪치게 되어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Erikson,1968). 그 결과 정체감은 일시적인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일단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높은 수준의 정체감 형성과정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Erikson,1969). 따라서 건전한 성격의 발달과 진정한 의미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년기에 정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Erikson,1968).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발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장래전망과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Erikson,1965).은 청년들이 자신의 생을 분명한 전망 속에 내다볼 수 없을 때에 통제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했고(Erikson, E. H. 1959; 하형욱, 1983). Maier(1965)는 청년들에게 만일 장래전망이 어둡거나 단절되어 있을 때 자아정체감의 혼미가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젱체감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Maier. H. W. 1965; 하형욱, 1983), 서봉연(1975)은 장래전망은 목표 제시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연결과 통합을 용이하게 마들어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래전망이 밝은 집단일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서봉연, 1975;하형욱, 1983).

3)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1976년 Cassel, Cobb, Caplan&Killilea의 논문에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기 시작하였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되어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다양한 원조 전문가 및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김이례,2003). 특히, 사회적 지지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 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데, Thoits(1986).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라고 규정하였고 김연수(1995)도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발견된다고 하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복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하여 항상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얻으면서 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Capla(1977)은 사회적 지지란 애정, 승인,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에 의해 충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Lin(1979)등은 다른 개인, 집단, 좀 더 큰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이 얻기 쉬운 지지로서 보살핌, 관심, 사랑, 인정, 도움, 이해, 가치감, 의사소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며 Nolten(1994)은 사회적 지지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태도로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의도를 갖는다고 정의하였다(김소임, 1999 재인용). wierenga(1987)는 사회적 지지란

원하는 치료 결과를 획득하도록 환자를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환자의 가족 구성원 도는 가까운 친구에 의해 제공되는 입력이라고 조작화하여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국내에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성격발달과 사회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Erikson은 사회적 힘(social forces)이 성격발달 및 자아정체감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힘(social forces)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체계로까지 관심을 확대하여 사회적 체계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였다.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안○열	성별	M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87. 1. 9				
장애명	조현병	급수	미등록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광역시 간석동				
전화번호	010-5463-****		핸드폰	010-5463-****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① 개인력

c't는 인천 석정초등학교-동인천중학교-인천남고를 졸업하였고, 초등학교시절 기억나는 친구가 없다고 하며, 성적은 중위권이었다고 함. 성격에 대해 c't는 초등학교시절 기억나는 친구가 없다고 하며, 성적은 중위권이었다고 함. 성격에 대해 c't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뛰어놀고 장난치는 활발한 성격이었으나 고등학교 때부터 말이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함.

주변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낯설어하는 등 혼자만 생활하는 c't의 모습에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인하대학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함. 그러나 초기 1-2개월 정도 약물복용을 안 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함.

2004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환청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환청 때문에 괴로웠다고 함.

05년도에 父가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일을 도와주시고 나서 급사하였고, 母는 06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함. c't가 중학교 때부터 유방암으로 항암치

료를 받은 母는 여러 번의 위험한 고비가 있었다고 함.

父 사망 후 母는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c't의 가족들이 처한 어려움을 같은 성당을 다니는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고, 기도도 해주며 관심을 가졌다고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한 돈 보스꼬 기술학교 기계조립 1년 과정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보냈다고 함. 방 한 칸에 여러명에 생활하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중심적이라 힘들었다고 함. 졸업 후 입사했으나 적응속도가 느리고,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함. c't는 기술학교 시절이 재미있었다고 기억하며, 신부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셨다고 함.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도 신부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라고 함.

당시 c't兄은 대학에 진학해 공부 하였으며 c't母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용돈을 요구하고 母가 들어주지 않을 시 화를 내는 등 c't 생각에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보고함.

c't는 기술학교 졸업 후 혼자 생활하였고 성당 신자들이 집 청소, 반찬 등 도움을 주었다고 함.

c't母 사망 후 함께 지내던 아파트에 兄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007년부터 본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음. 시설 이용하기 전 초기상담 시 c't가 다니던 성당 수녀님이 보호자로 함께 내방하였음. c't 2007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먹거리종합식품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 하면서 여러차례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유지에 위기상황 있었으며 퇴사 후 2009년 12월부터 인성드림(세탁업체)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음. 혼자서 생활하며 위생관리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옴'에 감염되었으며, 병원 세탁물 오염 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됨. 그 당시 11월 1개월 동안 기관에 나오지 못하였으며 피부병이 나은 후 재 출근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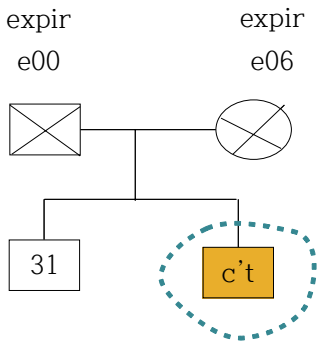
인성드림에서도 적은 급여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호소하였고 퇴사 후 11년 7월부터 1년 동안 태성전기에서 취업하여 근무함. 근무 시 업체에서 매우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취업유지 하였음. 그러나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과 약물 부작용으로 음식물을 씹는데 어려움 발생 됨. c't는 12년 10월 등급 외 판정을 받게되면서 c't 퇴직을 원함. 이후 시설에서 직업재활훈련반 이용하였고 안에서도 자활근로자 및 타 회원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호소하였으며 함께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음. 이후 c't가 외부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어 명진에이피 업체에서 part-time으로 일 하다 다정테크에 외부훈련 하였음. 하지만 외부훈련 중이었던 업체 사정이 어려워져 14년 5월부터 시설 내소하여 내부훈련-보호작업 참여하였음. c't는 자신이 수급권자이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핸디캡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며 父母 사망이후 c't 兄또한 어린나이였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한 적절한 care 이루어지지 못했

음. 친인척과의 연락 및 교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c't는 兄에 대해 c't父母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c't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兄의 임의대로 처분하고 c't의 몫으로 전세 4천5백만원정도의 오피스텔만 얻어주었고 그마저도 兄의 명의로 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 또한 父母가 사망하였고 이후 c't에 대한 care가 兄의 몫이기도 했으나 c't의 보고로 개인주의적인 성격으로 c't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됨. 11년부터 현재까지는 c't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지지체계 매우 poor한 상황임.

② 병력

발병일	증 상				
2003년 (16세)	(1) 환 청 : c't에 대해 이야기하는 환청 (2) 피해적인 사고 : 타인에 대한 불신, 대인관계의 어려움 (3) 잔류증상 : 피해적인 사고, c't에 대해 비난하는 환청 등				
발병년월	진료병원	기간	입원의사결정 자의/타의	주된증상	약복용 여부
2003년 3월	인하대병원	2주	타의	많은 사람을 낯설어 하고 타인을 인식하지 않고 혼자만 생활하는 모습	꾸준히 복용

③ 가족력



* F.L(-)

父 :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카톨릭 신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도와드리러 갔다가 풍토병과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고 함. 모두 감기인줄 착각 했다가 父의 사망으로 충격이 컸다고 함.

母 : 유방암 항암치료 받고 4-5년 후 사망. 카톨릭 신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함.

兄 : 군대 제대 후 강원도의 골프장에서 일하였으며 가끔 연락을 주고 받기는 하지만, 거의 왕래는 없는 편이었음. 兄은 말이 없는 편임. 먼저 c't에게 전화 하지는 않으나 c't가 전화하면 피하지는 않는다고 함. 하지만 뜬금없이 정신과적인 어려움(피해적인 사고)으로 c't兄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쏟아내면 자신도 너무 화가 나고 삶의 패턴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함. 또한 c't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살 집만 마련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15년 'AFPK' 금융권 자격증 취득하여 원주에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祖母 : 강화에 생존해 계시나 과거 c't母에게 c't父와 결혼하기 전 거짓말 한 부분과 c't母에게 잘못했던 일 때문에 c't祖母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며, 4-5년간 명절에도 인사드리러 가지 않았다고 함. 15년 명절에 인사드리러 갈 계획이었으나 망설여져 결국 가지 않았고 통화만 했다고 함.

⑶ 주호소 내용

① 보호자 (초기면접 당시 수녀님)

"혼자 생활하는 c't가 사람들도 만나고 외롭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② c't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나쁘게(노숙자, 장애인)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 힘들어요"

"혼자 지내니까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아 무서워요."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7. 10. 5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2007. 10 ~ 현재까지 그루터기 직업재활훈련 참여 (내부훈련-외부훈련-취업 등)

Ⅲ. 연구 방법

1. 연구일정

구 분	시 기	내 용
사례연구 계획	1월~3월	사례선정 및 사정, 개입이론 선정, 척도 등 정보수집 계획서 작성 / 사전척도 검사/ 계획서 제출
개입	4월-8월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개입 ① 실무자와의 rapport 형성 ② c't의 회보과정에 대한 사정 ③ 회복과정에 대한 계획수립/사례관리 (가정방문, 주치의상담 지원, 주 1회 업체방문 및 내방 상담을 통한 질적 연구)
중간보고	8월	중간보고서 작성 / 제출
모니터링 보안/수정	9월-10월	개별상담 및 가정방문 / 주치의상담 사후척도
결과 보고	11월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2. 자료수집 방법

① 자아정체성척도

: 최정훈 외(1986)가 제작한 자아정체성 척도를 조학래(1996)의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표현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28개 문항으로 구성됨. 척도 내용으로는 독특성, 미래계획, 사회성, 자기수용, 자율성, 적응력, 가치의 7개 하위차원에 대한 요인부석 결과 요인 적재치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됨.

② 사회적 지지척도

: 이 척도에서는 지지제공자를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지지형태를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의 4가지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25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③ 업체방문/주치의상담/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상담을 통한 질적 연구

3. 자료분석 방법

- 사전/사후 척도 분석
- 안정된 지지체계 구축이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인터뷰

4. 진행사항

1) 사례선정

일 시	내 용
1월 15일	**- 개별상담 진행** : 상담 시 환청, 환시, 피해적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 받고 있었음. : 피해적인 사고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이 높은 상태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독립생활하고 있어 c't를 care해줄 지지체계가 poor 하였음. : 피해적인 사고의 내용이 c't가 현재 처한 상황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③ 가족/지지체계가 없다는 것)이 c't 내면에 크게 작용하여 c't의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왔고 피해적인 사고로 연결되어졌던 것으로 파악됨. **- 정신과적 증상내용** :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환청, 환시로 c't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소리 (환청) : c't 집에 도청장치가 있어 함께 일 하는 동료 아주머니들이 c't가 음란물을 보거나 집에서 한 일들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 (피해적인 사고) : c't가 일하는 업체 사장님이 자신에게 '쓰레기다' '시골로 가버려라' 등 이야기한 소리 (환청) : c't 집 주변에 얼굴이 같은 사람이 나이와 성별을 위장하여 c't 주변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며 나를 해치려고 한다' (피해적인 사고) **- 평가** : 위 증상에 대해 c't 스스로 이야기 도중 환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되고 혼란스럽다고 표현함. 위와 같은 정신과적인 증상 악화가 적어도 7개월 이상 지속되어왔으며 그 동안에는 피해적인 사고 및 오해 등으로 실무자에 대한 불신이 있어 거리를 두어 왔음을 이야기함. 하지만 c't를 care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지지체계가 매우 약하며, 증상 악화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외부훈련 참여는 어쩔 수 없이 지속하기 위한 노력 있었음. 외부훈련 외에 외출은 누군가 c't를 납치하거나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적인 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 있었음. 이에 따라 활동량이 적어져 10kg이상 몸무게 증가되었으며 집안 청소

	도 1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고함. 지난 주 주치의상담 다녀왔으나 위의 내용에 대해 상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유는 c't를 대하는 주치의가 두 마디 정도 물어보고 가보라고 하여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함. c't는 집안에서도 자신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거나 해칠 수 있다고 느껴져 불안감이 높은 상태로 위기개입 및 주거환경·지지체계 점검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2) 진행과정

일 시	내 용
1월 19일	**- 개별상담 진행** : c't를 비난하는 소리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함.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c't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수첩에 기록하며 환기하고 있다고 하였음. 정신과적인 증상(피해적인사고, 환청)의 강도가 심해져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주치의상담 일정(1월22일)을 당겨서 함께 동행 하여 약물변경에 대한 논의와, c't를 힘들게 하는 증상과 상황에 대해 매일 '일지' 작성하도록 하여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향상 지원 이루어짐. **- 자아정체감/사회적지지척도** : 사전검사 실시- 자아정체감(**71점**/135점) / 사회적지지(**55점**/80점) : 위 내용으로 파악했을 때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지지 인식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독특성, 미래계획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사회성, 자기수용, 자율성, 적응력,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매겨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지지 척도에 대해서는 지지의 출처 부분에 형이 있음에도 전혀 교류가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c't에게 도움을 줄

<table>
<tr><td></td><td>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음. c't의 현재 지지체계는 본 시설의 실무자뿐이기 때문에 실무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c't에게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c't에게 필요한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td></tr>
<tr><td>1월
22일</td><td>- 주치의상담 동행
: 증상악화에 따른 약물 조정 논의 이루어짐.
당시 증상으로는 '얼굴이 같은 사람이 나이와 성별을 위장하여 c't 주변을 감시하며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 같고 또한 집안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의 동료 아주머니들이 c't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였음.
※ 증상 악화에 따른 약물조정
<table><tr><td>변경 전</td><td>변경 후</td></tr><tr><td>프로이머정 5mg,
인베가서방정 6mg</td><td>프로이머정 5mg,
인베가서방정 9mg</td></tr></table></td></tr>
<tr><td>1월28일</td><td>-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약물 작용 및 부작용 확인/증상일지점검
부작용으로 (구토, 및 졸음) 확인함. 나아진 것 같다고 하였음. 하
지만 누가 집에 들어와 물에 수면제를 탄 것 같아 물을 숨겨 놓았다고하였음. 이에 대해 약물 부작용으로 졸음 발생된 부분에 대해 함께 확인함. 또한 동료회원이 이전 명진업체에서 함께 근무할 때 자신이 간선오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니 "그런 촌구석에서"라는 표현을 했던게 기분이 나빴었는데.. 라고 하며 최근 감정이 상했었던 상황과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고 하는 등 현재까지 증상 완화 의 어려움 확인됨.
→ c't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환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서적인 지지와 상황에 대해 조금은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 이루어짐.

: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와의 rapport형성을 위한 노력
c't의 피해적인 사고와 c't를 비난하는 환청 등으로 인해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며, 이에 따른 감정표현을 하는 것에도 c't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 수첩에 적거나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해소하여 대부분 오해 및 왜곡된 사고로 실무자 및 시설 내 동료관계 안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td></tr>
</table>

	는 데 어려움 있었음. 하지만 실무자와 rapport형성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c't가 외부훈련 없을 시 시설로 출근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등 긍정적인 변화 관찰됨. 그에 따라 c't에게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향상이 기대됨.
2월2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약물 작용 및 부작용 확인/증상일지점검** c't는 밤이 되면 누군가 c't를 해칠 수도 있는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무섭다고 하였음. 아직 누군가 c't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훈련 유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지지함. 또한 c't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을 전달하며 문제상황 발생 시 실무자에게 전화하도록 합의함. c't가 자신이 구충약을 먹지 않아서인지 대변에 하얀 알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함. 이에 인베가서방정 약물 복용 시 정제모양이 함께 배설된다고 복약 설명서에 적혀 있어 확인시켜드림. 또한 c't 증상 및 약물 부작용(구토, 졸음) 등에 대해 자가 체크하고 외래 시 어렵더라도 주치의에게 보고 필요함을 전달함. **: 주거환경 점검** c't가 1년 가까이 집 청소를 하지 않았고 이불에도 곰팡이가 쓸어 몸이 가렵다고 보고함. 이에 c't의 건강을 위해 집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은대 c't 혼자 할 엄두가 나지 않으면 실무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지원해 줄 수 있음을 전달하였고 c't 흔쾌히 수락함. 이에 업체 쉬는 날 내방하여 상담 후 가정방문 진행하기로 합의함.
2월8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약물 작용 및 부작용 확인/증상일지점검** 약물부작용(구토, 졸리움)은 어떤지 확인하니 괜찮은 것 같다고 하였음. 하지만 말 더듬는 증상이 최근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보고함. 도청 및 위치추적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물으니 핸드폰을 끄고 다니면 괜찮은데 아닐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함. 약물용량 변경 후 c't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 되었으나 아직 피해적인 사고 및 환청이 남아 있어 다음 주 방문 시 이에 대한 확인 후 주치의 상담 동행 여부 결정 필요함.
2월17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약물 작용 및 부작용 확인/증상일지점검** c't 금일 오후 주치의상담 예정이어서 최근 증상 및 부작용등에

	대해 점검함.. 핸드폰을 꺼 놓으면 괜찮으나 켜 놓으면 얼굴이 같은 사람이 c't의 주변을 맴돈다고 함. c't 생각으로는 자신이 빚을 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만약 자신이 빚을 졌다면 자신에게 다가와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였음. 이에 환시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니 그냥 증상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현실적이라고 하였음. 이에 두려운 상황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함. **: 주치의상담 전 자기보고 준비** 주치의 상담 전 주치의에게 꼭 전해야 할 내용에 대해 함께 정리하고 연습함. ① '핸드폰 켜면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 ② '말 더듬는 증상이 최근 더 심해진 것'에 대해 전달 필요하며, ③ '외래 월 1회로 변경' 필요함을 합의함.
2월 17일	**- 전화상담 진행** : 주치의 상담 전 주치의에게 실무자가 보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재점검 요청함. 또한 c't가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봄. c't 생각으로 말을 더듬는 것이 마스터베이션을 하면 더 더듬게 되는 것 같다고 호르몬의 영향인지 확인하심. 또한 c't가 빚을 진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주변을 맴도는 것은 c't묘이 빚을 져서 형 대신 c't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함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음. 또한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요청 하지 않는데 자신이 돈이 없으니 장기적출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여 지지함.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리며 외래 잘 다녀오시고 다음 달엔 실무자와 함께 가기로 함.

2월27일	**- c't 가정방문** **: 일상생활 점검 및 c't 건강을 위한 주거청소 지원** → 주거관리 상태를 확인했을 때 c't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전기밥솥과 깨끗한 이불패드 그리고 청소도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하였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 함.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화장실과 방 청소 및 정리 지원 이루어짐. **: 정신과적인 증상이 c't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c't는 주변에 살고 있는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노

	숙자나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장애인'이라고 비춰진다고 생각하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부분이 c't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특히 주변 식당이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 자신이 노숙자 같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재료를 상한 것을 쓰거나 먹다 남은 음식으로 조리를 해서 준다고 생각하였음. c't 보고로는 집근처에 있는 거의 모든 식당에 배달음식을 주문 해봤는데 그러한 일들이 증명되었다고 하였으며 식당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이고 안 가봤던 식당에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 안 간다고 함. 이에 따른 건강한 자아상 확립을 위해 c't 하루 일과 중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내용으로 칭찬일기 작성 시작함.
2월27일	**※ 재활 계획** 1. 건강한 생활을 위해 주거 및 위생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3월 중 c't 휴무일에 가정방문 진행 : c't 화장실 세면대 수리 2. 외래 시 실무자 동행하여 주치의에게 c't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증상의 안정 도모 필요 3. 건강한 자아상 확립을 위한 과제로 c't 하루 일과 중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내용으로 칭찬일기 작성
3월4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c't 말 더듬는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보고함. 이에 주치의 상담 시 약물부장용 또는 심리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문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가정방문 이후 집안 청소는 노력 하고 있다고 하였음.
3월11일	**- 개별상담** **: 주거청소 점검** 집 화장실 하수구가 자주 막혀 패트병을 이용하여 물을 퍼내고 청소 하였다고 함. 몇 일 전에 전기도 나가 전기 고치는 곳에 문의하여 수리 하였는데 말이 잘 안 나와 방쪽 전등도 수리했어야 하는데 얘기하지 못했다고 하며 지원 요청함. **: 정신과적 증상 내용 확인** 정신과적인 증상으로는 c't兄이 PC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변 지인들의 정보를 알아내고 전화하여 돈을 뜯어낸 것 같다고 이야기함. 하지만 c't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c't兄이 알아내기 어려운 점 말씀드리니 PC로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실무자에게 확인함. 이에 PC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쉽지

	않은 내용 정보제공 함. 더불어 c't 주변 사람들 또한 c't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혼자 살고, 수급권자인 것을 알 수 없음을 전달 드림. 이밖에 자신이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자위한 휴지와 동영상 CD를 버린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를 정리하시는 아주머니가 보신 것 같다며 자신을 성추행 범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심. 이에 그런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신고 할 수 없으며 건강한 남자에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림. 그리고 금일 집에서 시설까지 걸어오는 길에 여고를 지나와야 하는데 그 학생들이 c't를 보고 변태라고 수근대는 것 같이 느껴졌음을 이야기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하수구 및 전등 수리 지원과 증상안정이 필요하나 약물 용량을 올리는 것은 c't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c't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상일지 작성 및 환기를 위한 지속적인 개별상담 진행됨.
3월12일	**- 전화상담** **: c't 하루 일과 점검** 어제 실무자가 내방했을 때 자신의 기분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함. 이유는 아침에 함께 일 하는 이모님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너는 형편없는 아이야, 노숙자 같은 놈'이라고 비난 하는 것 처럼 느껴져 기분이 나빴다고 함. 이밖에 자신이 관계 면에 있어 자신에게 잘 대해 주려는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10년 넘게 그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마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어색함을 이야기함. 이에 c't가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 그동안 많은 고민들을 있었겠음을 공감하며 지지함. c't가 실무자에게 솔직하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자신의 모습도 성찰한 것에 대해 매우 칭찬해드림. 실무자가 생각할 때 c't는 먼저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 타인이 c't를 향하는 마음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달함. 이에 c't도 동의하였고 이야기하니 속이 좀 풀린다고 하였음. 이에 수시로 그런 어려움이나 대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시도록 말씀드리며 지지함. → c't가 실무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며 긍정적인 관계형성 이루어짐.
3월17일	**- 주치의상담 진행** **: 주치의에게 c't의 근황 및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자기보고 지원**

	① 말 더듬는 증상이 약물 부작용인지 여부 확인 : 주치의상담 시 c't가 말을 더듬기는 하였으나 주치의 소견으로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음. 이에 c't는 말 더듬 는 것으로 인해 타인이 c't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전달하였고 이에 말 더듬는 것은 약물부작용은 아니며, 책을 천천히 읽으며 말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함. ② 피해적인 사고의 내용 전달 ③ 외래 2개월/1회 → 1개월/1회
3월24일 ~ 3월25일	**- 가정방문 지원** **: 주거수리 (전등, 화장실 / 세탁실하수구)** → 화장실/세탁실 하수구는 막힌 지 오래되어 공기 압력으로 뚫기 어려운 상황으로 스프링을 넣는 공사가 필요해 3월24(화) 방문 시 이루어지지 못했고 3월25(수) 오전 10시에 다시 재방문하여 수리하기로 함. 그러나 기사님 약속 시간 보다 늦어 오후 1시에 재방문 이루어졌고 수리됨. **: c't 건강관리를 위한 주거청소 지원** c't 신발장, 현관문, 현관 바닥, 가스레인지 및 부엌, 화장실, 베란다 등이 찌든 때로 오염됐고,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옷가지 정리 및 청소 필요한 상황이었음. → 3월 24일 - 3월 25일 2일간에 걸쳐 c't 집안 구석 구석 대청소 및 정리 이루어짐. c't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청소 하였으며 주거가 청결해진 이후 c't 이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았으며 앞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이루어짐. 또한 다음 번에 재 방문 하여 청결 상태 점검하기로 함.
4월14일	**- 주치의상담 지원** : 주치의에게 c't의 근황 및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자기보고 지원 상담 전 c't가 주치의에게 꼭 보고해야 될 부분을 실무자와 함께 논의 하고 연습함. → c't의 보고를 종합했을 때 '직장동료, 모르는 타인 등이 c't를 향해 비난하거나 c't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욕설을 하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보고하기로 하였고 연습 이루어짐.
4월21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최근 지나가는 사람 전부가 c't에 대해 욕을 해 힘들다고 이야기함. 같은 건물에서 일 하는 사람도 자신을 알아보고 노숙자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줄 몰랐으나 잘 들어보니 자신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있어 놀랐다고 이야기함.

	이런 상황들이 매우 당황스럽다고 함. : 추측해 보건데 주치의가 임상실험을 하는 나쁜 사람이고 소속된 병원을 활용하여 c't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퍼트린 것이 아닌지 의심되며 임상실험 당시 자신에게 준 약도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함. 이에 최근 c't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면 많이 무섭고 힘들겠다고 지지하니 c't도 상대방이 들리지 않게 욕설을 하거나 이야기한다고 함. : 자신이 음란물 CD를 구입할 때 젊은 여자가 몰래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 같다고 이야기함. 이에 음란물을 보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도록 지지하며 c't가 실무자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알 수 없듯이 c't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임을 전달함. → <u>증상적인 부분 특히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으로 인한 피해적인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어려움 확인됨. 이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여 c't가 신변의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지속적인 개발상담(or전화상담)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 c't 주변 사람들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주치의 상담을 조금 당겨 진행하는 부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u>
4월23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방문 시 어제도 c't에게 낯선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함.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야기만 듣고 눈을 맞주치지 않았었는데 확인 차 고개를 들었더니 c't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함. 이에 퇴근 후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살이 많이 찌는 것 같다고 이야기함. 이러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며 남자들은 욕을 하고 여자들은 비난한다고 이야기함. 그런데 욕보다 비난하는 소리가 더 상처가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함. 이에 진짜 사람들이 c't에 대해 알고 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음을 이야기함. 이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내일 가정방문을 통해 슈퍼 및 역사 등을 돌며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함. 주치의상담도 당겨서 가기로 하였으며(4월27일) 실무자 함께 동행하기로 함.
4월24일	**- 가정방문 지원** ① <u>생활모습 점검</u> : 지난 3월 가정방문 이후 청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리정돈은

<table>
<tr><td></td><td>비교적 잘 유지 되어 있었음.
: 방문 시 c't 창문 열고 환기하고 있었으며, 청소 되지 않은 부분 함께 확인하였고 바닥 및 싱크대 청소 이루어짐.
: 식생활 부분에 있어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적인 사고(누군가 c't를 해치려고 한다, 비난한다)로 인해 외부에 나가는 것에 두려움 있어 활동량 적어져 체중증가 되는 부분 있었음.
→ 건강한 식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 삼계탕 끓이는 방법 안내 및 실습
② 증상에(피해적인 사고)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 있어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위 여부 확인
: 함께 집 앞 슈퍼, 생활용품판매점, 역사 직원 등에게 c't를 알고 있는지 확인함. 슈퍼 사장님과 생활용품판매점 직원은 c't를 알고 있었고 역사 직원은 c't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음. 혹시 c't의 생각처럼 이웃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c't에 대해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함. 이에 모두 '전혀 없다'고 답변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음. 답변을 듣고 나오니 c't 얼굴이 밝아지며 '아니구나, 정말 아니네요?'라고 이야기함. c't는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 졌어요'라고 함. 그러나 c't가 가지고 있는 피해적인 사고로 인해 지금 확인해 본 직원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왜 곡된 생각들이 들 수 있음을 전달함. 그럴 때 지금처럼 c't가 실무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고 전달함.</td></tr>
<tr><td>4월28일</td><td>- 주치의상담 지원
: 최근 증상악화로 인해 약물변경 요청 및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자기보고 지원
① 증상일지 점검 내용
<table>
<tr><th>날짜</th><th>상황</th><th>감정/느낌/생각</th></tr>
<tr><td>4/16</td><td>지하철에서 어떤 여자들이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함.</td><td>왜 나에 대한 것과 비슷하고 정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듬</td></tr>
<tr><td>4/17</td><td>아침 출근 할 때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뒤에서 '새끼병신'이라는 말을 함.</td><td>뒤에서 욕한 사람이 나와 치분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듬.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td></tr>
</table></td></tr>
</table>

4/18	생활용품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너무 못 사는 동네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음.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손으로 가르키며 '수급자야'라고 말하는 것 같음.	동네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음.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 같다.
4/19	버스를 타고 앉아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나를 쳐다보며 '맞다니까'라는 말을 함.	왜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듬.
4/20	아주머니가 나에게 '걸렸다, 븅신, 다락방 쓰냐?'라고 함.	같은 지하철을 타서 내 사정을 잘 아는 듯 했다.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러갔는데 '미친거지, 재수없어'라는 소리가 들림.	같은 또래 아가씨에게 이런 말을 들어 더 화가남.
4/21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두 남자가 서로 나를 보며 '저사람, 미친놈이야'라고 함.	화가 나서 나도 '미친놈, 염병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함.
4/22	지하철역에서 카드를 찍는데 역사공무원과 어떤 아저씨가 '일찍 와서 돌아다니는 모양이구나'라고 얘기함.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는지 의문이 듬.
4/23	지하철역 계단에서 청년이 '시발놈아'라고 말하며 지나감.	이에 나도 화가나 '병신아'라고 말함. 회사 근처에서 그러면 안되는데..실수한 것 같다.
4/25	역사 안 화장실에 있는데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쟤, 왕따야"라는 말이 들림.	내가 말을 더듬으니 대화가 어려워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함. 1번 출구로 내려오니 남자들만 있었다.
4/26	세탁실을 나오는데 오토바이 배달부 2명이 "얘들이다 2층 아저씨 무섭다고'라는 말을 함.	내가 머무는 원룸이 2층인데? 정말 나에 대한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듬.

② 증상일지를 점검 후 c't가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 논의

ⅰ) 예약 날자보다 일찍 온 이유는, '거의 매일 이웃사람이나 낯선 사람들이 c't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난 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ⅱ) '누군가 나를 헤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주말에 집밖에 나가지 못해 활동량이 적어 자꾸 살이 찐다.'

ⅲ) '그래도 외부훈련에 참여하는 이유는 힘들지만 견디고 있는 것이다.'

: 위 내용에 대해 c't 휴대폰에 메모하여 연습함.

※ 약물 변경

<table>
<tr><td></td><td>
<table>
<tr><th></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아침</td><td>프로이머정 5mg,
인베가서방정 9mg</td><td>프로이머정 5mg,
인베가서방정 9mg</td></tr>
<tr><td>저녁</td><td>-</td><td>설피딘정 200mg,
리보트릴정 0.5mg</td></tr>
</table>
: 저녁약물 추가되어 약물관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td></tr>
<tr><td>5월8일</td><td>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증상안정 점검
c't 약물변경 후 타인이 c't에 대해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느낌은 줄어들었다고 함. 그래서 요즘은 CGV나 집 근처 및 역사 등을 산책 하기도 한다고 하여 지지함.
: 주거환경 점검
지난 주 이불빨래 했고, 감기예방을 위해 과일 많이 먹고 있다고 하여 지지함.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 환기 시키고 청소 하시도록 권유함.
또한 로또 5등 당첨되었으나 말 더듬는 것 때문에 현금으로 바꾸러 가게에 혼자 가기 어렵다고 하여 시설 내방 시 동행하기로 함.
</td></tr>
<tr><td>5월11일</td><td>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증상안정 점검
최근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많이 줄었으나 아직 이웃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함을 이야기함. 그래도 주말에 부천에서 부평까지 산책하고 장도 보았다고 하여 지지함. 주치의상담 시(5월12일) 증상일지 작성한 것 챙겨 오시도록 말씀드림. 주치의상담 후 실무자와 함께 시설에 돌아와 자조모임 참석하기로 함.
</td></tr>
<tr><td>5월12일</td><td>
- 주치의상담 지원
: 최근 증상악화로 인해 약물변경 요청 및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자기보고 지원
① 증상일지 점검 내용
<table>
<tr><th>날짜</th><th>상황</th><th>감정/느낌/생각</th></tr>
<tr><td>4/27</td><td>내가 두 아주머니 앞을 지나갈 때, 한 아주머니가 ‘빈손으로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라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비하함.</td><td>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그날은 말이 잘 안 나왔던 날이었다.</td></tr>
</table>
</td></tr>
</table>

4/28	회사에서 ○○씨를 대할 때 나를 비하하고 흉만 보는 것 같다. 모른다고만 얘기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었음.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내가 부러워서(○○씨 보기에)그런 것이라는 걸 몰랐다.
4/29	회사에서 쉬는시간 간식(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샌드위치 먹네'라고 하면서 '양아치 같이'라고 말함.	내가 아무런 수고 없이 훈련비를 받는 줄 아는 모양이다. 나만 떳떳하면 된다.
4/30	복지관에서 작업을 하는데 ○○씨 생각에 안 맞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내가 작업하는 것들)작업 선생님한테 큰소리로 얘기함.	혼란스럽다. 사실은 부품이 불량이라서 그런 것이지, 내가 공정순서를 틀리게 한 것이 아니었다. 작업선생님이 신경쓰여서 확인하러 왔다갔고, ○○씨 목소리가 커서 주위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5/1	길을 걷는데 뒤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잠시 뒤(뒤를 돌아보니)아줌마와 아가씨가 덕도 있었다.	신경이 조금 쓰여 그 사람들을 쳐다본건 잘한 것 같다.
5/2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는 도중 앉아있는데 뒤에서 남녀커플이 이불을 털고 개면서 '썩은 내, 저 새끼'라고 여자가 말함.	이불에서 썩은 냄새가 날수도 있고, 저 새끼라고 한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김정은이 나오는 드라마)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무서워해서 그런 걸까?
5/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옆자리 등에 앉은 남녀가 커플 중에 여자가 남자한테 '병신 같지'라는 말을 함.	그때 여자를 쳐다보진 않았지만, 기분도 나쁘지는 않았다.
5/4	복지관에서 ○○씨가 나에게 '말더듬'이라고 장난으로 얘기함. 그리고 내가 다른곳으로 갔는데 ○○씨와 만나서 ○○씨가 하는 말이 '또라이지, 그냥 나오는거야'라고 말함.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 나에 대해 얘길 해도 ○○씨는 말을 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5/5	오늘 오후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지하철역에 내려 걷는데, 뒤에서 '저 형 못살아. 노숙자'라는 말을 작게 함.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진 않은 것 같다.
5/6	오늘 아침에 길을 걷는데 여고가 있는	내가 아침에 마스크를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골목길에서 뒤에 학생이 ‘노숙자애’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음.</td><td>항상 쓰고 길을 걸으니까 여학생들이 겁을 먹은 것도 같다.</td></tr>
<tr><td>5/7</td><td>버스를 타고 뒷 자석에 앉았는데 여고생 2명이 옆에 앉으면서 귀를 대고 소곤소곤 안하기도 하고 휴대폰 설정으로(비웃는 소리)가 들리는</td><td>내가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여고가 있는 골목길로 지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다.</td></tr>
<tr><td>5/8</td><td>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씨 목소리와 ○○씨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하러 일찍 와? ’그러게‘라는 말이 들림.</td><td>내가 그동안 복지관에 오랫동안(한동안)오지 않아서 핀잔을 늘어놓는 것일 수도 있다.</td></tr>
</table>
② 주치의상담 전 c’t가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 논의
ⅰ) ’처음 보는 사람이 c’t를 향해 비난하거나 욕설하는 것이 약물변경 후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 이웃사람, 동료들이 c’t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ⅱ) 주치의가 증상일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ⅲ) ‘외부훈련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나 대인관계가 어렵다.’
: 위 내용에 대해 c’t 휴대폰에 메모하여 연습함.
→ c’t가 스스로 증상관리 할 수 있도록 증상일지 작성 지속 필요하며 담당사례관리자와 함께 내용 점검을 통해 환기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할 것임.
c’t는 수급 유지 보다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원하며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을 통해 피해적인 사고를 완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취업과 유지를 위해 주치의에게 장애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협조요청이 c’t 자기보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td></tr>
<tr><td>5월21일</td><td>- 개별상담
① 증상일지 점검
: 약물 변경 후에도 c't를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c't에게 관심을 가지고 c't에 대해 비난하듯 이야기하거나 c't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함. 그리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c't가 근무하고 있는 외부훈련 업체 사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들은 것 같다고 함.
그리고 물품을 나를 때 무겁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자신은 뒷짐 지고 있고 c't에게 지시하듯 시키는 것이 불쾌하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함께 일 하는게 쉽지 않음을 호소</td></tr>
</table>

	함. 또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모님들 중 몇몇 분에 대해 c't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며 c't가 없는데서 c't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함. 이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외부훈련 유지하며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지지함. ② 주치의상담 시 자기보고의 중요성 전달 : 주치의상담 가기 전 실무자와 함께 증상일지를 통해 최근 근황 확인 후 주치의상담 시 꼭 자기보고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기로 함. ③ 주거위생 점검 : 싱크대 청소를 오랜 시간 하지 않아 애벌레가 나왔고 화장실 바닥은 분홍색 물때가 끼어 있었다고 함. 그래서 지난 주말 싱크대 청소 및 화장실 청소 하였다고 하여 지지함. 또한 최근 김치 부침개를 해먹었는데 그걸 먹고 배탈이나 밤새도록 화장실에 다녔다고 함. 그래서 남은 김치부침개 재료를 다 버렸다고 하였음. 이유를 생각해 보니 호박을 냉동실에 보관했던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 때문인것 같다고 하여 야채는 되도록 신선한 것을 사용하시도록 말씀드림. ④ 칭찬일지 점검 : 칭찬일지 내용 중 칭찬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적혀 있어 칭찬일지작성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함께 확인하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을 진심으로 칭찬해주며 healing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함.
5월29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증상일지/칭찬일지 점검** 최근에도 c't 주변에 사람들이 c't에게 관심을 갖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 처럼 느껴짐을 이야기함. 누가 함께 있으면 그 상황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 표현함. 약물 복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통이 조금 있다고 하였음. 이에 지지함. 또한 부동산 사람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대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하였고 이에 6월 실무자와 c't 휴무일 시간이 맞으면 가정방문을 통해 비밀번호 바꾸기로 함. 실무자가 가정방문을 가겠다고 하니 c't가 실무자가 지난 번 가정방문을 다녀간 뒤 자신의 집 창문쪽에 없던 발자국과

	담배를 태운 흔적(불에 탄 흔적)이 있다고 하였음. 자신의 생각으로는 c't의 집에 여자가 방문한 것을 보고 해코지 할 생각으로 침입하려던 흔적 같다고 이야기함. 이에 c't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예를 들어 드렸고 의심이 되면 몇 일 동안 다시 관찰해 보시도록 함.
6월5일	**- 주치의 상담 전 자기보고 내용 점검** ① c't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c't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비난하는 것 같아 신경쓰임. ②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 있음.(c't에 대해 비난하는 소리 들림) ③ 일상생활의 어려움 (말 더듬는 것 등) → 휴대폰에 메모하여 연습하였고 주치의상담 시 c't 자기보고 잘 이루어짐.
7월13일	**- 개별상담** **: 취업욕구 확인** c't가 약물변경으로 증상이 안정되긴 하였으나 ① 정신질환, ② 수급권자, ③ 혼자 지내는 것 등의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적인 사고로 연결되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지속됨. c't가 수급권자를 포기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나와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업체 정보 제공** 서울시 역삼역 한남주유소/주 5일 근무(10:00~18:00)/세차/90만원 **: 증상 점검** c't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책을 읽고 있고 칭찬일기 작성하며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또한 ○○씨나 ○○씨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함. 실습생과 함께 가정방문 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주말 동안 청소 잘 해 놓으시도록 부탁드림. c't는 가정방문 시 안경을 새로 맞추고 싶은대 말이 잘 안나올 것 같아 함께 가면 좋겠다는 의견 주심. 이에 가정방문 시 동행하고 겉절이(배추or상추)만들어서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7월20일	**- 면접 지원** : 면접 지원 후 c't 검정색 바지와 속옷이 필요해 함께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 지원함. c't 살이 많이 쪄 허리 사이즈 '36'이라고 함. c't 스스로도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유소에

	서 근무하게 될 경우 활동량이 많아져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7월21일	**- 가정방문 지원** ① c't 건강관리를 위한 일상생활 및 증상관리 점검 주거청서/건강한식생활/신체건강 점검 이루어졌으며 c't가 여름철이라 다시 엉덩이/사타구니 부근에 피부병(완선으로추정됨)확인되어 피부과 진료 지원함. ② 취업에 대한 계획 논의 : c't가 말더듬는 것으로 인해 훈련/취업하여 근무할 때 말이 안나올까봐 걱정과 불안함 호소함. 주치의는 말 더듬는 것이 약물 부작용이나 신경과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으나 이번 달 지켜보고 말 더듬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확인 차 신경과 검사 받아보기로 함. : 피해적인 사고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있으며 특별히 비슷한 또래나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음. 이에 실습생과 함께 동행 하여 또래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시도하고자 하였음.
7월30일 ~ 8월3일	**- 업체방문 / 직무지도** : 출근 후 근로계약 후 세차업무 직무지도 함. c't는 내부 세차 중 에어건, 청소기, 걸레질 담당하고 비누거품 후 물기 제거 업무 담당함. 아직 걸레질 시 잡는 방법 세차 순서에 대해 미숙한 부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 업체 관리자도 많은 기대하고 있음.
8월10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실무자와 한 주 동안 근무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① 직장동료 중 한 사람이 근무시간에 자꾸 말을 시키고 시비를 걸어 스트레스를 받음. ② 직장동료에 대한 표현이 '또라이' '걔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등 다소 거친 표현들 사용함. 그리고 타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함. ③ 점심식사 시간에 관리자가 자신에게 일을 마무리하고 가도록해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기다야해 불편함을 주었던 적이 3번 정도 되며 동료들은 왜 늦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오해하고 눈살을 찌뿌렸고 신경이 쓰인다고 함. → 동료와 긍정적인 관계형성 또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면 타인이 같은 자리에 없을 때 험담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함. 또한 c't 스스로 동료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c't에게

	자꾸 말을 시켜 불편감을 주는 동료에게 c't가 근무 중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 하는 과정 지원함. → 업체관리자에게 c't가 대인관계의 어려움 있음을 전달하며 식사 시간의 c't가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전달하고 배려 부탁드림.
8월15일	**- 취업회원자조모임 '캠프' 참석** : 대인관계에 있어 특별히 비슷한 또래나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높아 캠프 시 시설에서 실습에 참여하였던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긍정적인 관계형성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와 연결지어 c't와 비슷한 또래인 자원봉사자와 월 1회 여가생활을 통해 시설 외에 지지체계 확보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낮은 욕구 보임.
8월17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캠프 후 바로 출근하여 피곤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니 날씨가 좋지 않아 세차 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다고 함. 쉬는 시간에 회장님이 주유쪽 업무 지원 요청하였는데 자신은 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가서 일 하는 것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지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함. → 업체측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직무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직원도 지켜보고 있지만 인원이 어느정도 충원되게 되면 직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c't가 소화 가능하다면 주유쪽 일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전달함. 업체에 도착하여 c't 직무 적응정도를 확인했을 때 일 한 기간에 비해 많이 숙련되어 보였고 관리자도 만족해하며 기대감 표현함. 다만 현재 인력이 부족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2회 휴무였는데 1회 밖에 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청함.
8월21일	**- 전화상담** **: c't가 퇴근 후 실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출근 하게 되면 동료와 크게 싸울 것 같다고 도움 요청함.** ① c't 근무기간 동안 함께 일 하는 동료가 꾀를 부리며 일 해 c't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체력 소진 ② 업체 관리자들 또한 내부세차 관련하여 손님에게 컴플레인 발생 시 동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근무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c't에게 '책임자'라고 하며 c't를 혼내는 등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호소 ③ 8월부터 수급비가 올라 월 48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되 취업

<table>
<tr><td></td><td>유지에 대한 목적이 많이 흐려진 상황
→ 주말과 24(월)은 실무자가 함께 업체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업체측에 c't의 위기상황 전달하며 24일까지 휴무 할 수 있도록 양해 구함. c't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3일 동안 쉰 후 생각 정리 후 25일 실무자와 함께 출근하여 퇴사 여부 결정하기로 함.</td></tr>
<tr><td>8월25일</td><td>- 8월 일기 점검 및 개별상담
<table>
<tr><th>날짜</th><th>상황</th><th>감정/느낌/생각</th></tr>
<tr><td>8/1</td><td>일 마치고 인사할 때 사장님이 “앞으로 ○○씨가 하는거 다시 한 번 봐봐”라고 하여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벅차요”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사장님이 계속 말하셨다.</td><td>이러다 힘들어서 이직을 결정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사장님은 나를 장애인으로 안 보는 것 같다.</td></tr>
<tr><td>8/2</td><td>오늘 주유소에서 ○○씨가 계속 시비를 걸었고 욕설을 해댔는데 사장님이나 관리직원의 귀에 들어갈까봐 참았다.</td><td>친하게 지내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겠다.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아 힘들었다.</td></tr>
<tr><td>8/4</td><td>주유소에 오는 외제차를 세차하면서 나도 조금씩 물들어 간다는 것을 느낀다.</td><td>나도 그 잘사는 동네 사람들처럼 될까봐 무섭고 두렵다. 나 자신은 돈이 어느 정도 생길수록 거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td></tr>
<tr><td>8/8</td><td>오늘 주유소에서 업무가 많은 것 같아 ○○씨에게 “안도와주면 내가 힘들어요. 이거 내가 혼자 못해요”라고 성질부리듯 말을 했고 ○○씨가 짜증을 내며 “나도 힘들어”라고 말했다.</td><td>내가 말하는 방법이 안 통했다.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td></tr>
<tr><td>8/9</td><td>○○씨가 주유소에서 나에게 한 말은 좀 자극적인 것이었다.</td><td>되도록 상대하지 말자</td></tr>
<tr><td>8/10</td><td>오늘 전철을 타는데 얘기하다가 ○○씨에 대해서 내가 “별 그지 같은게 와가지고, 걔 완전 또라이예요”라고 말했다.</td><td>사실 분노에 차 있었고, 마음을 터 놓을 친구가 없었다. 그런말을 하지 말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td></tr>
<tr><td>8/11</td><td>퇴근 시간에 ○○씨가 나에게 “얼른가”라고 말하고 ○○씨를 따라갔다.</td><td>○○씨와 이야기를 많이 해 봐야 한다 그러면 응어리가 풀릴 것이</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td><td>다.
상대방과 걸음을 맞춰 걷는 연습을 자주 해 보는 기회를 갖자.</td></tr>
<tr><td>8/12</td><td>주유소에서 ○○씨가 해야할 일은 나에게 주고 가만히 서있기만 하는 일이 내가 온 날 부터 계속되고 있다.</td><td>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힘들다고 얘기해보자.</td></tr>
<tr><td>8/13</td><td>오늘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나와 주변사람들이 꽤 불편을 겪었다.</td><td>‘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전 주유소에 오랫동안 다니고 싶습니다’</td></tr>
<tr><td>8/19</td><td>오늘은 주유소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왜 출근을 안 하느냐고)</td><td>어쨌든 오늘은 출근을 안하게 되었으니 내일 가서 부딪히고 전쟁을 하자.</td></tr>
<tr><td>8/21</td><td>주유소에서 반장님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 내가 말을 자주 더듬고 나서 그러는 것 같다. 또 “창기처럼 일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td><td>난 분명히 했는데 안했다고 하거나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서 “직므은 말이 잘 나오지 않느냐”라고 다긋치기도 했다.</td></tr>
<tr><td>8/24</td><td>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만뒀어?짤렸어?”라고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다.</td><td>주제파악도 못하는 태도 약한 사람들이다.</td></tr>
</table>

→ c’t 일기 점검 및 상담을 통해 주유소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며 현재처럼 혼자서 내부세차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취업유지 어렵다는 결론을 냄.
***업체 측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정리**
① 함께 근무하는 파트너 변경 가능성
② c’t에게 많은 기대는 부담이 됨을 전달
③ 휴무일 보장 등에 대해 조율 가능성 확인하기로 함.</td></tr>
<tr><td>8월25일</td><td>**- 업체관리자와 c’t 취업유지를 위한 논의**
: c’t와 실무자 함께 업체 내방하여 논의 이루어짐.
→ 업체쪽에 c’t가 취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전달함. 업체 관리자는 c't가 계속 근무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어서 c’t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파트너 변경 c’t의 직무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여 급여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시켜 주겠다는 조건 제시함.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월 8회 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력 지속적으로 충원</td></tr>
</table>

	하고 있는 상황 이야기함. 이에 c't와 논의 후 1개월 동안 근무 유지 해 보고 결정하기로 합의함.
8월28일	**- c't 전화상담** **: 응원 메시지 발송** 8월26일부터 현재까지 실무자에게 전화 없이 근무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하며 문자 메시지로 안부 확인함. '근무 잘 하고 계신가요? 연락이 없으신 걸 보니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별일 없으신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 퇴근 후 전화 주셨고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업체 측에서 진짜 급여를 인상해 줄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함. 또한 자신으로 인해 직무가 변경된 ○○씨와 함께 지내는 것이 껄끄러우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임을 스스로 이야기함. → 급여인상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며 동료관계는 c't가 이야기하신대로 시간이 필요하며 ○○씨도 이번 일을 개기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임을 전달함.
8월31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c't는 가족이 없어 일상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퇴근 후 실무자와 간간히 통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마운 마음 표현하여 지지함. 9월1일 외래 가기 전 주치의에게 꼭 보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함. **- 주치의 상담 전 자기보고 내용 점검** ① 낯선 사람에 대해 신경쓰이는 부분은 줄었으나 동료관계에 있어 어려움 전달 ② 일상생활의 어려움 (말 더듬는 것 등) ③ 두통 및 구토증상이 약물 부작인지 여부 확인 → 휴대폰에 메모하여 연습하였고 주치의상담 시 c't 자기보고 잘 이루어짐.
9월7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아침 출근 함께하며 상담 진행함. 주말 동안 실무자에게 전화가 없어 잘 지내고 계신 줄 알았으나 파트너가 바뀐 후에도 여전히 파트너가 자신의 몫을 못하여 자신이 챙겨야 하는 일이 많다며 '왜 제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제가 일을 잘 한다고 업체에 이

	야기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기대가 높아 자꾸 다른 일을 시키는거 같아요. 이런식이면 저는 오래 일을 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함. → 결론적으로 c't가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세차 쪽에서는 관계면에서 빈번하게 부딪히게 되어 외부세차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였음. 이에 업무 변경은 업체측에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업무변경이 되지 않을 시 그만 두고 싶은 것인지 확인했고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업체측에 c't의 의견 전달하였고 업체 측에서 c't의 의견 수렴하여 다음 주 부터 내부세차에서 외부세차로 변경 해주기로 하였음. c't에게 회장님과 논의한 내용 전달하였고 실무자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심.
9월8일	**- 취업회원 자조모임 참석** **- 개별상담(증상일지 및 칭찬일기 점검)** : 칭찬일지 및 증상일지 점검하였고 c't가 실무자를 통해 자신이 취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 전달함. 최근 수급자가 아닌 사회인으로 자부심이 생기고 낯선 사람이 c't에 대해 비난하는 환청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음. 자조모임 참석 시 껌을 씹고 있었는데 껌을 씹으니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함.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 취업을 유지하는 것은 c't의 몫이므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 하시도록 당부드림.
9월9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칭찬일지/증상일지 점검)** → 증상일지에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적혀 있었음. 대부분 실무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었음. 칭찬일기 작성 목적은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통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데 칭찬 보다는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적혀 있어 칭찬일지의 작성 방법과 목적에 대해 다시 c't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증상일지 내용 또한 피해적인 사고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적절히 환기하고 객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9월10일	**- c't 전화상담 (근황보고)** : 어제부터 외부세차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물 쏘는 업무를 시켜 힘들다고 회장님과 반장님께 이야기 하였고 오전과 ○○씨가 힘들 때 도와주는 정도로 했다고 함. c't는 관리자에게 '실무자와 물총 쏘는 업무는 안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관리자에게 전달했다고 함. 그런데 회장님은 '실무자와 물총 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 해 실무자에게 사실확인을 하였고 당시실무자가 외부세차로 보직 변경까지만 이야기

	하였고 c't가 외부세차를 해보고 나서 정말 너무 힘들면 그때 실무자와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던 상황에 대해 상기시켜드림. c't는 실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봄. → 실무자의 생각에는 월 120만원을 받기 위해선 물총 쏘는 업무의 수행이 다소 어렵더라도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씨 정도의 직무수행은 필요한 상황임을 전달하였고 c't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함. 하지만 c't는 급여를 조금 받더라도 오래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 외부세차 하는 정도로만 일 하고 싶다고 함. 이에 다음 주 방문 시 c't의견에 대해 다시 관리자와 논의 해 보기로 하였음.
9월14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① 외부세차 업무 중 물기제거(걸레질)하는 업무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 → 관리자에게 c't가 현재 보직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있으며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현재 맡은 업무 잘 수행하고 있어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함. ② 반장님이 자신에게 '희안하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불편한 감정이 듬. → 반장님께 c't가 대인관계에 있어 서툴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전달드리며 배려 부탁함. ③ 말이 잘 나오지 않아 간헐적으로 반장님, ○○씨에게 강하게 '싫다'고 하는 등의 일이 있었고 이후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신경 쓰인다고 함. → ○○씨에게 "내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억양이 세게 나와 저번에 내 생각해줘서 이야기 해준건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해"라고 전달해 보시도록 함. 이에 c't는 고개 끄덕이며 "네, 해볼게요."라고 하였음. ④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우편물 받으신 부분에 대해 문의 →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될 예정으로 위 서류작성은 불필요함을 전달함. 대신 주치의상담 시 '산정특례'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함.
9월15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c't가 어려울 때 실무자가 함께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 표현함. 근무하면서 동료 및 관리자와의 관계의 어려움 이야기하였고 서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함. : 실무자와 상담 시 타 회원들이 자신에 대해 흉보는 것이 들린다

	며 불쾌한 마음 표현하기도 함. → 대인관계는 c't가 오랫동안 마음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봄으로써 훈련되어지고 배우는 것임을 전달함. 또한 타 회원이 c't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c't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정체감 및 피해적인 사고와 연결되어진 것으로 파악되나 이전에 비해 증상이 나타나는 강도나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됨.
10월5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증상일지/칭찬일기 점검)** : c't 최근 근황에 대해 확인함. 외부세차 팀에서 ○○씨가 일을 나오지 않아 c't가 폼을 쏘고 물총 쏘는 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함. 급여를 적게 받아도 힘들지 않은 직무로 일하며 오래 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함. 이에 이번 주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c't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자에게 전달 요청함. → c't가 원하는데로 근로계약 내용 체결하겠으나 현 주유소 상황을 고려했을 때 c't가 90만원을 받더라도 인력이 부족하여 직무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음을 전달함. 이에 c't도 동의함. c't가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하면서 c't가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도록 함. 또한 11월에 장애등록 재심사도 고려해 보기로 함. : 동료관계에 있어 받고 있는 스트레스 호소함. → 동료관계에 있어서도 농담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c't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손 내미는 것 등에 대해 나누며 대인관계에 대해 c't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함.
10월6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c't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 새롭게 체결
10월13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지난 주 인상된 급여 받았으며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함. 물총 쏘는 일은 신규 직원이 함께해 한결 일이 수월해 졌다고 함. 그런데 휴무일이 주 1회 밖에 없어 힘들어 하였고 이에 근로계약서 안에는 월 7회 휴무일로 협의해 관리자에게 확인하기로 함. → 관리자와 협의하여 매주 월, 목 휴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c't에게도 전달함. c't가 안정적으로 취업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 되었으니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도록 당부드림.
10월22	**- 개별상담**

<table>
<tr><td>일</td><td>: c't 휴무일 내방하여 상담함. 근무하면서 동료관계에서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함. 동료관계 안에서의 소소한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게 상담을 통해 환기하는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함. 금일은 휴무여서 등산 후 그루터기에서 점심식사 하고 귀가하려고 한다고 하였음. 이에 휴무일 잘 쉬시며 컨디션관리 잘 하시도록 지지함.</td></tr>
<tr><td>10월26일</td><td>- 주치의상담 지원
: ① 증상일지 확인 후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 논의
ⅰ) '일은 수급탈락 후 경제활동이 필요해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동료들이 c't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거나 비난하는 말 하는 것 같이 느껴져 힘들다.'
ⅱ) 말을 더듬는 것이 노력해도 계속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동료관계의 어려움 전달(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음)
ⅲ) c't가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있어 도움 없이 취 업하기 어려워 장애등록이 필요함 전달.(장애등록 재심사 서류 요청)
: 위 내용에 대해 c't 휴대폰에 메모하여 연습함.
→ 주치의가 보는 c't에 대한 소견은 '피해적인사고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경도장애'라고 하였고 이에 사실상 장애판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됨. 그래도 재심사 요청은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기로 하였음.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임.</td></tr>
<tr><td>10월29일</td><td>-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대인관계의 어려움(동료관계)호소함. ○○씨가 c't에게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사용하는 언어에 욕설이 많아 신경이 쓰인다고 함. 또한 반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평소에는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고 회장님 앞에서만 장애인인 직원들에게 최고!최고!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함. 이에 c't의 대처방법은 평소 가까이 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함. 이 밖에는 일 하는데 잘 적응하고 있어지지 함.</td></tr>
<tr><td>11월2일</td><td>- 사후검사 실시
<table><tr><th>내 용</th><th>사전점수</th><th>사후점수</th><th>사전/사후 변화</th></tr><tr><td>자아정체감(135점)</td><td>71점</td><td>103점</td><td>32점↑</td></tr><tr><td>사회적지지(80점)</td><td>55점</td><td>80점</td><td>25점↑</td></tr></table>: 위 내용으로 파악했을 때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지지 인식정도가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td></tr>
</table>

	: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독특성, 자율성, 적응력, 가치에는 사전척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어 변화 확인됨. 하지만 자기수용 및 사회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어 앞으로 c't가 스스로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며 성공적인 경험들을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지지 척도에 서는 가족은 c't에게 무관심하며 현재-미래까지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c't의 의지가 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c't의 지지체계는 본 시설의 실무자 및 취업장 안의 동료 등 앞으로 다양한 지지체계와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c't에게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c't에게 필요한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11월9일 ~ 11월20일	**- 업체방문을 통한 개별상담** : 사후검사 내용 공유 / 15년 함께 세웠던 재활계획 목표 점검 및 그동안 c't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 과정 확인

Ⅴ. 결론 및 제언

1. 본 사례연구의 개요

2015년 1월~현재까지 건강한 지지체계 기반이 c’t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확립과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례연구임.

c’t는 2007년 10월부터 본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실무자가 c’t에 대한 사례관리를 맡게 된 시기는 2014년 4월부터였음.

당시 c’t는 정신과적인 증상인 피해적인 사고로 인해 본 시설 및 전체 실무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며, 상담 시에도 “선생님께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하시던 데로 하시면 되요. 다른 시설을 알아보던 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해야죠″ “다음에 이야기 할게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들으려는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가족이나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상관없어요.“라고 하며 사례관리자와의 거리를 두고 회피하며 방어하는 모습이 지속됨. c’t와 관계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업체방문을 통해 상담 시도 하며 노력하였으나 ”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피 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라며 피해적인 사고와 연결되 실무자에 대한 경계적인 태도 지속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고비가 있기도 하였음.

15년 1월 시설 이용 유지에 대한 ‘서비스계약’ 진행 시 c′t 스스로 실무자와의 관계형성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부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 후 안정될 때까지 시설 및 사례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사례관리자 또한 c’t가 앞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비스계약 지속에 합의함. 하지만 사례관리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서비스제공 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함께 공유하며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 관계 개선 시작될 수 있었음.

c’t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실무자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고 주치의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적인 사고에 따른 증상도 완화될 수 있었음.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c’t의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 및 정신과적인 증상에 대한 통찰력 향상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또한 이러한 c’t의 회복 과정에서 동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음. 사례관리는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c’t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본 시설 및 취업장 등 지역사회 안에서 탄탄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당당하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임.

2. 본 사례연구의 효과성

연구가설 1)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정도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 실무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한 긍정적인 지지체계 경험

: 사회적 지지정도 사후검사 시 사전에 비해 25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c’ t 일상생활의 어려움 발생 시 실무자와 수시 상담을 통해 환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c’ t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c’ t는 실무자에게 “집에 친구가 있어 퇴근하고 왔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라고 이야기 하는 등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표현되기도 함. 이는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c ‘t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부분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실무자가 c’ t에게 의미 있는 지지체계로 자리 잡았고 새로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실무자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업체 및 시설 안에서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 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관계형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ii) 건강한 자아정체감형성을 위한 자립 모색

: 자아정체감 사후검사 시 사전에 비해 32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c’ t는 자립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과 탈 수급을 원하였고 취업 시도 이루어짐. c’ t의 안정적인 취업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나 c’ t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됨.

연구가설 2)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정도는 회복의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 c’ t 정신과적 증상 안정과 병에 대한 통찰력 향상

: 증상일지 작성을 통해 정신과적인 증상이 c’ t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며, 실무자와 수시 상담을 통해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됨. 또한 주치의상담 시에도 활용하여 증상악화 시 약물 변경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증상완화에 도움이 됨. 그럼에도 잔류증상(피해적인사고)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지속되고 있으나 이전 보다 객관적인 확인 가능해짐.

3. 보완사항

- c’ t와 실무자 간의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앞으로 선생님 없으면 어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언제까지 그루터기에 계실지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 하는 등 c’ t가 실무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 관찰되기도 함. 취업장 내에서 어려움 발생 시 환기를 위해 실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증상일지에 작성하며 해소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

기 전 스스로 해결하며 스스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또한 관찰됨.
이에 실무자는 c’t가 앞으로 c’t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필요할 것임.

-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음.
장기적으로 c’t의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외에 다양한 지지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c’t兄과의 관계 회복이 요구될 것임.
- 건강한 자아정체감 확립 및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의 목표는 단기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4. 향후계획

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연계 된 c’t에게 주1회 정기적인 취업장방문과 수시 전화상담, 업체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월1회 취업회원 자조모임을 통해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② c’t의 삶에 대한 주체성 향상

: c’t의 회복의 과정 안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은 낮추고 스스로의 삶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c’t가 세운 회복 목표에 대한 달성 등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개입 필요할 것임.

③ 문제해결능력 향상

: c’t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주치의 상담 시 자기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며 대인관계 시 피해적인 사고/갈등상황 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 및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

④ 가족지원

: c’t의 가족(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가족모임을 통해 회원의 회복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c’t의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며 회원의 자립 지원.

※ 참고문헌

- 이재남(2010),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지현(2005), 사회적지지 정도가 정신장애인의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사례연구 15-08

과제중심모델을 활용한 사례관리 강화 방안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연구자	황수빈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2.24.~ 2015.11.20. / 201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개별 사례관리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개입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적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이러한 목적 달성은 쉽지 않다. 의료, 정신의료, 재활, 소득, 고용, 주택 등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은 다양하고 파편화된 서비스 체계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들이 갖는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지역사회 내에 분산되어있는 서비스 자원체계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때 사례관리는 지역 내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개발.구축.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통합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실천방법으로 작동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가? Intagliata(1982)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기능을 연속적 흐름으로 배치된 일련의 과정(process)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사례관리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어떠한 서비스라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특정 대상이나 구조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5가지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기능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기, 포괄적인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기, 서비스를 배치하기, 서비스를 점검하고 사정하기, 평가와 사후관리하기 등이었다. 이 기능들은 특정 상황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례관리체계에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Sands(2001)도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의 기본적 기능으로써 사정, 계획, 연계, 점검을 언급하였으며, 여기에 옹호 기능을 추가하였다.

Moxley(1997)는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례관리가 수행하는 기능을 연속적인 문제해결모델(sequentialproblem-solving model of helping)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례관리의 핵심적 기능을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라고 제시하면서 이것은 NASW(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가 제시한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전문적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 Rothman(1991)도 정신보건분야를 비롯한 일반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관리 수행의 체계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개별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례관리의 다양한 기능을 시간적 단계별 과정으로 배치하였다. 먼저, 사례관리를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미시적 기능과 기관의 서비스와 비공식적 원조망의 지지체계로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거시적 기능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의료, 노인, 재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헌을 고찰하고, 현장의 사례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와 실험을 거쳐서 사례관리의 모형을 정립하였다. 이 모형에서 제시하는 총 14개의 사례관리 기능에는 사례 발굴과 의뢰, 인테

이크, 사정, 목표설정, 개입 계획설정, 자원파악과 목록화, 자원 연계, 점검, 재사정, 평가, 기관간 조정, 상담, 치료, 옹호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 기능들은 시간적 과정에 따라 연속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기능들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이 되며 중첩되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의 정신보건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의 기능을 단계적 과정으로 제시한 연구들은 상당하며, 특히 실천 현장에 직접 적용한 경험적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이영실(1998)은 기존 문헌들을 고찰하여 정신장애사례관리의 공통적 과정이 사정, 계획, 연계, 지속적 점검 및 평가, 옹호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실천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례관리의 실제적 과정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기능과 자원을 사정하는 과정, 둘째,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및 간접적 실천을 수행하는 개입 과정, 셋째, 클라이언트의 효과성과 서비스를 지원한 관리체계의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연구(이영호, 1997)에서는 낮병원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사례관리의 과정을 사정, 목표설정, 중재계획, 연결, 점검으로 구분하여 정신보건환경을 위한 사례관리 접근방법의 현실 적용성을 타진하였다. 그 결과 각 기능별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연결 기능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의 범위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체계를 확대하여 환자를 연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점검 기능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 과제중심모델을 활용한 사례관리방법은 c’ t의 개입에 효과적이다.

1)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c′t의 개별 사례관리에 효과적이다.

2) c′t의 개별 사례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목표 합의, 과제부여 및 점검의 활동은 c′t 스스로의 목표 인식 및 활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문제의식

1) 개별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

2014년 12월 31일 기준 본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의 진행은 총 852회, 참여 인원은 연간 10,731명 (주간재활 프로그램 기준, 행사 프로그램 제외)이며, 개별 상담의 횟수는 519회로 집단형태의 접근이 개별 형태의 접근보다 높다. 재활 프로그램 등 집단 프로그램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c′t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해 파악하고, 과제를 부여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주간재활 회원 대상으로 진행함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본 시설 이용 회원의 특징

① 장기 이용에 따른 시설 이용의 목적성의 약화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30인의 이용인원 중 취업 회원을 제외한 주간재활 내소 회원은 총 16명이다. 이 중 1년 미만 이용회원은 2명, 1~3년 미만 이용 회원은 4명, 3~5년 이상의 이용회원은 3명, 5년 이상의 회원은 7명이다. (2014년 하반기 사회복귀시설 이용 현황표-본 시설 자료 참고) 시설 이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원의 스스로의 이용의 목적성이 약화되며, 이에 따라 시설의 특성을 재활훈련의 시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단기보호 형태의 시설(실제로 이용 회원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다 가는 곳', '갈 데 없어서 가는 곳'으로 표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시설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이와 같은 분위기의 형성은 이용 회원의 자발성 및 적극성의 부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시설 운영이 지향하는 방향인 '정신장애인의 재활-회복의 동행자, 주인의식의 강화'에서도 그 목적성이 약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② 사례관리자와의 합의된 목표의 인식 부재→인식 강화 필요

사례관리자와 회원(c't)의 목표에서의 동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회원 스스로의 목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본 시설의 사례관리자는 회원과 합의된 목표로 개별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로 연 1회 주치의 및 가족에게 발송하는 서비스과정평가서에 합의된 목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였었다. 그러나 매년 사례관리자와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에 대한 c't의 인식정도는 낮아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을 때, 회원 대부분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관계가 없는 목표를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관리자와의 합의된 목표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인식의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회원 스스로의 객관화된 평가 필요

본 시설에선 실제로 회원과의 합의된 목표를 바탕으로 연 2회 평가한다. 첫 번째는 상반기가 끝난 시점(7~8월)에서의 개별사례관리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담당자-회원-가족의 서명을 받아 주치의에게 발송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12월 1년의 이용과정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시설 서비스 계약을 위한 평가-점검하는 과정이 있다. 물론 담당 사례관리자와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목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긴 하나 회원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본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목표의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완전한 객관성을 가질 순 없겠지만, 회원의 평가와 담당자 평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과제중심모델의 개요

과제중심 모델은 1970년대 초 Chicago대학의 Reid와 Epstein에 의하여 개발된 모델이다. 이것은 특정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을 도우려고 계획된 단기형태 혹은 시간 제한적 형태이다. 즉, 기존의 장기적 치료가 비용의 문제, 중도포기의 문제, 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단기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다 집중적인 구조화된 개입형태를 바라는 경향에서 나온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내에서 8회 내지 12회 정도까지 제공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력해서 발전시키는 과제 또는 문제해결 활동을 조직하게 되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는데 그의 노력을 집중하면서 통찰력을 키우고 강화에 이르기까지 절충적 중재를 활용한다. (전재일 외, 2004 : 356, 재인용)

과제중심모델은 단기치료에서 사용하는 많은 방법, 즉 시간제한, 제한된 목표, 초점화된 면접과 현재에의 집중, 활동과 지시, 신속한 초기 사정, 그리고 치료의 융통성 등을 이용하고 있다. (Epstein, 1992 : 72, 재인용) 과제중심 모델의 특징은 첫째, 시간제한적 단기개입이며, 둘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계약한 구체적 문제해결에 개입의 초점을 두는 구조화된 접근이고, 셋째,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활동은 그가 수행에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넷째, 이론보다는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염명용 외, 2006 : 435-436, 재인용). 과제중심 모델은 대인간의 문제, 개인 내적인 문제, 개인과 환경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절충적 실천의 틀(frame-work)로서 하나의 이론적 정향에 기초하기보다는 여러 이론을 절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김혜란,홍선미, 공계순, 2001 : 107,재인용)

과제중심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엄명용 외, 2006 : 437-438, 재인용)

① 시간제한적 단기치료서 주 1~2회 면접을 6~12회 정도로 구성하여 대개 4개월 이내에 사례를 종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표면적으로 계약한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③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활동을 수행하기로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각자의 과업이 구체화, 구조화된 접근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원조한다.

④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에 의존하여 직접적 치료기법을 제공하기보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실행가능한 과제로 대치하도록 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제한된 기간 내에 가능한 한 건설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⑥ 기본적 가치전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다.

⑦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2. 본 시설 프로그램의 연관성 및 적용 방법

1) 과제중심모델의 기본 실천 이론 적용

회원들과의 합의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단계별로 각자의 과업을 구체화하고, 구조화된 접근으로 회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또한 회원 스스로 실행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며, 이를 매월 점검함으로써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원들과의 합의된 목표의 지속적인 공유-반복 접근이 선행되며, 이를 통해 개별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 시설의 적합한 형태로의 전환

① 단기와 장기 개입 형태의 절충

과제중심모델은 단기적인 접근이 특징이다. 그러나 본 시설의 특성상 회원이 시설을 등록하여, 이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장기적인 접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접근이라고는 하나 매월 목표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음으로 때에 따라선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② 개별 사례관리의 프로그램화를 통한 체계화 작업

본 시설에서의 개별 사례관리는 담당자가 주기적인 상담과 합의된 목표에 따른 사례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개입이 나누어졌다. 또한 실무자의 업무에 따라 목표에 따른 점검이 체계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별 사례관리의 방법에 대한 고안을 프로그램화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측면/개별사례관리 측면의 복합적인 효과성에 대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개별 사례관리

1) 목적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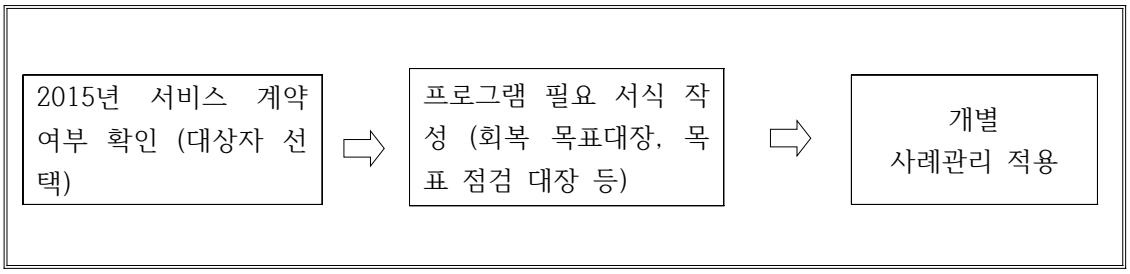
목적	목표
과제중심모델을 활용한 사례관리 방법은 개입에 효과적이다.	1. 프로그램 운영 측면 1) 주기적인 회원 개별의 회원 목표 수립 및 점검 활동이 이루어진다. 2) 체계화된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2. 개별 사례관리 측면 1) 매월 목표 설정 및 합의를 통해 회원 스스로 목표에 대해 알 수 있다. 2) 개별상담-과제부여-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운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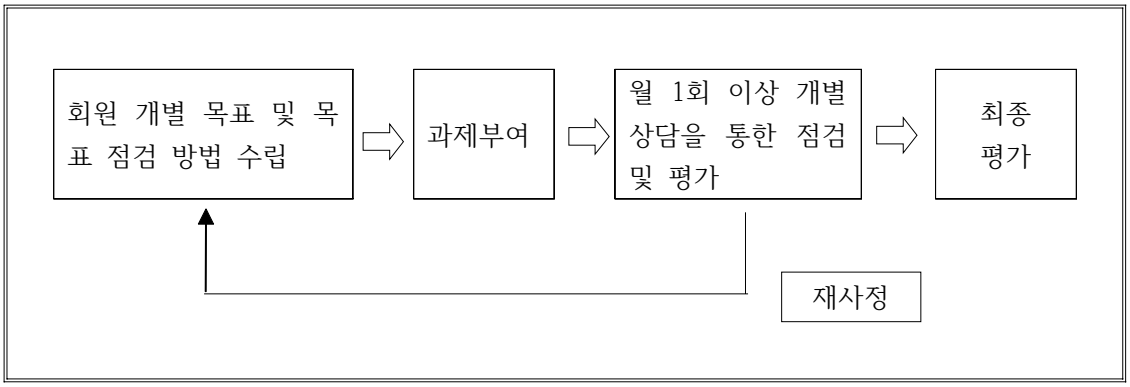
① 대상 : 전체 주간재활 프로그램 회원

②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 본 보고서 연구자(황수빈)의 사례관리 대상 중 회원 5명

③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틀



④ 프로그램 내 세부 사례관리 방법



3) 연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서비스 계약서 작성 (계약 여부 확인,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필요 서식 작성	회복 목표대장												
	목표 점검 대장												
프로그램 운영 실천 – 개별 개입	개별 목표 수립 (2월 수립 → 3~11월의 경우엔 상황에 따라 목표 수정 가능)												
	목표 점검 방법 합의												
	대상자 사례회의												

	과제 부여												
	개별 목표에 따른 활동												
	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 (월별기록지 작성-평가)												
	서비스 과정 평가서 작성-서명 (목표에 대한 회원 평가)												
프로그램 운영 측면	중간 평가(담당자)												
	최종 평가												

4) 개별 목표 수립 방법

- 회원의 개별 문제 및 욕구 확인
- 담당자와의 합의를 통한 목표 수립
- 목표에 따른 점검방법 수립
- 목표에 따른 매월 과제 부여, 점검

2. 연구 대상자 기본 인적 사항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세)	장애명	장애 등급	거주지	시설 등록일	비고
1	경*혁	M	53	정신장애	3급	남동구	2014년 2월	
2	전*숙	F	43	정신장애	3급	남동구	2011년 6월	
3	김*순	F	56	정신장애	3급	남동구	2013년 3월	
4	문*수	M	35	정신장애	2급	남동구	2004년 6월	지적장애 동반
5	이*민	M	49	정신장애	3급	남구	2015년 3월	

※ 대상자-이*민의 경우 2015년 시설 등록 회원으로 등록일 시점이후부터 목표 수립 후 개입 진행함.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구분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프로그램 운영 측면	개별 프로그래스	주기적인 개별상담 운영(월1회)에 대한 체크 목표설정 및 과제부여의 방법 확인
개별 사례관리 측면	목표 관리 대장, 점검 대장 작성	회원 목표 확인 → 월별기록지 작성 확인 점검 대장에서의 점수 및 회원 평가 점수 확인 회원 개별 인터뷰

Ⅳ. 연구 결과

1. 사례 진행 사항

1) 프로그램 운영 측면

① 주기적인 개별상담 운영

- 전체 개별상담 횟수 비교

	2013년 1~10월 말 기준 횟수	2014년 1~10월 말 기준 횟수	2015년 1~10월 말 기준 횟수	비고
개별상담 횟수(A)	381회	467회	410회	본 보고서에 대상자인 5명 외의 시설 전체(내소)의 평균 상담 횟수임.
10월 이용 실인원(B) ※총 내소 일수대비 회원 출근일수 1/2 초과한 회원	15명	16명	12명	
1인당 평균 상담 횟수 (A÷B)	25.4회	29.2회	34.2회	

※ 결과 : 전체 회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비교하였다. 2013~2014년 기준으로 횟수 증가한 모습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0월 기준 실인원으로 파악하고 평균치를 확인하는 것이 허수 발생할 수 잇겠으나 그래도 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0월 기준으로 결과값 제시하였다.

- 담당 사례관리자와의 개인별 개별상담 횟수 (근거 : 개별프로그래스)

※ 전화 및 가족상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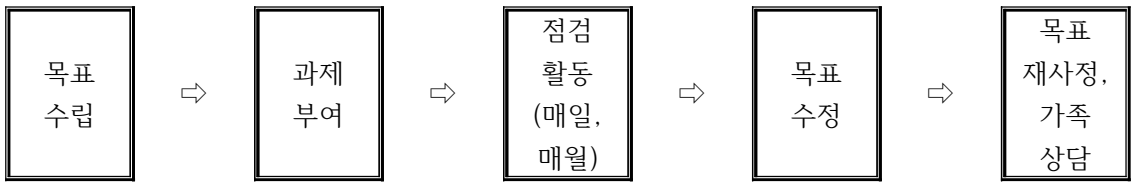
연번	이름	2014년 1월~ 10월말 기준 개별 상담 횟수	2015년 1월~ 10월말 기준 개별상담 횟수	결과
1	경*혁	22회	16회	**감소**
2	전*숙	7회	24회	**증가**
3	김*순	16회	68회	**증가** 2014년 외부 취업상황으로 담당 사례관리자 상담 이루어지지 않음 → 직업재활 담당자가 상담 이루어졌으며 횟수 제외
4	문*수	20회	51회	**증가**
5	이*민	0회	23회	2015년 신규 등록 회원

※ 결과 : 앞서 결과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나 본 보고서에는 연구자 담당 케이스 만이 포함되기에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담당사례관리자와의 개인별 개별 상담 횟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별 기능 및 목표에 따라 개별 상담의 횟수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 사례 5명이 모두 개별상담 횟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2014년 당시 개별상담은 문제 상황 발생시나 필요상황에 따라서만 개별상담이 이루어졌으나 2015년은 개인별 회복목표를 합의하고 이를 통한 활동에 대한 개입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회원들도 개별상담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관리자와의 지속적인 회복지향적인 부분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목표 점검 / 점수체크 여부(인원)**

	2월	3월	4월	5월	6월	7~8월	9월	10월
결과/ 총인원	4명 / 4명	3명 / 4명	5명 / 5명	5명 / 5명	5명 / 5명	2명 / 5명	5명 / 5명	5명 / 5명
비고	1명 회원 입원 / 서비스계약 -목표 설정	1명 회원 입원 / 1명 회원 상담시 결근	1명 신규회원 발생 (이*민)					
달성률	100%	75%	100%	100%	100%	40%	100%	100%

② 프로그램 체계성



2) 개별 사례관리 측면

① 회원 개별 목표 – 활동 방법 수립 (2월)

이름	회원-가족-사례관리자가 합의한 회복 목표	회복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활동 방법	점검 방법
경*혁	c't 자발적인 삶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 취미/PC교육/개인시간 등을 활용해 시설내 책 (고등어) 작성하기	1주~1개월 단위에서 과제 부여 및 확인
		복부 지방 감량을 위해 주 5회 도보로 출퇴근	활동 수행에 대해 ○ 표시
		자발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회원 출근시 인사하고, 출퇴근 기록지 관리 지원 역할 수행	매월 및 수시로 출퇴근 기록지 담당자 확인, 활동수행에 대해 체크
전*숙	건강한 삶	식습관 개선을 위한 다이어트 일기 작성	다이어트 일기 작성,
		주민자치센터 헬스 주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날짜에 ○ 표시
		취미활동 - 십자수or. 뜨개질	작품(결과물) 수행 확인
김*순	증상관리	약물관리	① 약물에 대한 c't 스스로의 부작용 확인 ② 약물 임의 복용 금지, 아침 사례관리자와 약물 복용 확인
	자기계발	책 읽고 메모하여 기억력 향상	메모 작성-개별 파일 보관 확인
문*수	프로그램 집중	주 1회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하기	미술치료사와 평가

		미술활동 작품집 만들기	연말 작품집 확인-가족 전달
	회원 스스로 행동	실제 식사 체크 하기	활동에 대해 확인 후, 칭찬 스티커 부착
이*민	시설 적응	회원-실무자 전체 이름 외우고 편지쓰기	이름 확인 및 편지 전달
	건강관리	흡연량 체크하기 → 흡연량 15개피 이하로 줄이기	매일 흡연할 때 마다 正으로 표시 매주 목요일 마다 금연상담 프로그램 참여

② 목표에 따른 회원 개별 활동

개별 목표에 따라 매일~월 1회 활동 진행 → 담당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중간 점검 및 기록 이루어짐. 회원의 전체 활동에 대한 기록은 불가능하기에 담당자의 중요도에 따른 기록 진행 (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 대장 작성)

	목표	c't 활동 빈도수	비고
경*혁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 취미/PC교육/개인시간 등을 활용해 시설내 책 (고등어) 작성하기	수시	
	복부 지방 감량을 위해 주 5회 도보로 출퇴근	매일	목표점검시에만 확인
	자발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회원 출근시 인사하고, 출퇴근 기록지 관리 지원 역할 수행	매일	출퇴근기록 누락시에만 확인
전*숙	식습관 개선을 위한 다이어트 일기 작성	매일	목표점검시에만 확인
	취미활동 - 십자수or. 뜨개질	주 2회 이상	
김*순	약물관리	6~7월간 매일	
	책 읽고 메모하여 기억력 향상	월 1회	
문*수	주 1회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하기	주 1회	매회기 치료사 평가
	미술활동 작품집 만들기	주 1회	매회기 담당자 실시
이*민	회원-실무자 전체 이름 외우고 편지쓰기	수시	
	흡연량 체크하기 → 흡연량 15개피 이하로 줄이기	매일	

③ 회원 개인별개별 목표 점검 활동 (월 1회 필수)

회원명 : 경*혁	
2월	*2015년 목표 재 정리 -목표 : 자발적 활동 -구체적인 계획 및 활동 방법 ①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책 쓰고, 타자 연습 / 1주일~1개월 단위로 담당자 확인) ② 주 5회 출퇴근시 걷기 활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있을 경우에도) ③ 회원 출퇴근 관리 담당 (매일 아침 회원과 인사→사인 할 수 있도록 지원) ①번의 경우 '고등어' 책을 작성해보시겠다고 하셔서 10페이지 정도 분량 지정해드림. C't 스스로 3월 4일까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하심. 담당자는 취미활동/PC교육/개별 쉬는시간 등에 c't 스스로 노력하시며, 3월 4일에 확인하기로 함. ②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 진행 예정 ③의 경우 3월부터 전체적으로 공지 후 c't 역할 수행 예정
3월	진행하지 못함
4월	-4월 목표 점검/ 자가 체크 ①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책 쓰고, 타자 연습 / 1주일~1개월 단위로 담당자 확인) → 50점 ② 주 5회 출퇴근시 걷기 활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있을 경우에도) → 100점 ③ 회원 출퇴근 관리 담당 (매일 아침 회원과 인사→사인 할 수 있도록 지원) → 100점 : 타자연습의 경우 담당자 체크 하지 않았던 점 전달하자 자신이 연습한 부분 직접 컴퓨터로 확인함. 3줄 작성하였으며, 담당자 이에 대해 더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타자가 느리다'라고 답변함. 담당자는 주기적인 체크 활동 필요함을 전달하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량을 물어보자(5/4까지) 1장 말씀하심. (자신의 타자 실력에 대해 객관화 되는 모습 볼 수 있었음.) 담당자 1장은 적으니 3장정도로 해서 다음주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함. -5월 목표 : 동일
5월	*목표점검 및 자가체크 ①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책 쓰고, 타자 연습 / 1주일~1개월 단위로 담당자 확인) → 20점

	② 주 5회 출퇴근시 걷기 활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있을 경우에도) → 100점 ③ 회원 출퇴근 관리 담당 (매일 아침 회원과 인사→사인 할 수 있도록 지원) → 85점 이번에 점검 때에도 책 쓰는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스스로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이 본 실무자의 가장 당황스러운 점임을 전달함. 2015년 목표가 자발적 활동임에도 c't 스스로 활동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점 전달하며, 6월은 c't 스스로 연습하고 c't가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전달함. c't 알았다 말씀하시며, 확인하겠다고 함.
6월	목표에 따른 점검 스스로 담당자에게 확인 하지 않아 체크함. 2일간 점심시간에 타자연습을 하였으며 1페이지 정도 작성하였다고 함. 담당자 7월1일~금일까지 오전&오전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일찍 출근(9시30분 이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자는 모습을 관찰했던 점 말씀드리며 c't 스스로 시간활용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에 대한 전달과 담당자 실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타자연습을 꾸준히 노력해야하는 점 전달함.
7 ~ 8월	*목표점검 및 자가 체크 ①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책 쓰고, 타자 연습 / 1주일~1개월 단위로 담당자 확인) → 50점 ② 주 5회 출퇴근시 걷기 활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있을 경우에도) → 100점 ③ 회원 출퇴근 관리 담당 (매일 아침 회원과 인사→사인 할 수 있도록 지원) → 100점 8월 31일 2시간동안 2쪽을 타자연습을 실시하였으며, 8월 말까지 4쪽을 쓸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함. 담당자 c't가 자조적이지 않은 활동에 대해 고민이며, 이에 대해 목표가 c't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고민한다는 점에 대해 c't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함. 9월 목표 동일하며 9월 말까지 4쪽 작성 하실 수 있도록 함.
9월	*목표점검 및 자가체크 ①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책 쓰고, 타자 연습 / 1주일~1개월 단위로 담당자 확인) → 20점 ② 주 5회 출퇴근시 걷기 활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있을 경우에도) → 100점 ③ 회원 출퇴근 관리 담당 (매일 아침 회원과 인사→사인 할 수 있도록 지원) → 100점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1~9월까지 c't 스스로 노력한 부분이 없었음을 전달하며, c't가 실제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재활의 방향성-시설 이용시의 c't에게 도움이 되는 점에 대해 물어봤으나 답변따로 하지 않음.

	시설 이용의 목적/목표가 c't 스스로 재발방지, 규칙적인 생활이라고만 답변하였으나 실질적인 목표에 어려움 있음. 담당자 c't가 원하지 않으면, 목표 수정이 필요하나 담당자가 c't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개입이 어려움 전달하며, c't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 (1. 내가 시설 이용하면서 도움이 된 점. 2. 내가 시설 이용을 하면서 불편한 점. 3. 내가 시설 이용을 하며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부분) 에 대해 작성해서 상담 진행하고자 함.
10 월	*목표점검 및 자가체크 ①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책 쓰고, 타자 연습 / 1주일~1개월 단위로 담당자 확인) →20점 ② 주 5회 출퇴근시 걷기 활동 (걷기동아리 프로그램 있을 경우에도) → 100점 ③ 회원 출퇴근 관리 담당 (매일 아침 회원과 인사→사인 할 수 있도록 지원) → 100점 서비스과정 평가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상담하기로 함.
회원명 : 전*숙	
2 월	회복 목표 재정리 회복 목표-건강한 삶 구체적인 계획 및 활동 방법 -헬스 주 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다이어트 일기에 표시) -다이어트 일기를 통해 식습관 개선 -십자수 등 취미활동 가지기 목표를 통해 점검하는 활동 등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c't 스스로가 관리하는 삶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 필요함을 전달.
3 월	목표에 따른 점검 -헬스 주 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다이어트 일기에 표시) : 85점 (헬스에 갔던 날 O표 했으며, 주2회 정도 운동 진행함) -다이어트 일기를 통해 식습관 개선 : 100점 (매일매일 먹은 음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음식을 먹는 것을 깨달았다 함. 또한 치킨을 자주 먹기에 이 일기를 보고 이후에 먹지 않았다 함) -십자수 등 취미활동 가지기 : 0점 (십자수를 해도 따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차 번호판 형태의 십자수를 찾아보고 4월부터 진행하기로 함.)
4 월	-목표 ①헬스 주 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다이어트 일기에 표시)→75점/100점

	②다이어트 일기를 통해 식습관 개선→30점/100점 ③십자수 등 취미활동 가지기→0점/100점 주 3회 헬스 운동 하며, 1kg정도 감량하였으나 아직 큰 변화는 없어 구체적인 식습관 개선을 위한 계획 필요할 것 같다 말씀하심. 그래도 다이어트 일기를 쓰니 2개월동안 치킨을 일부러 먹지 않았다고 하심. 이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5월까지 일기 작성해보고 구체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땐 변경하는 부분 필요할 것 같다 전달함.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십자수 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실이 아깝다', '안하면 안되냐' 등)을 표현하여서 그럼 c't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에 대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함. 교보문고를 통해서 글쓰기 책자 검색하였으며, 금주내로 구입하여 이에 대한 연습 진행하고자 함 -5월 목표 : ①,② 동일 / ③ 글쓰기 연습으로 수정
5월	*월별기록지 작성에 따른 목표 점검/자가체크 상담 -목표 (100점만점) ①헬스 주 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다이어트 일기에 표시)→100점 ②다이어트 일기를 통해 식습관 개선→75점 ③취미활동 가지기→30점 헬스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kg 정도 감량했다고 함. (금일 체지방 측정 80.8kg) 다이어트 일기 작성으로 의식적으로 떡종류를 먹지 않았으며, 요즘은 저녁때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함. 취미활동의 경우 글자 연습을 하겠다고 5월에 목표 설정하였으며, 지난주에 책을 사서 1장정도 했다고 함. 글자 연습의 경우 다소 '유치하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6월 일단 시도하고, 만약 변경해야될 경우 c't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전달함. 6월도 목표설정대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함.
6월	*월별기록지 작성에 따른 목표 점검/자가체크 상담 -목표 (100점만점) ①헬스 주 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다이어트 일기에 표시)→85점 ②다이어트 일기를 통해 식습관 개선→85점 ③취미활동 가지기→10점 4kg 감량 이후 유지하고 있다고 함. C't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트 일기를 보니 빵을 자주 먹으나 이에 대한 수정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심. 운동을 위한 체중관리임을 전달하며,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말씀드림.

	취미활동-글쓰기 연습 책을 가지고 왔으며, 실제로 1-2장 정도 작성함. 과제 수행 및 글자를 가지런히 쓴 모습에 대해 칭찬해드리며, 7월에도 동일 목표로 가되, 글자연습 책 5장을 작성하시도록 말씀드림. c't 알았다 하심.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셔서 지지함.
9 월	*월별기록지 작성에 따른 목표 점검/자가체크 상담 -목표 (100점만점) ①헬스 주 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30점 (수영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 ②다이어트 일기를 통해 식습관 개선→30점 ③취미활동-수영→85점 헬스와 다이어트 일기 열심히 했었을땐 2kg 정도 감량 되었으나 현재 다시 2kg 증량되어 84kg 임. 이에 c't 스스로의 노력 필요함을 전달함.
10 월	*월별기록지 작성에 따른 목표 점검/자가체크 상담 -목표 (100점만점) ①헬스 주 4회로 12월까지 5kg 감량 →0점 ②다이어트 일기를 통해 식습관 개선→99점 ③취미활동→0점 출퇴근시 걸어다니나 헬스를 따로 다니진 않았다 함. 추후 헬스장 등록 예정임.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 낮으나 요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한 후, 11월에 이에 대한 부분 논의 다시하고자 함.
회원명 : 김*순	
2 월	자의 입원
3 월	목표 수립 : 책 읽고 메모하여 기억력 향상하기 (c't가 드러나지 않는 생각-증상을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접근하고자 함)
4 월	-4월 목표에 따른 점검 활동 *기억력 향상: 읽고 있는 책 메모/생각작성(담당자 제출)→실제로 자신이 목표했던 부분에 있어 기억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실천하지 못함. 목표에 대한 재 확인함. (자가체크 10점) -5월 목표 *기억력향상 : 읽고 있는 책 메모/생각작성(담당자 제출) ※단순 메모 뿐 아니라 c't의 생각/의견도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해 c't의 증상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운동 : 주2회 운동장 돌기
5 월	증상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가 점수 체크보다 증상 확인 상담 진행함. *6월 목표 : 책 2권 읽고 메모하기, 주2회이상 아령운동, 증상관련 체크
6 월	목표 점검 개별상담 진행 -6월 목표 / 자가체크 ① 기억력 향상-읽고 있는 책 메모 (담당자 제출) 81점 ② 약물관리 100점 사례관리자와의 약물관리-외래동행에 있어서 감사함 표현 c't가 안정된 부분에 있어서 지지하며, 7월 한달간도 지속되어 약물 관리하는 부분 말씀드리자 이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보임. -7월목표 : 동일
7~ 8 월	목표 점검 개별상담 진행 -7,8월 목표 / 자가체크 ① 기억력 향상-읽고 있는 책 메모 (담당자 제출) 65점 ② 약물관리 97점 책 메모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지함 9월 목표 동일하게 진행하며, 메모의 경우 한달에 3~4번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이야기해서 이에 대해 스스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지함. 재발경고징후지에 약물 빼놓지 않고 먹기, c't가 스스로 생각하는 재발 때의 신호(우울한 감정-누군가 날 취하려고 하는것 같다'누군가 집에 들어온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함. 8월 약물 변경되었다고 해서 주치의 상담시 약물 변경에 대한 부분 확인해서 담당자 제출 할 수 있도록 전달함.
9 월	목표 점검 개별상담 진행 -9월 목표 / 자가체크 ① 기억력 향상-읽고 있는 책 메모 (담당자 제출) 85점 ② 약물관리 84점 자가체크에 점수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t는 낮은 점수가 6~70점이라고 답변) 목표달성 체크 여부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기에 만족도가 낮아서"라고 작성함. 담당자가 생각하는 점수의 책정방법에 대한 부분 전달하며,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부분 필요함을 말씀드림. 약물 변경 없으나 최근 성당활동중 손수건을 젖을 정도로 울었다고 이야기하며, 이유에 대해 '약사고가 나서'라고 답변함. 정확한 이유를 묻자 최근에 약물이 없어진 부분 (9월 23~25일 개별상담 내용)때문이라고 함. 담당자가 상담한 내용과 다르게 (누군가 가져갔고, 이에 대해 c't 스스로 불편함 느낌)기억하고 있어, 담당자가 다시 한번 상담 내용 상기할 수 있도록 함. 책은 읽었지만 메모하고 담당자 제출하지 않아 이후 10월에 관련되어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약물 관리의 경우 10월 2일 외래 진료 이후, 약물 확인하여 약물 달력 만들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주말에 약물 복용을 잊는 경향이 있음) 10월 목표 ① 기억력 향상-읽고있는 책 메모 (담당자 제출) ② 약물관리-약물 달력 작성을 통해 약물 관리 능력 향상
10 월	목표 점검 월별기록지 작성 -10월 목표 / 자가 체크 ① 기억력 향상-읽고 있는 책 메모 (담당자 제출) 90점 ② 약물관리 85점

회원명 : 문*수

※지적장애 중복으로 자가 점수 체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칭찬스티커 부착으로 대신하여 진행

2 월	2015년 c't 재활 목표 수립 -미술치료 주 1회 활동하기
3~ 4 월	약속 재점검 확인
4 월	목표 수립
5 월	*c't 개별 상담 -약속 재점검 : 1. 마침모임 이후 귀가하기 2. 걷기동아리(외부활동) 잘가기 3. 미술치료 잘하기 4. 식사 체크하기 5. 욕하거나 소리지르지 않기 / c't 스스로 여러번 반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함. 1~4번의 경우 칭찬 스티커 발급→강화물 지급으로 c't 스스로 강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임. 청소 이후에 c't 스스로 파일을 가지고 오고, 담당자와 스티커 부착함.
6	*목표점검/개별상담 진행

월	-휴관기간 및 c't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 점검활동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 말씀드리며, c't의 목표 4가지 (마침모임 이후 귀가, 외부활동 잘가기, 미술치료 잘하기, 식사체크하기) 다시 반복하여 확인 또한 칭찬스티커 발급하는 부분의 시간 (청소 이후 확인)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림. *7월목표 : 동일 ※이후 매일 칭찬스티커 부착 이루어짐
9 월	금일 담당자 상담 요청하였으며, 왜 상담요청했을것 같냐는 질문에 '일찍 가지 않겠다,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함. 담당자 c't 母의 합의된 부분에 따라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며, c't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의견 정확히 전달함. 추후에도 같은 일이 발생시 회원과의 합의된 약속 진행함을 전달함.
10 월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은 외부활동 가지 않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임. 담당자 약속에 대한 재확인 (c't 서명한 종이 보여드림)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림. 담당자는 c't의 불안도가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c't가 계속적으로 안가겠다는 표현에 대해 그럼 담당자가 c't 동생에게 이야기하겠다로 말씀드렸으며, 외부프로그램 참여하지 않고, c't의 마음대로 할 경우에 시설 이용도 어려움을 전달함. 20여분의 상담 끝에 c't가 담당자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외부프로그램 잘 참여하고 귀가하심.
회원명 : 이*민	
4 월	-목표 점검 및 자가 체크 ①시설적응 : 회원 전체 대상으로 이름 외우고 편지 작성 : 10점 회원 전체 이름을 메모지에 적고 외웠던 노력 부분 확인-긍정적 피드백 제공 그러나 직원이름(송현식,김진애,정진옥,장성진), 김미자 선생님, 전*숙, 고*성, 조*용 회원은 외우지 못하거나 헷갈려하는 모습 보여서 A4 색지 1/2을 잘라 이분들 대상으로 편지 쓰실 수 있도록 독려함. 5월에 점검하기로 함. 이에 대한 확인 후, 5월 점검활동 이후 목표 수정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5 월	월별기록지 토대로 개별 상담 진행 -목표 점검 및 자가 체크 ①시설적응 : 회원 전체 대상으로 이름 외우고 편지 작성 : 50점 회원 이름은 외웠으나 직원 이름을 외우지 못해 다시 외우고 금일 퇴근 전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렸으나 말 없이 귀가함. 시설적응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대인관계의 모습이 관찰되어 친해지고 싶은 회원들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말하니 이에 대해 시도해보겠다고 함. 양*식,

	문*수 회원에게 대화하도록 먼저 요청할 것이며, 상담실에서 대화 진행 하겠다 함. 체지방률 높아서 운동에 대한 부분 진행 필요성이 있다고 전달하고 운동방법 고민해보실 수 있도록 함. (체지방률 36.9%-표준 10.0~20.0 / 복부지방률 0.94 - 표준 0.80~0.90) 재발경고 징후지의 '누군가 들어와서 웃는다'에 매일 체크되어 있어 정도가 심해질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달함.
6 월	월별기록지에 따른 개별상담 진행-목표 달성 체크 -목표 : 구체적인 운동 계획 수립 자가체크 100점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은 없어 점수를 체크하기에 어려움 전달. 이에 운동 외에 구체적인 계획 확인하며, c't 스스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c't 스스로 추상적인 (활동을 잘해야죠, 선생님께 많이 배우기요) 부분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계획 (예-운동 주2회, 흡연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함. 이에 c't 최근 수련사회복지사와 금연 클리닉을 다녀왔으며, 담당자가 15개피로 줄일 것을 이야기하였다고 함. (현재 c't는 하루에 30개피 핌) 이에 담당자 c't에게 줄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심. 담당자는 그럼 담배 피는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용지를 만들어드리며, 이에 체크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하기로 함. 이에 c't 합의하심. *7월 목표 : 흡연관리- 흡연 개수 체크, 하루에 15개피로 줄이기
9 월	*9월 목표 및 자가 체크 ① 흡연관리- 흡연 개수 체크, 하루에 15개피씩 피기 80점 8월 작성분은 분실했고, 9월분은 체크해서 담당자 확인했으나, 정확하게 하루에 10개/ 15개씩 피는 것으로 체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담당자 이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했으나 c't는 체크하면서 정말 15개피씩 피었다고 말하는 모습임. 10월 1개월간도 이에 대한 체크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객관화 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 전달함. 지속적으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 보이며, TV/라디오 등에서 이야기를 걸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함. 그러나 이에 대해 c't 스스로 불편함이나 행동에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함. 재발경고 징후지에도 실제로 매일 이와같이 느낀다고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해 담당자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10	*10월 목표 및 자가 체크

월	① 흡연관리- 흡연 개수 체크, 하루에 15개피씩 피기 90점 10월 체험활동 프로그램-뮤지컬 관람에 대해 흥미있게 봤으며, 이에 대해 관심도 높은 모습임. 흡연량 체크의 경우 10/1~11일까지 일 15개, 10/12~15 일 20개, 10/16~31까지 일 15개로 정량으로 체크되어 있는 모습 보임. 담당자 매일 정량을 피우는 것이 의아하다 표현하며, 조금 더 객관적인 체크 필요할 것 같다 전달함.

※ 목표에 대한 점검 활동은 월 1회 이루어졌으나 개별 상황에 따라 c' t의 활동, 점검이 수시로 발생함.

③ 상반기 평가(서비스과정평가서 내 합의된 목표 및 개입과정에 대한 평가 내용 작성하여 발송)

- 서비스 과정평가서 내 회원과 합의된 목표 및 자가체크 점수 작성

↓ ↓

-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가족 상담 진행

※ 작성 및 사례회의 지연됨에 따라 10월 말에 진행됨

경재혁	*서비스과정평가서 확인-서명받음 목표했던 내용에 대한 자가 체크 점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에 대해 확인함. 실제로 회원이 노력하겠다고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의 점수 낮으며, 다른 영역도 담당자와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점 전달함. 회원이 실제로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로 c't는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의견 표시도, 합의한 목표의 스스로 활동도 잘 되지 않았던 점 전달함. 또한 이런 부분이 c't의 재활 방향성에 있어서의 고민 되는 점 전달함. 회원이 목표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전면 수행 필요할 것이며, 회원이 실제로 더 고민해보고 가족 상담을 통해 수정할 것임을 합의함.
전선숙	*서비스과정평가서 확인-서명받음 목표 자가 체크 점수 확인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점수가 낮았던 목표에 대해 재점검하고 수립하는 활동 추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전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대인관계시의 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 당부드림.
김정순	*서비스과정평가서 설명드리고 서명받음 목표한 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물 관리, 메모 하는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라 결석률 비교에 대해 약물관리 이후, 결석일이 줄었던 점 전달하니 이에 대해 수긍하는 모습 보임. 지속적으로 약물에 대해 관리하고, c't 스스로 증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 당부함. 서비스과정평가서 내 담당사례관리자 평가에 'c't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증상에 대해 조현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의아하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금 의문하는 모습 보임. 자신의 문제점은 우울감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담당자는 우울감의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함. 그러면서 월~수요일 결근 이유에 대해 묻자 환청증상(c't 전남편이 자신의 일이 힘들다고 한다) 및 망상(누군가 사과에 주사기로 약을 주입하였으며, 그걸 먹고 내가 아픈것 같다, 누군가 내가 잘 때 들어와서 다리에 주사를 놓은것 같다) 보고함. 담당자 우울하고 힘든 감정들이 이런 c't의 생각들로 발현되는 것이며, 이렇기에 이런 환청 및 망상에 대한 부분(c't에겐 직접적으로 증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음)이 실제라고 믿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함. c't 동의하는 모습임. 들리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진짜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반반'이라고 답하셔서 그러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림. 들리고, 내가 이상하다고 믿는 것들이 c't가 아프게 하는 것이면 c't 스스로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보실 수 있도록 함.
문길수	*c't 서비스 과정 평가서 설명 / 서명받음 c't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재확인 및 긍정적 변화 (표현력 향상 등) 지지함.
이강민	*서비스과정평가서 설명/서명받음 흡연 관련해 성지선 회원이 c't의 담배를 가지고 피우러 나갈 때 마다 한개피씩 주는 모습이 있어 혹시 이 역할을 담당자가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확인함. 담당자가 c't의 전체 담배를 가지고 있고, 아침에 15개피씩 드리며, 이에 대한 관리는 c't 스스로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니 c't 동의함. 그럼 익일 현재 c't가 보유하고 있는 담배 모두 (7갑)를 가지고 오고 이에 대한 점검 활동 진행하기로 함. 또한 역할 수행에 대해 잘하나 c't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 필요함을 당부함.

④ 목표에 대한 회원 달성도 (객관화된 제시)

	목표	달성도 체크 / 객관적 제시	비고
경*혁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 취미/PC교육/개인시간 등을 활용해 시설내 책 (고등어) 작성하기	자격증 취득 어려움, 타자연습 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회원이 목표에 대해 지켜지는 모습 관찰 어려움 → 객관적 파악
	복부 지방 감량을 위해 주 5회 도보로 출퇴근	도보 출퇴근 실시하였으나 복부지방률 감량은 되지 않음	

	자발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회원 출근시 인사하고, 출퇴근 기록지 관리 지원 역할 수행	출퇴근 기록지 관리 하였다고 이야기하나 다른 회원들의 평가는 높지 않음	→ 전체적인 수정 필요
전*숙	헬스 주 4회로 5kg 감량	2014년 대비 체지방률 2.6%감소, 복부지방률 0.1% 감소	
	식습관 개선을 위한 다이어트 일기 작성	10월 제외하고 모든 월 작성 → 이를 통해 회원 스스로 살이 찌는 음식에 대해 확인하고 줄이는 노력 보임	
	취미활동 - 십자수or. 뜨개질	8월 운동-수영 등록하였으나 지속되지 않음	
김*순	약물관리	6월 담당자와의 약물 변경/안정화 노력 후, 7월부터 일 2회 및 아침 약 담당자 관리	
	책 읽고 메모하여 기억력 향상	외부프로그램 미참여시에만 작성	
문*수	주 1회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3월~ 현재 진행 중 모방-관찰 / 표현력 향상 관찰	
	미술활동 작품집	매회기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작품 모음 → 완성 중	
이*민	회원-실무자 전체 이름 외우고 편지쓰기	6월 2일 완료 / 전체 회원 및 실무자 이름 암기	
	흡연량 체크하기 → 흡연량 15개피 이하로 줄이기	11월 9일부터 담당자 흡연량 체크 / 15개피씩 맞춰서 흡연 중	

2. 중간 평가 (8월)

1) 회원 개별 사례관리의 효과성 확인

회원 개별의 목표에 대해서 접근하고, 구체적 활동 계획, 점검 방법도 사전에 합의하고 진행하니 이에 대해 매월 회원의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였다. 또한 2014년의 경우엔 회원과 사례관리자가 합의한 목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이를 지키는 것이 잘 이어지기에 어려웠으나 매월 목표에 대해 주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달성을 점수화하고, 사례관리자와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 차이에 대해 좁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과제를 활용한 부분들이 회원들의 큰 목표에 대한 부분이 회원들에게 큰 목표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2015년 말에 회원 스스로가 개별에 맞춘 계획-활동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확인하면,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이용에 따른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 변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중간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필요

회원의 개별 상담의 횟수가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나 회원들간의 개별 상담 횟수에서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물론 회원별로 인지 및 기능, 적극성 등에 따라 개입 횟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회원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필요할 것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후에는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주기적인 개별상담-목표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자의 기존 업무로 인해 7월 1개월의 점검활동 이루어지지 않았다. 8월부터는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회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스스로 활동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3) 기존 계획에서의 수정사항 발생

기존 계획에서는 연구자 5명 이후에도 전체 주간재활 회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 진행하고자 했으나 사례관리자가 상이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다른 회원의 개입에 대한 부분까지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담당 사례에 대한 부분만 접근하기로 수정하였다. 또한 회원 개별의 매일 목표에 대해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점검/체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매월 1회씩 개별상담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회원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자가체크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3. 최종 평가 (11월)

1)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table>
<tr><th>목적</th><th colspan="2">세부목표</th><th>평가 방법</th><th>평가</th><th>달성률
(표시 가능한 경우)</th></tr>
<tr><td rowspan="2">과제중심 모델을 활용한 사례관리 방법은 개입에 효과적이다.</td><td rowspan="2">프로그램 운영 측면</td><td>주기적인 회원 목표 수립 및 점검 활동이 이루어진다.</td><td>주기적인 개별 상담 운영에 대한 체크</td><td>
<table>
<tr><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매월 1회 이상 상담 진행</td><td rowspan="2">100%</td></tr>
<tr><td>체계화된 사례관</td><td>목표설정 및</td><td>매월 목표 설정에 대한 점</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td><td></td><td>리가 이루어진다.</td><td>과제부여의 방법 확인</td><td>검과 필요시 수정 이루어짐</td><td></td></tr>
<tr><td rowspan="2">개별 사례 관리 측면</td><td>매월 목표 설정 및 합의를 통해 회원 스스로 목표에 대해 알 수 있다.</td><td>회원 목표 확인 → 월별기록지 작성 확인</td><td>
<table>
<tr><th></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r>
<tr><td>결과/총인원</td><td>4명 / 4명</td><td>3명 / 4명</td><td>5명 / 5명</td><td>5명 / 5명</td></tr>
<tr><td>달성률</td><td>100 %</td><td>75%</td><td>100 %</td><td>100 %</td></tr>
</table>
<table>
<tr><th></th><th>6월</th><th>7~8월</th><th>9월</th><th>10월</th></tr>
<tr><td>결과/총인원</td><td>5명 / 5명</td><td>2명 / 5명</td><td>5명 / 5명</td><td>5명 / 5명</td></tr>
<tr><td>달성률</td><td>100 %</td><td>40%</td><td>100 %</td><td>100 %</td></tr>
</table>
달성률 평균 : 89.4%
(전체 달성률 합계 / 실시 월수)</td><td>89.4%</td></tr>
<tr><td>개별상담-과제부여-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td><td>점검 대장에서의 점수 및 회원 평가 점수 확인
회원 개별 인터뷰</td><td>점수 자가 체크 할 수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엔 어려움 있었음</td><td></td></tr>
</table>

2) 기타 평가

.회원과 합의된 목표를 바탕으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회원이 합의된 목표에 대해서 알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성취감 및 역량 강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존 시설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실무자 진행 프로그램 외에 회원들이 자신의 목표에 맞춰 활동함으로써 개별화가 가능하였다.

.활동에 대한 자가 점수 체크의 경우 회원이 스스로 체크하는 점수기에 객관성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점수 체크 차이 확인하였다

.목표에 대한 점수가 낮은 회원의 경우, 이유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회원의 개별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고민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체계화의 측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과 및 제언

1. 결론

1) 본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2015년 1월~11월 연구자 사례 5case를 대상으로 개별 목표에 대한 수립과 과제 부여, 이를 매월 및 수시로 자가 점수 체크 형태하며 점수로 객관화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이를 통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한번 합의된 목표가 발생하면 매일 체크리스트에 실제로 수행여부에 대한 체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월별기록지에 회원 스스로가 달성에 대한 점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가 점수 체크의 경우 회원이 스스로 체크하는 부분이기에 객관화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담당자가 점수 체크한 이유에 대한 상담으로 확인하며, 담당자와의 점수가 상이할 경우 서로 점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 체크해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사례관리는 회원과 목표합의→과제부여→활동→점검에 대한 회원의 사례관리와 이후 회원 평가 이후 가족 상담으로 사례관리의 체계화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본 연구의 효과성

본 연구는 회원이 스스로에 대한 목표 설정하는 자기 결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성취해 나가는 활동으로 회원의 사례관리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물론 회원의 과제 수행정도에 대한 자가 체크 형식이 객관화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때에는 담당자가 이유를 파악하고 담당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점수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를 통해 회원의 사례관리 목표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더 고민하며, 목표에 대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합의할 때는 수정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졌다. (현재 회원의 목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 수행이 완료된 회원도 있으며, 목표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회원은 담당자의 의견제시와 가족 상담을 통해 목표 전면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회원의 과제 수행 완료시 긍정적 지지와 이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가족 상담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월 1회의 목표에 대한 점검으로 인한 주기적인 상담 이후에도 회원들은 실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쉬는/귀가 시간을 활용한 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회원들의 회복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개별화되는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보완사항

회원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과 활동 수행 완료에 대한 체크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의 자가 점수 체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더 구조화된 양식 및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및 향후계획

회원의 회복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으로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차년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방향성을 본 보고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차년도에는 시설이 집단 프로그램이 선택형으로 운영됨에 따라 회원의 개별화된 회복목표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본 보고서의 방향성을 보완한다면 개별 사례관리의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사회복지실천론, 이정복.전남련.김덕일, 2008
과제중심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재가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허남순
정신보건실천현장의 사례관리 활동목록(Case Management Acivities Inventory) 개발 연구, 민소영, 2012
사례관리, 권진숙.전석균, 2001

사례연구 15-09

미술심리지원이 지적장애 아동의 시지각 협응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연구자	서미례 미술치료사
연구기간	2015.3.31.~2015.10.30 / 총 48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지적장애아동은 가장 기본적인 문자 학습과 함께 언어기능이 부족하다. 사물의 이름과 개념의 형성이 어렵고, 간단한 낱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낱말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어렵다. 새로운 자극에 대하여 능동적인 반응의 결여로 인해 두뇌에서 일어나는 지각과 인식의 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수용되어진 감각정보를 적절하게 연결 짓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이초희, 2014). 그래서 주위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수용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제를 격게 된다. 이 중에서도 시지각은 인간이 외부 환경 또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시지각을 주 대상으로 하는 미술심리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지각 자극 및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연구 목적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시지각 협응에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청소년기의 지적장애아동의 완활한 사회적 적응 및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도록 돕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적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인지적 능력 및 사고의 문제로 지적활동에 제한적이며, 손기능 훈련과 같은 기능적인 움직임에 반응이 늦고, 주의 집중시간이 짧음. 언어적 문제, 학습능력의 문제, 정서적 안정의 문제 등이 있다(이초희, 2014).

2. 시지각 기능

시지각이란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하여 망막에서 얻은 시각적 자료를 인지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중추신경계가 여러 가지 선행 경험과 관련하여 시각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인식, 변별, 해석하는 기능을 말한다(이초희, 2014).

정상아동의 시지각은 3세에서 7세 사이에 최대로 발달하고 시지각이 완성되는 시기는 11세~12세이며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구형지각 단계로 도형을 전체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3세 아동에게서 나타난다. 2단계는 분석적 지각 단계로 전체보다는 큰 부분을 지각하는 것으로 4~5세경 아동들에게서 나타나고 6세경에는 세부적인 부분을 지각하게 된다. 3단계는 9세경에 나타나는 통합적인 지각 단계로 전체적인 부분을 지각하고 동시에 세부적인 부분들도 지각함으로써 사물을 통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초희, 2014)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신○○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0.11.11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3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구 주안8동 1607 한신@ 104동 ○○○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8335-○○○○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본 아동은 1남 1녀중 첫째로 출생 시 이상 없었음. 돌 이후 경기가 있어 1년에 1~2회정도 있으며 신체 및 언어발달은 전반적으로 늦었음. 30개월에 걷고 4세 이후 '엄마, 아빠'를 말하였음. 언어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표현 수용이 안될 때 폭력성이 보였음.

⑶ 주호소 내용

표현이 많지 않고 위축되어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면 함.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6.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미술심리지원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인지치료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1	2015.04.06	초기검사
2	2015.04.13.~2015.09.30	관찰 및 개입
3	2015.10.05	사후검사

3. 자료수집 방법

시지각발달검사(DTVP)는 주로 시지각 결함의 유모와 정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다섯 가지 하위검사(눈-손 협응, 공간위치, 도형-배경, 공간관계, 형태 항상성)별로 쉬운과제에서 어려운 과제로 배열되어 있다.

4. 자료분석 방법

사전 사후 검사 및 아동의 작품을 통해 효과성에 대해 알아본다.

Ⅳ. 연구 결과

미술심리지원 주 2회로 이용하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심리지원이 시지각 협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적장애의 특성 상 심리적 위축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며 미술이라는 활동에 대해서도 자신없어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으로 미술이라는 활동을 흥미 있게 접근하기 위해 자발적인 활동 선택을 유도하며 치료실 환경안에서 지지적 언어표현 및 유머로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지각발달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 \ 검사	표준점수	
	사전	사후
눈-손 협응	5	7
공간위치	5	5
도형-배경	3	3
공간관계	3	4
형태항상성	4	4

사전 사후 검사결과 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눈-손 협응 및 공간관계에서는 변화를 보였다.

내담자가 흥미를 보이는 인물상 그리기를 통해 동기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인물상을 분화시키고 구조화 하여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물상의 주 대상은 부, 모, 자신, 이모(활동보조인), 할머니를 많이 표현하였으며 자신 없게 표현하던 초기에 비해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물상의 신체에 있어서도 분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3세 정도의 그림 수

준을 보인다. 연구 기간 중 프로그램 내용과 관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기	내용
1	2015-04-06	초기검사
2	2015-04-13	인물상 그리기 활동 및 언어 블록 맞추기 하였음. 활동 선택 시 자유롭게 선택하기 하며 대상에 대해 구체화 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기 진행 함. 그리 시 각 부분들에 대해 인식하고 그리기 할 수 있도록 유도 함.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느껴본 후 그리기 할 수 있도록 유도 함.
	2015-04-15	컵케이크 만들기 활동 점토 이용해서 컵 케이크 만들기 활동 진행 함. 활동 선택하지 못하고 흥미 없어 함.
	2015-04-20	마카로니 이용해서 얼굴에 눈, 코, 입 구성해보기 진행 함. 활동에 대해 거부 없이 수용하는 모습 보임.
	2015-04-22	마카로니 이용해서 숫자 세기 하며 분류하기 함. 숫자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모습 보임.
	2015-04-27	마카로니 이용해서 얼굴 꾸미기 진행 함. 눈, 코, 입 구성해볼 수 있도록 함. 부와 모의 얼굴 만들기 함.
	2015-04-29	마카로니 이용해서 아크릴 판에 붙이기 진행 함. 다양한 모양으로 붙이기 진행 함.
	2015-05-04	점토 이용해서 인물 만들기 진행 함. 누구 만들지 대상 정하기 시 이모 이야기 함. 인물의 눈, 코, 입, 귀, 머리카락을 생각해 보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함.
	2015-05-06	마카로니 이용해서 숫자 세기 한 후 통 안에 담아두기 함. 1~10까지 세기 함. 숫자 세기 시 목소리가 조금 커진 모습 보임.
	2015-05-11	원 형태 따라 그리기 활동 진행 함. 사람 그리지 않고 숫자 적힌 컵 이용해서 쌓기 놀이 진행 함.
	2015-05-13	동그라미 그리기 활동 진행하였으며 원에 채색하기 진행 함.
	2015-05-18	부, 모, 동생 그리기 하였으며 네임펜 이용해서 화지에 그리기 함.
	2015-05-20	화지에 플레이콘 이용해서 눈, 코, 입, 귀, 머리카락 구성하기 할 수 있도록 함. 얼굴에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습 보임.
	2015-05-27	글라스 데코 이용해서 형태 안에 색을 채워 넣기 진행 함. 10분 정도 진행 한 후 손이 아프다고 표현 함. 조금 쉰 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함.
	2015-06-03	치료실에 시계 블록 가지고 와서 활동 진행 함. 숫자 다 꺼내 놓은 후 다시 넣기 진행 함. 2회 반복한 후 정리 함. 글라스 데코 그림 왕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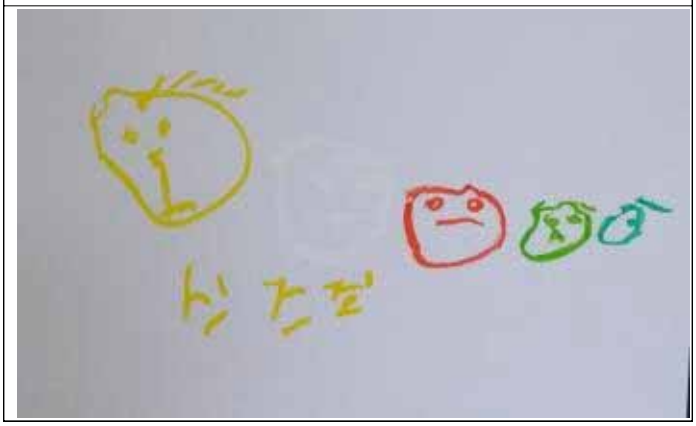
		왕자 그림에 색 넣기 진행 함.
	2015-06-08	원 형태 제시한 후 그림 완성할 수 있도록 함. 원형태에 대한 반응으로 인물만 그림. 원에 눈, 코, 입, 귀, 머리카락 그리기 한 후 완성함.
	2015-06-10	원 형태 제공한 후 완성할 수 있도록 함. 큰 원안에 인물 그려 넣음. 누구 인지 묻자 부, 모라고 이야기 함.
	2015-06-15	부, 모, 이모, 할머니 그리기 함. 이후 점토 이용해서 얼굴 만들어 보기 진행 함.
	2015-06-17	언어 카드 블록 이용해서 맞추기 활동 진행 함. 가장 좋아하는 태권도 그림과 글자 먼저 찾기 함.
	2015-06-22	언어 카드 블록 맞추기 한 후 부 그리기 진행 함. 부가 가장 좋다고 하나 부가 화낸 것에 대해 제스처로 표현하는 모습 보임.
	2015-06-24	부, 모, 이모, 할머니 그리기 함. 파스텔 이용해서 색칠하기 할 수 있도록 유도 함.
	2015-06-29	인물상 그리기 하며 신체 부분에 대해 세분화 하며 표현하기 할 수 있도록 유도 함.
	2015-07-01	인물상 그리기 활동 대상 부, 모 그리기 하였으며 골판지 이용해서 말아 보기 함.
	2015-07-06	골판지 이용해서 말아 보기 함. 이후 그림 그리기 진행함. 인물상에 대해 얼굴, 몸, 다리로 세분화 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함.
	2015-07-08	그림 그리기 진행 함. 화지 하나에 인물을 하나씩 그리기 함. 그리기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 보임.
	2015-07-13	그림 그리기 진행하였으며 모와 이모 그리기 하였으며 모가 화낸 것에 대해 제스처로 표현 함.
	2015-07-15	점토 이용해서 활동 진행 함. 먹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함. 치킨 좋아한다고 끄덕 임. 치킨 형태로 만들기 해봄.
	2015-07-20	이모, 부, 자신 그리기 함. 화지 한 장에 한명씩 그리기 하며 모 그릴지 묻자 싫다고 함.
	2015-07-22	인물상 그리기 활동 부, 모, 이모, 할머니, 자신이라고 이야기 한 후 그리기 함. 치료사의 이야기에 주로 긍정적 반응을 많이 보이며 잘 웃지만 언어적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음.
	2015-08-10	인물상 그리기 활동 이모 그린다고 한 후 그리기 진행하였으며 그리기 매체 선택 자유롭게 이루어 짐. 마카 선택하였으며 색이 진하게 표현되는 것에 흥미를 보임. 마카를 흔들어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치료사와 함

		께하는 흔드는 동작에서 웃음.
	2015-08-31	인물상 그리기 활동 화지 이외의 아크릴 판에 마카 이용해서 그리기 할 수 있도록 매체에 변화를 유도 함.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아크릴판을 들어서 보기 할 수 있도록 함. 3회 정도 활동 지속 함.
	2015-09-02	꼴라쥬 활동 잡지의 사진 중 부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 붙이기 할 수 있도록 함.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사진에서 조차 이미지 찾기를 어려워 함. 긴장하지 않고 활동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림.
	2015-09-07	인물상 구상하기 활동 큰 동근 색종이와 직사각형 색종이4개 정사각형 색종이1개와 작은 동근 색종이4개를 이용해서 인물의 얼굴, 몸, 팔, 손, 다리, 발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함. 먼저 치료사가 시범을 보인 후 따라 구상해볼 수 있도록 한 후 풀 이용해서 붙이기 함. 큰 거부감 없이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
	2015-09-14	인물상 구상하고 그리기 색종이 이용해서 인물상의 얼굴, 몸, 팔, 손, 다리, 발을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기 함. 지속적으로 사람의 신체 구조에 대해 인식하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함. 활동 시 큰 긴장감 없이 자연스럽게 활동하며 치료사의 큰 제스처에 웃음.
	2015-09-16	인물상 구상하고 그리기 색종이 이용해서 인물상의 얼굴, 몸, 팔, 손, 다리, 발을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기 함. 대상은 부, 모, 자신, 이모를 표현 함. 여러장을 반복해서 그리며 즐거워 함.
	2015-09-23	인물상 구상하고 그리기 색종이 이용해서 인물상의 얼굴, 몸, 팔, 손, 다리, 발을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기 함.
	2015-09-30	인물상 구상하고 그리기 색종이 이용해서 인물상의 얼굴, 몸, 팔, 손, 다리, 발을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기 함.
3	2015.10.05	사후검사

활동 작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여 지는 변화로는 필압의 변화로 흐리고 선명하지 못했던 선이 명확하고 힘 있는 선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인물상에서 얼굴만 표현되던 것들이 몸과 팔, 다리, 손, 발로 확장되어 표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화지에 작게 차지하던 인물들이 커져서 화지 전체 면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림의 변화를 통해 아동이 표현에 있어서 자신감 향상이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자신의 가족에만 국한되어 표현되던 인물상들이 이모, 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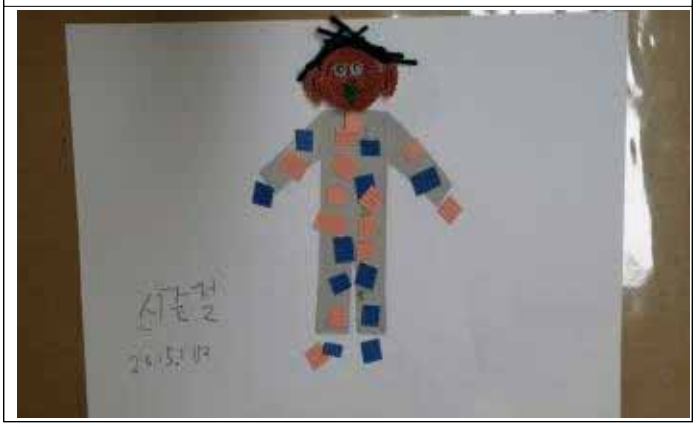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아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로 만나는 주변 인물들을 표현함으로써 자신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4-12-18



2015-06-29

2015-11-02



사전 사후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내담자 관찰 및 작품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사전 사후 검사 결과상으로는 미술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아동의 시지각 협응 능력 향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담자 작품에서는 인물상의 있어서는 변화가 보여 졌다. 내담자 개인으로는 미술이라는 활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조금 더 구조화된 미술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지각 협응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속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

참고문헌

이초희. (2014). 양손 협응 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시지각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례연구 15-10

<체간근의 근력 증가를 위한 수동적 운동요소가 영아의 근력 증가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연구자	임주성 작업치료사
연구기간	2015.03.05.~ 2015.11.20. / 총 0회

나들강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 영아의 경우, 성인이나 청소년과 다르게 자발적인 운동 참여에 어려움을 보임.
- 근력 증가를 위한 접근 방법에는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으로 구분됨.
- 근육군의 근력 증진을 위해 적절한 부하의 하중을 통해 자극이 입력되어야 근육의 강화가 나타남.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 자발적인 근력증가를 목적으로 한 운동 참여가 어려운 영아를 대상으로 수동적 운동을 적용하여 체간근의 근력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
- 수동적 운동을 통해서도 체간의 근력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 영아 및 장애아동의 경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과 병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능동적이고 집중적인 운동 적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근력 증가가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그 적용이 어려울 경우, 이차적인 방법으로 수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근력의 증가를 유도하는데 있어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가. 운동(exercise)의 구분

운동은 근육에 의해 표현되는 힘, 혹은 자세 유지 등 육체적 활동에 관련된 운동으로 구성되며 운동은 움직이는 상태로 인체의 특정 근육군의 일부가 제한된 국소적인 운동으로부터 혹은 인체 전체가 관여한 섬세한 운동으로 다양하다. 운동치료는 운동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활동적인 신체운동을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운동치료를 통한 질병극복은 개체나 조직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보다 거 강한 자극을 제공하여 새로운 자극에 적응시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운동치료는 여러관점에서 분류를 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운동치료의 목적은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위축, 관절 구축 등의 신체결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특정 근육 또는 근육군의 비효율성을과 기능적인 운동의 발전을 저해함이 없이 정상관절 가동범위를 얻도록 교정하고 정상기능 활동에 있어서 회복한 능력을 사용하여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것이다.

나. 능동운동

능동운동은 관절을 가로지으는 근육들의 능동적 수축에 의해 자유롭게 행해지는 관절가동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다시 능동-보조운동, 능동운동, 보조-저항운동, 저항운동의 수의적 운동과 불수의적인 반사운동으로 나누어 진다.

다. 수동운동

수동운동은 전적으로 중력, 기계, 개인의 신체와 같은 외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관절가동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수의적인 근수축은 일어나지 않으며, 이완운동, 신전운동, 도수교정으로 나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가.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조○○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3.04.03				
장애명	뇌병변	급수	3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 남동구 간석2동 로즈힐아파트 000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2344-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장애영아무상교육으로 내관상담 실시하였음. 母가 36살에 2.78kg 제왕절개로 정상 출산하였으나, 출생시 약하게 울었으며 빠른 호흡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하였고 산소호흡기 일주일, 인큐베이터를 한 달간 사용하였고 사용 시 관 수유를 하였음. 출생 후 고열 및 경기증상이 빈번하였으며 뇌량무형성증으로 판정받았고 운동발달지연 소견으로 뇌병변 판정을 받았음. 전반적인 발달지연증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 물리, 작업치료를 받고 있음.

⑶ 주호소 내용

- 본 아동의 경우, 출생 후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병원에서의 제한된 생활을 통해 발달의 지연 및 환경에의 관심 저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하여 신체 특정 부위에의 접촉 거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상지의 어깨와 손 부분에 대해 손을 움직이며 빼어내는 거부감을 심하게 나타내고 있다. 병원 기간 중, 개복수술로 인해 복부에 수술로 인한 반흔 조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복부의 체간근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앉혀 주면 앉은 자세의 유지는 가능하지만, 허리 및 등 쪽 근육을 사용하여 체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임. 주위환경에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익숙한 물건만 익숙한 방법으로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며, 자발적인 상지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분리된 움직임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2.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14.11.19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개별작업재활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타기관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나.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 15.03	계획서 제출
	15.04 ~ 15.08	사례연구 진행
	15.08	중간평가 실시 및 중간보고서 작성
	15.09 ~ 15.10	사례연구 진행
	15.10	종결평가 실시 및 최종보고서 작성

다. 자료수집 방법

- 표준화가 가능한 객관적 평가와 치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주관적인 평가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연구 진행 중간에 평가를 통해 목표의 방향을 조정하고 적절한 연구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
  1) 기초선 설정을 위한 초기평가
  2) 연구의 방향성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중간평가
  3) 연구의 결과 파악을 위한 종결평가
  - 객관적 평가 : MMT 적용 측정, Righting reaction 반응시간 측정
  - 주관적 평가 : 관찰평가, Abdominalis muscle의 수축 반응 촉진, Pull to sit의 시간 및 노력의 정도 측정

4. 자료분석 방법

- 평가 시기별 MMT 등급 변화에 따른 분석
- Pull to sit의 유지 시간 변화에 따른 증감 분석
- Righting reaction 시에 반응 속도 및 반응 시간의 변화 요소를 분석

Ⅳ. 연구 결과

가. 사례 진행 사항

Ct.를 대상으로 수동운동을 통한 체간근 자극 방법으로 근 섬유 방향에 따른 stretch 및 stroke, PROM exercise, Muscle fiber에 대한 Tapping, Thermal stimulation을 통한 반사적 근 수축 유도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주 2회, 30분의 프로그램 기간 중 10분간 수동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은 시간에는 자세 변환 및 유지, 능동운동 유도 등의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날짜	제공 프로그램	내용
4/3	PROM exercise	프로그램 적용으로 Ct.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Trunk flexion, Pelvic isolation movement exercise
4/10	PROM exercsie	Ct.가 참여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불러주는 노래에 집중함 Trunk flexion, Pelvic anterior tilt, Trunk rotation
4/24	Tapping, Stretch	자극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으나 싫어서 몸을 돌리며 회피하려 함. Abdominalis gentle tapping, Oblique muscle stretch
5/8	Tapping, Stroke	Ct.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함. Abdominalis slow stroke, Low back release, Gentle tapping
5/15	Termal stimulation	Ct.가 큰 거부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짧게 진행함. Thermal stimulation on Abdominalis(Cool)
5/22	PROM exercise	체간의 움직임에서 Ct.가 지속적으로 다리를 벌리며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임. Trunk flexion and pelvic ant. tilt and release, Trunk lateral bending
5/29	Stretch, Stroke	Ct.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거부감을 나타냄. Deep pressure and gentle stroke, slow stretch by manual
6/5	PROM exercise	Ct.가 새로운 방법에는 적응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임. Trunk rotation, Pelvic isolation movement, Hold the body in slight lift off
6/12	Tapping, Squeeze	Ct.가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도록 천천히 적용하며 시간은 길게 진행함. Muscle tapping on belly, Gentle squeeze, Quickly stretch
6/19	Termal stimulation	Ct.가 거부감을 보임으로 짧게 나누어 3회 진행함. Thermal stimulation on Abdominalis(Cool)
6/26	PROM exercise	노래를 불러주면서 Ct.의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을 조절함. Trunk bending and flexion, Reciprocal movement
7/3	Stroke, Stretch	옷을 들추는 것에 대해 장난으로 느끼며 거부감을 나타냄. Gentle stroke, Oblique stretch, Deep pressure and stroke
7/10	PROM exercise	큰 거부감이나 회피행동을 보이지 않음. Trunk and pelvic rotation, Flexion and rotation

날짜	제공 프로그램	내용
7/17	Tapping, Squeeze	웃으면서 활동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음. Vibration, Gentle pressure and light tapping, gentle squeeze
7/24	Termal stimulation	첫 시도 후에 회피반응을 보였으며, 나누어서 진행함. Thermal stimulation with PROM exercise(Cool)
8/21	중간평가	중간평가 실시(주관적, 객관적 평가)
8/28	중간평가서 작성	중간평가서 작성
9/4	PROM exercise	Ct.의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 Trunk flexion, Pelvic tilt movement,
9/11	Tapping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거부감을 크게 나타냄. Tapping on the abdominalis, Gentle pressure
9/22	Stroke	시각적 탐색에만 주의를 기울임.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음. Gentle stroke on the abdominalis muscle
10/2	PROM exercise	기분이 좋지 않음. 평소보다 거부감이 강함 Trunk rotation movement, Pull to sit movement
10/6	Stretch	접촉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지만 하지 쪽 접촉시에 다리를 들어 피하는 모습을 보임. Pull to sit, Trunk rotation for oblique stretch
10/13	Stroke	기분이 좋았음. 웃으면서 소리를 즐김. Tactile stroke(fur, light touch, slow)
10/20	Termal stimulation	차가운 자극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Termal stimulation with tapping(cool)
10/27	PROM exercise	거부감을 나타내며, 하기 싫어함. 울려는 모습을 보임. Trunk extension and flexion movement
11/3	PROM exercise	지속적인 수동 운동에서 놀이를 찾지 못하여 즐기지 못함. Trunk rotation movement, lateral bending
11/10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나. 평가결과

항 목	중간평가	종결평가
MMT	지시 수행 및 구별된 움직임에 어려움으로 평가가 어려움.	정확한 자세 형성 및 지시 수행에 어려움을 보여 평가가 어려움.
Righting reaction	빠른 변화에 대한 정위반응은 아직 관찰이 어렵지만, 느린 변화에 대한 정위반응이 나타남을 보임.	즉각적인 반응에는 어려움을 보이며, 체간근보다 원위부를 통한 모습을 보임.
수축반응 촉진	수축반응 촉지가 되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님.	수축반응이 촉지가 되며, Rectus abdominus 위주의 수축을 보임.

항 목	중간평가	종결평가
Pull to sit	손을 통한 외적지지가 이루어지면 체간의 수축을 통한 자세 유지(5초) 및 체간 올리기가 가능함을 보임.	반복적인 참여와 유지가 가능함.
관찰평가	기초선과 비교하여 Ct.의 체간근에 근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객관적이나 수치적인 파악에는 어려움을 나타냄. 참여의 증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여의 증진을 보이며, 반복적인 활동에도 큰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음. 근 수축과 이를 통한 신체조절에 참여를 보이나, 체간근의 사용을 통한 신체조절보다 원위부의 움직임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사용하고 있음.

다. 과정평가

- Ct.의 연령이 낮아 제한적인 지시 수행이나 활동의 참여에 어려움을 보여, 객관적인 평가 및 연구방법에 어려움을 보임. 이로 인해 사례연구에 대한 타당도의 저하를 보이며, 실질적인 목표와의 연계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함.
- Ct.의 기능적 증진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서 수동적 운동요소 만으로 그 적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Ⅴ. 결론 및 제언

체간근의 근력 증진을 위해 수동적 운동요소를 이용한 사례 적용에서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초선과 비교하여 연구 종결시점에서의 체간근의 근력 증진에서는 객관적인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Ct.의 반응, 촉지, 관찰평가 등을 통한 주관적 평가에서 증진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관찰되는 증진의 원인이 수동적 운동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우선, Ct.의 연령 및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연구 방법을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Ct.의 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발달사항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요소를 연구방법과 구별하기에도 어려움을 보여 연구의 효과성 확보 및 타당도 검증에 실패하였다. 또한, Ct.가 이용 중인 서비스의 목적과 더불어 연구의 목적이 부합되어야 하지만 설정한 연구 목적이 큰 의미에서의 서비스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연구방법의 적용에도 신뢰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차후 사례연구 활동에 있어 Ct.의 신체적 부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심리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부합되는 사례연구의 목적과 그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연구 15-11

상호작용 중심의 놀이활동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연구자	정승영 심리치료사
연구기간	2015.3.5.~ 2015.10.31. / 총 36 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아동은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긴장감이 높아 자신이 가진 인지적 능력발휘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만 표현하고 있다.

본 아동에 대해 상호작용 촉진 이전에 긴장이완을 통한 상호작용 촉진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사회성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아동의 긴장완화를 통해 자신이 가진 인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혼자서는 할 수 있으나 주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으며, 긴장완화를 통해 주변을 살펴보고 보호자 및 친근한 사람과 논리적인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고 향후 상황에 대한 융통성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사회성 발달장애

호혜적 의사소통, 사회적으로 지향된 상상놀이, 가장 놀이 영역에 손상이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말하며, 사회성 발달은 영아기부터 시작되어 인지, 언어발달과 함께 통합되므로 어떤 한 영역에만 특징적이지 않고 전 영역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영,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장애

부모와 다른 성인간의 구별부족, 특정한 애착행동 발달의 지체를 보이며, 생의 초기부터 사회적 상호작용행동의 결함이 보여진다.

출생초기 부모와의 관계 문제는 이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 끼친다.

Ⅲ. 연구 방법

가.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조○○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9.12.00				
장애명	미등록	급수	-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전화번호	○○○	핸드폰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아동은 3.1kg으로 순산되었으나 18개월 경 동생의 출산과 언어발달지연으로 인한 폭력성이 나타나 2015년 5월 언어발달검사를 실시 후 본관놀이치료를 수시접수하였 이용하고 있음. 전반적인 발달평가를 위하여 본관을 내방하였음.

(3) 주호소 내용

상호작용이 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피며 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언어발달 지연과 눈맞춤 잘 안됨.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1.1.00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놀이심리지원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용(도움반)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평가	3월	초기평가
평가	9월	중간평가
평가	11월 종결평가	종결평가

3. 자료수집 방법

사례기록

4. 자료분석 방법

프로그래스 분석: 초기에는 혼자 놀이하며 폴리 변신로봇 시리즈 변신하며 조작적인 놀이 보임. 눈맞춤과 상호작용은 되지 않고 혼자서 장난감 조작하면서 놀이함. 이후 공룡 꺼내 혼자서 중얼거리며 싸움 놀이함. 치료사가 방해하거나 개입하면 아~~ 하고 소리치며 짜증냄. 8월경부터 치료시간 전에 졸려하며 입실하기 시작하였으며, 모와 잠습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수정하기 시작함. 9월 중순부터는 졸음이 없어지고 치료사가 아동의 놀이에 개입하여 아동에게 간단한 요구를 하고 대답을 하면 제공하며 놀이 진행함. 현재 언어적 촉구와 모델링을 통해 대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치료사에게 요구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

Ⅳ. 연구 결과

본 아동은 서비스 초기 공감과 지지를 통해 치료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치료사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치료사에게 미소짓고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치료사에게 허락을 받거나 도와달라는 촉구를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 모델링과 교육적 놀이활동을 가미하여 아동의 놀이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치료사의 모델링과 교육적 놀이를 통한 조작적 놀이활동이 나타남. 본 아동에 대해 먼저 친근감 형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현재 아동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이 치료사에게 언어적 표현을 하게 함으로서 주변을 인식하고 자신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단계에 이름.

Ⅴ. 결론 및 제언

본 아동에 대해 세션 초기 무조건적 허용 중심의 세션을 진행하였으나 세션에서 진전이 보여지지 않았으며, 허용을 통해 친근감을 형성한 후 아동의 활동에 개입을 시작하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심리적으로 당기고 놓으며 긴장감을 제공하면서 아동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아동도 자신이 해야하는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 표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진행중이 아동이며, 지속적 개입과 자극제공, 긴장이완을 통한 아동의 행동의 일반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사례연구 15-12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obstacle course 훈련이 긴장성편마비 아동의 균형반응 향상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연구자	임현주 물리치료사
연구기간	2015.3.4.~2015.8.26. / 총 17회

나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긴장성 편마비 아동의 경우 정상발달 시기와 비슷하게 보행을 획득하게 되나 신체 좌우측의 비대칭으로 인해 보행시 균형반응에서 약점을 나타낸다. 보행시 요구되는 균형반응은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여야 하므로 정적 상황에서의 균형반응보다 그 속도가 빨라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에 넘어짐에 대한 위험요소가 적은 수중환경에서 장애물 넘어가기 훈련을 통해 균형반응의 향상을 필요하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수중이라는 환경은 여러가지 유체역학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로인해 유체안에서의 신체 속도가 느려지고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장애물을 넘거나 피하는 움직임시 발을 헛디디고 이를 수정하는 시간, 몸에 흔들림이 생길 경우 넘어지지 않고 다시 바로세울 수 있는 시간 등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근래 수중에서의 장애물 넘어가기 훈련이 노인성 질환은 물론 균형반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대상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신체 좌우 비대칭 근긴장도와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장애물 넘어가기를 통해 균형반응의 향상의 꾀하고자 한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긴장성편마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분류의 뇌성마비 아동보다 이른시기에 독립보행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한쪽으로 편향된 체중지지로 인해 구조적으로 다리길이의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는 비정상 근긴장도와 더불어 보행시 뒤뚱거리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지상보다 넘어짐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수중환경에서 장애물 넘기와 손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장애물을 넘어가는 복합적 과제수행을 통해 본 사례연구 대상아동의 균형반응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보행시 넘어짐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는 근력약화, 균형반응 결핍, 보행의 결함, 시각적 결손, 운동성 제한, 인지 손상, 신체구조의 결함, 자세 근긴장도 저하 총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심각한 원인은 근력약화(11/11)*, 균형반응 결핍(9/9), 운동성 제한(9/9)이다(Rubenstein, 2006). 보행시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서 유기적 반응이 일어나 전방과 후방, 측방으로 신체의 중력중심을 옮겨 stepping strategy가 완성된다(Shumway-Cook, 2007). 입각기의 다리는 고관절의 외전과 족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육에 활성이 일어나며,

중심부에서 외측으로의 안정성이 부족해 흔들림이 나타나면 균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Hilliard, 2008). 따라서 보행시 필요한 stepping strategy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지의 관절에 적당한 정도의 근력과 균형반응이 요구된다.

*심각한 정도/총점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안지희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11년 3월 12일				
장애명	미등록	급수	-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773-9 힐타운 2동 000호				
전화번호	-		핸드폰	010-5712-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본 아동은 순산으로 출생하였으나 17개월경 신체발달이 징녀된다고 느껴져 인천성모병원 재화의학과 진료 후 뇌성마비 판정 받음. 좌측뇌 손상으로 인한 오른쪽 편마비 증세가 있음.

⑶ 주호소 내용

오른쪽 신체사용이 늘고 보행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음.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년 11월 07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개별물리재활 개별수중물리재활 놀이심리지원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00선교원 재활병원(물리, 작업치료)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계획 및 평가	2015년 3월 4일	사례연구 대상자 및 연구 주제 선정 대상자 현상태 파악
프로그램 진행	2015년 3월~10월	수중에서 obstacle course 훈련
평가	2015년 10월	사후 평가를 통해 사전결과와 비교 효과성 증명

<목표>

- 20cm 허들 넘어가기 10회 중 걸림 3회
- 허들을 넘어가며 물건을 옮기는 과제수행시 과제물의 떨어트림 10회 중 3회
- 30cm의 허들 넘어가기 10회 중 걸림 5회

3. 자료수집 방법

- 20cm 허들 넘어가기 중 넘어짐, 걸림 횟수 측정
- 허들을 넘어가며 물건을 옮기는 과제수행시 과제물의 떨어트림 횟수 측정
- 30cm의 허들 넘어가기 중 넘어짐, 걸림 횟수 측정

4. 자료분석 방법

- 사전/사후 비교

Ⅳ. 연구 결과

사례 진행 사항

<프로그램 진행과정>

1. breath control - egg 불기 - 물안경 착용하고 3초동안 잠수하기 - 물안경 착용하고 물속에서 egg 색깔 맞추기 - 잠수하여 물고기 잡아오기
2. transverse rotation control - ankle, knee fix
3. sagittal rotation control - ankle, knee fix - metacentric effect 사용하여 trunk lateral muscle strengthening - SRC하며 과제물 잡기전 수면 위로 팔을 15도 가량 들어올린 후 5초 유지 - 이후 과제물 잡기
4. longitudinal rotation control - 얼굴은 물밖에 유지한채 upper trunk fix - 입으로 blowing하며 수행 - 얼굴을 물속에 담그며 수행
5. 물속에 있는 물고기 오른발로 걸어 왼손으로 잡기 - 담당자가 오른손은 잡아줌
6. 20cm 허들 2개, 30cm 허들 1개를 순서대로 배열 - 킥보드 위에 안정적인 장난감과 공을 올려놓고 허들 넘어가기 - 과제물 떨어트리지 않으며 점프하기 - 허들의 간격을 좁혀가며 수행하기

Ⅴ. 결론 및 제언

본 아동은 우측 긴장성 편마비 아동으로 보행은 가능하나 균형반응의 부족으로 보행시 뒤뚱거림과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기본 체간안정성 강화 훈련과 허들넘어가기 운동을 시행하였다. 치료 초반 스스로 허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담당자의 보조가 필요하였으나 꾸준한 훈련을 통해 현재 과제물을 옮기며 20cm허들 넘어가기가 100% 가능하게 되었고 30cm허들의 경우 10회중 1~2회만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손에 운반하는 과제의 떨어트림 횟수는 10회중 0~1회기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증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나 보행시 뒤뚱거림에서는 큰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향후 허들의 위치를 계속하여 변경하고 과제를 더욱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유연함을 키워야 할 것이며, 또한 정상보행패턴의 기초가 되는 체간안정성 강화훈련도 꾸준히 시행하여야 하리라 사료된다.

사례연구 15-13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를 통한 언어재활이 무발화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연구자	김가인 언어재활사
연구기간	2015.3.4.~ 2015.11.20. 총 22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 무발화 아동의 복지관 내관이 늘어나면서 재활사가 무발화 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인 언어 자극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를 제시하여, 영유아(무발화) 단계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본 아동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태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말의 편리함.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영아 때부터 주로 TV를 보면서 혼자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중심 놀이와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를 통해 아동에게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발적인 의도 하에 산출되는 발화를 우리는 자발적인 발화라고 하며 자발적인 발화는 다시 아동이 대화를 시작하거나 선행되는 질문이 없어도 서술이나 질문 등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시도발화(시작발화)와 선행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반응발화로 구분되어 진다(김영태, 2002).

그림의사소통상징 체계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인 대상들은 말을 사용하기 이전 아동과 말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 언어적 지능보다는 시각적 지능이 더 뛰어난 아동, 학습의 동기가 부족한 아동, 보상이나 강화에 반응이 빠른 아동, 단어에 의미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 언어의 기능이나 교환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을 들 수 있으며 말을 하는 아동일지라도 본체계를 이용하면 그들의 자발성과 사회성이 뛰어나게 되며, 특히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이지희, 2007).

PECS의 대상은 자발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체된 아동에게 효과적이며 언어이전의 아동, 선택적 함묵증이 있는 아동, 언어보다 시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아동, 보상과 강화에 반응이 빠른 아동, 언어의 기능이나 교환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이 대상이 된다(김지은, 2001).

Ⅲ. 연구 방법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임 OO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12년 8월 18일				
장애명	미등록	급수	-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OO-O번지				
전화번호	-		핸드폰	01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남1녀 중 막내로 정상 출산하였음. 병원에서 베일리검사, 청력검사 등 발달검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1년 발달지연증상소견을 보고받았고, 출생 후 인큐베이터에서 1주일정도 입원하였으며, 황달증상을 이틀정도 보였다고 함.

⑶ 주호소 내용

전반적인 발달지연으로 적합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5년 1월 16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언어재활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일반 어린이집 재학 중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평가	4/3	초기평가(SELSI, 인터뷰, 언어이전단계 하위기술 체크리스트)
자문	4월 중	대상자에 대한 자문
평가	7월 중	중간평가(SELSI, 인터뷰, 언어이전단계 하위기술 체크리스트)
강의	10월	무발화 아동 치료 관련 강의 참석
평가	11월 중	최종평가(SELSI, 인터뷰, 언어이전단계 하위기술 체크리스트)

3. 자료수집 방법

-현상태 파악 : 인터뷰, 언어이전단계 하위기술 체크리스트, SELSI

-진행 과정 계획 : 화용적 의사소통(사물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거부하기, 언급하기, 정보 제공하기, 관심끌기, 인사하기), PECS, 언어이전단계 하위기술 체크리스트, SELSI,

4. 자료분석 방법

-표준화된 검사 도구 : SELSI

-언어이전단계 하위기술 체크

Ⅳ. 연구 결과

1)사례 진행 사항

①초기평가

-SELSI : 수용언어 4점/2개월, 표현언어 6점/8개월, 전체언어 10점/4개월로 생활연령에 비해 2세 정도 낮은 언어발달을 보이고 있음. 눈 맞춤이 어렵고 소리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옹알이는 있으나 의미 있는 언어표현이 없음. 사물에는 관심이 많으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모와 분리가 어려워 입실 거부를 하고 있음.

-언어이전단계의 하위기술 : 눈 맞춤이 어렵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음. 주의집중 시간이 1분 이상 되지 않고, 보상에 대한 반응이 없음. 선택적으로 소리에 반응하고, 친숙한 얼굴이나 소리에 대해 안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 간단한 모방이 어렵고, 같은 범주의 물건을 연결시킬 수 없음. 기능에 따라 물체를 연결시키거나 의미 있는 놀이를 할 수 없음. 타인과 상호작용 놀이가 어렵고, 그림이나 크기, 색깔대로 짝짓기가 안 됨.

-인터뷰 : 아동이 의미 있는 행동이나 구어표현이 없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울

음으로 표현한다고 함. 모와 상호작용이 잘되지 않고 음성표현이 많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음.

②진행사항(4/3~11/13 총 56회기 진행)

회기	프로그램스
4/3~5/29 총 15회기	언어실 입실을 거부 하였으며, 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함. 입실 후 약 20분 정도는 울면서 나가려고 함. 언어실에서 소리 나는 장난감이나 좋아하는 캐릭터 혹은 노래를 들려주거나 복지관 내 다양한 공간(놀이터, 체육실 등)에서 자유놀이 활동을 진행하였음.
6/1	모와 분리되어 스스로 처음으로 언어실에 입실하였음. 양순음, 모음 위주의 음성산출이 많음.
6/5~6/15 총 4회기	아동이 언어실에 스스로 입실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활사와 라포형성 및 상호작용치료가 진행되었음. 아동의 입실 거부 기간이 길어 목표에 따른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웠음.
6/19~7/17 총 9회기	사물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거부하기, 인사하기, PECS 1단계 진행 *PECS의 단계 1단계. 물리적 교환- 도움없이 그림상징과 선호물 교환 단계 2단계. 자발성 확대- 의사소통의 자발성을 확대 단계 3단계. 변별훈련- 그림들 간 변별훈련 단계 4단계. 문장구성- 문장판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사용 단계 5단계. 질문에 대한 반응- 타인과 상호작용을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 단계 6단계. 반응적 자발적 언급-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표현 단계
7/20	*중간평가 -SELSI : 수용언어 8점/4개월, 표현언어 13점/8개월, 전체언어 21점/6개월로 초기평가에 비해 2개월 정도 향상되었음. -언어이전단계의 하위기술 : 눈 맞춤이 초기평가 때에 비해 많아졌고, 재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졌으며, 소리에 대한 반응이 많아짐.

	*자문 PECS에 대한 논문자료 추천받음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PECS: The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자폐성 및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들의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체계이나 자폐아동 뿐 아니라 인지 수준이 낮은 무발화 아동에게 사용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자발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종래의 고전적인 언어 및 의사소통 치료에서 흔히 지적받았던 비기능성, 비실제성, 비자발성의 약점들을 보완한 모델입니다. 이것의 적용방법은 보내드린 논문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7/24~8/24 총 5회기	사물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거부하기, 인사하기, PECS 1단계 진행 양순음, 모음 음성산출이 많아짐. 사물요구하기 시 재활사의 손을 잡고 사물로 이동하고 있으며, 재활사가 아동의 손을 모아 “주세요.” 제스처를 요구할 경우 제스처를 하며 요구하기가 가능함. PECS 1단계에 대한 방법 이해가 가능해졌으나 재활사의 코칭이 없을 경우 지시 수행이 어려움.
8/28~9/25 총 8회	사물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거부하기, 인사하기, PECS 1단계 진행 양순음, 모음 음성산출이 많아졌으며, 치조음 산출 빈도가 늘어남. 사물요구하기 시 재활사의 손을 잡고 사물로 이동하고 있으며, 높은 장소에 있는 사물을 요구할 때 의자를 들고 가서 손가락으로 지적하도록 함. 재활사가 아동의 손을 모아 “주세요.” 제스처를 요구할 경우 제스처를 하며 요구하기가 가능하나 컨디션에 따라 수행 정도가 다름. PECS 1단계에 대한 방법 이해가 가능해졌으나 재활사의 코칭이 없을 경우 지시 수행이 어려움.
10/2~10/23 총 6회	사물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거부하기, 인사하기, PECS 1단계 진행 다양한 음소 음성산출이 많아짐. 사물요구하기 시 재활사의 손을 잡고 사물로 이동하여, 스스로 손을 모아 “주세요.” 제스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엄마와 헤어질 때, 재활사와 만나고 헤어질 때 손을 흔듦.

	PECS 1단계에 대한 방법 이해가 가능해졌으나 재활사의 코칭이 없을 경우 지시 수행이 어렵고 활동에 대한 동기가 없음.
10/24	언어재활사 교육참석 -영유아 단계 무발화 아동의 상호작용 놀이 언어치료(명지대학교 이경숙) 언어, 의사소통의 형태 자체를 습득하는 중재보다는 의사소통 상황을 통한 언어 기능성, 즉 화용적 의사소통 중재의 유용성을 강조해야함. 좌, 우반구를 연결하는 뇌량의 성숙 및 발달은 만 2세경 시작되며 우반구의 정서, 감정, 운동경험이 좌반구의 의미영역과 연결 및 통합됨. 무발화 아동의 언어치료 진행 시 언어의 기능성에 초점을 두며, 발달수준에 맞는 놀이 활동에 언어목표를 담아낸다.
10/26~11/13 총 6회기	*최종평가 -SELSI : 수용언어 10점/5개월, 표현언어 14점/8개월, 전체언어 24점/6개월로 중간평가에 비해 유의미한 개월 향상은 없으나 원점수가 향상되었고, 아동이 타인의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나 빈도가 늘었음. 또 재활사의 행동을 모방하는 빈도가 늘어났음. -언어이전단계의 하위기술 : 아동과 마주보며 장난감으로 놀이를 할 때 눈 맞춤 빈도 향상, 재활사의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증가하였음. 재활사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요구하기 시 “주세요” 제스처를 사용함.

V. 결론 및 제언

본 사례연구는 무발화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아동은 타인과 의사소통 경험이 적고, 방법이 미숙하여 보완대체 의사소통인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 정도를 보고자 하였으나 아동이 그림교환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가 낮고, 컨디션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달라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사소통 태도 형성 및 그림교환의사사통체계를 이용한 결과 아동이 초기평가에 비해 전체언어 연령이 2개월 정도 향상 되었으며, 초기평가 때 눈 맞춤이 없거나 시선 유지 없이 스치듯 눈 맞춤이 일어났던 아동이 재활사나 모에게 눈 맞춤하는 시간・빈도가 늘어났으며, 관심 상황에서 수동적 공동주의 형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자문이나 무발화 아동 관련 교육을 통해 무발화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찾아봄으로써 재활사

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참고

.그림교환 의사소통체계 프로그램 적용이 정신지체아동의 자발적인 요구하기에 미치는 효과/천정숙

사례연구 15-14

수중치료를 통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의 앉기 자세와 하지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연구자	김진봉 물리치료사
연구기간	2015.3.1.~ 2015.11.16. / 총 개입횟수 32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뇌성마비 아동의 신체적 특성은 개개인 마다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신체기능도 일반 아동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 아동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 동기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부분까지도 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뇌성마비 아동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통해 자세 유지와 움직임에 필요한 근력을 강화시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지금까지 밝혀진 수중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형화된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에게 수중치료를 통한 체간근 강화가 앉기 자세와 하지의 근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적 중재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가설1) 수중치료의 체간근 강화가 지상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앉기 자세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설2) 수중에서의 체간근 강화가 하지의 근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뇌성마비 아동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자세나 움직임들을 갖는데, 외적으로는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하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경학적 발달의 정도와 자신들이 경험했던 또는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움직임의 제한, 비정상적인 반사의 우세,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세 조절 능력 결함에 따른 비대칭적인 자세나 움직임으로 근육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된다. 근육의 불균형은 다리와 골반의 높은 긴장도를 만들고, 체간이 중앙으로 모이며 발달되는 체간의 안정성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 제한된 움직임을 만든다. 또한 어떤 근육들은 짧아지고 어떤 근육들은 길어져서 기능적인 활동이나 자세유지에 필요한 근력이 점차 약화되어 고정된 자세 패턴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 체간근이 약하여 자세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은 주로 좌우 또는 앞뒤로 기울어진 앉은 자세로 발전되고 기능적으로 사용해야 할 팔과 다리를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상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발달이 지연되며, 기능적인 동작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Ⅱ. 이론적 배경

최근 연구들은 뇌성마비 아동에게 근력 강화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근력, 대동

작 기능, 보행기능, 지구력의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근력강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신경발달치료와 다각적인 치료접근(수중치료, 승마치료, 감각통합치료, 음악치료, 심리안정치료 등)들을 병행한 결과가 운동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수중치료는 물의 부력이나 저항을 이용하여 체중 감소와 관절의 가동성, 움직임, 근력,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경련성과 근육의 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수중에서의 재활운동은 물의 물리적 특성인 부력, 정수압, 상대밀도, 물의 흐름 변화인 난류(turbulence), 수온, 다양한 물의 깊이 조절 등과 같은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수중재활운동의 효과는 근골격계의 근력 향상, 지구력 향상, 관절가동범위 증가, 근육이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er. 1997).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이세은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5.04.25				
장애명	뇌병변장애	급수	2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AFO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아파트 103-110○				
전화번호	032) 5○9-○0○1		핸드폰	010-9○6○-○0○1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28주 조산으로 1.15kg로 출생, 출생 시 무호흡증으로 산소 공급이 안됨. 2달 동안 인큐베이터 사용. 돌 지나서까지 보행이 되지 않아 진단 받음. 1남1녀 중 막내.

⑶ 주호소 내용

독립적인 서기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7년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개별물리재활, 개별수중물리재활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일반초등학교 재학 중, 미추홀 재활병원 물리치료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4/6	초기평가	아동의 대동작 기능평가 및 수정된 근 긴장도 평가 시행
4월~7월	중재	목표에 따른 중재 시행
8/10	중간평가	중간평가 시행
9 월 ~ 1 0 월	중재	목표에 따른 중재 시행
11/16	최종평가	최종평가 시행

3. 자료수집 방법

아동의 운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동작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를 실시하고, 하지의 경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정된 근 긴장도 평가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를 사용하여 대상 아동의 사전 평가를 실시한 후 주 1회 30분씩 수중치료를 시행한 후 대동작 기능 평가의 5개 기능적인 영역 중, 앉기 기능 및 네발기기와 무릎서기의 34개 항목을 평가한다. 하지의 경직 정도는 G0~G4로 기록하여 실험전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4. 자료분석 방법

실험전의 평가는 대동작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영역 중 앉기 및 네발기기와 무릎서기에 해당되는 34개 항목에 관해 평가하고, Modified Ashworth Scale를 사용하여 하지의 긴장도를 G0~G4로 표기한다. 실험후의 평가는 하지의 경직 정도를 G0~G4로 기록하며, 대동작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영역 중 앉기 및 네발기기와 무릎서기에 해당되는 34개 항목을 평가하여 실험전과 실험 후를 비교한다.

Ⅳ. 연구 결과

사례 진행 사항

(1) 1차 연구

개별수중물리재활 이용아동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앞으로 진행 될 수중 프로그램을 숙지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으로 항 경련제의 투여나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로 치료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대상으로 하였다.

(2) 2차 연구

2015년 4월 6일부터 2015년 8월 17일 까지 15회 치료를 적용하였다.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Lambeck과 Stanat가 제시한 수중회전조절 프로그램으로 Halliwick 10-point program을 바탕으로 구성된 운동 프로그램이다. 이는 건강증진과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도움이 되며 수중에서의 유체역학과 물리적 운동 현상을 이용한 인체의 근/골격계, 신경계, 호흡/순환계, 내분비계에 자극하고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 방법이다.

15회차 까지 치료를 적용한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수중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난이도를 조금씩 조절하며 진행하도록 하여야겠다.

[수중운동방법]

구분	운동 내용	운동의 효과
준비운동	호흡조절(입으로, 코로) 물속에서 서기, 걷기, 점프하기	물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며 수중에서 독립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적응
TRC	뒤로 누운 자세에서 앞으로 일어서기	신체의 회전 운동을 통해 체간 안정성 훈련
SRC	앉은 자세에서 양 옆으로 고리 집기	신체의 좌/우 회전 운동을 통해 체간 안정성 훈련
CRC	앞으로 숙이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 뒤로 누운 자세 유지하기	균형을 잃었을 때 물 속으로 머리가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훈련
basic movement	뒤로 누운 자세에서 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팔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만든 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심부 균형을 훈련
정리운동	물속에서 앞/뒤로 걷기 스트레칭	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앞/뒤/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걷는 연습

(3) 3차 연구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1월 09일 까지 10회 치료를 적용하였다.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Lambeck과 Stanat가 제시한 수중회전조절 프로그램으로 Halliwick 10-point program을 바탕으로 구성된 운동 프로그램이다.

25회차 까지 치료를 적용한 후 최종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수중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며 진행하였다.

[수중운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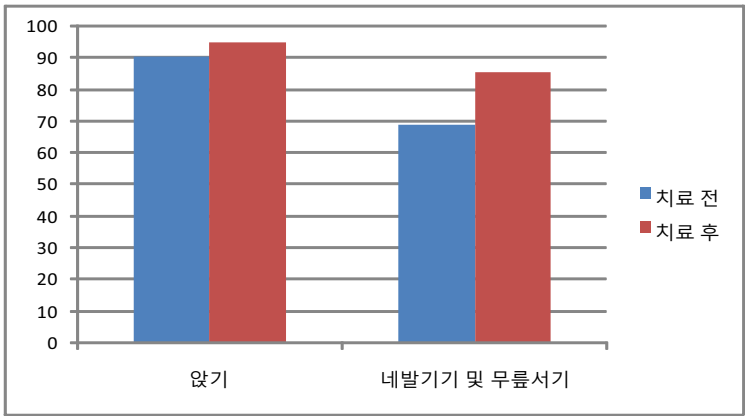
구분	운동 내용	운동의 효과
준비운동	호흡조절(입으로, 코로) 물속에서 서기, 걷기, 점프하기	물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며 수중에서 독립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적응
TRC	-뒤로 누운 자세에서 앞으로 일어서기 -앞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 구부려 선 자세로 돌아오기	신체의 회전 운동을 통해 체간 안정성 훈련
SRC	앉은 자세에서 양 옆으로 고리 집기	신체의 좌/우 회전 운동을 통해 체간 안정성 훈련
LRC	뒤로 누운 자세에서 팔과 체간의 근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누운 자세로 변형하기	척추의 분절 움직임을 통한 회전, 어깨 관절의 외전 및 내전, 체간 및 견갑대의 근력강화
basic movement	-뒤로 누운 자세에서 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앞으로 누운 자세에서 손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팔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만든 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심부 균형을 훈련
정리운동	물속에서 앞/뒤로 걷기 스트레칭	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앞/뒤/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걷는 연습

(4) 최종 평가

① 대동작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치료 전: 앉기 90.4% 네발기기 및 무릎서기 69%

치료 후: 앉기 95.2% 네발기기 및 무릎서기 85.7%



② Modified Ashworth Scale(MAS)

치료 전: G1+ 치료 후: G1+

수정된 근 긴장도 평가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of muscle spasticity)	
G0	근 긴장도의 증가가 없다.
G1	환측을 굴곡이나 신전하여 움직였을 때 관절가동범위의 끝에서 약간의 저항이 감지되며, 근 긴장도가 약간 증가한다.
G1+	관절가동범위의 1/2 이하에서부터 약간의 저항이 감지되며, 근 긴장도가 약간의 증가를 보인다.
G2	대부분의 관절가동범위에서 현저한 근 긴장도의 증가를 보이지만, 쉽게 움직일 수 있다.
G3	수동적인 움직임이 곤란하며, 근 긴장도가 상당히 증가한다.
G4	환측 사지에 있어서 수동운동이 불가능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수중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뇌성마비 아동에게 수중치료를 통한 체간근 강화가 앉기 자세와 하지의 근 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적 중재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자는 뇌성마비로 인한 양 하지마비 아동으로 수중치료를 통한 중재를 매주 1회씩 30분 총 25회기 실시하였으며 초기 및 중간 최종 평가를 시행하였다. 치료 전과 후에 각각 대동작 기능 평가와 Modified Ashworth Scale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Lambeck과 Stanat가 제시한 수중회전조절 프로그램으로 Halliwick 10-point program을 바탕으로 구성된 운동 프로그램이다.

먼저, 대동작 기능 평가에서는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항목 중 '복와위에서 네발기기 자세를 취한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쪽/왼쪽 팔을 어깨 높이로 든다.', '바닥에 무릎 선 자세에서 오른쪽/왼쪽 무릎을 앞으로 세우고 10초간 유지한다.', '무릎 선 자세로 앞으로 10걸음 간다.' 의 항목에 있어서 가장 큰 향상을 보였으며, 앉은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전환이 필요한 동작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큰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Modified Ashworth Scale에서 나타난 하지 근 긴장도는 중재 전/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풀에서 치료사와 아동이 서로 느낄 수 있는 하지의 relaxation 정도와 가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수중치료를 통한 체간 안정화 운동이 대동작 기능 평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아동이 수중재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1명으로 매우 적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상에서

의 치료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 통제 변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향후 뇌성마비에 대한 수중치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연구 15-15

체중부하이동훈련이 경도 뇌성마비 아동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연구자	전진영 물리치료사
연구기간	2015.3.5.~ 2015.8.28. / 총 개입횟수 31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뇌성마비 아동들은 발목, 무릎, 고관절의 가동범위가 감소되고, 근육의 구축이 발생하여 선 자세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특히 서 있는 동안 가자미 근육이 짧아져 발가락으로 서기형태를 보이고, 고관절 굴곡근 단축으로 인해 선 자세에서 무릎이 구부러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에 의해 선 자세에서 웅크림 형태를 나타내고, 이로 인한 비정렬 자세가 신체자세의 위치를 변화시켜 선 자세 균형을 어렵게 만든다(Wollacott & Crema, 2008). 그러므로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 균형은 보행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 균형 능력 평가 역시 보행속도와 연관되어 선 자세에서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도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잇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뇌성마비 아동은 불안정한 체간에 의하여 올바른 신체 축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신체 전반의 정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근골격계의 2차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치료에 있어서 체간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신체 정렬을 유지하여 운동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치료사의 도수적 접근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치료사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일반화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치료사의 도수적 접근 이외에 고유수용성 감각 입력을 증가시켜 운동학습을 돕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경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부족한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적 방법으로 체중부하이동을 적용하여 선 자세 균형능력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1. 경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체중부하이동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정적인 기립균형능력에 변화가 있는가?

2. 경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체중부하이동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동적인 기립균형 능력에 변화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고유수용감각은 근육으로부터 오는 감각 입력을 사용하는 복잡한 체성감각이다(Wingert etc, 2009). 공간 속에서 사지의 위치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정적 요소인 관절의 위치감각과 동적요소인 근육의 움직임 감각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수용감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동작이 둔하여 날아오는 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계단, 턱, 장애물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잘 넘어지게 된다. 뇌성마비의 균형능력과 보행 중 사지의 위치와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의 장애는 주로 이들의 불균형한 시각적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Wingert etc, 2009). 이등은 경직으로 인해 고유수용감각에 혼란을 동반하고, 운동 수행을 예측하고 그것을 실제 움직임과 비교하여 움직임의 기초를 제공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경직이 증가되면 관절의 위치감각 능력이 감소하고 근방추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움직임에 대한 부적절한 피드백을 받는다. 양측성 뇌성마비는 시각과 고유수용감각의 암호화를 일반적인 기준의 틀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피질의 손상으로 인하여 파괴된 신경학적 구조가 자기중심적 감각지도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morenburg etc, 2011).이로 인해 뇌성마비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비정상적인 움직임, 자세조절 능력의 상실, 비대칭적 동작, 부적절한 체중지지 및 이동 패턴은 아동의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균형이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신의 체중지지면 위에 신체의 무게중심을 오게 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자세조절이란 신체의 무게중심을 지지면 위에서 최소의 자세동요상태로 유지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획득한 자세안정성은 특정한 공간 영역 내에서 신체의 위치와 신체의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적균형이라고도 한다. 자세의 정향성은 동적 균형이라고 하며, 기저면이 움직이거나 위로부터 자극이 주어졌을 때, 혹은 스스로 움직임을 수행 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뇌성마비 아동의 가장 큰 특성은 모든 신체부분을 통해 나타나는 신전근군과 굴곡근군 사이의 불균형이다(한상철 등, 2004). 이러한 불균형으로부터 뇌성마비아동은 관절의 변형 및 근육의 단축, 시각 및 고유수용감각 등의 장애로 자세 유지의 타이밍, 방향, 보폭 등의 균형 수행력에 문제를 일으켜 과도한 움직임과 체간 안정성의 결여, 자세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선 자세유지와 독립 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 개별 케이스의 경우에는 밑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사항, Life-Story, 주호소 내용,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함.

가.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유○○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2007년 6월 30일				
장애명	뇌병변	급수	1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서구 가좌 2동 217번지 신현대@411호				
전화번호	571-9873		핸드폰	010-919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남 2녀중 막내로 2.7kg 순산하여 출생하였음. 출생 후 피부에 수포가 생겨서 5일간 입원하였음. 신체발달은 전체적으로 지체되었고 현재 보조기 사용하고 있음. 신변처리 도움요함. 현재 중구복지관 물리,작업 주2회, 인하대병원 물리, 작업 주1회 받고 있음.

(3) 주호소 내용

왼편의 편마비로 인하여 상지와 하지의 강직으로 손의 기능이 저하되어있으며, 보행 시 절룩거리며 걷고, 왼편 다리를 지지한 점프가 되지 않음.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2년 10월 8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중구 복지관 물리, 작업치료

2. 연구일정

개입	시기	내용
1	2015-03-17	아동선정 및 체중부하이동관련 계획서 작성
1	2015-03-23	체중부하이동훈련방법계획서 수정
1	2015-03-31	체중부하이동 방법과 균형반응에 따른 평가방법 계획
4	2015-04-03~ 04-24	대상자의초기기능평가와함께체중부하이동훈련을실시.-주1회15분씩정적인균형반응과동적인균형반응을각7단계별 적응 및 훈련 2.1차test를통해운동훈련의양을조절하여대상자수준을조절하도록함.
8	2015-05-08~ 06-26	기능평가에따른체중부하이동훈련의반복
7	2015-07-03~ 08-28	정적/동적 체중부하이동훈련의 이해와 반복 훈련실시 및 점검

1차적으로 2015년 3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행이 가능한 경도 경직형 편마비타입의 뇌성마비아동을 대상으로 체중부하이동훈련을 실시하였고, 1차에 대한 정적인 균형훈련과 동적인 균형훈련 변화양상에 따른 2차적 개입 적용을 보고자 한다. 실험은 회기 당 15분, 주 1회 총31회 실시하였으며, 2015년 3월 중순에 초기 평가 검사를 실시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자료수집 방법

1) 정적인 자세에서의 체중부하이동훈련에 따른 균형반응

대상자에게 선 자세에서의 정적인 자세유지를 통한 체중부하이동훈련을 실시하고자 선자세에서 과제지향적 활동을 적용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개인별 과제수행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였으며, 아동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벤치를 잡거나, 치료사의 보조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반복 훈련을 통해 보조의 양을 감소시켜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각 과제수행의 정도를 판단하여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결정하였다.

체중부하이동훈련의 구성은 안정적인 바닥면에서 체중이 상, 하, 좌, 우로 이동할 수 있는 과제지향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훈련한 과정들이다.

2) 동적인 자세에서의 체중부하이동훈련에 따른 균형반응

운동프로그램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기저면의 변화를 통한 불안정한 체중부하이동방법에 따른 과제지향적 훈련을 적용하였다. 또한, 활동의 난이도에 따른 근 긴장도 증가와 자세 정렬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에 의해 자세수정과 함께 반복적 훈련이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1) 정적인 자세에서의 체중부하이동훈련에 따른 균형반응 검사

안정적인 바닥면	1단계	바닥에 발을 바르게 유지하고, 무릎높이의 벤치에 앉은 자세에서 체간을 밑으로 숙여 바닥에 놓인 고리를 두 손으로 잡아 일어선 후 앞에 놓인 고리대에 넣기(성공 개수)
	2단계	바른 정렬자세를 유지한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막대를 잡고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어 유지하기(몇 ㎝ 차이측정)
	3단계	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한 선 자세에서 치료사가 좌, 우로 제공한 고리를 손을 뻗어 잡은 후 앞에 놓인 고리대에 넣기
	4단계	바른 자세정렬을 유지한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막대를 잡고 앞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몸통을 좌, 우 로 회전하여 뒤를 바라보고 유지하기
	5단계	바른자세 정렬을 유지한 선 자세에서 발판에 한 쪽 다리를 들고 유지하기(유지시간)
	6단계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자세에서 한 다리 들고 유지하기(유지시간)
	7단계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성공반복횟수)

2) 동적인 자세에서의 체중부하이동훈련에 따른 균형반응

불안정적한 바닥면	1단계	토우 쿠션에 발을 바르게 유지하고, 무릎높이의 벤치에 앉은 자세에서 체간을 밑으로 숙여 바닥에 놓여진 고리를 두 손으로 잡아 일어선 후 앞에 놓인 고리대에 넣기(성공 개수)
	2단계	바른 자세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 위에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막대를 잡고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어 유지하기 (몇 ㎝ 차이측정)
	3단계	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위에 선 자세에서 치료사가 좌, 우로 제공한 고리를 손을 뻗어 잡은 후 앞에 놓인 고리대에 넣기(성공 개수)
	4단계	바른 자세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위에 선 자세에서 두손으로 막대를 잡고 앞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몸통을 좌, 우로 회전하여 뒤를 바라보고 유지하기
	5단계	바른자세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 위에 선 자세에서 발판에 한 쪽 다리를 들고 유지하기(유지시간)
	6단계	벽에 등을 기대고 토우 쿠션 위에 선 자세에서 한 다리를 들고 유지하기(유지시간)
	7단계	토우 쿠션 위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성공반복횟수)

3) Time Up & Go Test

이 검사는 기본적인 운동성과 균형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편형한 바닥에 높이 46㎝의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표지를 지나 다시 의자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측정은 3회 실시하여 평균시간을 기록하기로 한다. 이때 자신이 평상이 착용하는 신발을 착용할 수 있으나, 본 대상자는 맨발로 측정

하고자 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Ⅳ. 연구 결과

▶ 사례 진행 사항

(1) 1차 연구

개별물리재활 이용아동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앞으로 진행되어질 물리 프로그램을 숙지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뇌성마비 아동으로 항 경련제의 투여나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로 치료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대상으로 하였다.

(2) 2차 연구

2015년 4월 3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개입에 대한 치료 및 초기, 중간 점검사항들을 적용하였으며, 평가문항들은 담당치료사의 개인적 수치적 변화측정 방법과 Time Up & Go Test를 통한 변화량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점차 반복적인 동작의 훈련 등으로 인한 수치상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감으로 기능적 향상과 더불어 진행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자세에서의 Time Up & Go Test차이점을 두고 변화수치를 비교해 보고자 정적인 자세에서는 바닥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동적인 자세에서는 토우가 아닌 쿠션이 있는 낮은 발란스 빔을 이용하여 측정량을 비교하기로 하였다.

▶ 실험 방법에 다른 기립균형의 변화결과

(1) 정적인 자세에서 기립균형의 변화

대상자의 안정적인 바닥면에 대한 정적인 자세에서 기립균형변화는 다음 (표-1)과 같다. 1단계에서 바닥에 발을 바르게 유지하고, 무릎높이의 벤치에 앉은 자세에서 체간을 밑으로 숙여 바닥에 놓인 고리를 두 손으로 잡아 일어선 후 앞에 놓인 고리대에 넣기의 전후 차가 3점이 향상되었으며, 2단계에서 바른 정렬자세를 유지한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막대를 잡고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어 유지하기 시 초기에 비해 4cm의 차이가 났다. 3단계에서 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 한 선 자세에서 치료사가 좌, 우로 제공한 고리를 손을 뻗어 잡은 후 앞에 놓인 고리대에 넣기 시 초기보다 3점이 향상되었고, 4단계에서 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한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막대를 잡고 앞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몸통을 좌,우로 회전하여 뒤를 바라보고 유지하기에서는 양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질적인 변화로 부 정렬자세에서 왼편으로의 회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5단계에서 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한 선 자세에서 발판에 한 쪽 다리를 들고 유지하기 시 건측편에서는 초기보다 3배의 향상과 12초의 차이를 보였다. 6단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자세에서 한 다리를 들고

유지하기 시간 시 건측은 2분 편측에서는 30초의 차이를 보였으며, 7단계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의 성공 반복횟수 측정 시 초기보다 15회의 증가를 보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팔걸이가 있는 위자에서 3m떨어진 곳에 표지를 지나 다시 의자로 돌아오는 시간측정 시 초기 4분39초 보다 1초 24의 시간단축으로 인한 결과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표-1)

안정적인 바닥면				
단계	초기	중간	종결	전후 차
1단계(성공개수)	7	10	10	+3
2단계(cm)	5	7	9	+4
3단계(성공개수)	7/5(lt side)	8/5	10/5	+3/0
4단계(유지유무)	유/무	유/무(부정렬)	유/무(부정렬)	유/유(부정렬)
5단계(유지시간)	60s/0s	120s/3s	360s/12s	x 3/+12s
6단계(유지시간)	3m/1m	5m/1m	5m/1m30s	+2/30s
7단계(횟수)/1분내	20	25	35	+15
Time up & go test (m)	4m39s	4m10s	3m15s	1m24s

(2) 동적인 자세에서 기립균형의 변화

대상자의 불안정한 바닥면에 대한 동적인 자세에서의 기립균형의 변화는 다음(표2-1)과 같다. 1단계에서 토우 쿠션을 이용한 불안정한 자세환경을 부여한 상태에서 발을 바르게 유지하고, 무릎높이의 벤치에 앉은 자세에서 체간을 밑으로 숙여 바닥에 놓여진 고리를 두 손으로 잡아 일어선 후 앞에 놓인 고리대 넣기에 대한 성공개수의 차이가 4개로 향상되었다. 2단계에서는 바른 자세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 위에 선 자세에서 두 손으로 막대를 잡고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어 유지하기 시 몇 cm의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측정 시 초기 3cm유지 시보다 +4cm의 향상을 보였으며, 3단계에서 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위에 선 자세에서 치료사가 좌, 우로 제공한 고리를 손을 뻗어 잡은 후 앞에 놓인 고리대에 넣기에 대한 성공 개수편차측정 시 초기에 5/2개의 성공개수보다 +3/1의 성공을 보였다. 4단계에서 바른 자세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 위에 선 자세에서, 두손으로 막대를 잡고 앞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몸톤을 좌,우로 회전하여 뒤를 바라보고 유지하기의 유지시간 측정 시에는 유지시간보다는 유지할 수 있는지의 유,무의 측정으로 변화시켜 초기 시 건측의 유지와 편측의 부정렬로 인한 유지가 불가능의 무로 관찰평가되었으나, 마지막 측정 시에는 건측의 유지와 편측의 부정렬로 인한 유지 불가능으로 동일하여 변화의 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5단계에서는 바른자세 정렬을 유지하고 토우 쿠션 위에 선 자세에서 발판에 한 쪽 다리를 올리고 유지하는 변화시간측

정 시 초기 건측 40초 편측1초에서 건측의 20초 증가폭과 편측의 3초의 차이가 났다. 6단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토우 쿠션위에 선 자세에서 한 다리를 들고 유지하는 시간 측정 시 건측은 3분, 편측은 1분에서 건측은 5분, 편측은 1분 30초로 각각 2분과 30초의 증가량을 보였다. 7단계인 토우 쿠션위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의 반복 횟수 비교 시 1분당 몇회 성공률을 보이는 지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초기에는 10회가 가능하였으나, 점차 현저한 증가를 보이며 +7까지의 증가폭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토우쿠션이 원형인 관계로 인해 Tme up & Go test 시 불안정한 지지면을 확보하기 위해 쿠션이 있는 발란스 빔을 이용하여 3m의 길이환경을 만들어 주어 목표지점을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측정하였다. 초기에는 흔들림도 존재하였으며, 빔 바깥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40초의 향상을 볼 수 있었다.

(표2-1)

불안정적인 바닥면				
단계	초기	중간	종결	전후 차
1단계(성공개수)	5	7	9	+4
2단계(cm)	3	5	7	+4
3단계(성공개수)	5/2(lt side)	6/2	8/3	+3/1
4단계(유지유무)	유/무	유/무(부정렬)	유/무(부정렬)	유/무(부정렬)
5단계(유지시간)	40s/0s	50s/0s	60s/3s	+20/+3s
6단계(유지시간)	3m/1m	5m/1m	5m/1m30s	+2/30s
7단계(횟수)/ㅣm	10	13	17	+7
Time up & go test (m)	5m10s	4m48s	4m30s	40s

V. 논의 및 결론

본 실험연구에서는 경도의 편마비형 아동에게 기립자세에서 체중부하 이동훈련을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자세에서 실시하였을 때, 기립균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직형 편마비 아동이었고, 기립자세에서 체중부하 이동훈련을 정적과 동적인 환경에서 훈련하였을 시 균형 능력에 변화가 있는 지를 관찰하기 위해 TUG test와 개인적 평가 tool을 제시하여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치를 산출하여 균형능력의 향상이 있는지에 대해 관찰해보았다.

첫 번째로 정적인 자세에서의 균형변화는 각 단계별 전후차가 크게는 3배에서 +3 정도의 향상을 보였으며, TUG비교 시 그 차이가 1분 24초의 향상으로 전반적인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동적인 자세에서의 균형변화는 지면에 대한 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우쿠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TUG test를 위하여 쿠션이 있는 발란스 빔을 사용하였다. 이에 TUG비교 시 5분 10초에서 4분 30초롤 변화됨에 따라 40초가 빨라짐에 균형감각의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단,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자세 시 바른 자세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두 손으로 막대를 잡고 앞으로 팔을 편 상태 시 몸통을 좌, 우로 회전하여 뒤를 바라보고 유지하는 훈련 시 건측과 편측의 차이로 인해 편측유도 시 정렬상태 유지의 제한점으로 큰 양적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치료사의 주관적 관찰에 따른 정적인 자세에서의 질적 향상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 볼 때, 두 자세모두 균형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나, 치료사의 관점으로 볼 때 정적인 안정적 자세에서 균형훈련보다, 동적인 불안정한 토우 쿠션에서의 훈련강도가 대상자에게는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동적인 자세에서의 균형변화가 더 큰 변화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신승호 등 (2011)의 연구에서 부하자극을 적용하여 실험한 동적균형을 나타내는 기능적 팔뻗기,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버그 균형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동적균형자극이 균형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술한 바가 있었음으로 본 실험 결과에서도 동적균형자극이 안정적인 면에 대한 정적균형자극보다 대상자의 균형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의 제한점으로는 장애정도와 장애 양상이 제한적이었기에 아동의 흥미도 유발 및 실험자가 구성한 운동 tool이 동적요소에 더 치우쳐 결과적으로 동적균형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 연구를 통해 뇌성마비 아동들이 동적인 균형훈련을 통해 체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안정적 자세의 유지를 돕고 동적 균형운동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훈련들은 가정에서나 외부활동을 통하여 쉽게 경증의 뇌성마비아동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음으로 부모교육을 통한 놀이적 접근 시 용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경증 아동들에게 놀이로 쉽게 인식시킴으로 균형기능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이다.

사례연구 15-16

그룹 음악활동이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팀 명	상담사례지원팀
연구자	김서영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1.16.~ 2015.12.18. / 46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심리적 위축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은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게 하므로 발달단계에 적절한 과업을 행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표현과 학습의 통로가 필요하다.

3) 지적 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 때문에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악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1) 창작타악활동을 통한 자기표현능력 향상

가) 연구가설 : 다양한 악기를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다.

2) 그룹음악활동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

가) 또래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성향상과 장애아동의 기능향상을 도모한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오늘날 많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다양한 치료와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음악활동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은 본질상 재미있고 즐거우며 기능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훌륭한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유형의 음악활동들은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 자신감과 흥미를 유지시켜 주며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칼슨(B.W.Calson)과 징랜드(D.R.Ginglend)는 음악이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음악은 장애아동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소속감을 주는 것 외에 사회적 발달을 더해준다. 음악은 듣고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극을 더해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념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둘째, 음악은 감정적 발달을 더해준다. 음악은 긴장으로부터 완화시켜주며 생동감 있는 행진곡이나 활기찬 노래를 할 때는 힘이 증가하고 서정적이거나 부드러운 음악은 조용하게 만든다. 셋째, 신체적 발달을 돕는다. 어떠한 음악적 활동은 리듬감의 발달을 돕는다. 행진하거나 미끄러지듯 움직이거나 ‘코끼리처럼 걷는 것’ 등 크게 움직이며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은 큰 근육을 발달시킨다. 손가락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활동은 작은 근육을 발달시킨다. 넷

째, 노래는 어휘와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는 느낌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다.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 동안 ‘위, 아래’, ‘안과 밖’ 등의 개념을 발달시킨다. 이와 같이 음악의 영향은 장애아동에게 감정과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발달 어휘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음악활동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가. 음악치료사를 활용하여 매주 금요일 1시간동안 10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그룹음악활동을 실시한다.

나. 피아노, 난타 등 다양한 타악기를 활용하여 음악활동을 실시한다.

다. 자체개발한 체크리스트 및 관찰평가를 통해 장애아동의 향상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일정

내용 \ 기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 및 모집 / 그룹핑														
강사계약서작성														
개강식														
사전검사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진행 및 관찰평가														
사후검사 (체크리스트)														

3. 자료수집 방법

가. 2015년 1월 관찰평가 및 강사와 논의를 통해 5가지 영역에 대한 사전검사지(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장애아동의 현 수준에 대해 파악한다.

나. 매주 1회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장애아동을 관찰하며 변화정도를 파악한다.

다. 2015년 12월 프로그램 종강을 5가지 영역에 대한 사후검사지(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장애아동의 향상된 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찰평가를 기록한다.

4. 자료분석 방법

가. 5가지 영역 사전, 사후 검사지를 통해 향상 정도를 파악한다.

나. 담당자 및 강사의 관찰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관찰평가지를 작성하여 장애아동의 변화정도를 파악한다.

Ⅳ. 연구 결과

1. 진행사항

매주 금요일 오후4시~오후5시 음악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현재 26회까지 진행되었고, 7월 24일에는 보호자 참관 수업으로 진행되어 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아동의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처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강사와 논의를 통해 음악활동에 필요한 영역만 선별하여 사회성, 음악활동의 두가지 영역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사전검사 결과

이름	연령(만)	장애명(급)	영역	
			사회성 및 자기표현	음악활동
김 O	10	자폐성(2)	16	15
임O경	11	자폐성(2)	16	19
서O빈	11	지적(3)	31	20
김O현	11	지적(2)	33	30
김O희	12	자폐성(3)	24	29
정O규	11	지적(1)	7	10
황O혁	12	자폐성(2)	23	28
정O준	9	자폐성(1)	5	6
김O중	9	지적(3)	27	28
김O용	9	지적(3)	20	25
총계			**202**	**210**
평균			**20.2**	**21**

지적・자폐성 장애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고학년(6학년)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및 자폐성장애 아동의 사회성 및 음악활동의 점수가 낮았고, 고학년 및 지적장애아동일수록 사회성 및 자기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아동의 기능에 따른 연간계획을 음악심리지원 강사와 논의하여 계획하였으며, 연간계획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연간계획

<table>
<tr><td>일시</td><td colspan="2">2015년 1월 - 2015년 12월, 매주 금요일 16:00-17:00</td></tr>
<tr><td>대상</td><td colspan="2">본관 이용아동 중 초등학교 4-6학년 학생</td></tr>
<tr><td>실시
목적</td><td colspan="2">아동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음악아(music child)가 온전하게 발현되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음악 외적인 환경에 전이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음악의 요소 중 리듬이 가진 항상성과 규칙성, 역동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자극하도록 돕는다. 그룹 리듬 연주를 통해 자기 조절과 타인의 음악과의 에너지 레벨 조절하기 맞추기,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역동적 연주는 아동들의 신체 에너지 레벨 조절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인지, 신체 등 모든 전인적 영역에 있어 지연된 부분들에 음악을 강화제와 동기 부여물로 제시하여 안전한 환경 안에서 자신을 충분히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한다.</td></tr>
<tr><td>강사</td><td colspan="2">김선경(음악치료사, KCMT)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교육 석사
-전국음악치료사협회 공인 음악치료교육중재전문가(KCMT)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공인 음악치료사
-여성의 광장어린이집,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음악치료사</td></tr>
<tr><td rowspan="2">연간
계획</td><td>도입기
(1-3월)</td><td>rapport형성, 자기인식/타인인식, 드럼서클의 구조 이해의 시기이며, 그룹 원들과 치료사 사이의 역할과 활동에서의 계약 등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활동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원들 각각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이후의 역할 제시에 참고한다. 리듬의 요소들 중에서 강도와 세기의 차이를 인지한다.</td></tr>
<tr><td>도약기
(4-6월)</td><td>도입기에서의 수행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가 높아진 활동을 제시한다. 이전 활동 중의 약속과 계약들을 공고히 하는 단계이며, 그룹 원들이 함께 만든 음악이 주는 성취감들을 경험할 것이다. 점차 그룹 안에서 개인이 수행해야하는 개별적 리듬을 제시하고 연습한다.</td></tr>
</table>

연간 계획	**역동기 (7-9월)**	자기표현, 음악 만들기, role-paly를 통해 상호작용하기의 단계로 좀 더 역동적이고 분할된 리듬을 연주하는 단계이다. 치료사가 제시하는 리듬을 모방하는 경험과 더불어 그룹 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리듬을 모방하고 확장하는 경험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연주 경험을 하도록 한다.
	전이와 적용기 (10-12월)	음악적 완성감 경험, 음악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의 단계로 다양하고 분할된 난이도 있는 리듬의 활용으로 창의적으로 완성된 음악을 경험하여 성취감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그룹 안에 형성된 rapport를 토대로 그룹 원들이 함께 리듬과 음악을 만들어 본다.

도입기에 그룹원들이 프로그램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상호간에 유대관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또래교수법을 활용하여 타인을 도와주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7월 22일 보호자 참관수업 및 강사와 보호자간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아동의 향상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여 하반기에 적용하며 다양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그룹음악활동의 상반기 평가는 아래와 같다.

■ 2015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평가

일시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16:30-17:00
대상	두드림 이용아동의 보호자(어머니, 활동보조인 등)
실시 목적	한 학기동안 실시한 활동에 있어 각 아동들의 반응과 변화도를 알리고, 그룹의 목표를 알림. 활동을 통한 가정, 학교 등의 일반 환경에서의 변화나 성장한 점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눔을 통해 이후의 활동 계획의 방향을 설정함.
	1. 보호자를 통한 아동들의 변화 보고 : 그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아동이 '또래교수'를 통해 자신의 형제를 도우려는 시도를 하였다함(김O희), 평소에 알지 못했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며 자발적으로 찾아서 듣고 불러 보기에 좋았다고 함(황O혁), 충동성이 강한 아동이 연주를 통해 자신을 때때로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함(서O빈) 등 2. 각 활동의 간략한 소개와 목표알림 : 1) 또래교수를 통해 누구나 타인을 도울 수 있고, 나또한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활동 전개함을 알림. 수준이 높은 아동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가 제시됨을 알

	림.
간담회 주된 내용	2) 노래에 따라 구조화된 리듬을 익혀 연주하는 활동에서 아동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림. 다양한 레파토리를 제시하는 것보다 익숙한 곡을 완벽하게 익혀 연주하는 것이 성취감 제공에 더 큰 영향을 줌을 알리고 이후로도 수준에 따른 곡과 리듬을 선택할 것임을 알림. 3) 그룹 활동의 특성상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각 아동들의 need가 파악되기 시작하여 가능한 개별적인 접근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동의를 구함.
평가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목표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두드림'활동의 막연함을 없애고 보호자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사후 검사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사례 진행 사항

상반기 평가 이후 하반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9월 4일 ~ 11월 20일(총9회기) 진행되었고, 이용인의 사후 검사는 12월 프로그램 종강식에 실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진행방식에서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되었고, 도입부분에서 피아노리듬에 맞춰 그룹북치기 활동, 소악기를 활용한 본인 차례에 악기 연주활동, 음악에 맞춰 북치기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도전적 행동을 보인 이용인에게 그룹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체그룹에게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015년 1월부터 방과후 그룹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장애아동을 교육했던 경험이 많으며, 그룹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강사선생님을 섭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현재 바우처 음악심리지원 강사로써 재직중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것이 장애아동 그룹음악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강사는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룹규칙에 대해 장애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였으며, 음악활동의 난이도도 기본 가락 및 단순한 가락을 이용하여 쉽게 습득을 할 수 있었다. 상반기에는 아동들의 그룹에 적응하기 위한 도입기로 3개월동안 그룹 원들 각각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이름을 불러주며 하루 활동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도약기에 들어서면서 반장의 역할을 주어 말렛을 나누어주며 그룹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앉아있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행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를 조금 높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하나의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규칙에

맞게 악기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에, 장애아동이 활동 중의 약속과 계약들을 지키며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룹원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이 주는 성취감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점차 그룹 안에서 개인이 수행해야하는 개별적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다. 역동기 단계로 소악기를 활용하여 장애아동이 리듬에 맞게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사와 장애아동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리듬을 모방하고 확장하는 경험들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음악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역동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리듬으로 북을 다루도록 하였다. 현재 전이와 적용기 단계로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난이도 있는 음악을 통해 가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연습중이다.

2015년 1월 16일 ~ 11월 20일 까지 총39회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장애아동의 자기표현능력 및 사회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그룹안에서의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 결과, 강사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지시하는 것을 따르기, 그룹원들 이름을 알고 수업시간에 도전적 행동을 하는 그룹원에게 바른 행동 알려주기, 말렛 집어넣고 꺼내기, 자기차례가 아닐 때 북 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악활동에 있어 북소리를 북,테로 나누어 북치기와 테치기의 소리가 다름을 말로 알려주며 리듬을 쉽게 익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는 러브송, 아름다운 세상, 네모의 꿈, 풍선의 음악을 연주 할 수 있게 되었고 종강식을 통해 보호자에게 아동이 연주하는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사례연구 15-17

석고방향제 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금민희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3.1.~ 2015.10.31. / 총 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다. 그렇기에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생산성 회복과 개발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소득이 증대되고 개인의 독립이 강화되며, 장애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적장애인은 여타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비해 인지 영역, 기능 및 감각 영역, 정서 및 사회 영역, 학업 영역 등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지적 기능의 결함, 적응기술의 제한성, 사회적 능력의 결여 등의 이유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응으로 자립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수용도 용이하지 않고 사회의 편견이나 고정의식을 불식하는 일도 쉽지 않으며, 작업의 숙련도가 낮아 생산 능률이 저조하고 취업 후에도 직장 환경적응이나 직원들 간의 융화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사업체의 취업도 어려운 실정이다.(강위영, 1993).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적정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때 실질적인 작업에 배치하여 작업수행능력과 인내력, 동료관계, 지시 따르기, 시간 지키기 등의 올바른 작업태도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 중 공예는 실제로 특수학교나 학급, 다양한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직업 교육을 위하여 목공예,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수공예, 기계공예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예교육은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및 여가와 취미 등과 관련 되며,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영역이다. 공예교육은 발달장애인의 감각활동 뿐 아니라 사회,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연희, 2006). 또한 다양한 공예활동은 공예재료를 탐구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나 표현력을 신장시키고 독자적인 학습능력을 이끌어내며 감정과 행동의 자기통제를 할 줄 알고, 동료관계에서 협동심을 가질 줄 알고 안정성을 찾아가며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데 유용하다(류재만, 1993).

본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유형 중 보호작업장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보호된 환경에서 각자의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작업활동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특화사업으로써 비즈공예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및 이에 따른 생산품 판매로 창출된 이익을 본 시설 이용인의 임금과 훈련수당으로 지급해왔다. 또한 비즈공예 훈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여 훈련으로써의 가치는 충분하였기에 지속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생필품이 아닌 비즈공예 생산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훈련을 지속하여 생산된 제품이 재고

로 남게 되면서 새로운 생산품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2014년 8월 석고방향제 공예 및 캘리 크라프트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본 시설의 이용인을 대상으로 훈련과 생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예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본 시설에서 실시하는 석고방향제 공예품과 캘리크라프트 제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고방향제 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과 직업적응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는 석고방향제 공예를 이용인 각자에게 맞는 수준으로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하여 훈련함으로써 직업적응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석고방향제 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중 독립적 수행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2) 석고방향제 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중 작업수행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3) 석고방향제 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중 교사의 지시에 대한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4) 석고방향제 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중 동료와 적절한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5) 석고방향제 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중 작업 에티켓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다. 용어의 정의

1) 직업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이란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수행가능성, 작업수행 태도, 교사의 지시에 대한 반응, 동료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작업 에티켓을 말한다.

2) 독립적 수행가능성

본 연구에서 독립적 수행가능성이란 작업 수행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이 교사 개입 없이 스스로 능동적 대처를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 역할 수행, 교사나 동료로부터 지도나 교정을 얻어내는 능력, 원조를 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작업수행 태도

본 연구에서 작업수행 태도란 지적장애인이 작업 수행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인지능력, 작업의 지속시간, 작업량, 필요한 감독의 양,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4) 석고방향제

석고방향제는 석고가루를 물에 개어 형틀에 부어 굳힌 뒤 꺼내 건조하고, 건조된 석고 조형물에 천연아로마향을 뿌려 흡수시켜 자연적으로 발향하게 하는 장식품이다.

5) 캘리크라프트

어떠한 장식품에 글씨나 그림으로 멋을 내 꾸미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석고방향제 공예품 겉면을 꾸미는 방법의 하나이다.

Ⅱ. 이론적 배경

가. 지적장애

1)지적장애의 정의

과거에는 정신지체(mentalretardation)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적인 기능에 결함을 갖는 비교적 변화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지적장애(intellectualdisabil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R: AmericanAssociationonMentalRetardation)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학회의 이름을 미국지적발달장애학회(American Association on the Intellectualand DevelopmentalDisabilities:AAIDD)로 개명하고 2007년부터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각각의 단체나 법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다. 지적장애의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서 표현되는 적응과 행동 영역에서 유의미한 제한성을 가진 장애로 18세 이전에 시작되며 지적장애의 정의를 적용하는데 다섯 가지의 가정이 적용된다. 첫째, 개인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기능상의 제한성은 그 개인의 동년배 문화에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 맥락 안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둘째, 타당한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소통능력, 감각능력, 운동능력, 행동 요인들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셋째, 개인이 보이고 있는 특정 능력에서의 제한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강점도 함께 있을 수 있다. 넷째, 개인에게 제한성을 기술하는 주된 목적은 그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

인지 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개별화된 적절한지원이 장기간 주어지면, 지적장애인의 생활기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있다.「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은 지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1, 2, 3급으로 나누었고, 1급은 지능지수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2급은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3급은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 상에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적응능력의 결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지능과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적장애 여부와 그 등급을 판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지적장애학생의 직업적 특성

지적장애학생들은 기질적인 인지적 기능의 결함, 적응행동기술의 제한성, 사회적 능력의 결여 등으로 직업적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조인수(1998)는 장애인의 일반적 직업특성을 직업의식의 결여, 부정적인 자아의식, 비현실적인 동기형성, 경직과 행동 및 성격상의 견고성, 작업 실패 경험의 누적, 전이현상의 열약, 추상능력의 제한과 정의적 부조화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직업적응에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김형일(2001)은 지적장애아들의 특성으로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작업 활동, 조롱과 야유 받아들이기, 인간관계 형성 유지하기, 협조에 대한 인식부족, 지나치게 비굴한 행동,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신변처리능력의 부족, 이동기술의 부족, 직장 내 예절 준수의 미비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지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운동능력, 상호작용능력 등에 장애를 가지며, 결함, 주의집중력의 결핍, 단기 기억의 결함, 전이와 일반화의 곤란, 언어매개 기능의 열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응행동의 결함, 좌절과 거부의 누적으로 인하여 성공 지향적이기보다는 실패, 회피적인 특성 등을 지니고 있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의 획득이나 직업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나운환, 2000).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자립과 작업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찬, 김은영, 김선옥, 유병주, 1994).

첫째, 지적장애인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지적장애인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활환경에서 꼭 필요한 기술만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적장애인은 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의 양과 연습 횟수에서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어떤 기술을 의미 있는 기준에 도달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횟수로 기술 훈련을 시도해야한다. 셋째,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득한 기술에 대한 망각의 비율이 높고 망각된 기술을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다. 망각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학습의 전이 및 일반화의 정도가 떨어진다. 즉, 재활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환경에 적용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지적장애인은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즉, 종합력이 부족하므로 실제 환경에서 종합된 활동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은 낮은 직업동기와 직업의식, 작업 기술과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직업유지의 곤란, 일상생활 기술과 이동기술의 부족에 의한 작업관련 학습상의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소영, 2007).

나. 직업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은 직업의 의미, 가치, 요구를 학습하는 과정과 직업에 대한 태도, 성격, 직업행동 등을 수정 혹은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직업발달의 적응수준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곧 전환과정에서의 직업준비에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술과 경제활동 및 사회적 기술에 이르는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탁, 2000).

직업적응은 흔히 직업적응과 개인의 사회적응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업적응의 목적은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또는 일상생활의 기능들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개인의 독립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 근본적인 관심사는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이 기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일상생활의 양상들을 다루어야 하고 단지 이론적인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실생활 세계에서의 자기치료,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작업 등이 궁극적인 직업적응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의력, 그리고 학습한 것을 통합하는 일 등에 있어서는 문제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이란 서서히 변화를 주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체되거나 서둘러서는 안된다.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향상될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개인적 능력과 이를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대응시켜 주거나 이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김소영, 2007).

직업적응 과정에서 내담자의 직업행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영역의 문제를 발견하는 일은 작업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개인적 습관: 용모, 작업복장
② 직업습관: 출석, 시간엄수, 인내력, 주의산만 정도
③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동료 근로자와의 상호작용 적절성 여부(쉬는 시간 중, 근무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비난 혹은 불만
④ 직장 상사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개인화(밀접한 감독에 긴장하는가? 밀접한 감독을 요구하는가? 감독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가?)
⑤ 학습과 진보(성취지향): 작업속도의 증가, 작업지시 이행능력, 작업연장과 작업장소를 잘 정리하고 배치하는가, 장비와 연장의 조작기술

직업적응은 신체적 인내성과 능력개발, 부적절한 행동변화와 새로운 경험과 정보의 획득 등을 통해 중증의 장애를 지닌 개인의 직업적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치료적 과정으로 전통적 보호작업장에서 내담자의 고용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직업치료의 개념을 포함한다. 직업적응훈련은 직업기능 훈련과는 달리 직업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의 개발과 신변처리 능력과 교통수단의 이용방법을 포함하는 직업유지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전문적 활동이다. 직업적응 후에 한 개인을 사회 및 자급자족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직업달성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들 중의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기준은 직업적응의 성과를 결정짓는 하나의 척도로서 선택되었다(강귀년, 2004).

본 연구에서의 직업적응능력은 직업인성프로파일 하위영역인 독립적 수행가능, 집단 내 작업수행능력, 교사의 지시에 대한 반응, 동료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직업 에티켓 규칙이해로 하였다.

2)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중요성

지적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결함, 적응기술의 제한성 사회적 능력의 결여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지적능력과 적응기술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학습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물론 지적장애인 모두 기능성의 제한 정도가 동일한 수준인 것은 아니다. 적응기술의 여러 영역에 모두 기능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몇 개의 영역에서 제한성을 가지며 다른 영역에서는 강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제한이 있는 영역을 찾아 그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기능적 제한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직업적응훈련의 목표이다(은동현, 2005).

지적장애인들은 지적결함 뿐만 아니라 작업 실패 경험의 누적으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직업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직장을 얻었더

라도 중도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지적장애인들이 직업생활에의 적응이 어렵고 직업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으로 학습초기의 잦은 실패경험과 낮은 목표설정으로 인하여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폐쇄적, 단절적, 의존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이것이 직업생활 적응에 어려움과 실패를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직업수행능력과 더불어 대인관계 기술부족, 인내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한다.

박희찬(1999)의 직업적응 서비스 중 지적장애의 직업적응 특성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학생은 특수학교 교사의 설문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일반 사업체에 취업이 가능한 인원이 13%,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인원이 31%, 지속적인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인원이 56%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적장애 근로자의 주요 직무는 단순 생산 및 노무직이 주를 이루었고, 회사동료나 상사에 의해 지도를 받는 경우가 97%로 대부분 부모나 취업관련 기관이 아닌 회사 동료나 상사에게 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근로자 고용 관리의 애로점에 대한 조사를 보면 새로운 작업을 가르칠 때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이 24%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주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다가 19%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제적으로 지적장애 근로자는 기능적인 직업수행능력보다는 직업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장애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성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적장애 근로자에게 있어 취업 전에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39%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하였고, 32%가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의나 규범을 익혔으면 하였다. 또한 16%는 직업과 관련된 훈련을 미리 받고 있었으면 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지적장애인들이 부정적 자아개념을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바꿔주는 일이 곧 지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직업생활에의 적응에 중요한 과제를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형성을 위하여 지적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과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을 통해 바람직한 작업태도를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공예와 지적장애

본 연구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민(2005)은 도예활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지적장애학생의 수업참여태도 와

자아 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영지(2010)는 공예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수업참여행동을 향상시키고 수업방해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안수영(2008)은 발도르프 수공예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홍연희(2007)는 공예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정서 발달에 향상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구은정(2009)은 종이접기 공예 활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에게 집중력, 자신감, 대인관계, 감정의 표현과 같은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 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강미화(2011)와 노대일(2012)은 각각 한지공예와 목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통해 대상 장애인들의 직업적응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선자(2007)는 화훼장식 기능훈련을 이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들의 작업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적응과 직업재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송정은(2003)과 손영식(2005)은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를 통해 원예치료가 생활기능과 작업수행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듀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손과 눈을 통한 교육이 아동의 주의력 및 판단력과 상상력의 계발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일깨우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몬테소리는 ‘인간을 손으로 환경을 지배 한다’ 하여 인간의 손이 감각과 연결되어 있고 감각은 내적 정신세계 외 외적인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고 손을 이용한 감각 체험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공예 수업은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이므로 집중력과 두뇌계발,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선행 연구를 통하여 공예활동의 유용성이 제기되면서 공예활동을 적용한 연구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예의 다양한 영역 중 석고방향제공예와 관련된 연구들, 특히 직업적응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고방향제 공예가 보호작업장을 이용 중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보호작업장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중 12명을 대상으로 석고방향제공예 프로그램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정된 이용인 6명이다. 적합성 분석 결과 점수가 모두 14점 만점에 10점 이상인 이용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개인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 연구 대상의 개인별 특성

구분	성별	장애등급	연령	개인별 특성
김0아	여	지적 1급	25	지적 1급이지만 주의집중력과 과제기억력, 작업지속시간은 좋은 점이 강점임. 석고방향제 공예에 대한 흥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음. 작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으나 속도는 다소 느린 편임. 가루형태의 재료를 다루기에는 다소 경직된 팔 기능이 약점이 될 수 있음.(적합성분석 11점)
조0환	남	지적 2급	27	적극적인 성격으로 석고방향제 공예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함. 다소 부주의한 면이 있어 지시에 대해 집중하여 듣고 인지하도록 훈련이 요구됨. 수행력은 좋은 편임. (적합성분석 10점)
홍0리	여	지적 2급	25	말수가 적지만 밝은 성격임.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하지만 작업에 대한 지시이해나 수행력은 좋음. 석고방향제 공예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흥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훈련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적합성분석 12점)
한0철	남	지적 2급	33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시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가능함. 간혹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등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석고방향제 공예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손기능이나 수행력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짐.(적합성분석 10점)
황0선	여	지적 1급	24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글로 표현하면 가능함. 동료와의 관계는 활발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함. 작업 수행력은 대체로 좋은 편임.(적합성분석 10점)
박0혁	남	지적 2급	26	작업 수행력이 좋음. 정교한 작업도 잘 수행해내는 편이나 이용인 간의 교류는 적은 편임. 작업에 대한 이해나 지속시간, 주의 집중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적합성분석 11점)

훈련에 참여하는 이용인 중 ‘홍0리’는 6월 말 석고방향제 훈련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혀 7월부터 참여하지 않아 5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연구도구

1) 직업인성프로파일(WPP:WorkPersonalityProfile)

본 연구에서는 석고방향제공예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인성프로파일(WPP :Work Personality Profile)을 일부 단어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Bolton과 Roessler(1986)에 의해 개발된 직업인성프로파일은 과제준비, 사회적 기능, 작업동기, 작업일치(workconformation), 그리고 개인의 표현(personalpresentation)과 같은 5개 척도들을 포함한 58개 측정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작업요구, 작업태도, 고용을 성취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습관과 행동들의 만족을 위한 개인의 자격들을 사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직업인성프로파일의 영역별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위척도인 독립적 수행가능성은 인지기능과 좋은 작업 습관을 작업수행 차원에서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되며, 작업역할의 수행, 지도나 교정을 얻는 능력, 훈련생이 감독으로부터 원조를 구하는 능력, 사회적 기능이 포함된다. 두 번째 하위척도인 집단 내 작업수행은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에서 적절한 행동과 관련되는 항목으로, 작업 지속성, 작업내성, 필요한 감독의 양, 과제준비, 작업동기, 작업적합성을 나타낸다. 세 번째 하위척도인 교사에 반응하는 능력은 자진해서 작업량을 받고, 새로운 과제를 준비하며, 불평 없이 판에 박힌 직무를 행하는 개인을 기술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교사에 대한 만족이나 불안정도, 교사와의 적절한 대인관계를 나타낸다. 네 번째 하위척도인 또래와 적절한 상호관계에는 사회적, 사교적, 우호적, 정서적으로 타고난 경향을 반영하는 작업 행동 차원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팀워크, 동료와 사회화 하는 능력,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으로 이는 동료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 하위척도인 작업 에티켓 규칙이해는 개인위생과 외모에 주의를 기울이고 것을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되며, 개인적 표상을 말한다.

표2. 직업인성프로파일의 문항별 내용

영역별	측정내용	하위문항	문항수
독립적 수행가능	S1-작업역할의 수용	1, 12, 13, 24, 25, 36, 37, 46, 53, 58	10
	S2-지도나 교정을 얻는 능력	2, 4, 26, 38, 47, 54	6
	S6-훈련생이 교사로부터 원조를 구하는 정도	6, 18, 30	3
	F2-사회적 기능	9, 10, 22, 23, 34, 35, 43, 44, 46, 50, 51, 52	12
집단 내 작업수행	S3-작업지속성	3, 15, 27, 39	4
	S4-작업내성	4, 16, 28, 40, 48	5
	S5-필요한 감독의양	5, 17, 29, 41, 49, 55	6
	F1-과제준비	2, 3, 5, 14, 17, 18, 26, 27, 28, 29, 30, 38, 39, 40, 41, 42, 47, 48, 49, 54, 55	21
	F3-작업동기	4, 12, 13, 15, 16, 21, 33, 5	8
	F4-작업적합성	11, 19, 20, 24, 36, 45, 53, 57, 58	9
교사지시에 반응하는 행동	S7-교사에 대한 만족이나 불안정도	7, 19, 31, 42	4
	S8-교사와의 적절한 대인관계	8, 20, 3	3
동료와 적절한 상호관계	S9-팀워크	9, 21, 33, 43, 50, 56	6
	S10-동료와 사회화하는 능력	10, 22, 34, 44, 51	5
	S11-사회적 의사소통기능	11, 23, 35, 45, 52, 57	6
작업 에티켓 규칙이해	F5-개인적 표상	1, 6, 7, 8, 25, 31, 32, 37	8

2) 석고방향제 공예 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적용된 석고방향제 공예는 세이석고방향제 자격 과정에 준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석고방향제는 석고가루에 물과 아로마 오일을 넣어 교반하여 몰드에 넣고 굳히거나, 석고가루와 물을 교반하여 몰드에 넣고 굳힌 후 아로마 오일을 뿌려 발향하도록 하는 방향제이다. 좋아하거나 익숙한 향을 뿌려 실내나 차 안, 서랍, 옷장, 신발장 등에 넣어 사용하며, 좋은 향기를 통한 기분 전환 및 안정을 주고 불쾌감을 덜며, 흡습의 효과도 있어 실용적이다. 또한 메시지 전달 및 장식의 효과가 있어 미적 아름다움도 상품성이 있다.

훈련프로그램에서 만든 제품은 벽걸이용 방향제, 장식용 방향제 캘리그라피 방향제이다. 벽걸이용은 걸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걸어 사용하는 것으로 실용적이고 장소를 불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식용 방향제는 거치대에 놓거나 리본으로 매달아 놓아 실내 장식의 효과가 있다. 캘리그라피 방향제는 보는 사람에게 좋은 향기와 함께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특별한 선물이 되어 상품성이 좋다. 크기는 제한되지만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된다. 제작하는 방향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세이 석고방향제 제작 보안과 관련된 내용 외에 제작 과정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작업 순서는 재료준비, 몰드선택 및 몰드에 맞는 레서피 확인, 계량 및 교반, 몰드에 붓기, 굳힌 후 빼기, 뒷면 다듬기, 꾸미기와 포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세 가지 제시한 작품은 몰드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제작 훈련 과정이다.

표3. 석고방향제 제작 훈련 과정

훈련명	석고방향제 프로그램
훈련기간	2015.04. - 2015.10.
준비물	석고가루, 물, 프래그런스 오일, 올리브리퀴드, 종이컵 또는 실리콘컵, 알뜰주걱, 물통, 소형 전자 저울, 물티슈, 몰드, 레서피표, 붓, 먹물, 물감

작업순서		작업내용 및 유의할 점	수행도		
			상	중	하
1	재료준비	재료를 준비하고 명칭을 안다.		O	
2	몰드에 맞는 레서피 확인	사용한 몰드를 고르고, 그에 맞는 석고와 물, 오일과 리퀴드의 양(레서피)을 확인한다.		O	
3	계량하기	소형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재료를 계량한다. 계량 전 용기를 올린 후 반드시 0점으로 맞추고 사용한다.	O		
4	교반하기	물에 석고 가루를 넣어 교반한다. 완전히 풀어져 교반되면 오일과 리퀴드를 넣는다.			O
5	몰드에 붓기	교반이 완료된 재료를 몰드에 붓고 아래로 쳐주어 공기를 뺀 뒤 몰드에 따라 20분에서 40분 정도 굳힌다.		O	
6	굳힌 후 빼기	석고몰드 겉면에 열감이 없어지면 몰드에서 뺀다.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뺀다.			O
7	뒷면 다듬기 (사포질, 조각도 사용)	뒷면에 날카롭거나 거친 부분을 사포나 조각도를 사용해 매끄럽게 다듬는다. 조각도 사용 시에는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놓고 작업한다.			O
8	캘리그라피 꾸미기	모양별로 제작한 석고방향제 매끄러운 면에 붓과 먹물, 물감을 이용하여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한 번 닿은 곳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업한다.	O		
9	꾸미기 및 포장하기	크기에 맞는 상자나 비닐 등을 찾아 포장한다. 방향제 겉면에 공예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비즈나 리본으로 장식한다.			O

훈련 효과	· 재료를 분류할 수 있다. · 도구의 명칭 및 용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다. · 눈, 손 협응력을 기를 수 있다. · 주의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다. · 손의 기민성을 향상할 수 있다. · 전체 과정을 알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할 수 있다.
평가	훈련 초기에 재료 및 도구의 명칭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훈련 중반부로 갈수록 점차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저울을 사용하는 훈련에서는 0점을 맞추어 정확한 양을 계량해야하는데 0점 맞추기를 제때에 하지 못해 레서피와 다른 양으로 석고물이 만들어져 굳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경우가 많았다. 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기초적인 수 개념이 있어 레서피를 보고 계량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양으로 맞추기 위한 과정이 오래 걸려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한 숟가락의 양을 가늠하거나 물을 따르는 힘 조절의 어려움). 교반하는 것은 문제없이 잘 수행되었으나 몰드에 붓는 과정에서는 몰드 전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쳐주는 작업이나 교반한 석고물을 모두 몰드에 담도록 주걱을 이용해 긁어 담는 과정은 많은 훈련이 요구되었다. 완성품을 몰드에서 빼내고 뒷면을 다듬는 것은 사포를 이용해 잘 수행하였으며, 조각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흠집이 나거나 안전사고가 발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캘리그라피는 방법상에서의 어려움은 없으나 붓 사용 시 힘 조절을 어려워하여 가장 많은 훈련 시간이 소요된다. 비즈를 붙이거나 리본을 붙이는 작업은 손의 기민성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다.

다. 연구 설계 및 일정

본 연구는 석고방향제공예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설계에 있어 독립변인은 석고방향제공예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으로는 직업인성프로파일 하위 5가지 요소이다. 하위요소는 독립적 수행가능성, 작업수행 태도, 교사의 지시에 대한 반응, 동료와의 상호관계, 작업 에티켓 규칙이해이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표4. 연간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연구문제 선정	2015. 1	연구문제 선정 및 자료수집
이용인 적합성 분석 및 선정	2015. 1.29.~2.11.	이용인 12명을 대상으로 석고방향제공예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할 이용인 선정
연구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2015.3.31.	연구계획 및 목표설정,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전검사	2015.4.6.	직업인성프로파일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사전검사 실시
프로그램 실시	2015.4.~2015.6.	석고방향제공예 프로그램 실시 (1인당 주 1회 2시간 훈련실시)
중간검사	2015.7.24.	직업인성프로파일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중간검사 실시
중간보고	2015.8.31.	중간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실시	2015.7.~2015.10.	석고방향제공예 프로그램 실시 (1인당 주 1회 2시간 훈련실시)
사후검사	2015.11.02.	직업인성프로파일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사후검사 실시
결과분석	2015.11.16.	사전, 사후 검사 비교 분석
결과보고	2015.11.20.	연구문제 검증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석고방향제공예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58문항의 직업인성(Work PersonalityProfile: WWP) 체크리스트 검사를 사전 및 사후에 실시하였다. 각 문항별 최하점 0점, 최고점 4점을 부여하여 채점하고, 각 영역별 총점을 백분율 값으로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가. 직업인성파일 검사결과

표5. 사전, 사후검사 영역별 총점 비교표(백분율 점수 평균값)

구분	사전	사후	증감
독립적 수행 가능	48.9	64.1	15.2
집단 내 작업수행	47	64.	17
교사 지시에 반응하는 행동	46.4	61.4	15
동료와 적절한 상호관계	49.7	64.4	14.7
작업 에티켓 규칙이해	50.6	64.4	13.8

표6. 사전, 사후검사 영역별 개별 비교표

구분	박0혁		황0선		김0아		한0철		조0환	
독립적 수행 가능	36.6	54.5	43.8	64.3	54.5	67.9	50.0	67.9	59.8	66.1
집단 내 작업수행	45.9	60.1	45.9	62.8	48.6	64.9	45.3	69.6	49.3	62.8
교사 지시에 반응하는 행동	46.4	53.6	32.1	50.0	53.6	64.3	46.4	71.4	53.6	67.9
동료와 적절한 상호관계	39.7	55.9	45.6	64.7	47.1	69.1	52.9	67.6	63.2	64.7
작업 에티켓 규칙이해	43.8	56.3	28.1	53.1	65.6	68.8	50.0	68.8	65.6	75.0

나. 검사결과 분석

1) 독립적 수행 가능

독립적 수행가능성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48.9%에서 64.1%로 15.2% 향상하였다. 훈련 초기에는 어떠한 순서로 작업을 해야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워하였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훈련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훈련 준비를 하고 참여하며 필요시에 질문과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석고방향제 공예 훈련이 독립적 수행 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집단 내 작업수행

집단 내 작업수행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 47%에서 64%로 17% 향상하였다. 훈련 초기에는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어야 했고 과제 수행 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작업에 대한 흥미나 필요성은 좋은 편이었으나 작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은 부분으로 인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훈련이 진행되면서 반복적인 내용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자신감도 향상되면서 작업에 집중하고 지속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해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변화에서 볼 때 집단 내 작업수행 기능에 석고방향제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교사의 지시에 반응하는 행동

교사의 지시에 반응하는 행동에 대한 사전검사는 46.4%, 사후검사는 61.4%로 15% 향상되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동료나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위축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동료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나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편안함을 보였다. 문제점이나 수정 사항에 대한 대화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교사가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눈치를 많이 보이는 등의 태도가 있었으나 점차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동료와의 적절한 상호관계

동료와의 적절한 상호관계의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해보면 49.7%에서 64.4%로 사후 검사가 14.7% 더 높게 나타났다. 그룹 내 작업 시 서로의 작업에 대해 관심이 적었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자신의 것에 더 초점이 있었다. 작업 중 함께 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기보다는 지시한 것에 집중하여 실행하였으나 점차 서로의 작업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결과물에도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주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된 것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5) 작업 에티켓 규칙 이해

작업 에티켓 규칙이해의 사전검사는 50.6%, 사후검사는 64.4%로 13.8% 사후검사가 높게 나왔다. 석고방향제는 작업 중 석고가루가 날리거나 손에 석고물이 자주 묻게 되어 청결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이었다. 너무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더러워지기 쉬워 앞치마를 제공하였으며 초기에는 교사가 직접 챙겨주어야 했으나 훈련이 지속되면서 스스로 갖춰 입었다. 또한 작업 중이나 작업 후에도 스스로 청결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6) 연구 대상자 사전, 사후 검사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각 개별의 점수는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후검사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을 때도 평균값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가. 직업인성파일 검사결과

본 연구는 석고방향제 공예훈련이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보호작업장 이용인 5명을 대상으로 석고방향제 공예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직업인성프로파일로 사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인성프로파일 5개 영역인 독립적 수행가능, 집단 내 작업수행, 교사지시에 반응하는 행동, 동료와 적절한 상호관계, 작업 에티켓 규칙 이해에서 각각 15.2%, 17%, 15%, 14.7%, 13.8% 차이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석고방향제 공예가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 중 독립적 수행가능, 집단 내 작업수행, 교사지시에 반응하는 행동, 동료와 적절한 상호관계, 작업 에티켓 규칙 이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제언

1) 본 연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인을 대상으로 일과 중 주1회 1~2시간 훈

련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를 실사하였다. 전체적인 검사 결과는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상 한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이용인들이 석고방향제 프로그램 외에 작업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인들과의 직업인성프로파일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여 대상자 수가 일반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성인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석고방향제 프로그램 계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자격과정에 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해 정도나 수행력 등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이나 향상을 가져오는지 검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3) 석고방향제 공예는 액체 방향제의 단점(쏟아짐, 향조절 불가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최신 유행 공예품이다. 이러한 유행에 맞추어 장애인 생산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장애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심미적이고 실용적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다양한 몰드와 향을 활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품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생산품으로써 적합하다고 보기에 본 연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Ⅵ. 참고문헌

강위영외(1993).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성원사

박희찬, 김은영, 김선옥, 유병주(1994). 장애인 직업: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서울: 인간과 복지.

조인수(1998). 발달지체인 생활・직업 재활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김형일, 김경지, 김은주, 김종무, 김주영, 류문화, 박경숙, 이유훈, 정동영(2001). 장애학생 전환과정지원방안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나운환(2000). 정신지체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제 4권. 제2호. pp.53-71.

류재만(1993). 아동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찰흙공예의 제작 기법에 관현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1-82

박희찬(1999). 전환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천. 현장특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강귀년(2004). 원예치료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전문대학원 석사논문.
강미화(2011). 한지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은정(2009). 종이접기 공예활동을 통한 정신지체학생의 자아개념 형성에 관한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2007).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이 직업인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김영지(2010). 자기표현중심 공예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수업참여행동 및 수업 방해 행동에 미치는 효과. 공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대일(2012). 목공예 프로그램이 지적장애학생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승탁(2000). 생활중심 전환교육프로그램이 정신지체학생의 직업적응, 직업수행 및 일상생활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영식(2005). 원예치료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재학생의 생활기능 및 작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정은(2003). 원예치료가 정신지체학생의 작업수행과 생활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수영(2008). 발도르프 수공예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서지능 및 충동성 조절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동현(2005).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학생의 직업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선자(2007). 화훼장식기능 훈련을 이용한 원예치료가 정신지체인의 작업수행능력 향상 및 직업재활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연희(2007). 공예활동이 발달장앵안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록 - 직업인성프로파일 체크리스트>

직업인성프로파일(Work Personality Profile) 체크리스트

성명: 성별: 연령: 장애명: 검사일: 검사자:

④ 고용의 자산이 될 정도로 강점이다.
③ 특별한 강점은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수행한다.
② 일관성 없이 수행함으로서 고용 시 문제가 예상된다.
① 수행 시 문제가 많아 고용의 기회가 제한될 것이다.
⊗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없었다.

1. 일에 대한 자각이 있고 맡은 임무를 제치 있게 수행한다.
2. 새로운 과제를 빨리 배운다.
3. 전체 작업시간 동안 안정감 있게 일한다.
4. 작업 할당량이 초과되어도 불평 없이 수행한다.
5. 적절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
6.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7. 자신감을 갖고 감독자를 대한다.
8. 감독자와 적절하게 친숙한 관계를 유지한다.
9. 동료들과 함께 작업한 결과에 자부심을 보인다.
10.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보인다.
11.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당하게 표현한다.
12. 작업공정에 따라 관련된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13. 감독자의 지시와 주어진 과제를 불평 없이 수행한다.
14. 적절한 수행방법을 설명해 주면 성과가 향상된다.
15. 반복적인 일을 저항 없이 수행한다.
16. 새로운 과제를 주어도 기꺼이 수행한다.
17. 특별한 격려 없이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
18. 과제를 명확히 알지 못한 경우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19. 실수를 지적해도 당황함 없이 받아들인다.
20. 작업과 관련된 일이면 개인적인 문제도 감독자와 의논한다.
21. 그룹 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잘 수용한다.
22. 동료들과 친숙해지기 위하여 노력한다.

23.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 적절하게 대답한다.
24. 규칙과 규율을 지킨다.
25.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6. 설명된 내용대로 일하는 방법을 수정한다.
27. 작업 수행 시 세밀한 부분에도 관심을 집중한다.
28. 작업 공정이 바뀌어도 생산성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29.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30. 과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한다.
31. 감독자와 관계가 좋다.
32. 직원들과 의좋게 지낸다.
33. 그룹 작업 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
34. 원만한 대인관계를 보인다.
35.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36. 저속한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37. 작업 상황에 알맞은 옷을 입는다.
38. 수정 후 향상된 작업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한다.
39. 주위가 산만한 경우에도 작업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40.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작업도 적절하게 수행한다.
41. 자신의 실수를 수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다.
42. 감독자가 지켜보는 경우에는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
43. 그룹 작업 시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이다.
44. 이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가입한다.
45.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피한다.
46. 주어진 작업을 완수했을 때 성취의 기쁨을 표현한다.
47. 설명이나 지적사항을 주의 깊게 듣는다.
48.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쉽게 적응한다.
49. 감독자의 관심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50. 필요한 경우 동료작업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51.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52. 긍정적인 느낌(칭찬, 다른 사람을 좋아함)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53. 농담이나 놀림에 재치 있게 반응한다.
54.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과제에 이용한다.
55. 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56. 그룹작업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
57. 부정적인 느낌(화, 두려움, 슬픔 등)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58.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주의 ⓧ로 체크할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검사 결과 산출에서 점수가 낮게 나옴. 따라서 ⓧ의 의미는 전혀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냄.)

사례연구 15-18

강점관점 접근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보호작업장 이용인의 직업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김지혜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4.28.~ 2015.10.7. / 17회

더불어사는 따뜻한세상

늘품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시설의 이용인에게 강점관점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실시하여 c’t의 직업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이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의 목적은 강점관점 이론에 근거하여 이용인의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켜 훈련생에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c’t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전에 살던 시설이 폐쇄하면서 지금의 시설로 이관하여 성장과정, 학교이력, 재활서비스 경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시설 내에서 이용인 및 교사와도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음. 거주시설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개입방법 논의, 미술치료를 통한 개입을 통해 입소 초기에 비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작은 일에도 불만을 표현하고, 동료의 사소한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 관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2014년도 미술치료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충동, 부족절한 감정, 내적인 위축, 미성숙함, 애정의 욕구 등을 보여 주변의 따뜻한 배려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6개월 간 미술치료를 실시하면서 동료에게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 후 이전보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동료의 약점을 놀리거나 맘에 들지 않는 동료를 때리는 등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c’t는 MDS 평가 결과 하위 확장된 작업활동 및 직업전훈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실제 작업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은 직업적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의 부족으로 인해 전반적인 작업수행에 있어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요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며 그러한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이 미분화되고 경직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적응능력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 갈등으로 인해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여 능동적인 자기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성인기에 접어든 지적장애인은 좀 더 넓은 사회에 노출되는 반면 의미 있는 사회 관계망 형성이 힘들어 자신의 심정을 터놓고 말하거나, 정서적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의 경우에도 대다수 작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보다는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으로 인해 불안, 위축,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개인의 기질적 문제이거나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주변 사람들과의 상황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다. 그러므로 환경과 원인의 위험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강점관점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며, 클라이언트를 독특한 존재로서 그 다양성을 존중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강점관점에서 인간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모두 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확인되지 않은 무한한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강점관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결점이나 문제점만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능력과 강점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에 적합한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발견하는데 노력한다.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여러 측면에 대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c’t의 경우 계속되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단독작업, 근신 조치 등의 부정적인 개입방법을 사용 할 수 밖 없었다. 이러한 개입 방법은 c’t의 문제행동을 단시간에 소거하는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c’t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c’t의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한○철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83. 6. 12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2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전화번호	-		핸드폰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983년 출생하였으며 강화에 있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시설이 폐쇄되어 2010년 7월부터 현재 거주하는 시설로 이관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전에 거주하던 시설이 폐쇄되면서 c't의 성장과정, 학교 이력, 재활서비스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음. 서울에 형이 살고 있어서 휴가나 명절에 가끔 형 집에 방문하기도 하나 그 외 가족에 대한 정보는 없다.

현재 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독립생활 훈련을 하고 있으나 자기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⑶ 주호소 내용

c't는 거주시설 이용인으로본 시설 입소 초기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교사의 작업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손목시계)을 사기위해 용돈 이외의 돈이 필요하여 거주시설 사무실에서 돈을 훔치거나 시설 내 이용인의 돈을 훔쳐 시계를 사는 일도 있었다. 본 시설과 거주시설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점차 소거되고 가고 있으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은 나타나고 있다.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1. 01. 26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사전 평가	6월	근로자 선정평가 (2분기)
상담, 사회기술훈련	5월 - 10월	상담, 사회기술훈련
사후평가	10월	근로자 선정평가 (3분기)

3. 자료수집 방법

- 상담 및 사회기술훈련을 통한 심리·정서적 정보수집
- 거주시설 담당자 상담을 통한 거주시설에서의 심리·정서적 정보수집

4. 자료분석 방법

- 사전, 사후 평가를 분석하여 향상 정도를 파악한다.
-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차기년도 근로자로 선정되었는지 파악한다.

Ⅳ. 연구 결과

1. 사례 진행 사항

1) 사회기술훈련

훈련주제	훈련목표	훈련내용	개입내용 및 변화
감정 다루기 및 자기 통제하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기	- 자신의 감정 알기 - 적절하게 감정표현하기 -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고 대처하기 -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방법 및 대처방안 알기	-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교사에게 찾아와 자신의 기분 나쁜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함. 화를 내지 않고 교사를 찾아온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문제 및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예절 및 규칙알기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동료 및 관리자의 개념 알기 - 동료 및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알고 지키기	-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면서 동료와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좋아지고작업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스스로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태도 및 규칙 준수가 스스로 가능하게 되었음.
	훈련규칙을 준수하여 바른 태도를 유지하기	- 훈련시간과 휴게시간 지키기 - 바른 작업태도 알고 지키기 - 지각, 조퇴, 결근에 관련된 규칙 알고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기	

2) 상담

일시	구 분	상담 내용	상담 후 관찰 및 개입 내용
6/4	개별상담	c't가 오후 작업 시작 전 작업장에서 큰소리를 내며 울어 상담을 실시하였음. 이유를 물어보니 동료가 병원에 가라고 해서 울었다고 함. 병원에 가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병원에 가라는 것이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c't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으로 보임. 동료가 병원에 가라고 한 것이 c't의 기분을 살하게 할 수 는 있지만 어른이 큰소리를 내면서 울어야 할 정도의 큰 일은 아님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대처하는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음.	c't는 교사의 어른스럽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치고, 울지 않겠다고 함. c't가 감정의 기복이 있으나 이렇게 말 한마디에 소리내어 우는 행동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담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지원하였음.
6/17	개별상담	C`t가 동료에게 하마라고 놀려서 동료가 우는 일이 발생하였음. C`t에게 왜 하마라고 놀렸는지 물어보자 하품을 하고 있어서 하마라고 놀렸다고 함. 몇개월 전에 C`t가 똑같이 놀림을 당한 전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똑같이 놀린 것으로 보임. 동료를 놀린것에 대해 사과하도록 하였음. c't는 자신이 놀림을 당했을 때의 감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자신의 감정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음.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c't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도록 하였음.
6/22	거주시설 담당자 상담	거주시설 담당자가 내관하여 c't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음. c't가 작업을 잘 수행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여 그동안의 평가 점수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C't가 작업태도 및	

		집중력이 좋아지고 있으며 작업수행 능력도 우수하여 작업에 관한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림.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사소한 일을 이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개입하고 있으므로 시설에서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 지금처럼만 작업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면 내년도 근로자 선정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격려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7/2	개별상담 / 거주시설 담당자 상담	2분기 근로자 선정평가 실시 후 상담을 실시하였음. 평가 결과 170점으로 전체 이용인 중 4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알려주고, 다음분기에도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음. c't가 노력해야 할 부분과 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c't는 평가 점수가 높고,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매우 좋아하면서 기분좋은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였음. c't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며 남은 기간에도 계속 지금처럼 노력하도록 격려하였음.
9/8	개별상담	c't가 사소한 일에 대해 계속 교사에게 와서 이름. 동료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툭 치고 간다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임. 동료가 반말을 하는것은 c't의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고, 일터의 대부분의 이용인들이 서로에게 존대말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며 c't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용인에게도 존대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음. 또한 동료가 자신을 치고 가는 것도 일부러 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인데 그럴때마다 화를 내고 교사에게 이르는 것은	c't가 작업태도도 좋아지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도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춰가고 있으나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못하므로 고쳐나가도록 하였음.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음.	
10/7	개별상담	2016년도 근로자 선정결과 c't가 근로자로 선정되어 c't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음. c't는 매우 좋아하면서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등의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음. C't가 작업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수행하고, 근로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작업이나 행동면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근로자에 선정된 것임을 알려주었음. 앞으로는 근로자가 된만큼 훈련생때와는 다르게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함을 강조하였음.	c't 자신이 근로자가 되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c't가 근로자에 맞는 모습을 갖추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10/7	거주시설 담당자 상담 / 개별상담	2016년도 근로자 선정결과 c't가 근로자로 선정되어 거주시설 담당자와 상담을 실시하였음. C't가 입소 초기와는 달리 작업에 집중하고, 본인도 근로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여 작업이나 행동면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알림. 거주시설에서도 c't가 변화되는데 많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C't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두 시설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c't가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호 조정하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 더 긴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2. 평가

2분기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170점으로 전체 이용인 31명 중에서 4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3분기 근로자 선정평가는 161점으로 전체 이용인 중에서 9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2분기와 3분기의 점수차이를 보면 3분기의 점수가 더 낮은데, 이는 평가의 주된 항목인 작업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용인 전체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분포도가 형성되었다.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와 '감정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세부 평가 항목에서는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c't는 4회의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2016년도 근로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c't가 2011년 1월에 입소한 이래 처음 근로자로 선정된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사례연구는 강점관점 접근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보호작업장 이용인의 직업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으나 초기 사례연구를 진행하던 이용인의 종결로 인해 5월에 새롭게 사례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이 짧았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강점관점 이론에 근거하여 이용인의 부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면,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켜 훈련생에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다.

c’t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시설 적응 및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 입소 초기부터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 단독작업, 근신조치 등의 방법으로 c’t의 문제행동을 제지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개입방법이 아닌 강점관점에 근거한 개입을 통해 c’t의 문제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c’t가 작업 부분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근로자가 되려는 의욕이 강한 것을 주요점으로 삼아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강점관점 접근이 c’t가 근로자로 선정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c’t가 2016년도 근로자로 선정되어 연구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t의 직업적인 능력은 많은 향상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례연구 15-19

미술치료가 보호작업장 이용인의 효능감과 정서행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류수진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4.1.~ 2015.11.20. / 77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1. 열린일터 이용인의 심리 · 정서지원에 대한 필요성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요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며 그러한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이 미분화되고 경직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적응능력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 갈등으로 인해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여 능동적인 자기표현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성인기에 접어든 지적장애인은 좀 더 넓은 사회에 노출되는 반면 의미 있는 사회 관계망 형성이 힘들어 자신의 심정을 터놓고 말하거나, 정서적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열린일터 이용인 중 많은 수가 지적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열린일터 이용인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부적응 문제 유형은 동료관계 갈등, 스트레스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안, 위축, 충동적인 행동 등이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단체생활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직업적인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듯 열린일터 이용인의 직업적응상의 문제요인은 작업 기술의 문제보다는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리 · 정서지원을 통해 상황에 대한 통제 및 감정을 조절하고, 의욕적이고 노력하는 태도로의 변화를 위한 자기효능감을 향상하여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열린일터는 자신을 표현하기에 서투른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고,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미술치료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심리 ·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효능감과 정서행동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정서행동능력 향상에 효과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정서행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가. 직업훈련교사와 상담교사의 협의를 통한 심리 · 정서 지원

‘성인지적장애인의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요구분석(김성영, 2011)에 의하면 직업훈련교사와 심리상담치료 자격을 가진 인력의 협의를 통한 지원이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바람직한 심리상담치료 방향이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시설에서도 심리상담치료를 실시하면서 이용인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있는 직업훈련교사와 심리상담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치료에 따른 변화정도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여 이용인들이 보이는 변화 정도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적응훈련 방법 및 훈련 내용을 조정해 나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장에서 보이는 부적응행동을 소거하고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여 보다 적응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나. 성인 지적장애인의 집단미술치료 효과

이주희(2005)는 직업적응훈련과정 중의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개별사례를 진행하여 감정분출과 자기인식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였고, 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한 적절한 관계맺기의 경험이 직업적응훈련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개인과 집단의 조화의 과정은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 관계적 측면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부적응행동의 감소를 가져왔고, 나아가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윤영아, 2008)

이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부적응행동에 대한 지원방법인 대화의 방법을 넘어 성인지적장애인의 정서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심리적 접근 방법으로 미술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제안하였다.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매체를 적용할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치료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대상

직업훈련교사의 관찰 및 근로자선정평가를 통해 심리 · 정서지원이 필요한 이용

인 중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6명 (보호고용 근로자 3명,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3명)

2. 개입 계획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시간
자기효능감 증진 및 정서행동능력 향상	미술치료 A그룹	주1회 외부강사를 통한 집단 미술치료 / 28회기	3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3	1회 1시간
		집단 미술치료 참여자 중 개별 접근이 필요한 대상에게 개인 미술치료	필요시	미술치료사1명	1	1회 1시간
		부모코칭 상담 (중반기 전원, 하반기 필요대상)	4, 5월 9,10월	미술치료사1명 직업훈련교사1명	3	1회 1시간
		담당자간 진행과정 및 개입 방안 논의	3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직업훈련교사1명	2	1회 30분
		사례회의	6월 9월	전직원	6	1회 1시간
	미술치료 B그룹	주1회 외부강사를 통한 집단 미술치료 / 28회기	3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3	1회 1시간
		집단 미술치료 참여자 중 개별 접근이 필요한 대상에게 개인 미술치료	필요시	미술치료사1명	1	1회 1시간
		부모코칭 상담 (중반기 전원, 하반기 필요대상)	4, 5월 9,10월	미술치료사1명 직업훈련교사1명	3	1회 1시간
		담당자간 진행과정 및 개입 방안 논의	4월 ~ 10월	미술치료사1명 직업훈련교사1명	2	1회 30분
		사례회의	6월 9월	전직원	6	1회 1시간

3.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기효능감 증진	관찰일지를 통한 변화도 평가	미술치료사	과정기록지 분석평가	매회기
정서행동능력 향상	정서행동능력 변화도 평가 5점 증가	직업훈련교사	정서관찰척도 (OEI-R) 사전·사후평가	3월, 10월

Ⅲ. 진행사항

1. 프로그램 과정

기간 /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미술치료사 계약		●								
참여자 상담			●							
세부프로그램 조정			●							
기본재료준비			●							
집단 미술치료			●	●	●	●	●	●	●	●
개인 미술치료					●	●			●	●
부모코칭상담						●	●		●	●
담당자간 협의 (개입방안 조정)				●	●	●	●	●	●	●
사전 · 사후평가			●							●

2. 집단 미술치료 회기별 프로그램

구분/횟수		주 제	기대효과
초기	1	HTP 사전검사 및 설문지 자기소개	-프로그램 소개, HTP 개별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유발 및 친밀감 형성
	2	물감 흘리기, 물감불기, 만다라	이완을 통한 친밀감 및 흥미유발, 감정표출
	3	데칼코마니 모빌	내적 감정표출 및 흥미유발
	4	거품놀이 협동화, 구분활법	정서적 이완과 자신의 욕구표현
	5	거품놀이 마무리, 지점토놀이 I	상호작용 및 긴장이완, 흥미유발
	6	지점토 놀이 II	성취감 갖기, 조작능력 향상
중기	7	내 마음 이야기	자기 감정표현하고 인식하기
	8	신문지 놀이, 풍선 놀이	에너지 표출, 부정적 감정 해소
	9	내가 싫어하는 것	부정적 감정 해소 및 표현
	10	선물 콜라쥬	자기표현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 갖기
	11	색소금 화분	감각 자극, 성취감
	12	관계탐색	자아강화 및 관계 파악하기
	13	화산폭발	감정표출과 이완
	14	감정카드	자기인식, 감정표현 및 조절능력 향상
	15	가족이야기	가족 탐색 및 감정표현하기
	16	친구이야기-열린일터친구들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감정표현
	17	자기손 그리고 꾸미기	자기인식, 자기표현 및 자부심 갖기
	18	나무만들기	긍정적 자아상 갖기
	19	친구 꼴라쥬	긍정적 대인관계 인식하기
후기	20	명화 그리기	자기 성취감, 긍정적인 집단원과의 교류
	21	문양 찍어 합동화 만들기	상호존중 및 정서적 이완
	22	소망 낚시	자기욕구와 바람의 탐색
	23	자화상 부조	자기이해, 자기 존중감 향상
	24	정물화 그리기	성취감 및 만족감, 자기 효능감 향상
	25	악세사리 만들기	자기 효능감 및 성취감 향상
	26	가족과 나에게 필요한 것	긍정적 가족상, 자아상 갖기
	27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미래상 형성
	28	HTP 사후검사	종결마무리

Ⅳ. 사례연구의 결과

1. 프로그램 평가

미술치료를 통해 집단안에서 개인이 이해되고 수용받는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하며 언어적 표현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의 욕구 및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개인을 탐색하고, 내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개인치료가 진행되었다. 집단 및 개인치료에서 나타난 욕구나 현재 보여지는 상황적 심리를 부모코칭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지원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미술치료에 대한 참여자들과 보호자들이 보고하는 프로그램 만족도 뿐만 아니라 부적응행동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 당사자의 변화와 요구

2015년 10월 현재 미술치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의하면, 미술치료 참여자들 스스로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미술치료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미술치료 하면서 말하는 게 좋았다’,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요’, ‘마음이 편했어요’, ‘선생님 말대로 잘 잤어요(수면시간 조절하도록 가정의 협조)’, ‘다른 사람도 미술치료하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속마음을 이야기해서 좋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하고 싶다’ 고 응답하였으며, 미술치료의 만족감과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였다.

2) 심리 · 정서지원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

부모코칭상담을 통해 자녀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끼쳤던 과거 및 현재의 경험을 짚어보고, 자녀의 욕구와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가정에서 지원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이전의 교류나 소통방법을 수정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상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가. 집단미술치료 회기 관찰을 통한 분석 평가

구분		미술치료 참여 초기	미술치료 참여 후 변화
A 그룹	재*	정서·심리적으로 내적인 불안감이 있는 모습과 함께 눈 깜박임과 말을 심하게 더듬어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에 위축과 방어가 있어 말을 하다 말거나, ‘아니에요’라는 말을	말을 더듬어도 끝까지 언어적으로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임.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출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답답함이 덜어진다고 표현함. 자신의 감

		많이 사용함. 이런 언어적 표현능력에서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많고 더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모습이 상당이 많았음. 도움 받는 것, 물어보는 것에 거부적이고 융통성이 없어 고립적이며,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있어 보였음. 가정 내에서도 정서적 친밀감이 없이 부정적 표현과 고립되어진 표현이 많았음. 전체적으로 불만과 분노가 많고 가정이나 열린일터 사람들이 싫다는 표현을 많이 함.	정을 있는 대로 표출하면서 정서적 이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거나 수용해주는 대상에게는 처음으로 누나라는 호칭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재료를 나누어 주는 등의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이나, 적대적 대상에게는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표현을 하려는 생각이 많아 생각의 변화를 수정하면서 종결하게 됨. 부모상담을 통해 교류에 방해가 되는 말투를 수정하고, 긍정적인 언어표현 확대를 목적으로 언어치료를 시작함. 가정에서 부모의 행동변화로 중·후반부터는 가정에서 잘해준다는 표현을 많이 했으나 감정적 교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소 *	긴장, 위축, 경계하는 부분과 의존적 성향이 강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엔 두려움을 먼저 보임. 자기가 정해 놓은 범위까지만 표현하려하며, 두려움이 많고 스스로에 대해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임. 큰 소리, 새로운 것에 당황스런 모습을 보이고 놀라는 모습을 보임.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지 조금 많이 한다고 생각되면 아이처럼 의존적으로 행동하려함. 자폐적 성향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중반기부터 언어나 활동 등 촉구를 주면 자신의 기능이 잘 표현되어지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은 여전히 있어 자폐적 성향인 것으로 보임. 타인과 교류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는 부분에서의 감정 기복이 별로 없으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것 외엔 관심이 많지 않음. 함께 살고 있는 아빠에게 많이 의존하고 밀착되어 있으면서 다른 가족에게는 정서적 느낌을 표현하지 않아 후반부부터 대인과 교류하는 부분에 인지적 변화를 시도함. 종결시점에는 자발적으로 모의 상황을 묻는 등 조금씩 행동화 함. 미술치료과정에서의 표현하는 능력을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성취감이 향상됨.
	남	작업 중 신변처리가 잘 안 이루어	중반기 이후부터 자신의 감정을 충

	*	져 도화지나 자신의 신체가 많이 지저분해졌음에도 어린아이처럼 작업을 이어감. 자신만의 의식적인 경계부분이 있고, 인지 기능에 신경을 쓰는 듯 보여짐. 동료들에게 누나나 선생님처럼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수동적이고 부드러우며 기능은 좋으나 상황에 따른 판단력은 떨어짐.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표현하고 있지 못함. 환경에서 오는 무기력이 있어 표현이 적게 드러남.	분하게 잘 표현하면서 조금씩 감정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임. 해결되어질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위로 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좀 더 뚜렷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어 무기력했던 부분에 변화가 있기 시작함.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알고 싶어 하지 않던 초기와는 다르게 표출하고 표현하면서 좀 더 자신에 대한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음. 이 적극성이 종결시점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로 표현되어지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구분		미술치료 참여 초기	미술치료 참여 후 변화
B 그룹	준 *	분열적 요소가 있으며, 자기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가지고 있음. 동료들에 의해 현실적인 참여를 이어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도 관심과 주의력을 갖는 것처럼 보임. 질문에 대한 대답도 지리멸렬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음. 다만 졸음의 문제가 있어 졸려 할 경우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하고, 미술치료과정에 몰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 가정에서 잠자는 습관에 대한 관여와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시 됨.	중반기부터 감정에 대한 표현이 잘 지내고 있다. 즐겁다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향상되어지기도 했지만 기복이 있음. 주변의 관심이 언어적 표현을 이끌고 현실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함. 시간관리나, 졸음의 문제를 여전히 보이고 있음.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종결시점까지 잘 유지함. 중 · 후반의 시점부터는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졸음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지금-여기라는 현 시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왜곡되거나 기괴한 표현이 많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표현들이 늘

			어남.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열린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필요성의 욕구도 함께 향상되었음.
	미*	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나, 동료들과는 초반이라 가끔씩 소통하는 모습을 보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표현하지 못함. 열린일터 선생님 이외 표현하는 대상이 없고, 언어 표현이 이루어지지만 제한적으로 보임.	자신의 욕구들을 꺼내 놓고 있으면서도 타인에 의존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음. 웃는 모습이 많고, 주변 동료들에게 언어적인 교류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애기하는 회기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도 생기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중. 후반기부터 미술치료에 함께 참여하는 동료들의 작업에 피드백도 해주는 등 언어적 자기표현이 점차 넓어지는 모습을 보임.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자기표현에 영향을 주지만 대체적으로 행동화 하던 모습들은 거의 감소하고 언어적 표현이 확대되고 향상되어짐. 자신의 연령에 맞는 욕구와 관심사를 표현하고 있음.
	병*	치료사나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임. 긴장되고 경직된 모습이 많고 치료사의 질문에 많이 움츠리는 모습을 보이며 언어 표현을 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음. 몸은 가만히 있지만 눈은 사방을 살피고 잘 듣지 못하면서 산만한 행동이 많아 이해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거나, 이유를 물어보면 바로 행동이 멈추고 하려는 행동이 움츠려 듦.	초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이나 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하던 부분들이 차츰 언어를 사용하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향상됨. 자발적 표현이나 감정, 생각의 표현들이 단적으로 적거나 없었다가 종결시점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표현하게 되면서 표현이 향상되어짐. 이해보다는 눈치를 통해 상황을 살피는 경우가 많아 질문을 할 경우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 위축되고 회피하는 모습들이 많아 중반기부터는 질문에 따른 적절성이 없더라도 스스로 하는 부분에 피드백을 주자 미술치료활동에 좀 더 적극성을 보임. 발단연령이 유아단계로 보여 감각자극을 통한

			자기인식이 필요시 됨.

나. 정서행동능력(OEI-R) 사전· 사후 평가 결과

참여자			OEI-R							
			충동성-욕구좌절	불안	우울-위축	사회화	자아개념	공격성	현실감부재	총점
A그룹	재*	사전	80	105	95	60	50	35	95	67.2
		사후	90	105	95	65	55	85	95	78.33
	소*	사전	70	53.3	65	30	26.6	95	95	53.6
		사후	75	57.5	70	32.5	35	95	95	58
	남*	사전	55	70	40	55	42.5	95	95	64.6
		사후	70	85	45	65	57.5	95	95	65
B그룹	준*	사전	58.3	57.5	22.6	52.5	30	95	24.7	40.8
		사후	62.5	65	24.81	90	35	95	25	49.29
	미*	사전	67.5	75	48.3	60	45	60	95	61
		사후	70	85	45	65	57.5	95	95	65
	병*	사전	56.67	55	105	60	37.5	50	95	58
		사후	60	57.5	105	60	37.5	95	95	62

Ⅴ.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보호작업장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 개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부모코칭상담을 통하여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즉,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참여자가 가진 직업적응상의 문제요인은 작업기술의 문제보다는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경우로 직업재활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요인을 지원하여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열린일터 근로자 및 훈련생 중 직업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직업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6명을 대상으로 3명씩 2개 그룹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주 1회 총 28회기 실시, 집단 미술치료 참여자 중 개별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2명을 대상으로 개인 미술치료 각 2회기 실시, 가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치료 중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모코칭상담을 진행하였다.

미술치료는 미술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욕구 표출, 평소에 못했던 언어적 자기표

현 등 미술치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치료자와 라포 형성을 통해 미술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져졌다. 미술치료 초기에 친밀감과 집단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솔직한 감정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작업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모습이 확대된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작품 완성을 통해 성취감과 집단원 간에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 효능감(사회적 효능감)을 향상하였다. 구체적으로 회기별 관찰을 통한 변화 분석, 정서행동능력평가(OEI-R)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의 연구방법으로 관찰기록지를 통한 변화도를 질적평가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직업적응을 위한 개인의 능력 및 기술 뿐 아니라 자기인식, 성취감 향상,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었고, 이를 위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가 회기 내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경험이 확대되고, 집단활동을 통해 교류의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어 앞서 집단 미술치료 회기 관찰을 통한 변화표와 같이 사회적 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술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정서행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의 연구방법으로 OEI-R 검사척도를 이용하여 사전 사후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전검사 평균 57.5점, 사후검사 62.9점으로 5.4점 향상되어 미술치료가 정서행동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사회적 효능감으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효능감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도구의 사용을 병행하여 다각적으로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례연구 15-20

사회적 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양정현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4.1 ~ 2015.10.19 / 43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Harter. 1983)

White(1963)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기에는 자아존중이 효능감과 밀접히 관련되고,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일반적이고 누적적인 능력감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제안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외적 동기가 없어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Maslow(1954)는 기본욕구의 단계를 구분하면서 자존의 욕구를 기본욕구라는 저차원에 예속시킴으로서 사람이 타인의 존경을 받으려 하는 것은 가장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았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아수용, 높은 자아관용으로 성격 지워지고, 높은 자아존중의 사람은 자신을 좋아한다. 많은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인간의 행동과 생활의 적응 문제에 영향을 끼치며 건전한 성격발달과 정신건강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유아나 성인이나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높은 자아존중감은 필수적 요건이라 주장한다.(Branden. 1994) 또한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으로 피어나게 하려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존중하려고 하며, 자애로움과 선한 마음으로 대하므로 좋은 인관관계를 맺을 수 있다. 유아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유아에 비해 훨씬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면하는 일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Coopersmith, 1967), 또한 이들은 자신을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며, 유치원 생활에도 잘 적응한다.(정선희, 1984) 또한 어려서부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정한 후에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며 타인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려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유아는 성장한 후에도 자신감이 없고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말한다. 주위의 사회 망(Social Network)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불안, 변화의 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망의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예방적인 기능 등을 제공한다(Hirsch & Reischl, 1985: Sandler, 1990: Quamma & Greenberg, 1994: 장미경, 2004).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Krause(1987)는 사회적 지지가 사람들의 자존감을 강화 시키므로 본래 감정적인 질병인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들을 줄이도록 돕

고,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지지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개인이 문제 상황을 접했을 때, 사회적지지가 충격을 감소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안은 위협상황을 인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므로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지지가 정보 제공, 정서적지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면 당면한 상황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지지가 물질, 시간, 노동, 정보 등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대처행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불안이나 우울감 등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박정화, 2006)

같은 맥락으로 Rischill(1970)은 인간이 사회적지지에 의해 돌아보아지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 경우 불안감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정도가 낮을수록 불안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모경빈, 1984: 최영숙, 2008: 전영희, 2010)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사회적지지란 개인의 정서나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갖도록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를 포괄한 개념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건간 상의 문제, 위기 등의 적응상의 문제, 사회적 분리, 독립 등으로 야기된 무력감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C’t에게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을 때 자존감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C’t는 입소 초기부터 현재 까지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화 시 중얼거리듯 말하는 경우가 많고, 지리멸렬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항시 눈을 깔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등의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볼 때 현재 C’t는 다른 이용인들에 비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했을 경우 작업 활동 및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성인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요인을 강화하여 C’t의 자존감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 자아상 등의 개념과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Rosenberg (1965)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Blascovich & Tomaka(1991)는 자아개념의 하위요소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적 관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적응행동이나 학업성취, 비행, 우울 등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 심리학적인 현상과 행동들의 원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나. 사회적지지

Cobb(1976)는 개인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귀한 존재이며 상호 소통과 호혜의 조직에 속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를 사회적지지라 정의하며 사회적지지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후 Hirsch(1979)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라 정의하며 사회적지지의 관계망을 강조한 반면,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이나 실제적 도움, 긍정적 평가와 정보제공 등을 상호 교류로 정의하며 대인간의 교류 내용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원(1985)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인 도움을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다.
사회적지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변으로부터의 정서적지지만을 사회적지지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다면적이면서 다기능적인 성격을 포함한 복잡한 개념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사회적지지망(social network)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의 연결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소속과 관계의 구조, 그리고 관계구조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김미령 2005; Cohen & Syme 1985).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지지망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 또는 사회적 자원으로 정의된다(Liebrman 1982). 사회적지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사회적지지의 기능은 사회적 구조의 형성에 따른 이차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제공되는 행위의 속성에 따라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지만(House 1981) 그 내용이 다면적이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이경주・신효식1997)

Ⅲ. 연구 방법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조O희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90.12.27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간석4동 229-1(2/4) 청실A 000호				
전화번호	032)425-0000		핸드폰	010-7757-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990년 출생하였으며, 인제고등학교(특수학급)을 졸업한 후 미추홀 전공과에 입학하였음. 재학 중 미추클린센터에서 수건 및 환자복 접기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음. 2011년 미추홀학교 전공과를 졸업 한 후 2012년 12월 까지 남동아카데미를 이용하였고, 현재 보호작업장을 이용하고 있음.

C't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과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비정규직, 어머니는 가정주부, 남동생은 테니스 운동을 하고 있음. 아버지는 엄격한편이고 어머니와 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동생과의 소통은 적은 편임.

⑶ 주호소 내용

본 시설은 보호작업장 임에도 불구하고 C't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대인관계 기술 훈련 등의 사회성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있음.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직업 12-06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열린일터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2. 연구일정

시기	내용
2015.04.01	C't의 자존감 상태 파악(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 사용)
2015.04.03 ~ 29	사회적지지 제공 및 상담·기록
2015.04.30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
2015.05.01. ~ 28	사회적지지 제공 및 상담·기록
2015.05.29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
2015.06.01 ~ 29	사회적지지 제공 및 상담·기록
2015.06.30.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
2015.07.01 ~ 23	사회적지지 제공 및 상담·기록
2015.07.24.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
2015.08.03 ~ 28	사회적지지 제공 및 상담·기록
2015.08.31.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 / 중간보고서 제출
2015.09.01 ~ 25	사회적지지 제공 및 상담·기록
2015.09.30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
2015.10.01. ~ 29	사회적지지 제공 및 상담·기록
2015.10.30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 / 최종보고서 제출

3. 자료수집 방법

가. 자아존중감 척도 사용

나. 사회적지지 척도 사용

다. 프로그래스 사용(관찰 내용 기록)

4. 자료분석 방법

자아 존중감 척도 및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 및 상담을 통하여 C' t의 자존감이 초기 상담 시 보다 향상되었는지 파악한다.

Ⅳ. 진행사항

◎자존감 파악(초기)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	③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	③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②	③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 4월 1일 C't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자아 존중감(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 사용) 측정을 실시하였음. 결과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점은 17점이 나왔으며, 이는 C't의 자아존중감이 현재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

C't의 자아 존중감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상담 및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해본 결과 대인관계 및 작업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대인관계의 경우 동료들이 C't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작업 활동의 경우 본인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불량 발생 및 생산성이 높지 않으며, 담당교사가 독촉할 경우 힘이 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함.

C't의 낮은 자아 존중감의 원인인 대인관계 및 작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실 제공하여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등의 다른 영역에서도 사회적지지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계획임.

◎**사회적지지 제공(4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4/6~ 4/10	작업활동	작업 시간 조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변 동료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교사는 C't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대화를 할 경우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쳐 동료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며 C't 또한 집중력이 낮아져 불량이 발생하고,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스트레칭 및 세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차후 졸지 않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함.
4/13 ~ 4/17	대인관계	C't가 담당교사에게 동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함. 담당교사는 C't 의 목소리가 많이 작고, 옹알거리는 말투로 대화를 하여 동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동료 및 담당교사와 대화를 나눌 때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
4/20	작업활동	작업 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이야기 함. C't는 본

~ 4/24		시설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여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 활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므로 C't가 원하는 직무를 파악한 뒤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함.
	개인위생관리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실 및 작업장 등의 본 시설을 배회한 뒤 늦게 양치를 하여 작업시간에 늦는 모습을 보임. 식사 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대화 및 휴식 등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C't와 같이 식사 후 다양한 장소를 배회하거나 구경한 뒤 작업장에 복귀하여 양치를 하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하므로 청결하게 구강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C't가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27 ~ 4/29	대인관계	C't의 대인관계 시 문제됐던 작은 목소리, 옹알거리는 말투에서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못하였지만 C't 스스로 담당교사에게 친해지고 싶은 동료가 있다고 함. C't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4월)**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	③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	③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②	③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 4월 한 달 간 C't 관찰 및 낮은 자아 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결과 초기 자아 존중감 측정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작업에 관한 질문(신규직무, 불량 검수)을 하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임. 이와 같은 모습이 한 달 간의 사회적지지를 제공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작업, 대인관계, 일생생활 등에서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지지 제공(5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5/6~ 5/8	대인관계	지난 5월 5일 비루고개 축제 당시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였고, 그 곳에서 여러 동료들과 어울리며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함. 축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처럼 작업장에서도 지낸다면 모든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함.
5/11 ~ 5/15	작업활동	오전 작업 시간 C't와 함께 작업을 수행함. 집중력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불량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칭찬을 함. C't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 함.
	개인위생관리	양치를 하며 화장실 및 프로그램실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임. C't는 부동자세로 양치를 할 경우 지루하기 때문에 돌아다닌 것이라고 함. 양치를 돌아다니며 하게 될 경우 치약이 옷이나 바닥에 떨어지며 청결하게 양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내에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함.
5/18 ~ 5/22	작업활동	금주 작업 활동 시간 조는 시간이 많아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보임.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뒤 C't의 의견에 공감 및 격려를 해준 뒤 작업 수행을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뒤 책임감 있게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5/26 ~ 5/29	지역사회 적응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카페 이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C't 스스로 주문과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료와의 대화주제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 칭찬을 함.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5월)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	③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②	③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	③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 5월 한 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결과 총 21점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전보다 C't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로젠버그 자아척도의 기준으로 볼 때 총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자아 존중감이 평균치를 나타낸다고 하였음. 그러나 C't의 자아 존중감이 크게 향상된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지지 제공이 미약할 경우 초기와 같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경우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사회적지지 제공(6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6/1~ 6/5	방송댄스	금일(3일)방송 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함. 따라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것이 즐겁다고 함. 이에 선생님을 반드시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일과 같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6/8 ~ 6/12	작업활동	금주 정원산업 물품 납품으로 바쁜 작업상황이였지만 C't는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이에 C't가 수행중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납품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므로 책임감을 갖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함. C't는 이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 함.
6/15 ~ 6/19	작업활동	지난 주 작업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주 배치된 직무에서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임. 또한, 불량률이 적었으며, 작업물품을 스스로 조달하여 작업을 수행함. 이에 담당교사는 긍정적인 칭찬 등의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C't도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임.
6/22 ~ 6/26	미술치료	미술치료 관련 상담을 진행함. 미술치료에 대한 C't의 견해를 물어보니 우선, 미술치료 선생님이 C't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해주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함. 미술치료 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담당교사는 C't 외 다른 동료들도 많기 때문에 C't와 대화를 하게 될 경우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설명을 하고, 차후 C't와 많은 대화와 공감, 격려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함.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6월)**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	③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	③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	③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 6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결과 총 19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2점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후 C′t를 현재까지 관찰 한 결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은 기간 동안의 느낌과 변화들에 대하여 생각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보다 당일 기분에 따라 설문지 작성 및 C′t의 감정,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당일 발생한 좋은 일과 나쁜 일, 가정사와 당시에 느꼈던 C′t의 감정들을 담당교사에게 이야기 하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회적지지 제공(7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6/29 ~ 7/3	작업활동	담당교사의 작업지도 없이 C't 스스로 독립적인 작업 활동을 수행함. 집중력이 높아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배치된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 함.

		담당교사는 C't의 올바른 작업태도에 대해 칭찬을 하였으며, 동료들에게 있어서도 모범이 되므로 지금과 같이 작업수행을 수 있도록 독려함. C't도 자신의 작업태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이야기 함.
7/6 ~ 7/10	출근지도	잦은 지각으로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함. 지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니 C't는 늦잠을 자고, 가정에서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출근길 아침을 사먹기 때문에 늦는 것이라고 함. 이에 담당교사는 C't는 본 시설(일터)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회사를 다니는 것을 설명한 후 작업(일)을 불량 없이 수행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태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고, 출근하는 날의 경우 전날 일찍 취침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함.
7/13 ~ 7/17	대인관계	금일(14일) 동료와 다툼이 발생함. C't는 동료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몸을 건드린 것이라고 함. 우선, C't의 대화를 끝까지 듣고, 공감 한 뒤 C't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함. C"t는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작고, 옹알거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듣지 못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하여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동영상 및 다양한 글들을 알려주며,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
7/20 ~ 7/24	시간준수	쉬는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을 지속함. 쉬는 시간 시작 후 다른 동료들이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늦게 이용하여 늦은 것이라 함. 본 시설의 쉬는 시간은 20분으로 화장실 이용을 늦게 하더라도 작업 시간에 늦지 않고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 함
	방송댄스	금주 방송 댄스의 경우 춤을 따라하는데 어려워 참여하기 싫다는 표현을 함. 방송 댄스 선생님을 같이 잘 추지 않아도 됨을 일러주고, 댄스를 따라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신체 운동이 됨을 설명하고 다음 주 방송 댄스에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함.
7/27 ~ 7/31	작업 활동	금주 작업 중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의자를 젖혀 앉는 등 작업태도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임. 이러한 작업태도가 습관화 될 경우 C't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올바른 작업태도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함.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7월)**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①	②	●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	③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	③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	③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②	③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 7월의 경우 C′t의 당일 감정 및 여러 환경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C′t의 변화를 관찰하려고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과 같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은 감소하였지만 한 달 간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매 순간 순간 감정기복이 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음.

현재까지 사회적지지 제공 한 결과 C′t의 자존감 향상 정도를 설문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사회적지지 및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C′t가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지지 제공(8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8/10 ~ 8/13	작업활동	지난 한주 동안의 휴가기간을 마치고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힘이 든다고 하여, C't의 말에 공감을 해주었으며, 다른 동료들도 동일하게 힘들 것이라고 함. 작업에 다시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무리하며 작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 하였고, C't도 이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임.
8/17 ~ 8/21	작업활동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함. C't의 어려움(휴가기간 후 작업 적응, 생산성, 불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준 뒤 각각의 피드백을 제공함. C't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하여 휴가기가 전과 같이 책임감 있고 열심히 작업을 수행하던 C't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때와 같이 노력한다면 차후 작업 및 대인관계 등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의 C't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함.
8/24 ~	개인위생관리	동일한 복장을 3일 째 입고 출근하여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함. C't가 입고 출근하는 복장이 가장 편하고 아끼는 옷이기 때문에

8/26		자주 입는 것이라고 함. 아끼고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계절이 여름이고,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을 하므로 위생상 좋지 않고,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음을 이야기 함. “C't는 퇴근 후 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고 하여 이틀에 한 번씩 세탁을 하고 입을 수 있도록 전달함.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8월)**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	③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②	③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 8월의 경우 이용인 하계휴가 및 휴무, 담당자의 교육일정 등으로 다른 달에 비교하여 사회적지지 제공횟수가 감소하였다. 상담결과 C't는 작업활동 영역에서 고충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하계휴가 기간 이였기 때문이라고 함. 이는 사회적지지 제공횟수의 감소와 무관하므로 작업활동에 대한 격려가 필요함. 지난달 감정기복이 심한모습을 보여 8월 사회적지지 제공 시 긍정적인 피드백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C't와 담당자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그 결과 C't는 자신의 언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상담 중 표현하는 모습을 보임.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C't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사회적지지 제공(9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9/1	식습관	점심식사 시간이 30분가량 지속되어 상담을 진행함. 식사를 천

~ 9/4		천히 할 경우 소화가 잘되고, 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이므로 점심식사를 장시간 하게 될 경우 양치 및 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식사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9/7 ~ 9/10	작업활동	작업 중 시간을 확인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임. 집중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생으로 바람직한 작업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함.
9/14 ~ 9/17	대인관계	쉬는 시간 동료(여성)에게 동의 없이 스킨쉽(머리를 만지려는 행동)을 함. 상담결과 C't는 동료와 이야기 중이였고,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킨쉽을 한 것이라고 함. 이에 C't의 생각과 감정에도 공감을 하지만 스킨쉽의 경우 C't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했다며 문제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뒤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함.
9/21 ~ 9/21, 22,30	출근지도	지각을 하거나, 출근시간 가까이 되어 출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임. C't는 출근길 버스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늦게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함. 이에 아침 출근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므로 8~9시 사이에는 많이 막힌다는 것을 이야기 함. 또한, 지각을 자주 하게 될 경우 근태에 영향을 미치고, 근태관리는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므로 이를 인식하고 지각을 하지 않도록 당부함.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9월)**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①	②	●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	③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	③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	③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 자존감 향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C't의 자존감 향상을 척도로 판단하는 것 보다 일상생활에서의 C't의 변화모습을 관찰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초기 상담과는 다르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 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의사표현능력 또한 향상된 모습을 보임. 지적능력이 우수한 타 이용인에 비교할 경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인 사회적지지가 제공될 경우 수정・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속적인 사회적지지 및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을 할 계획임.

◎**사회적지지 제공(10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10/5 ~ 10/8	대인관계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 동료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임. 최근 스킨쉽 문제도 감소하여 이에 대한 칭찬을 함. 아울러 추후에도 동료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함.
10/12 ~ 10/16	작업활동	현재 배치된 작업을 불량없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 이에 C't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C't의 작업능력향상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직무로 배치함. C't도 신규직무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보임.
10/19 ~ 10/21	식습관	장시간 식사를 함. 그로인해 쉬는 시간이 감소하고, 양치를 늦게 하여 오후 작업시간을 맞추지 못함. C't는 빠르게 식사할 경우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하기 때문에 식사를 늦게 하는 것이라고 함. C't의 의견에 동의한 후 현재의 모습이 지속될 경우 근태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함. C't는 담당교사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소화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함. 이에 대한 지속적입 개입이 필요함.
10/27 ~ 10/28 ,30	작업활동	신규직무에 대한 관심을 보임. 세밀한 손기능이 요구되고, 불량이 발생하면 안되므로 작업능력이 우수한 근로자 위주로 선배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함. 추후 C't도 신규직무에 배치하여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여 작업활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함.
	외부 프로그램 (등산)	배정된 동료를 등산을 하며 잘 챙기는 모습을 보임. 복귀 후 이에 대한 칭찬을 하였고, C't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

◎**자존감 향상 정도 파악(10월)**

문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	①	②	③	●

	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①	②	●	④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	③	④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	④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	④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	③	④

- 4~9월에 비해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음. C′t가 수행하는 작업 및 대인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즉시 개입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및 칭찬을 한 결과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이 C′t의 행동변화에 모든 영향을 미쳤다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C′t의 발생했던 문제행동(대인관계, 작업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근태관리 및 식습관의 경우 행동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입할 계획임.

◎**사회적지지 제공(11월)**

날짜	사회적지지 제공	내 용
11/2 ~ 11/6	지역사회 적응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 C't는 자신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카페 이용/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한 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함.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C't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함께 참여하는 동료들과 다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11/9 ~ 11/13	근태관리	지각횟수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8시 50분, 55분 쯤 출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각을 하는 모습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칭찬을 함. C't에게 10분 정도 더 빨리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C't도 노력해보겠다고 이야기 함.
11/16 ~	식습관 및 작업활동	식사속도가 20분 안팎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식사량도 정량배식을 통해 C't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임. 현재와

11/18		같은 모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함. 신규직무로 작업배치 후 C't의 작업생산성이 향상됨. C't는 신규직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고 라인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 수 있어서 좋다'는 표현을 함. 추후 타 직무에 작업배치가 되어도 현재와 같이 작업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함.

Ⅴ. 결과 및 제언

사회적지지를 통해 C′t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였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로젠버그의 자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C 't의 만족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자아존중감 파악 시 당일에 C' t의 기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척도의 자체의 신뢰도는 높았으나 C′t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을 때 C′t의 행동변화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에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행동변화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작업태도, 식습관, 대인관계 등의 일상생활에서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지지가 C′t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기간 동안 사회적지지를 통해 C′t의 자아존중감 향상, 행동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지지를 통한 C′t의 개별특성에 맞는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보다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심리정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허균, 2012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분석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장재원, 2009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상희, 사회적지지 요인이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종성, 로젠버그 척도를 이용한 자아 존중감과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관계

사례연구 15-21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팀 명	열린일터
연구자	윤성호 직업재활사
연구기간	2015.3.5.~ 2015.11.20. / 122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ct는 신체적으로 일상생활 및 작업활동을 수행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인지능력 역시 위 내용을 수행하기에 무리는 없음. 그러나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작업활동만 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작업활동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작업활동 도중 옆에 이용인이 크게 떠들거나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작업활동 도중 우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등 감정에 기복이 매우 커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ct가 호감이 있는 직원이 칭찬 등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선물 주거나 작업활동 도중 주변 이용인에게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이는 ct가 사회적지지(정서, 긍정적상호작용 등)를 통하여 감정 컨트롤을 하며 적극적인 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가정 이외의 ct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의 직원이 긍정적 사회적지지를 통하여 ct의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짐.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의 목적은 ct에게 직업적응훈련 중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ct의 직업적응능력를 향상하고자 함.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직업적응훈련 중 ct의 작업속도를 고려한 작업량을 파악하여 분석

둘째. ct에게 작업활동 도중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실시

셋째. 향상된 직업적응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실시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ct의 경우 인지적 수준은 다른 이용인들에 비해 높아서 직업적응훈련 시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작업속도가 느려 다른 이용인들 보다 작업 생산성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ct에게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했을 경우 직업적응훈련 시 적극적이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어 ct에게 지속적으로 긍적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개별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은 직업의 의미, 가치, 요구를 학습하는 과정과 직업에 대한 태도, 성격, 직업행동 등을 수정 혹은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직업발달의 적응수준을 성

취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곧 전환과정에서의 직업준비에 대인관계와 사회적 기술과 경제활동 및 사회적 기술에 이르는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탁, 2000). 직업적응은 흔히 직업적응과 개인의 사회적응의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업적응의 목적은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또는 일상생활의 기능들을 향상시킴 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복귀할 때 개인의 독립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 근본적인 관심사는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이 기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일상생활의 양상들을 다루어야 하고 단지 이론적인 연습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실생활 세계에서의 자기치료,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작업 등이 궁극적인 직업적응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의력, 그리고 학습한 것을 통합하는 일 등에 있어서는 문제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이란 서서히 변화를 주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체되거나 서둘러서는 안된다. 법적인 개념과 문헌적 개념에서의 직업적응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법적개념에서의 직업적응은 직업적응훈련 지원규정제정(안) 16조 1항 직업적응훈련은 장애인이 직무나 직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훈련으로서 직업생활을 영위한 전제로서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에 대한 적응훈련, 직업적성인식과 탐색 작업습관 형성 직업환경 적응 등의 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직업유지를 우한 훈련 과정으로 정의한다. 문헌적 개념을 살펴보면 직업적응은 장애인의 의미, 가치 그리고 직업적 요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태도나 성격 등을 변화시키며, 최적의 직업적 수준 도달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의 과정이다(이상훈, 2001).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과 관련하여 먼저 개인적 욕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욕구는 지적장애인 개인과 가족 혹은 옹호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부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은 다양한 직무차원, 직무의 내용, 직무시간, 동료, 상사와 감독, 임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조직체 구성원이 경험하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직업동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작업기술의 측면을 보면, 지적장애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작업기술의 문제는 작업속도, 낮은 작업의 질, 낮은 생산성, 부적절한 작업복장, 작업규칙의 준수, 스스로 일 찾아서 하기, 안전에 다한 인식하기 등이다. 또 사회적 기술의 측면을 보면, 작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로서 지시 따르기, 비판 받아들이기, 도움 요청하기, 협력적인 작업행동 하기 등이며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행동은 동료들과 상호작용하기, 타인에 대한 고려하기, 자기 통제하기, 직정에서 예절 지키기, 회사의 규칙 준수하기, 회사의 시설물이용하기, 자립적인 신변처리 등이다.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향상될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개인적 능력과 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대응시켜 주거나 이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김소영, 2007). 직업적응 과정에서 내담자의 직업행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영역의 문제를 발견하는 일

은 작업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개인적 습관: 용모, 작업복장 ② 직업습관: 출석, 시간엄수, 인내력, 주의산만 정도 ③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동료 근로자와의 상호작용 적절성 여부(쉬는 시간 중, 근무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비난 혹은 불만 ④ 직장 상사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개인화(밀접한 감독에 긴장하는가? 밀접한 감독을 요구하는가? 감독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가?) ⑤ 학습과 진보(성취지향): 작업속도의 증가, 작업지시 이행능력, 작업연장과 작업장소를 잘 정리하고 배치하는가, 장비와 연장의 조작기술 직업적응은 신체적 인내성과 능력개발, 부적절한 행동변화와 새로운 경험과 정보의 획득 등을 통해 중증의 장애를 지닌 개인의 직업적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치료적 과정으로 전통적 보호작업장에서 내담자의 고용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직업치료의 개념을 포함한다. 직업적응훈련은 직업기능 훈련과는 달리 직업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의 개발과 신변처리 능력과 교통수단의 이용방법을 포함하는 직업유지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전문적 활동이다. 직업적응 후에 한 개인을 사회 및 자급자족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직업달성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척도들 중의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기준은 직업적응의 성과를 결정짓는 하나의 척도로서 선택되었다(강귀년, 2004). 본 연구에서의 직업적응능력은 직업인성프로파일 하위영역인 독립적 수행가능, 집단 내 작업수행능력, 권위에 반응하는 능력, 동료와 적절한 상호작용, 직업 에티켓 규칙이해로 하였다.

2.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의 중요성

지적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결함, 적응기술의 제한성 사회적 능력의 결여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지적능력과 적응기술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학습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물론 지적장애인 모두 기능성의 제한 정도가 동일한 수준인 것은 아니다. 적응기술의 여러 영역에 모두 기능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몇 개의 영역에서 제한성을 가지며 다른 영역에서는 강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제한이 있는 영역을 찾아 그 영역에 대한 직업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기능적 제한성을 줄어지게 만드는 것이 직업적응훈련의 목표이다(은동현, 2005). 지적장애인들은 지적결함 뿐만 아니라 작업 실패 경험의 누적으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직업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직장을 얻었더라도 중도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지적장애인들이 직업생활에의 적응이 어렵고 직업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으로 학습초기의 잦은 실패경험과 낮은 목표설정으로 인하여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폐쇄적, 단절적, 의존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이것이 직업생활 적응에 어려움과 실패를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직업수행 능력과 더불어 대인관계 기술부족, 인내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한다. 박희

찬(1999)의 직업적응 서비스 중 지적장애의 직업적응 특성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학생은 특수학교 교사의 설문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일반 사업체에 취업이 가능한 인원이 13%,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인원이 31%, 지속적인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인원이 56%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적장애 근로자의 주요 직무는 단순생산 및 노무직이 주를 이루었고, 회사동료나 상사에 의해 지도를 받는 경우가 97%로 대부분 부모나 취업 관련 기관이 아닌 회사 동료나 상사에게 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근로자 고용 관리의 애로점에 대한 조사를 보면 새로운 작업을 가르칠 때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것이 24%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주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다가 19%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제적으로 지적장애 근로자는 기능적인 직업수행능력보다는 직업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장애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성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적장애 근로자에게 있어 취업 전에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39%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하였고, 32%가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의나 규범을 익혔으면 하였다. 또한 16%는 직업과 관련된 훈련을 미리 받고 있었으면 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 능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독립적 인격체로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지적장애인들이 부정적 자아개념을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바꿔주는 일이 곧 지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직업생활에의 적응에 중요한 과제를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형성을 위하여 지적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과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을 통해 바람직한 작업태도를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적지지

오늘날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안녕에서부터 정신장애,스트레스,성폭력,가족해체,알코올 및 약물남용,이혼,사별,노인성 치매,암,AIDS,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중재 요인으로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1776년 Cassel등에 의하여 예방심리학 측면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Lane & Menzies,2003;Christenson & Carlson,2005;배경희,2007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는 접근 개념에 따라 적응자원,사회적 관계망,사회.심리적 자원 혹은 사회적 지원체계 등의 용어로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개념 및 조작적 정의와 평가 방법이 다양하다. 사회적 지지에 대해 Cobb(1976)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적.심리적인 도움을 의미한다고 보며 넓

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Hirsh(1980)는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의 틀 즉, '관계망' 으로 설명하였으며(이미섭,2005에서 재인용),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 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 관계에 있어서의 유대감,자신감,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또한,사회적 지지란 주로 가족,친구,이웃,기타 주변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정신적으로 건강성이 높고 자긍심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통제력도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penter,2001;Kaiser& Hancock,2003;배경희,2007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는 개인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사회적 관계망에 들어 있는 부,모,형제,자매,교사,또래 등을 들 수 있으며(Harter,1985;윤미경,1997;김선희,2002재인용),Cobb(1976)은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가족 구성원,직장 동료들을 포함하였다.또한 Wortman(1987)도 역시 배우자,부모,형제,친구,이웃,동료,상담자,의사 등을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있는 원천으로 보았다(박지원,1994;장영임,1999;김선희,2001에서 재인용). Kaplan(1977)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는 어떤 자원보다 특히 배우자와 전문가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Hanmburg(1967)는 가족 지지가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적지지 체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이근영,1993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면,사회적 지지를 제공자에 따라 구분하여 크게 전문가와 국가기관 등을 통해 받는 공적지지(formalsupport)와 동료. 가족 등 사적으로 속한 집단에게서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사적지지(informalsupport)로 구분할 수 있다.공적 지지는 대개 다양한 차원의 지지가 제공되지만 사적 지지는 정서적.사회적 교류감,상호공동감의 공유,관심과 경험의 나눔,감정해소 등의 주로 정서적인 지지역할(Toselandetal.,1990)과 경험에 의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한다(Lin, Dean & Ensel, 1986; 남연희, 2001 재인용). 또한, Bristol(1987)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가족,친구,이웃 등 가까운 이들에게서와 교회,사회적 모임 등의 사회적 그룹에게서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지원인 비공식적 지원과 교사,의사,사회 사업가 등의 전문가와 학교,병원,국가기관을 통해 받는 공식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Shilling(1984)은 사회적 지지를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 하였는데,첫째 수준으로는 핵가족의 구성원과 가족처럼 친근한 친구,친척 또는 친지 등의 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수준의 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지속적이며 필요시에는 즉각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원들이다.둘째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첫째보다 덜 가까운 친구,친척 또는 전문인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등 정기적 접촉을 갖는 사람을 포함하고,셋째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덜 가까운 사이이면서 자주 접촉하지 않는 사회적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말하였다(배경희,2007에서 재인용). Thoits(1982)는 "사회

적으로 제공된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누구에게서 제공되는 것인가” 라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안녕과 적응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사회적 지원의 내용과 원천이 지원의 절대적인 양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선희,2001;김희경,2006에서 재인용).한편,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적지지의 기능을 단일차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성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기능적 측면에서는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지지 두 차원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도구적 지지는 물질원조,병간호,집안일돕기 등이며,정서적 지지는 인정,평가,상담 등으로 구분된다(Babehunk,1978;남연희,2001재인용). Cobb(1976)에 의하면,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존중되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평가적 지지,대화 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사회관계 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 주는 정보적 지지로 분류하였고, 박지원(1985)은 이를 4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존경,애정,신뢰,관심,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 둘째,개인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셋째,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로 물질적 지지 넷째,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 하는 등,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심경순(2001)은 첫째,정서적 지지이다.이는 개인이 구성원과 서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으며,자신이 가치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여 다른 사람이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감정을 길러주는 지지를 의미한다.이것은 정서적 감정이입이나 정서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소속감의 창출과 타인에 의한 환류의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게 한다.둘째,물질적 지지이다. 이는 도구적 지지라고도 하며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재화,서비스,과업지향의 원조 등의 제공을 의미한다.셋째,정보적 지지이다. 이는 새롭고 다양한 사회 접촉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이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지식,충고 등의 제공을 의미한다.넷째,예우적 지지이다.이것은 개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격체로서,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지지적 태도의 상호작용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에의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며,장애나 문제의 정도와 관계없이 적절한 사회적 지위와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는 안정적인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며 실제적으로 제공된 사회적지지보다는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지각된 지지가 적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개인에게 지각된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인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가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지지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체계나 자원들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이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병리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송종용,1988;김희경 2006).

Ⅲ. 연구 방법

가.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김민아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91.05.05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1급	중복장애	지체장애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만수 4동 주공아파트 210동 608호				
전화번호			핸드폰	010-3897-000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1991년에 출생하였으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5년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고 1996년에 다리수술을 받아 지체장애를 판정 받았으며 현재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황임.

2010년 2월 문일여자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후 미추홀 학교에 입학하여 2012년 2월 졸업하였으며 2011년 4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에서 이용한 뒤 주간보호 종결기간으로 인하여 2014년 7월부터 열린일터에 이용하게 되었음.

ct는 감정의 기복이 매우 큰 편이며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말보다는 주로 뾰루퉁한 표정과 태도 및 울음을 통해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며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행동을 자주 보임.

ct는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오빠가 있음. 아버지는 현재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며 어머니는 일용직 근무를 하고 계시며 현재 아버지와는 이혼중임. 언니는 교육공무원을 하고 있고 오빠의 경우 수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가족과는 따로 살고 있으며 가족들이 ct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3) 주호소 내용

ct에게 직업적응훈련 시 작업속도가 매우 느리며 작업도중 주변 이용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여 작업집중력도 떨어져 ct의 직업적응능력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호감 있는 직원의 긍정적 사회적지지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작업속도 및 직업능력이 향상되는 점이 관찰됨.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직업14-04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열린일터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현상태 파악	3월5일~30일	사례연구 대상 파악 및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계획서 작성
진행과정 계획	3월 31일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계획서 제출
사례연구 진행	4월1일~8월30일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사례연구 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8월31일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중간보고서 제출
자문을 통한 관찰 및 개입 수정	9월2일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자문을 통한 수정
사례연구 진행	9월3일~10월30일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사례연구 진행
최종보고서 제출	10월31일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 최종보고서 제출

※ 사례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목표설정 포함

※ 현상태 파악, 진행과정 계획, 사후평가 계획 등

3. 자료수집 방법

1) 논문 및 인터넷 자료 분석
2) 직업적응훈련 시 ct의 행동 관찰
3) 직업능력 및 작업량 분석

4. 자료분석 방법

1) 직업적응훈련 후 ct의 직업능력 분석
2) ct의 하루 동안 작업량을 파악
3) ct와의 상담을 통해 목표 작업량을 정함
4)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작업량을 파악

Ⅳ. 연구방법

직업적응훈련을 통하여 ct의 작업능력을 파악한 결과 미세한 손기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능력이 다른 이용인들에 비해 많이 떨어짐. 그 결과 ct는 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활동 중 3종류의 가벼운 플라스틱 부품을 비닐팩에 각각 2개씩 넣고 비닐팩을 잠그는 작업활동에 직무배치가 되어있는 상황임.

연구를 실시한 처음 한 달은 ct의 1일 작업량을 파악하여 하루 평균 작업량을 파악하였음. ct와 처음 한 달 동안 파악한 1일 평균 작업량으로 상담을 하여 목표 작업량을 정하였음. 목표 작업량이 정해지면 1주일 단위로 사회적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 1주일은 제공하지 않은 뒤 ct의 목표 작업량 달성도여부를 확인하였음.

한 달 동안 직업적응훈련을 제공하면서 ct의 작업활동을 관찰한 뒤 목표량 달성여부를 ct와 함께 보면서 상담을 통해 다음 작업목표량을 수정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Ⅴ. 진행사항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사회적지지 제공	작업량 달성유무
4/1	미실시	389	X	미실시
4/2	미실시	361	X	미실시
4/3	미실시	323	X	미실시
4/6	미실시	349	X	미실시
4/7	미실시	334	X	미실시
4/8	미실시	348	X	미실시
4/9	미실시	318	X	미실시
4/10	미실시	342	X	미실시
4/13	미실시	357	X	미실시
4/14	미실시	356	X	미실시
4/15	미실시	339	X	미실시
4/16	미실시	369	X	미실시
4/17	미실시	378	X	미실시
4/20	미실시	389	X	미실시
4/21	미실시	365	X	미실시
4/22	미실시	386	X	미실시
4/23	미실시	380	X	미실시
4/24	미실시	370	X	미실시
4/27	미실시	367	X	미실시
4/28	미실시	370	X	미실시
4/30	미실시	388	X	미실시
평균	**미실시**	**361**	**X**	**미실시**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사회적지지 제공	작업량 달성유무
5/4	360	361	O	O
5/6	360	370	O	O
5/7	360	371	O	O
5/8	360	360	O	O
5/11	360	365	X	O
5/12	360	350	X	X
5/13	360	359	X	X
5/14	360	349	X	X
5/15	360	361	X	O
5/18	360	362	X	O
5/19	360	357	X	X
5/22	360	348	O	X
5/26	360	355	O	X
5/27	360	368	O	O
5/29	360	370	O	O
평균	360	360.4	제공 8회/ 미제공 7회	달성 9회 / 미달성 6회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사회적지지 제공	작업량 달성유무
6/1	365	368	O	O
6/2	365	370	O	O
6/3	365	380	O	O
6/4	365	375	O	O
6/8	365	370	X	O
6/9	365	361	X	X
6/10	365	367	X	O
6/11	365	360	X	X
6/15	365	355	O	X
6/16	365	364	O	X
6/17	365	370	O	O
6/18	365	351	O	X
6/19	365	367	O	O
6/20	365	370	O	O
6/22	365	366	X	O
6/23	365	367	X	O
6/24	365	360	X	X
6/29	365	357	O	O
6/30	365	368	O	O
평균	365	365.5	제공 12회/ 미제공 7회	달성 13회 / 미달성 6회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사회적지지 제공	작업량 달성유무
7/1	370	371	O	O
7/2	370	370	O	O
7/3	370	369	O	X
7/6	370	370	X	O
7/7	370	368	X	X
7/8	370	365	X	X
7/9	370	371	X	O
7/13	370	375	O	O
7/14	370	368	O	O
7/15	370	374	O	O
7/16	370	369	O	X
7/17	370	368	O	X
7/20	370	371	X	O
7/21	370	369	X	O
7/22	370	368	X	X
7/24	370	365	X	X
7/27	370	369	O	X
7/29	370	371	O	O
7/30	370	378	O	O
평균	370	369.9	제공 11회/ 미제공 8회	달성 11회 / 미달성 8회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사회적지지 제공	작업량 달성유무
8/10	370	375	O	O
8/11	370	378	O	O
8/12	370	371	O	O
8/13	370	376	O	O
8/17	370	370	X	O
8/18	370	364	X	X
8/19	370	362	X	X
8/20	370	369	X	X
8/21	370	371	X	O
8/25	370	375	O	O
8/26	370	371	O	O
8/27	370	370	O	O
8/28	370	369	O	X
평균	370	370.8	제공 8회/ 미제공 5회	달성 9회 / 미달성 4회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사회적지지 제공	작업량 달성유무
9/14	380	380	O	O
9/15	380	381	O	O
9/16	380	375	O	X
9/17	380	389	O	O
9/21	380	381	X	O
9/23	380	377	X	X
9/24	380	376	X	X
9/25	380	380	X	O
9/30	380	381	O	O
평균	380	380	제공 5회 / 미제공 4회	달성 6회 / 미달성 3회

일자	목표 작업량	작업량	사회적지지 제공	작업량 달성유무
10/1	385	384	O	X
10/2	385	386	O	O
10/5	385	385	X	O
10/6	385	380	X	X
10/8	385	377	X	X
10/12	385	389	O	O
10/13	385	390	O	O
10/15	385	388	O	O
10/16	385	371	O	X
10/19	385	370	X	X
10/20	385	379	X	X
10/26	385	381	O	X
10/27	385	386	O	O
10/28	385	381	O	X
10/29	385	385	O	O
평균	385	382.1	제공 10회 / 미제공 5회	달성 7회 / 미달성 8회

Ⅵ. 결론 및 제언

본 사례연구는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직업훈련이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하청업체로 부터 작업물량이 확보되지 않았고 작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일 ct의 1일 작업량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결과 ct의 1일 작업목표량 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 달성 횟수가 총 55회 미달성 횟수가 총 47회 관찰할 수 있었으며, ct와 상담으로 목표 작업량을 정하여 직업적응훈련 도중 1주일 단위로 사회적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을 때 목표작업량 달성 여부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을 때는 ct의 기분이 좋아보였으며 직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작업속도 또한 조금씩 상승하여 직접 정한 작업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가 평균적으로 많이 있었고 칭찬해 주어서 기분이 좋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직업적응훈련 동안 작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변 이용인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자주 관찰 되었고 담당직원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많이 생겨 목표 작업량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관찰되었음. 보호작업장 퇴근 후에는 직원에게 문자로 ‘선생님 화났어요?’ ‘혼나서 기분이 않좋아요’ 와 비슷한 문자가 자주 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ct의 기분에 따라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직업적응능력이 향상되었으나 정확한 작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했을 때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모습도 관찰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목표량 달성이 이루어진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너무 적은 수치여서 ct의 직업적응능력이 증가했다고 느끼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사례연구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ct의 직업적응능력을 근소하게 높일 수는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직업적응능력이 증가했다고 느끼기는 힘들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한 직업훈련으로 직업적응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작업능력을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연구 15-22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구

팀 명	늘푸른동산
연구자	김은숙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3.17.~ 2015.11.20 / 총 575회 개입횟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인관계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사고 및 행동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인관계는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은 인지능력의 결함과 기타 특성들로 인하여 사회적 기술이 매우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자기중심적인 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수동성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정유진, 2005)

이처럼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주간보호센터의 다양한 활동 중 여가생활지원 프로그램이 대인관계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여가교육 중심의 활동이 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 기술(일상생활 활동, 대인.사회화 기능, 부적절한 행동,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둘째,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대인.사회화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셋째,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넷째,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기술과 관련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Ⅱ. 이론적 배경

지적장애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생산적인 인간과 자원으로 만들기 위

해서는 그들의 천부적 능력, 즉 자아의식, 양심, 독립의지, 상상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삶의 기능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한 전환교육이 이루어지면 자립 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조인수, 2002)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갖는 특성 때문에 포괄적인 지원체제와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Clark(2000)은 중등학교 이후의 교육에서는 독립생활, 지역사회 참여, 사회 및 대인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환의 결과를 고용에 두기보다는 지역과 학교에서의 전환과정을 중요시했다. 그는 포괄적인 전환교육 서비스 모델에서 지식과 기능 영역의 9가지 하위요소를 제시하면서 의사소통, 학문적 수행능력, 상호관계성, 독립.상호의존생활 기술, 레져와 레크리에이션, 대인관계기술(의사소통, 상호관련성, 독립상호의존기술)과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장애아 교육법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의 성인생활의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고용과 중등 교육 이후의 교육과 더불어 독립생활을 위한 대인 관계, 지역사회참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강조하고 있다.(Schleien & Ray, 1997)

인지적인 학습에 지장을 받는 지적장애인에게 다양한 여가교육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 언어발달, 운동기술, 인지능력, 자아개념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Moon & Bunker, 1987)

여가교육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효과적이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들에게서 여가교육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장우희,2002) 부모인식(조현희,1995) 정신지체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윤상섭,1998 : 최대수,2001 ; 김동석,2000)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여가교육의 중요성과 프로그램의 부재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여가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적장애인을 위한 여가교육은 부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여가기술을 획득하고,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적인 여가 교육을 실행해 봄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여가활동 계획, 기술을 익히고 원만한 사회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을 체득케 함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하고 있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1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설계

대인관계 기술은 일상생활활동, 대인 사회화 기능, 부적절한 행동,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된 행동 등 네 개의 하위수준을 가진다.

3. 연구 도구

1)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동명	내용	횟수	비고
1	보드게임	팀을 나누어(수준별로 나눔) 약 5종의 보드게임을 즐김	주 1회	
3	미술활동	다양한 재료를 통해 미술활동을 함	주 1회	
4	공놀이	팀을 나누어 배드민턴활동을 즐김	주 1회	
6	등산활동	지역사회 비장애인과 짝이 되어 등산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능력 향상.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함	주 1회	
7	음악활동	독창, 합창등을 통해 이용인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름	주 1회	
8	산책	인근 지역을 산책함으로써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함	주 1회	
9	헬스	헬스 전문강사를 통해 각 개별이용자의 운동능력을 측정, 적합한 운동을 실시	주 1회	
10	클럽활동	각 활동을 희망하는 이용인들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예, 냅킨아트, 비즈공예, 미용으로 나누어 실시	월 1회	
11	영화관람	본 센터에서 영화 감상을 하고 느낀점을 서로 나눔	주 1회	
12	요리활동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함	월 2회	
13	수영	본 복지관 수치료실에서 자유수영실시	월 2회	
14	지역사회시설 이용	우체국, 극장, 동사무소, 박물관, 백화점, 마트 등 이용	월 1회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개별 이용인들에게 대인관계기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본 센터에서 제작한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석비교함으로써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관계 기술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대인관계 기술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

하위척도	문항수	주요내용 및 문항수
일상생활활동	4	화장실 사용, 식사, 옷 입기, 개인 위생
대인 사회화 기능	7	비판에 대한 반응, 협동성, 도움요청, 다른 사람을 방해, 낯선 사람과의 만남, 사교성, 정직성
부적절한 행동	6	대근육 동작행동, 다른 사람을 방해, 불쑥 말하기, 동시에 말하기, 화내기, 자기 자극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된 행동	7	수업 중 공손함, 업무완성, 지시사항, 안전성, 시간엄수, 여가시간

4. 연구 절차 및 진행상황

이 연구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직전의 사전사후 검사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는 14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2명이 종결함에 따라 12명만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되었다.

1) 사전검사

2)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기간은 2015년 4월에서 2015년 10월까지 약 7개월 간에 걸쳐 매일 1회에 50분씩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문자원봉사자가 진행하였다.

3) 사후검사

5. 사전검사결과

	홍○○		한○○		조○○		정○○		전○○		임○○		오○○	
하위영역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일상생활	80	**80**	70	**70**	70	**70**	70	**70**	65	**−**	80	**80**	80	**80**
대인 사회화기능	35	**33**	28	**28**	26	**26**	18	**18**	18	**−**	35	**35**	35	**35**
부적절한 행동	66	**86**	26	**59**	28	**59**	38	**49**	28	**−**	59	**86**	47	**78**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된 행동	70	**77**	28	**41**	18	**53**	35	**40**	12	**−**	25	**77**	22	**77**
총점	251	**276**	152	**198**	142	**208**	161	**177**	123	**0**	199	**278**	184	**270**
변화 (사후−사전)	25		46		66		16		종결		79		86	

	신○○		손○○		박○○		류○○		김○○		○다○		○나○	
하위영역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일상생활	80	**−**	70	**86**	55	**55**	70	**86**	65	**65**	50	**65**	65	**79**
대인 사회화기능	35	**−**	82	**88**	26	**26**	18	**20**	20	**21**	35	**35**	65	**70**
부적절한 행동	60	**−**	75	**69**	28	**27**	38	**69**	28	**30**	59	**58**	70	**70**
대인관계 기술과 관련된 행동	55	**−**	28	**45**	18	**20**	35	**35**	12	**12**	28	**28**	22	**22**
총점	230	**0**	255	**288**	127	**128**	161	**210**	125	**128**	172	**186**	222	**241**
변화 (사후−사전)	종결		33		1		49		3		14		19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서술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인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일상생활활동에 미친 영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프로

그램 이용자의 일상생활능력이 거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둘째,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대인 사회화 기능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인들의 대인사회화 기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여가생활지원 프로그램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부적절한 행동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보였다.

넷째,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대인관계관련 기술행동에 미친 영향을 보면 부적절한 행동영역과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담당자가 프로그램 진행때마다 그룹의 규칙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이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여가생활지원프로그램이 각 영역에 따른 변화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대상자들이 중간에 종결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제한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차후 프로그램 관련 연구 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평가 도구 사용 시 좀 더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전혀 무시하고 자체 제작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박창영(2003). 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지체부자유학생들의 여가활동 지도방법
단국대학교 출판부(2003). 자연친화적 장애인 여가활동프로그램

사례연구 15-23

사회적지지 중심의 일상생활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주는 영향

팀 명	주간보호
연구자	임명호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03.01.~ 2015.10.31. / 35회

더불어사는 따뜻한세상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약 252만 명(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총인구 기준 대비하여 장애인은 약 5.0%이며 7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다. 장애발생 원인에서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성 원인은 90.5%, 선천성 원인은 4.6%, 원인불명은 4.0%이며 나머지 0.9%는 출산 시 원인 순이다(보건복지부, 2013).

이중 선천성 원인의 대부분이 정신 장애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신 장애인들의 경우 신체・지적 능력은 가능하나 가족의 과보호 혹은 방임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잃은 성인의 정신 장애인들은 능력에 따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인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영구적 강화가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클라이언트는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인지 능력 역시 위 내용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음. 그러나 가정에서의 지나친 도움이 커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짐. 또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사회복지사 및 부모 등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C’t부는 C’t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라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담당자는 가정과의 협의 후 사회적지지, 언어적 지시를 통하여 행동변화를 주려함.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자립생활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인 장애인의 사회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자립생활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들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본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 장애인의 자립생활 수행능력을 좀 더 향상 할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현재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적지지 혹은 물질적지지 등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시 잠시간의 일상생활(샤워 후 환복)을 수행함에 따라 좀 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자 개별 사례연구를 진행 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신체적, 정신적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감의 관련성(권이영)의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다. 또한 우울감 역시 제거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이에 본인이 진행하려는 사회적지지가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에 주는 영

향 이라는 사례연구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짐.

Ⅲ. 연구 방법

가.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김O래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93. 4. 29				
장애명	지적장애	급수	1급	중복장애	자폐
보장구	유□ 무■	종류	-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37-1 현대@ 310동 206호				
전화번호	-		핸드폰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는 ○로 표기요함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94년 3월 8일에 출생하였으며 부평 성모병원에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음. 미추홀 학교를 졸업 후 부평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후 기간의 만기로 인하여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에 2014년 7월부터 이용중이며 사회진단 결과 C't는 장애정도가 중증이로 일상생활훈련을 중심으로 지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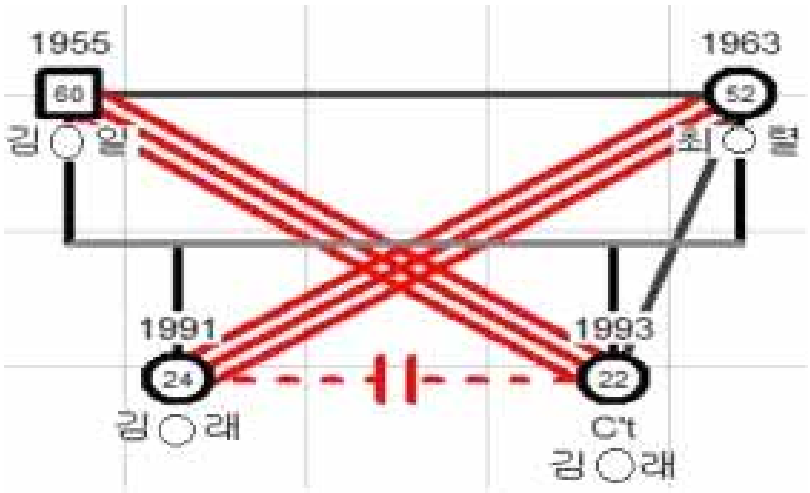
주간보호센터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편이지만 담당자 혹은 봉사자의 언어적으로 지지 할 시 그 언어를 따라 한 후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참여하는 모습을보임.

양육자인 부는 모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C't의 양육 및 프로그램 전반을 C't의 모가 전담을 하였으나 모의 암 판정으로 인하여 현재 타 지역에서 요양중 이에 부가 현재 모든 양육을 전담하고 있음. 2살 터울의 대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있으나 현재 타 지에서 지내고 있으며 집에서 C' t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음.

C't의 부와 C't간의 애착 정도가 굉장히 높으며 C't부의 관심도 역시 매우 높음. 그러나 C't부의 애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 수행을 부가 대신 해주고 있는 상황임.

(식사 시 직접 먹여주는 행동 및 신발 끈 묶기 신발 신기 등)

12년간 경기약을 아침, 저녁으로 섭취해 왔으나 2015년 1월부터 저녁 약만 섭취하고 있음 이에 C't는 머리를 잠시 흔든다거나 뛰어다는 빈도가 증가된 모습을 보임.



(3) 주호소 내용

c 't 부는 본 관 내관 시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능력 향상의 욕구를 보임.

나.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주보14-04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음악치료 교실

다.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3월	대상자 선정 및 계획서 제출
	4월~8월	개입 및 중간보고서 제출
	9월~11월	자문결과를 통한 관찰 개입 및 최종보고서 제출

라. 자료수집 방법

- 사례연구 전·중간·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 수집

마. 자료분석 방법

- 일상생활 수행능력 척도 집 활용
- 주 1회 이상 사회적지지 후 월 1회 일상생활수행능력 점수 비교
- 매 월 전달과 비교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 비교

바. 사례 개입 목표

(1) 장기목표

-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

(2) 단기목표

- ct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2점 이상 하향 될 수 있다.

Ⅳ. 연구 결과

가. 사례 진행 사항

ct를 대상으로 4월 1일 최초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를 측정하였으며 ct의 경우 언어적 지시 없을 시 행동이 오래 걸림에 따라 7일간 초기 점수를 수집함.

(1) 사회적지지 제공

날짜		내용	
4/1~ 4/8	초기 기초생활수행능력 점수 측정		
4/13~ 4/17	사회적지지 제공	4.16 개인위생 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화장실을 이용 후 손에 물을 조금 뭍인 후 나가려는 행동을 함. 이에 ct에게 손을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며 물을 조금 뭍인 손을 웃는 행동과 함께 닦도록 유도 후 깨끗이 닦아 멋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지지해 줌.
4/20~ 4/24	사회적지지 제공	4.23 식생활관 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ct는 점심 식사 시 식사를 하지 않고 반찬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행동을 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골고루 식사를 해야 건강해진다며 정보적지지 후 반찬을 입에 가져가 씹는 순간 너무 멋있다며 정서적 지지를 함.
5/4	기초생활수행능력 점수 측정 (1)		
5/11~ 5/15	사회적지지 제공	5.15 개인위생 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본인의 발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담당자를 쳐다보다 담당자가 다가가자 손가락을 본인의 입으로 가져가며 웃는 행동을 보임. 이에 ct의 옆자리에 앉아 발로 손가락을 가져갈 시 발을 만지고 그것을 입에 가져가면 아플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이라며 이야기 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멋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함.
5/18~ 5/22	사회적지지 제공	5.21 개인위생 관리	정보적 지지 양치 시 칫솔을 들고 담당자를 쳐다보며 서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치약을 칫솔 바른 후 양치를 해야 한다고 정보적 지지를 함.
5/26~ 5/29	사회적지지 제공	5/29 생활미용 관리	정서적 지지 올바른 양치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중 ct는 직접 실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함. 이에 담당자는 다른 이용인들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통해 지지를 해주었으며 ct 스스로도 매우 만족스러워 함.
6/3	기초생활수행능력 점수 측정 (2)		
6/4~ 6/12	사회적지지 제공	6/4 환경미화 활동	정서적 지지 복지관 주변 환경미화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프로그램이 끝난 후 칭찬을 하였음. ct는 기분이 좋다고 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함.
6/15~ 6/19	사회적지지 제공	6/19 식생활관 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간식으로 나온 포도를 입에 넣고 껍질째 삼키는 행동을 하여 포도는 껍질을 뱉고 먹는 것이라는 정보적 지지를 한 후 행동을 따라 하자 담당자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최고 라는 이야기를 함.
6/22~ 6/26	사회적지지 제공	6/26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서적 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프로그램이 끝난 후 칭찬을 하였음. ct는 기분이 좋다고 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함.
7/3	기초생활수행능력 점수 측정 (3)		

7/13~ 7/17	사회적지지 제공	7/15 개인위생 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본인의 발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담당자를 쳐다보다 담당자가 다가가자 손가락을 본인의 입으로 가져가며 웃는 행동을 보임. 이에 ct의 옆자리에 앉아 발로 손가락을 가져갈 시 발을 만지고 그것을 입에 가져가면 아플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이라며 이야기 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멋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함.
7/20~ 7/24	사회적지지 제공	7/23 식생활관 리	정보적 지지 식사 시 반찬을 스스로 담는 곳에서 아주 조금씩만 담고 지나가는 행동을 보여 본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담아가 먹으면 된다고 정보적 지지를 함.
7/27~ 8/7	주간보호 하계방학		
8/12	기초생활수행능력 점수 측정 (4)		
8/17~ 8/21	사회적지지 제공	8/19 개인위생 관리	정보적 지지 양치 시 칫솔을 들고 담당자를 쳐다보며 서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치약을 칫솔 바른 후 양치를 해야 한다고 정보적 지지를 함.
8/31~ 9/4	사회적지지 제공	9/2 개인위생 관리	정서적, 정보적 지지 본인의 코를 파는 행동을 보였으며 담당자가 근처에 다가가자 코를 판 손가락으로 담당자의 손을 잡으려는 행동을 보임. 이에 ct의 옆자리에 코를 파는 행동과 코를 판 손가락으로 타인의 몸을 만지면 안되며 이러한 행동이 비위생적인 것이라며 이야기 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예쁘다는 말을 하며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함.
9/7~ 9/11	사회적지지 제공	9/11	정서적, 정보적 지지 간식으로 나온 토마토를 먹은 후 헛구역질을 하며 담당자를 쳐다보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임. 담당자가 ct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며 토마토라는 채소라고 이야기 한 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라 정보적 지지를 한 후 이것을 다 먹으면 조금 더 멋있어질 것이라는 정서적 지지를 함.
9/14~ 9/18	사회적지지 제공	9/18	정보적 지지 식사 시 반찬을 스스로 담는 곳에서 아주 조금씩만 담고 지나가는 행동을 보여 본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담아가 먹으면 된다고 정보적 지지를 함.
9/21~ 9/25	사회적지지 제공	9/25	정보적 지지 양치 시 칫솔을 들고 담당자를 쳐다보며 서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치약을 칫솔 바른 후 양치를 해야 한다고 정보적 지지를 함.
10/2	기초생활수행능력 점수 측정 (5)		
10/5~ 10/9	사회적지지 제공	10/8	정서적, 정보적 지지 ct는 점심 식사 시 식사를 하지 않고 담당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스스로 식사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또한 골고루 식사를 해야 건강해진다며 정보적지지 후 반찬을 입에 가져가 씹는 순간 너무 이쁘다며 정서적 지지를 함.
10/12~	사회적지지	10/16	정서적, 정보적 지지

10/16	제공		수중운동 후 샤워 시 가만히 서있는 행동을 보이며 담당자만 쳐다보는 행동을 함. 샤워 방법으로 샤워기 사용 법 및 거품을 내는 등의 정보적 지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샤워기를 사용하여 몸에 물을 묻이는 행동을 보여 예쁘다며 정서적 지지를 함.
10/19~ 10/23	사회적지지 제공	10/21	
10/28	기초생활수행능력 최종 점수 측정		

(2) 개별관찰

날짜	개별 관찰	소견
4/23	식사 시 밥과 반찬을 따로 먹으며 남은 반찬과 밥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손가락으로 집는 행동을 하여 언어적 지시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였으나 교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행동을 보여 다시 한번 더 식사에 집중하고 밥과 반찬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이야기 하여 식사를 마침.	지속적인 식사 교육으로 ct의 행동변화를 추구 하고 있으나 복지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본인이 욕구대로 식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적 장애인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같은 교육 및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 됨.
5/29	프로그램 시간 도중 본인의 머리를 긁고 코를 만진 후 그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행동 및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손바닥 위를 휘젓는 등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복지사가 ct옆에 앉아 정보적 지지로 위생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복지사의 얼굴을 보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다시 한번 더 손을 잡고 웃으며 정서적 지지를 함. 그러자 만지는 행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임.	ct는 위생의 개념이 현재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어져 지속적인 위생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ct스스로 싫어 할 경우 턱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임. 이에 ct가 싫어하지 않도록 복지사가 강압적인 말투를 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수행할 것이라 사료됨.
6/26	ct는 아침 내관 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고개를 숙이고 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본인이 좋아하는 수중운동 시 스스로 의복을 벗고 샤워 실에 서있는 모습을 보임. 이에 복지사 및 봉사자가 긍정적 피드백으로 정서적 지지를 해 주자 평소와 다르게 샤워 후 본인의 의복을 스스로 입으려는 행동을 함.	ct는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는 경향이 있음. ct는 평소 기분이 좋을 때 웃으며 복지사와 장난을 하는 행동 및 스스로 움직이려는 행동을 보임. ct의 기분을 지속적으로 좋게 만들어 스스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음.
7/23	식사 전 손을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본인에 성기에 손을 넣으려는 행동을 보임. 이에 담당자가 만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후 손을 닦도록 유도함	ct는 평소 코를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위생교육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금일은 남자 교사를 보며 이러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위생 교육 및 성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8/19	프로그램 시간과 쉬는 시간동안 ct는 본인의 머리와 코를 만진 후 입에 가져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 담당자가 옆에 앉아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마다 비위생적인 행동이라는 이	ct는 화장실 이용 시 손을 닦지 않고 대변을 본 후 휴지를 잘 닦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관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한 번의 이야기로 행동의 변화가 되지 않아 이러한 행동을 보일

	야기를 반복적으로 함. 이에 ct는 담당자가 옆자리에 앉으면 행동을 멈추었다 담당자가 이동하면 다시 같은 행동함.	시 담당자 이외 다른 복지사들 역시 언어적 제제를 하여 행동의 변화를 꾀어야 할 것임.
9/25	요리활동 중 ct본인의 코를 파고 머리를 긁은 후 그 손으로 다시 요리를 하려는 행동을 함. 또한 손에 요리 재료를 묻은 후 그러한 행동을 반복함.	ct는 위생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버릇처럼 코를 파는 행동을 보임 이에 따라 반복적인 위생교육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임.
10/21	공공시설환경미화 활동 시 맨손으로 손을 만진 후 본인의 얼굴과 코를 만지는 행동을 보임. 이에 자원봉사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이 싫다며 함께 활동하기 싫다고 짜증을 부리는 모습 보임.	ct는 평소 비위생적인 행동을 할 시 담당자들의 제지에 잘 따르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금일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봉사자)이 제지를 하는 행동에 긴장하여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 판단됨.

나. 중간평가

(1) 목표평가

- ct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는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점수가 낮을 수 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대소변, 식사, 복장, 몸치장, 보행, 목욕하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초기	측정결과 30점 중 13점
1회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2회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3회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4회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5회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최종	측정결과 30점 중 12점

총 7회 측정결과 1회에 비하여 최종으로 1점이 하향(하향 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 한 것으로 함)한 것으로 나타남.

2점 이상 하향 이라는 단기목표를 정하였으나 현재 목욕 부분에서 1점이 하향(손씻기 능력 향상) 이후 변화 값이 없어 단기목표에서 실패하였다 판단되어짐.

(2) 과정평가

- 초기계획 한 것에 맞게 적절하게 주 1회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 월1회 관찰을 할 수 있었음.
- 측정 내용에 목욕 과 외부활동 이동이 있기에 수중운동이 들어 있는 날에 맞추어 변화 값을 측정함.
- 목욕 및 화장실 교육의 경우 담당하는 여교사가 작성함.

3) 향후계획

- 평가 결과 사회적지지(정보적, 정서적, 구체적지지 등)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작은 값이지만 향상한 모습을 보임. 하지만 개인의 기분이나 가정의 환경 등의 변수들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향후 좀 더 많이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증 지적 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를 할 예정임
- 측정값의 2점 하향이라는 단기 목표에는 실패하였다 할 수 있으나 현재 변화가된 능력이 유지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ADL 평가도구

	구 분	점수	내 용	점수
1	대소변	⓪ ① ② ④ ⑤	-화장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금 현상이 전혀 없다. -대소변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하며 가끔은 실금 현상이 있다. -1주일에 1회이상 수면중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1주일에 1회이상 낮시간에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대소변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	
2	식 사	⓪ ① ② ④ ⑤	-도움 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식사중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식사 후 위생을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중등고의도움을 받아 식사하며 지저분하게 식사한다. -모든 식사를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스스로는 식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먹여주어야 한다.	
3	복 장	⓪ ① ② ④ ⑤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옷장에서 옷을 고를 수 있다. -옷을 미리 골라져 있다면 입고 벗을 수 있다. -미리 준비된 옷이라도 다른 사람이 약간 도와주어야 입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협조 할 수 있다. -전혀 스스로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입혀주어야 한다.	
4	몸 치 장 (단정함 , 머리손 톱, 얼굴)	⓪ ① ② ④ 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항상 단정하게 옷입고 몸치장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몸치장을 스스로 할 수 있으나 면도 같은 것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몸치장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규칙적인 감독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몸치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일단 몸치장을 한다음에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몸치장을 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5	보 행	⓪ ① ② ④ ⑤	-시내를 걸어 다닐수 있다. -집안이나 동네를 걸어다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walker,wheelchair등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다 -하루의 반이상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낸다.	
6	목욕하 기	⓪ ① ② ④ ⑤	-스스로 도움 없이 목욕할 수 있다. -탕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면 혼자 목욕할 수 있다 -얼굴과 손은 쉽게 씻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씻지 않는다. -스스로 씻지는 못하나 다른 사람들이 목욕시킬 때 협조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씻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씻어주려 해도 저항한다.	
총 점				

사례연구 15-24

복지쿠폰서비스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지역복지
연구자	고형식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4.2.~ 2015.11.31. / 10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사례연구의 개요

1. 사례연구 대상자 개요

1) 기본사항 : 지역사회내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 가정을 매달 선정

2) 선정방법 : 저소득 장애인 중 복지쿠폰서비스의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

Ⅱ.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저소득 장애인 가정 성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식주 해결 및 교육, 치료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제한적 특성상 노동시장의 경쟁성으로부터 소외되기 쉽고, 이는 자연히 장애인 가정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함을 장애인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연대하여 해결하려는 성숙한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성숙한 지역사회 문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자발적 바우처 문화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복지쿠폰서비스라는 자발적 후원을 통해 절대적.상대적 빈곤에 처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삶의 개선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례 개입 계획

1) 개입장소와 시간

본 연구는 남동장애인복지관의 지역연계팀의 재활후원사업인 복지쿠폰서비스를 통하여 월 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에 조사할 예정임. 장소는 본 복지관의 상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매월 제공되는 서비스는 같으며, 대상자는 바뀌어 진행될 예정임.

2) 진행 과정 계획

연구기간은 4월2일부터 ~ 11월31일까지 진행되며, 매월 5개의 서비스로 5명의 대상에게 개입하며 서비스제공 전 및 후 척도 검사를 진행한다.

- 측정도구-

생활만족도에 긍정-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디너교수의 개발 측정지)							
1----------2----------3----------4----------5----------6----------7 전혀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1) 대개 나의 생활은 나의 이상과 가깝다	1	2	3	4	5	6	7
2) 내 생활의 조건은 대부분 훌륭하다	1	2	3	4	5	6	7
3) 나는 내삶의 만족한다	1	2	3	4	5	6	7
4) 지금까지 내가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1	2	3	4	5	6	7
5) 만약다시 산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7
31-35:삶에 굉장히 만족 26-30 삶에 꽤 만족 21-25:약간만족 20 : 중립 15-19:약간불만족 10-14:불만족 5-9: 굉장히 불만족							

3) 사례 개입 목표

-장기 : 복지쿠폰서비스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기 : 1. 월 1명의 복지쿠폰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한다.

2. 월 2회 1명에게 복지쿠폰서비스를 제공한다.

3. 매회기 생활만족도측정설문지를 통하여 비교분석한다.

Ⅳ. 연구 결과

1. 사례진행사항

복지쿠폰서비스의 대상자를 매월 선정하여, 매월 5가지의 쿠폰을 지급하여 지급전후 생활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여 c’t들의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구 분	내 용	대상자 정보
4/6	– 헤어컷트권 및 도시락 이용쿠폰을 제공함. – 사전 점수 14점으로 불만족으로 나타남.	– 대상자: 곽*순 – 장애명: 뇌병변/3
4/30	– 쿠폰사용을 확인 하였으며, 쿠폰사용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22점으로 약간만족으로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5/4	– 헤어컷트권 및 정육점이용쿠폰을 제공함. – 사전점수 25점으로 약간만족 상태로 나타남	– 대상자: 박*옥 – 장애명: 지체/1
5/29	– 쿠폰사용을 확인 하였으며, 쿠폰사용 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28점으로 삶에 꽤만족으로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6/8	– 생일케익과 생일꽃배달서비스를 제공함. – 사전점수 18점으로 약간불만족 상태로 나타남.	– 대상자: 정*옥 – 장애명: 지체/3
6/30	– 쿠폰사용을 확인 하였으며, 쿠폰사용 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22점으로 약간만족으로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7/6	– 생일케익과 헤어컷트권을 제공함. – 사전점수 17점으로 약간불만족 상태로 나타남.	– 대상자: 오*례 – 장애명: 시각/1
7/31	– 쿠폰사용을 확인 하였으며, 쿠폰사용 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17점으로 약간불만족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였음. – ***시각장애인이라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설문에 응답하였음.**	
8/5	– 사우나이용쿠폰 2매를 제공함. – 사전점수 15점으로 약간불만족 상태로 나타남.	– 대상자: 남* – 장애명: 지적/3
8/28	– 쿠폰사용을 확인 하였으며, 쿠폰사용 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20점으로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9/4	– 외식이용권 1매, 헤어컷트권 1매를 제공함. – 사전점수 15점으로 불만족인 상태로 나타남.	– 대상자: 정*은 – 장애명: 지적/1
9/30	– 복지쿠폰의 이용을 확인하였으며, 쿠폰사용 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21점으로 약간만족인 상태로 나타남	
10/5	– 헤어컷트권 2매를 제공함. – 사전점수 11점으로 불만족인 상태로 나타남.	– 대상자: 신*다 – 장애명: 언어/3
10/30	– 복지쿠폰의 이용을 확인하였으며, 쿠폰사용 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20점으로 중립으로 9점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 ***언어장애인이라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에 응답하였음.**	
11/5	– 생일케익과 생일꽃배달서비스를 제공함. – 사전점수 20점으로 약간만족인 상태로 나타남	– 대상자: 이*일 – 장애명: 언어/4
11/20	– 복지쿠폰의 이용을 확인하였으며, 쿠폰사용 중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음. – 사후점수 23점으로 약간만족으로 조금의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 ***언어장애인이라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에 응답하였음.**	

2.평가

1) 목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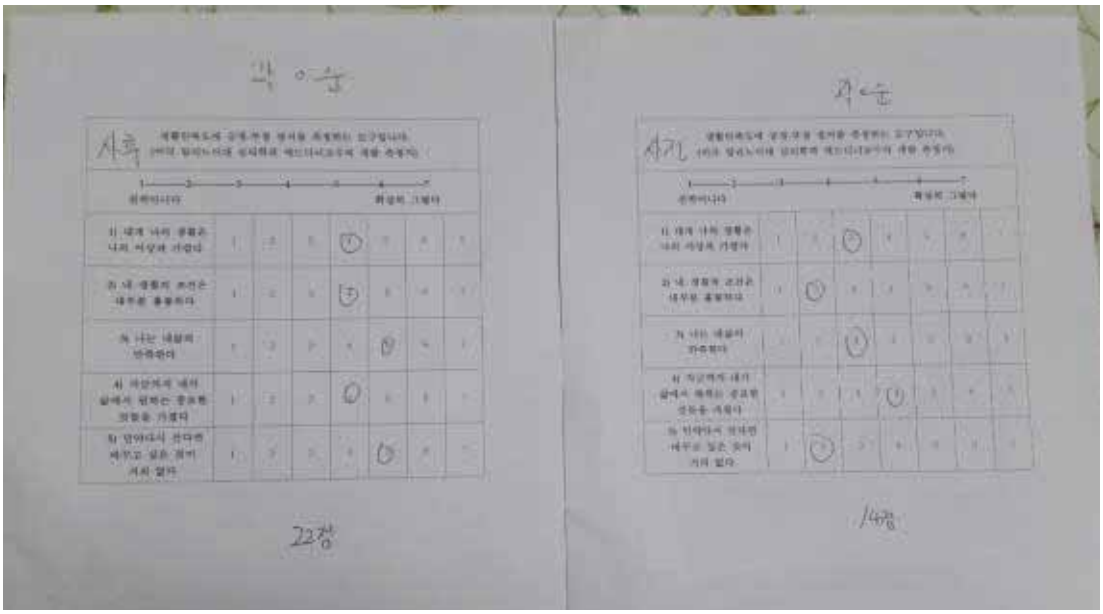
매월(4월~11월) 사례관리를 받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중 무작위로 매월 1명의 대상자에게 2가지의 복지쿠폰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만족도 사전 사후조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 4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곽*순)

사전 : 14점

사후 : 22점



- 5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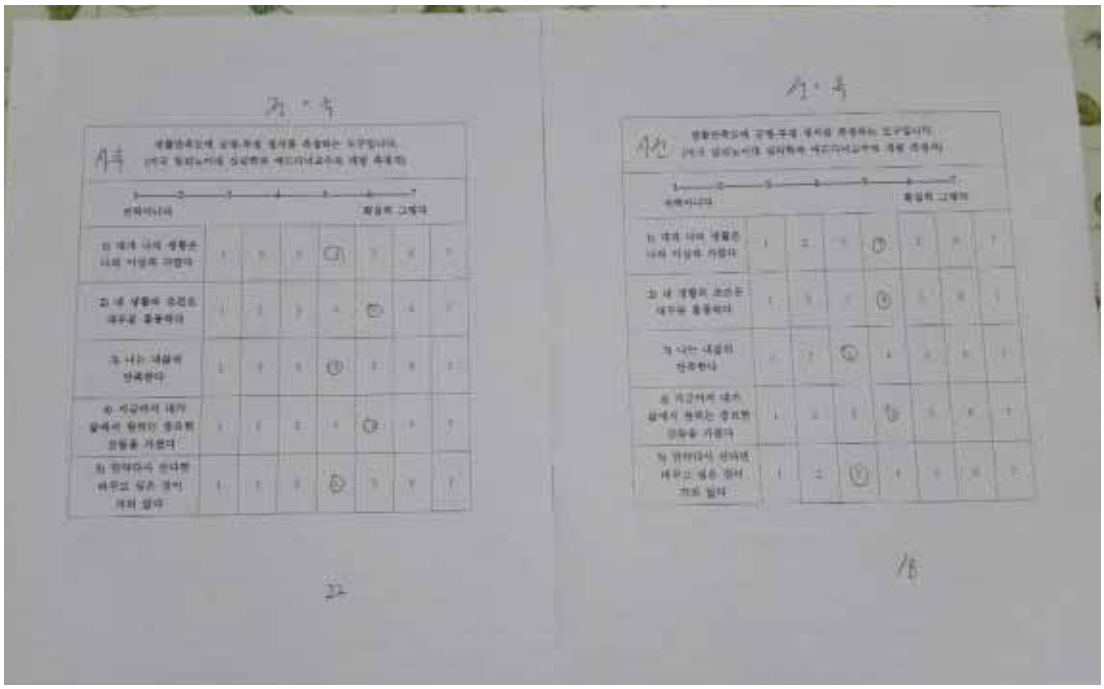
사전 : 25점

사후 : 28점

- 6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정*옥)

사전 : 1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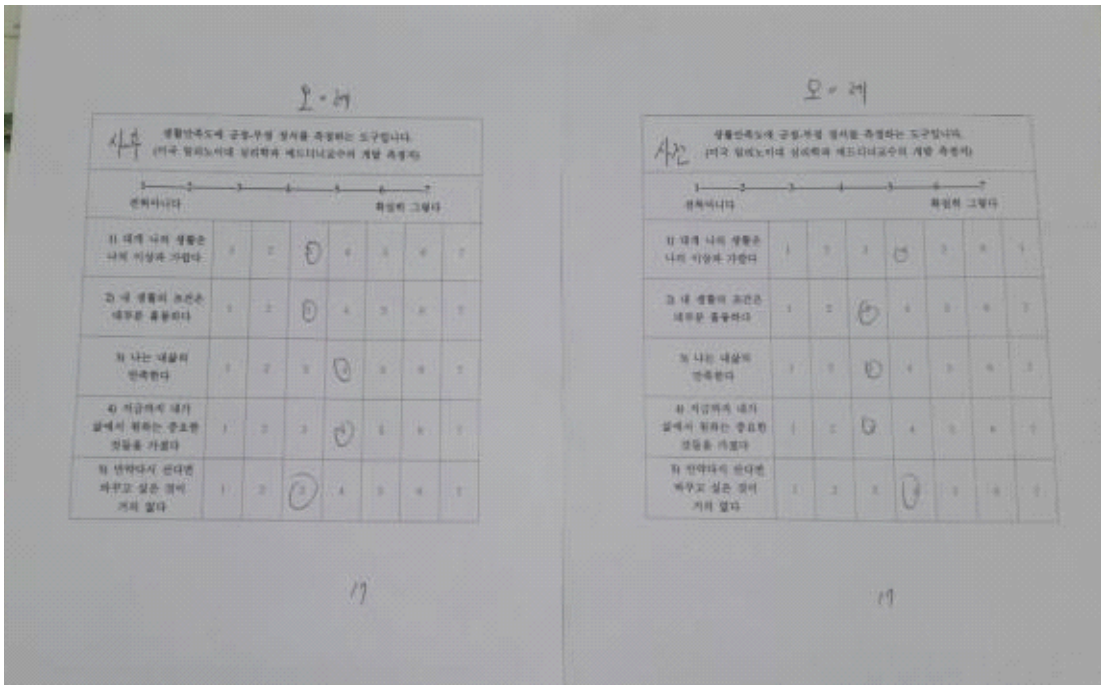
사후 : 22점



- 7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오*례)

사전 : 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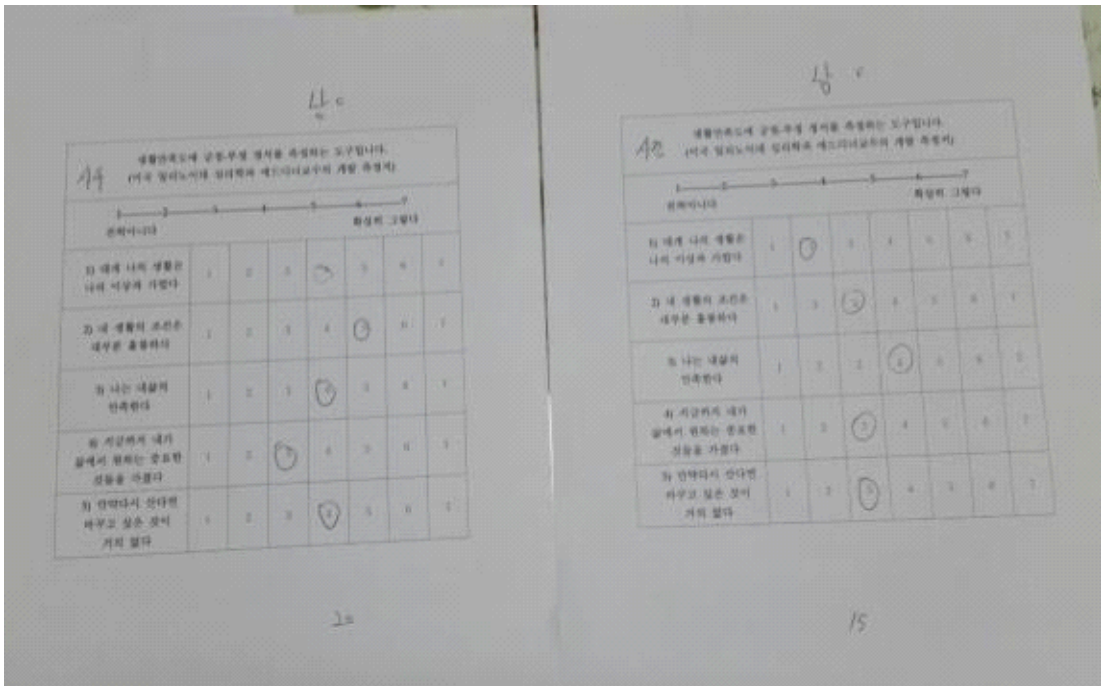
사후 : 17점



- 8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남*)

사전 :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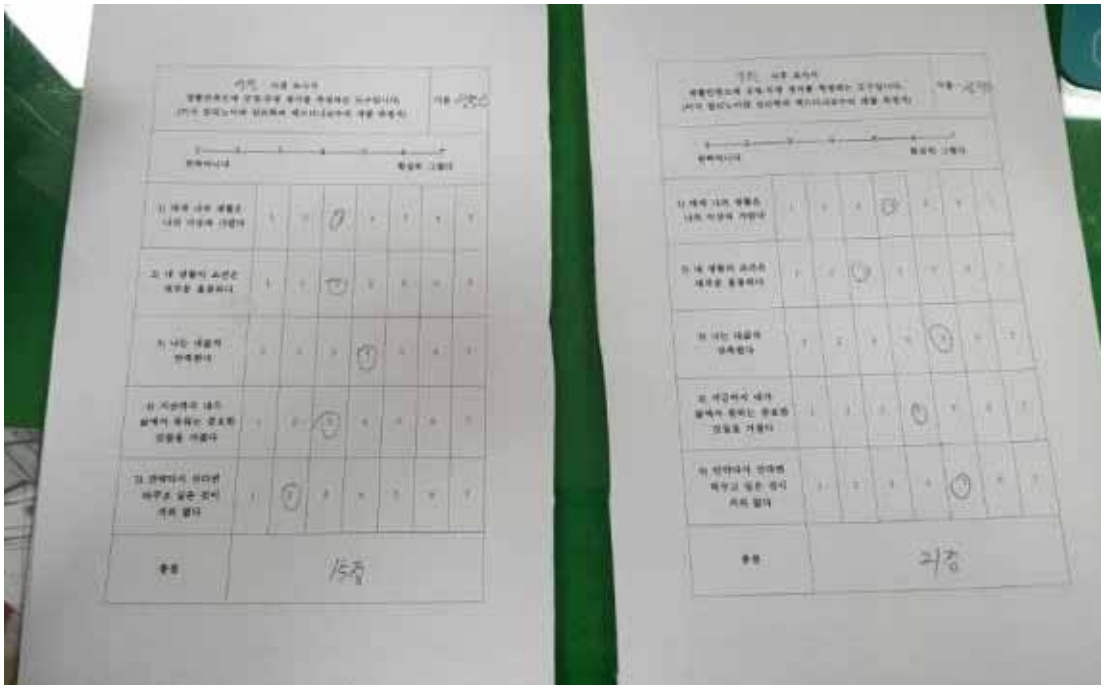
사후 : 20점



- 9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정*은)

사전 :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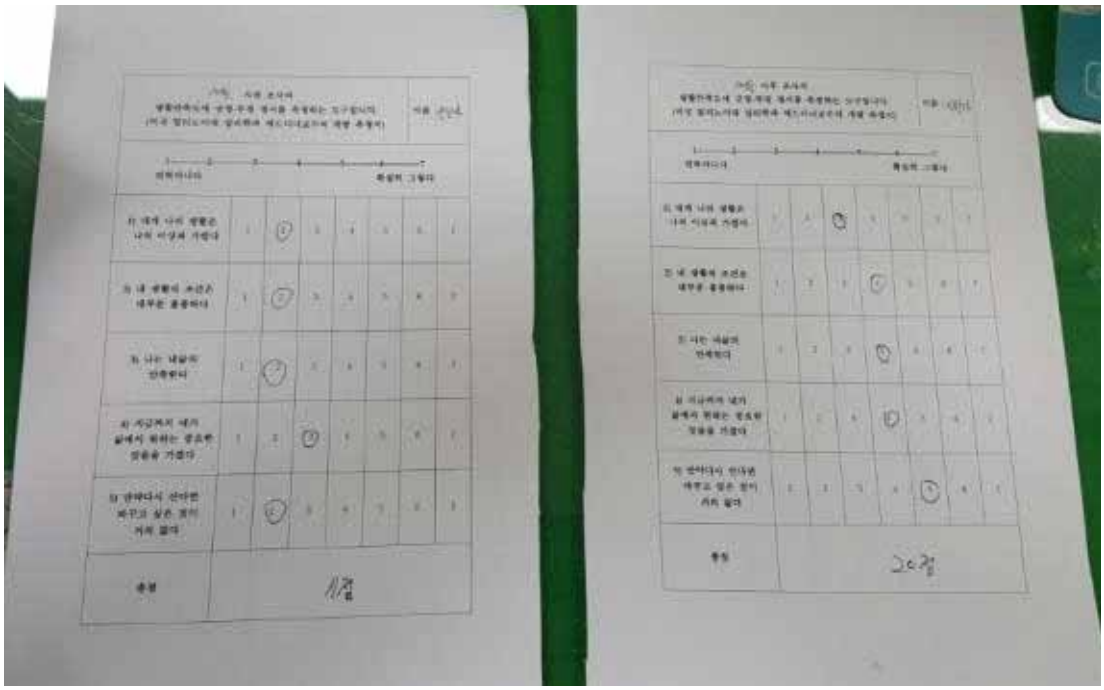
사후 : 21점



- 10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신*다)

사전 : 1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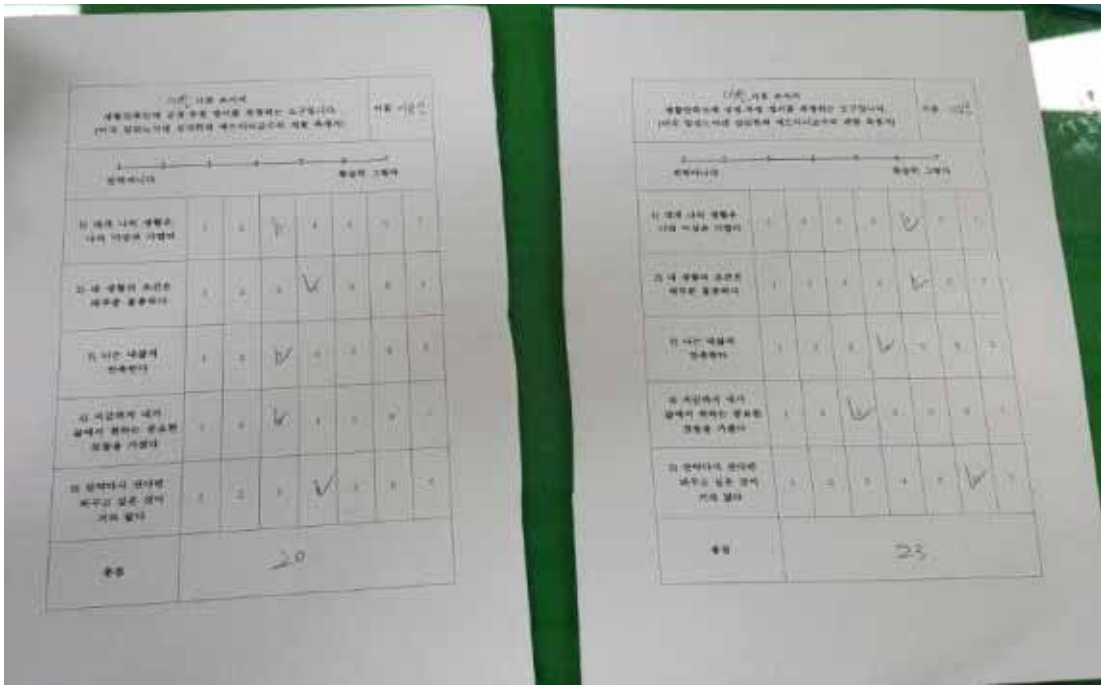
사후 : 20점



- 11월 복지쿠폰 대상자 사전사후 생활만족도조사지(신*다)

사전 : 20점

사후 : 23점



2)과정평가

- 초기 계획되었던 제공 일정과 설문지 조사가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사전 사후설명지의 변화가 한명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상향되었음이 나타남
- 4월에 진행된 c’t는 뇌병변3급 장애로 헤어컷트권과 도시락이용쿠폰을 제공하여, 4월 내에 쿠폰지급 시 사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용한 후의 생활만족도조사를 실행하였음. 진행결과 c’t는 생활만족도 점수가 8점이 상향되어 불만족에서 약간 만족으로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경제적 부담으로 누리지 못하였던 외식 및 헤어컷트를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을것으로 사료됨.
- -5월에 진행된 c’t는 지체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진입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하여 지급하였으며, 헤어컷트권과 정육점이용 쿠폰을 제공하였음. 쿠폰지급시 사전검사를 진행하였으며, 25점으로 약간 만족의 상태가 나타났음. 이후 쿠폰사용후 사후점수가 28점으로 3점 향상된 모습으로 삶의 꽤만족으로 상향된 모습을 보였음. c’t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 큰낙차의 변화는 없었음.
- 6월 진행된 c’t는 지체장애 3급으로 생일케익과 생일 꽃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사전점수18점으로 약간불만족인 상태로 나타났으며, 사후점수로는 22점으로 약간만족으로 상향된 모습을 타나냄. 독거장애인으로 가정내 생신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생활만족도가 상향된 것으로 사료됨.
- 7월에 진행된 c’t는 시각장애 1급으로 생일떡케익과 헤어컷트권을 제공하였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c’t의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사전점수는 17점, 사후점수도 17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8월에 진행된 c’t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가정구성원 전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사우나이용권을 2매제공하였음. 이에 위생관리가 잘되지 않는 c’t와 c’t의 언니가 함께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활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음. 사전점수는 15점이였으며, 사후점수는 20점으로 상향되었음.
- 9월에 진행된 c’t는 지적장애1급으로 외식이용권과 헤어컷트권을 제공하였음. 지적장애인이며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쿠폰을 제공하기전 사전점수로는 15점으로 불만족상태였으나, 쿠폰을 사용한 후에는 21점으로 9점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음.
- 10월에 진행된 c’t는 언어장애 3급으로 가족내,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명의 형제가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있음. 이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사용할수 있는 헤어컷트권2매를 제공함 쿠폰제공전 사전점수로는 11점에 불만족인 상태로 나타났으나, 쿠폰을 제공한 후 20점으로 9점이 향상된 모습을 나타냄.
- 11월에 진행된 c’t는 언어장애 4급으로 c’t와 처와 함께거주하는 노인장애인임. 생신을 맞이하여 생일케익 및 생일꽃배달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사전점수로는 20점

이 나왔으며, 사후점수로는 23점으로 3점 향상된 모습을 보였음.

Ⅴ. 결론 및 제언

본 복지쿠폰서비스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저소득과 생활만족도가 소거되어있는 재가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업체와 연결하여 복지쿠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만족도의 변화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였다

복지쿠폰서비스가 8명의 c’t 중 7명의 생활만족도 조사지의 검사결과 상향된 모습을 보였으며, 1명의 c’t는 사전 사후의 결과가 동일함으로 나타음.

대부분 복지쿠폰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실생활에서 하지 못하였던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였음.

또한 빈곤으로 인한 상대적박탈감을 경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되었을것으로 사료됨.

본 연구를 통하여 여럿의 대상자를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87.5%의 인원이 생활만족도의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와 복지쿠폰의 제공으로 생활만족도가 상향되었다고 알수 있겠으나. 조사지를 1가지로 진행한 점과 복지쿠폰의 의견 및 면접같은 심층적인 방법을 활용했으면 연구의 타당도가 높아졌을것로 사료됨. 이에 향후에 진행될 복지쿠폰의 대상자들에게 좀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긍적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15-25

여성장애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지역연계팀
연구자	윤혜림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 3. 24.~ 2015. 11. 15. / 총 39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은 삶의 일부이자 행복과 삶의 질에 기본이 되는 여가’ 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이유로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우문화센터,2001)

그 중 장애와 이중적 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사회재활과 연결된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본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의 적절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며 장애인들의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여성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실태에서는 TV시청, 컴퓨터 사용, 운동, 강습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6.4%가 활동적인 유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는 장애인 친구, 동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능력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에서 긍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참여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방해요인으로 정보부족, 경제적부담, 편의시설 미비, 프로그램 부족등을 꼽았다.(황주연,2008)

여성장애인의 사회교육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아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본다.

다.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프로그램 대상자인 c't는 우울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우울감호소, 낮은 자아존중감을 표출하는 등 자녀 둘을 양육해야하는 모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등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 중에 복지관에 내관상담을 하였다. c't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관찰되는 효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우울감해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과 자신의 가치에 대해 내면 깊은 곳의 느낌을 의미하는 자기존중(self-respect)이 더해진 개념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는 개인적 신념의 범위를 포함한 심리적 반응(Coopersmith, 1984)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에 대한 동일시까지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자아개념과 비교할 때,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이귀옥, 2011).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가 유의미 할것으로 본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

가. CASE 개요

⑴ 기본사항

이 름	이○영	성별	여	결혼여부	기혼■ 이혼□
생년월일	1967. 11. 12.				
장애명	지체장애	급수	1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전동스쿠터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담방로 105, ○○/○○ (만수동,주공아파트)				
전화번호	032) 464-○○○○		핸드폰	010-20○○-○○○○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⑵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c't는 선천적 장애 발생으로 미혼모 가정에서 양육되었으며, 현재 비장애 남성과 결혼 후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었음. c't의 남편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력이 없다고 하며 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었다고 함. 가족간 소통이 잘 되고 있으나 가사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

⑶ 주호소 내용

c't는 여성장애인으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c't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본인의 능력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딸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양육을 하고 있다고 느낌. 여가생활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자 함.

나. 서비스 이용현황

복지관 등록일	2015. 03. 10.(화)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공예교실, 냅킨아트교실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3/10	초기개입	인터뷰 및 초기 생활 및 자아존중감 사전측정
4/7-11/4	프로그램	냅킨아트 프로그램 참여
11/15	최종평가	인터뷰 및 최종 생활 및 자아존중감 사후측정

3. 자료수집 방법

1) 현상태 파악

- 가정방문을 통해 현재 C't의 낮은 자아존중감 원인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진행 과정 계획

- 주1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고 관찰일지에 C't의 변화를 기록한다.
- 월1회 C't 가정방문을 통해 변화된 상담 내용을 기록 한다

4. 자료분석 방법

- 출석여부와 프로그램 참여 및 의사소통 빈도수를 측정한다.
-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척도를 통해 목표량을 측정한다.
-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을 통해 만족도 향상 유·무를 판단한다.

5. 평가

1) 중간평가

c't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척도지를 통해 c't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졌음.

날짜	출석여부	프로그램 내용	비 고
2015-3-10	-	개입 전 측정	
2015-4-7	○	사진액자만들기	
2015-4-14	○	양철통 화분만들기	
2015-4-21	○	휴지케이스 만들기1	
2015-4-28	○	휴지케이스 만들기2	
2015-5-12	○	가방만들기	

2015-5-19	○	코르크 메모판 만들기	
2015-5-26	○	파우치 주방장갑 만들기	
2015-6-2	○	파우치 주방장갑 만들기2	
2015-6-9	○	쟁반만들기	
2015-6-16	○	쟁반만들기2	
2015-6-23	○	핸드폰거치대 만들기	
2015-6-30	○	하트문걸이 만들기	
2015-7-7	○	스탠드만들기	
2015-7-14	○	스탠드만들기2	
2015-7-21	○	다용도천가방만들기	
2015-7-28	○	다용도 걸이 만들기	
2015-8-18	○	탁상거울 만들기	
2015-8-27	○	에코백 만들기	
2015-8-27	-	개입 후 측정	
2015-9-1	○	방향제 파우치 만들기	
2015-9-8	○	키걸이 거울 만들기 (1)	
2015-9-15	○	키걸이 거울 만들기 (2)	
2015-9-22	○	한손가방과 파우치 만들기	
2015-10-6	○	쿠션만들기	
2015-10-13	○	빗통만들기	
2015-10-20	○	빗통만들기(2)	
2015-10-27	○	시계만들기(1)	
2015-11-03	○	시계만들기(2)	
2015-11-10	○	도시락가방만들기	
2015-11-15	-	개입 후 측정	

2) 과정평가

- 당초 계획대로 주1회 이상 매주 화요일 14:00-15:30(1시간30분) 냅킨아트교실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음.
- 매주 수요일 14:00-15:30(1시간30분)은 초반에만 참여하고 중간에 종결하였음.

-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성실히 참여하였음.
- 중간 평가 결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음.
- c't가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성실히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음.

3) 종결평가

＊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사전, 사후검사는 이◯영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척도 점수를 총합하여 비교하였음. 결과는 [표1]과 같이 나타남.

구분	자아존중감 사전 측정 점수	사전대비 향상률
사전	42점	14.28%
사후	52점	

자아존중감 사전척도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0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0	
3	나는 가능하면 나의 많은 점들을 고치고 싶다.	0	
4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마음을 결정 할수 있다.	0	
5	다른사람들은 나와함께있으면 즐거워한다.		0
6	나는 집에서 쉽게 언짢아진다.		0
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0	
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9	우리가족은 나에게 지나치게 많이 기대한다.	0	
10	우리가족은 지나치게많은 것을 기대한다.		0
11	나는 매우 쉽게 포기한다.	0	
12	나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0	
13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0	
14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나의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	0	
15	나는 내자신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한다.		0
16	나는 집을 나가고 싶을때가 여러 번 있다.	0	
17	나는 내가 한일에 대해 가끔 언짢게 느낀다.	0	
18	나는 다른사람들보다 외보모가 훌륭하지 않다.	0	
19	내가 할말이 있다면 대체로 하는편이다.		0
20	우리가족은 나는 이해한다.		0
21	다른 사람들은 나보더 사랑받는다.		0
22	나는 종종 우리가족이 나을 밀어 붙이는 것처럼 느낀다.	0	
23	나는 가끔내가 하는 일에 대해 실망할때가 있다.		0
24	나는 괴롭히는 일들은 별로 없다.		0
25	나는 다른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		0

자아존중감 사후척도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0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0	
3	나는 가능하면 나의 많은 점들을 고치고 싶다.	0	
4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마음을 결정 할수 있다.	0	
5	다른사람들은 나와함께있으만 즐거워한다.		0
6	나는 집에서 쉽게 언짢아진다.		0
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0	
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0	
9	우리가족은 나에게 지나치게 많이 기대한다.	0	
10	우리가족은 지나치게많은 것을 기대한다.		0
11	나는 매우 쉽게 포기한다.		0
12	나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0
13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0
14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나의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	0	
15	나는 내자신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한다.		0
16	나는 집을 나가고 싶을때가 여러 번 있다.	0	
17	나는 내가 한일에 대해 가끔 언짢게 느낀다.	0	
18	나는 다른사람들보다 외보모가 훌륭하지 않다.	0	
19	내가 할말이 있다면 대체로 하는편이다.		0
20	우리가족은 나는 이해한다.		0
21	다른사사람들은 나보더 사랑받는다.		0
22	나는 종종 우리가족이 나응 밀어 붙이는 것처럼 느낀다.	0	
23	나는 가끔내가 하는 일에 대해 실망할때가 있다.		0
24	나는 괴롭히는 일들은 별로 없다.		0
25	나는 다른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		0

[표1]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측정결과 사전조사 10점의 차이로 점수 대비 14.28%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냄.

6. 결론 및 향후계획

(1) 결론 및 향후계획

C't는 냅킨아트교실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사전·사후검사를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의 척도 점수를 총합하여 비교하였더니, 측정결과 사전조사 42점에서 사후조사 결과 52점으로 10점 차이로 점수 대비 14.28%가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영씨는 처음 자녀양육에 쏟는 에너지가 많아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배우

고 싶으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권유로 냅킨아트교실을 신청하였고,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양육스트레스 감소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등 프로그램을 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측정결과 사전, 사후검사를 통해 여가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 및 홍보하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 하고자 합니다.

사례연구 15-26

노인무료급식 이용만족도 조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팀 명	지역연계팀
연구자	임종수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 2.5.~ 2015.11.19./ 18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사례연구의 개요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65세이상 수급 및 차상위)을 대상으로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용인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설환경, 직원서비스, 음식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65세이상 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였고 노인무료급식 이용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지혜(2011) 시설노인의 음식관련 생활만족도, 급식서비스 품질 인식 및 삶의 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중 질문지를 일부 인용하였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사용하는 질문지를 일부 인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거나 1:1 질문을 통해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산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면서 노인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좀 독특한 경우이다. 본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전신은 남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개관하면서 시행하던 노인무료급식을 2001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전환과 함께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어 장애인종합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노인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은 각종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기능적・심리적으로 불편함이 많고 확대해석하면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단순히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국한하면 이런 서비스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으로써 주서비스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다. 그중 하나가 노인무료급식사업에 맞는 만족척도이다. 단순히 노인무료급식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관련 서비스의 포괄적 만

족도 조사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고 노인무료급식에 국한하여 조사하기에는 노인의 특성 등 전문적지식이나 경험이 적어 정확한 조사를 실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조사를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만족도를 포함한 사업의 발전방향이 어지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을 중심으로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변수에 따라 만족도가 변화되는지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목적(연구가설 포함)

이번 연구의 목적은 노인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용인들의 무료급식 만족도 측정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을 제시한다.

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이용인 중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환경, 직원서비스, 제공음식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번연구의 최종목적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사례연구의 내용

1. 연구 대상

이 사례연구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나누어 드리고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시・청각의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은 1:1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2. 측정 도구

사례연구의 측정도구는 정지혜(2011) 시설노인의 음식관련 생활만족도, 급식서비스 품질 인식 및 삶의 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질문지 중 일

부문항을 인용하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사용하는 질문지를 일부 인용하고, 복지관 특성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구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복지관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표1] 측정도구 (설문지)

변수	항목	문항수	척도
시설	위생상태, 접근성, 편의시설	4	4점 척도
서비스	직원친절, 배식시간, 배식량	4	4점 척도
음식물	음식의 맛, 종류, 가짓수, 질	4	4점 척도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주거종류, 경제수준, 이용기간	6	명목척도

3. 설문 조사

설문조사는 10월 5일부터 10월 16까지 총 2주간 실시 하였다. 설문 조사 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내용의 일체는 사례연구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였으며, 설문조사지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 평가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빈도분석과 무료급식소 이용 문항의 빈도분석을 통한 기술 통계량과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자료 분석 및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부터 분석하였다. 총 응답대상자 48명 중 남자 17명(35.4%), 여자 31명(64.6%)으로 조사되어 여자의 비율이 29.2%p 높았다. 다음 연령별로는 최연소 만60세, 최고령 89세 등 평균연령은 73.5세로 무료급시고 이용인의 상당수가 70세 이상 고령임을 알 수 있다. 무료급식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한다. 다만 지자체가 특별히 부여한 대상자는 만65세 미만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우리복지관 대상자 중 4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사대상자의 여자비율이 좀 더 높은 이유는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OECD국가 중 47.2%로 가장 높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7.6세 여성은 84.4세로써 고령일수록 여성의 인구가 많아 노인무료급식 대상자의 수가 여자 많은 이유로 판단된다. 다음 학력별로는 무학 18명(37.5%), 초졸 24명(50.0%), 중졸 6명(12.5%)로 조사되어 대상자의 학력은 과반이상이 초졸이하였다. 다음 주거형태로는 임대 39명(81.3%), 전세 4명(8.3%), 월세 3명(6.3%), 자가 2명(4.2%)으로 주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 주거종류로는 아파트 39명(81.3%), 다세대주택 7명(14.6%), 단독주택 2명(4.2%)순으로 조사되어 국민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수였다. 다음 경제수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40명(83.3%)으로 대다수였고 차상위 8명(16.7%), 일반 비수급 대상자는 없었다. 서비스 이용기간으로는 평균 6.5년으로 1년부터~12년까지 다양하였다. 장기이용하는 대상자 중에는 처음시작시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이용 기간에 대한 내용은 근사치로 추정하여 조사하였다.

2. 무료급식 만족도 조사

다음 무료급식과 관련한 시설환경, 직원서비스, 제공음식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생상태는 청결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35명(72.9%), '그런편이다' 13명(27.1%)로 나타났다.

위생상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13	27.1	27.1	27.1
	매우그렇다	35	72.9	72.9	100.0
	전체	48	100.0	100.0	

<표-2>

접근은 편리합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은 '매우그렇다' 40명(83.3%), '별로 그렇지 않다' 6명(12.5%), '그런편이다' 2명(4.2%)순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사용과 식당의 협소함으로 가끔씩 건의사항을 표출하였던 결과가 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접근편리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별로그렇지 않다	6	12.5	12.5	12.5
	그런편이다	2	4.2	4.2	16.7
	매우그렇다	40	83.3	83.3	100.0
	전체	48	100.0	100.0	

<표-3>

편의시설은 적절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38명(79.2%), '그런편이다' 10명(20.8%)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의적절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10	20.8	20.8	20.8
	매우그렇다	38	79.2	79.2	100.0
	전체	48	100.0	100.0	

<표-4>

전반적인 시설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38명(79.2%), ‘그런편이다’ 10명(20.8%)로 나타났다.

전반적시설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10	20.8	20.8	20.8
	매우그렇다	38	79.2	79.2	100.0
	전체	48	100.0	100.0	

<표-5>

다음 무료급식과 관련한 시설환경, 직원서비스, 제공음식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결과 중 직원서비스와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원들은 친절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2명(87.5%), ‘그런편이다’ 6명(12.5%)로 나타났다.

직원친절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6	12.5	12.5	12.5
	매우그렇다	42	87.5	87.5	100.0
	전체	48	100.0	100.0	

<표-6>

다음은 직원들은 배식시간을 잘 지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3명(89.6%), ‘그런편이다’ 5명(10.4%)로 나타났다.

배식시간정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5	10.4	10.4	10.4
	매우그렇다	43	89.6	89.6	100.0
	전체	48	100.0	100.0	

<표-7>

다음은 음식 배식량은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4명(91.7%), ‘그런편이다’ 3명(6.4%)로 나타났다.

음식배식량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3	6.3	6.4	6.4
	매우그렇다	44	91.7	93.6	100.0
	전체	47	97.9	100.0	
결측	99	1	2.1		
전체		48	100.0		

<표-8>

다음은 전반적인 직원서비스는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2명(89.4%), '그런편이다' 5명(10.6%)로 나타났다.

전반적직원서비스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5	10.4	10.6	10.6
	매우그렇다	42	87.5	89.4	100.0
	전체	47	97.9	100.0	
결측	시스템	1	2.1		
전체		48	100.0		

<표-9>

다음 무료급식과 관련한 시설환경, 직원서비스, 제공음식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결과 중 제공음식과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의 맛은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2명(87.5%), '그런편이다' 5명(10.4%), '별로 그렇지 않다' 1명(2.1%)로 나타났다.

음식의맛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별로그렇지 않다	1	2.1	2.1	2.1
	그런편이다	5	10.4	10.4	12.5
	매우그렇다	42	87.5	87.5	100.0
	전체	48	100.0	100.0	

<표-9>

음식의 종류는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39명(81.3%), '그런편이다' 9명(18.8%)로 나타났다.

음식의종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9	18.8	18.8	18.8
	매우그렇다	39	81.3	81.3	100.0
	전체	48	100.0	100.0	

<표-10>

음식반찬의 수는 적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38명(79.2%), ‘그런편이다’ 10명(20.8%)로 나타났다.

음식반찬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10	20.8	20.8	20.8
	매우그렇다	38	79.2	79.2	100.0
	전체	48	100.0	100.0	

<표-11>

마지막 문항으로 전반적인 음식의 질은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0명(83.3%), ‘그런편이다’ 8명(16.7%)로 나타났다.

전반적인음식의질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그런편이다	8	16.7	16.7	16.7
	매우그렇다	40	83.3	83.3	100.0
	전체	48	100.0	100.0	

<표-11>

3. 문항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시설환경, 직원서비스, 제공음식과 관련한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먼저 문항별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χ^2 =304,452 로 나타났고, 만족도 항목 11개의 요인분석은 KMO값 .757>0.5 보다 크고, 유의확률 P<0.5 작으므로 요인분석이 충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5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04.352
	자유도	66
	유의확률	.000

<표-12>

충족한 결과에 따라 요인별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 총분산표가 분석 되었다.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4.923	41.024	41.024	4.923	41.024	41.024	4.464	37.196	37.196
2	1.739	14.490	55.513	1.739	14.490	55.513	1.670	13.918	51.114
3	1.255	10.458	65.971	1.255	10.458	65.971	1.523	12.689	63.803
4	1.053	8.779	74.750	1.053	8.779	74.750	1.314	10.947	74.750
5	.854	7.114	81.864						
6	.643	5.360	87.224						
7	.544	4.533	91.757						
8	.346	2.881	94.638						
9	.289	2.404	97.042						
10	.160	1.334	98.376						
11	.100	.834	99.210						
12	.095	.790	100.0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13>

적재값이 >0.4보다 큰 요인별로 성분행렬의 분석결과는 표 <표-14>와 같다.

회전된 성분행렬[a]

	성분			
	1	2	3	4
음식의종류	.931	.015	.068	.185
전반적직원서비스만족도	.844	.182	.076	.095
음식반찬수	.826	.152	-.023	.151
전반적시설만족도	.817	.102	.061	.026
전반적인음식의질만족도	.791	-.093	-.051	.099
음식의맛	.604	.315	.205	.430
음식배식량	.601	.285	-.131	-.465
직원친절도	.053	.898	-.045	-.163
배식시간정확도	.186	.772	.316	.287
위생상태	-.166	.040	.828	-.169
접근편리성	.231	.102	.805	.127
편의시설의적절성	.254	.021	-.103	.826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14>

편의시설의 적절성 문항과 상관관계가 큰 문항은 없으므로 이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인별 문항으로 신뢰도값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분				신뢰도
	제공음식	직원 서비스	시설환경		
음식의종류	.931	.015	.068	.185	.900
전반적직원서비스만족도	.844	.182	.076	.095	
음식반찬수	.826	.152	-.023	.151	
전반적시설만족도	.817	.102	.061	.026	
전반적인음식의질만족도	.791	-.093	-.051	.099	
음식의맛	.604	.315	.205	.430	
음식배식량	.601	.285	-.131	-.465	
직원친절도	.053	.898	-.045	-.163	.686
배식시간정확도	.186	.772	.316	.287	
위생상태	-.166	.040	.828	-.169	.603
접근편리성	.231	.102	.805	.127	
편의시설의적절성	.254	.021	-.103	.826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15>

요인1은 제공음식과 관련된 요인이고 요인2는 직원서비스와 관련된 요인, 요인3은 시설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공음식과 직원서비스, 시설환경은 적재값이 ±0.4보다 커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알파값 역시 α >0.6보다 크므로 신뢰할 수준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하였다. 기존 중간보고서 가설은 연령에 따른 만족도 차이도 함께 분석하려 하였으나, 무료급식 대상자의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판단 하에 삭제하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남녀 두집단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6>과 같다.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위생상태	등분산을 가정함	.265	.609	-.263	46	.793	-.036	.13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59	31.541	.797	-.036	.139
접근편리성	등분산을 가정함	114.898	.000	-3.455	46	.001	-.641	.18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638	17.136	.017	-.641	.243
편의시설의 적절성	등분산을 가정함	4.190	.046	-1.074	46	.288	-.133	.12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005	27.295	.324	-.133	.132
직원친절도	등분산을 가정함	2.423	.126	-.787	46	.435	-.080	.10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728	26.459	.473	-.080	.110
배식시간정확도	등분산을 가정함	5.945	.019	-1.207	46	.233	-.112	.09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063	23.264	.299	-.112	.105
음식배식량	등분산을 가정함	5.341	.025	-1.127	45	.266	-.084	.07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67	21.600	.344	-.084	.087
음식의맛	등분산을 가정함	.800	.376	-.378	46	.707	-.047	.12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34	23.474	.741	-.047	.142
음식의종류	등분산을 가정함	1.448	.235	-.618	46	.540	-.074	.12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590	28.923	.560	-.074	.126
음식반찬수	등분산을 가정함	.429	.516	-.334	46	.740	-.042	.12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25	30.723	.747	-.042	.128

<표-16>

설문지 문항 중 접근편리성에 유의확률값이 다른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t(*t-value*)절대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연령별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Ⅲ. 사례연구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해석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부터 요약하면 성별은 남자 17명(35.4%), 여자 31명(64.6%)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최연소 만60세, 최고령 89세 등 평균연령은 73.5세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무학 18명(37.5%), 초졸 24명(50.0%), 중졸 6명(12.5%)로 조사되어 대상자의 학력은 과반이상이 초졸 이하였다.

주거형태로는 임대 39명(81.3%), 전세 4명(8.3%), 월세 3명(6.3%), 자가 2명(4.2%)으로 주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거종류로는 아파트 39명(81.3%), 다세대주택 7명(14.6%), 단독주택 2명(4.2%)순으로 조사되어 국민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수였다.

경제수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40명(83.3%)으로 대다수였고 차상위 8명(16.7%), 일반 비수급 대상자는 없었다.

서비스 이용기간으로는 평균 6.5년으로 1년부터~12년까지 다양하였다.

나. 만족도 조사 결과

위생 상태는 청결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5명(72.9%), '그런 편이다' 13명(27.1%)로 나타났다.

접근은 편리합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은 '매우 그렇다' 40명(83.3%), '별로 그렇지 않다' 6명(12.5%), '그런 편이다' 2명(4.2%)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은 적절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8명(79.2%), '그런 편이다' 10명(20.8%)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시설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8명(79.2%), ‘그런 편이다’ 10명(20.8%)로 나타났다.

먼저 직원들은 친절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2명(87.5%), ‘그런 편이다’ 6명(12.5%)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배식시간을 잘 지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3명(89.6%), ‘그런 편이다’ 5명(10.4%)로 나타났다.

음식 배식량은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4명(91.7%), ‘그런 편이다’ 3명(6.4%)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직원서비스는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2명(89.4%), ‘그런 편이다’ 5명(10.6%)로 나타났다.

음식의 맛은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2명(87.5%), ‘그런 편이다’ 5명(10.4%), ‘별로 그렇지 않다’ 1명(2.1%)로 나타났다.

음식의 종류는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9명(81.3%), ‘그런 편이다’ 9명(18.8%)로 나타났다.

음식반찬의 수는 적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38명(79.2%), ‘그런편이다’ 10명(20.8%)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음식의 질은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그렇다’ 40명(83.3%), ‘그런 편이다’ 8명(16.7%)로 나타났다.

다.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이 타당한지 검증하여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항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χ^2 =304,452 로 나타났고, 만족도 항목 11개의 요인분석은 KMO값 .757>0.5 보다 크고, 유의확률 P<0.5 작으므로 요인분석이 충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충족한 결과에 따라 요인별 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 총분산표가 분석 되었고 적재값이 >0.4보다 큰 요인별로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문항별로 요인1, 요인2, 요인3을 각각 제공음식, 직원서비스, 시설환경으로 그룹을 지었다. 그룹별 신뢰도 분석결과는 알파값이 α >0.6보다 크므로 신뢰할 수준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남녀 집단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표에 의해 설문지 문항 중 접근편리성에 유의확률값이 다른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t(*t-value*)절대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연령별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이용인 중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2. 연구 한계점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문맹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문장을 읽어 드리고 답을 대신 표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만, 담당자와 1:1 대면 설문조사 시 무료급식 담당자가 읽어주는 문장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인 답변이나 담당자의 기분을 파악하여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 재차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하였지만, 조사 신뢰도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적은수의 표본으로 인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특수한 상황으로써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일반화시키에는 어렵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순수 무료급식 서비스만 이용하는 대상자로 하기에는 그 표본이 더 욱 적어 등록장애인으로써 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료급식대상자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복지관의 서비스를 생각하여 응답하였을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한계점은 좋은 연구를 위해 좋은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설문조사는 연구에 필요한 정확한 설문지와 설문조사자의 능력과 조사환경이 절대적으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설문지 제작시점부터 무엇을 정확하게 물어야하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각종 오류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 능력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연구에 대한 학습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업무중에 이런 작은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던 기관에 감사드리며 조사에 응해준 응답자 어르신분들과 팀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2.	설문지ID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무료급식 이용만족도 조사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 이용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료급식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일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

※ 본 조사에 대한 문의는 지역연계팀(☎032-472-4003)으로 해 주세요.

▣ 이용인의 일반적 사항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1. 이용인의 성별	①남자 ②여자
2. 이용인의 연령	_____세
3. 학력	①무학 ②초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졸 이상
3. 주거형태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 ④임대 ⑤기타( )
4. 주거종류	①아파트 ②연립주택 ③단독주택 ④다세대주택 ⑤기타
5. 경제수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비수급자(일반)
6. 서비스 이용기간	_____년

▣ 무료급식 시설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3. 7. 무료급식소 위생상태는 청결합니까?				
8. 무료급식소 접근은 편리합니까?				
9. 무료급식소 편의시설은 적절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10. 무료급식소의 전반적인 시설은 만족하십니까?				

▣ 무료급식 직원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11. 무료급식소 직원들은 친절합니까?				
12. 무료급식소 직원들은 배식시간을 잘 지킵니까?				
13. 무료급식소 직원들의 음식 배식량은 적절합니까?				
14. 무료급식소 전반적인 직원서비스는 만족하십니까?				

▣ 무료급식 음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무료급식소 음식의 맛은 좋습니까?				
16. 무료급식소 음식의 종류는 적절합니까?				
17. 무료급식소 음식반찬의 수는 적당합니까?				
18. 무료급식소의 전반적인 음식의 질은 만족하십니까?				

사례연구 15-2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6차 산업 중심으로

팀 명	직업지원팀
연구자	강명진
연구기간	2015. 03 . 01 ~ 08 . 31 / 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가 직업이므로 장애인도 다른 구성원들과 같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직업재활을 경제적 압박감이나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굴욕감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아울러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장애를 갖고 성장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환경의 박탈이나 충분한 기회 또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적응기술들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직업세계에서 부족한 적응기술은 개인의 삶 전반에 커다른 영향을 미친다(박희찬, 2001), 이는 장애인에게 직업획득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의미이다.

인천지역에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기관이 총91개소 있으며, 그 구성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을 지원하는 기관은 인천 내에서 겨우 2개 기관에 불과하다. 직업재활과 관련된 실천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부재로 직업과 관련된 재활의지 및 욕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병리적, 의료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의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과 지식, 기술을 요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정신보건 영역으로 특수화되어 있는 상황 또한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역시 스트레스 해소, 상황 해석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역에서 취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등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개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렇듯 정신보건 전문가들과 직업재활 전문가들은 상호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신보건기관의 경우 인력과 공간의 부족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론적, 경험적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농업훈련프로그램의 일부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확대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정신장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특성이 지적장애인과 유사하게 나타남

으로써 직업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지원팀의 강점을 발휘하여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①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

정신장애란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조건(기질성 뇌증후군, 조현병, 반복적 우울증, 조울증, 망상장애, 기타 정신병)으로 인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장애는 질병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기타의 사회적인 기능의 파손까지 포함하여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문인숙&양옥경, 1991).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신장애의 증상인 정신병의 증상, 무감동, 철수, 인지적 장애와 취업을 위한 학습이나 경험부족, 의사결정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직업을 선택하여 현실적인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정신장애의 발병시기가 대체적으로 직업을 갖는 시기와 비슷하여 다양한 구직기술습득 및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병의 경과에 따른 주의력, 집중력, 인지기능의 악화로 인해 구직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한다.

셋째, 직장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더라도 작업수행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유지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언어, 행동, 의존성, 문제해결의 부족,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능력, 증상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 등으로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김효정, 2004).

따라서 직업재활 과정 전반을 통해 취업 시도 및 유지에 필요한 적응기술(자기관리기술, 도구사용기술, 대인관계 기술, 작업기술 등)을 익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로 반복적인 훈련과 습득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홍성진, 2005).

②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

이금진(2000, 재인용)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만성정신질환의 치료결과이면서 동시에 치료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며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신장애인에게 일은 동기, 자기확신, 구조적 활동, 관계성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일은 포괄적인 정신과적 치료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실제적 성취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M.D. Bell, P.H. Lyesaker & R.M. Milstein, 1996). 일은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향진시켜 너무 쉽게 ‘환자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혹은 타인이 성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직업적인 성공과 직업에 대한 만족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

둘째, 증상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정신장애인이 일을 한 경우 재 입원률이 낮고 일에 대한 참여가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을 받는 일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재 입원률이 낮았다. 그리고 임금을 받는 경우가 양성증상의 감소가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M.D. Bell, P.H. Lyesaker & R.M. Milstein, 1996).

셋째, 정신장애인의 총체적 기술의 척도가 된다. 일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게 광범위한 기술의획득과 활용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기술 직업기술 대처기술과 증상관리 기술 등이다(R.P. Liberman, 1998). 이런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재활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의 주류(mainstream)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의 지표가 된다(R.P. Liberman, 1998). 직업이란 그 개인이 지역사회내의 생산적인 구성원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기여자로 역할로 바꿀 수 있으며(이상, 1998),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독립체로서 주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재활은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활과 치료에 기여하는 면을 가질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목적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취약영역으로 판단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을 강화하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직종 위주의 보호작업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에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차산업을 바탕으로 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6차산업 프로그램과 정신장애인과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향후 정신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한다.

2. 사례연구 목표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한다.
2)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3)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자문 등 정신보건관련 기관과 연계활동을 진행한다.

4)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6차 산업 중심)의 만족도조사 및 적합성에 관해 분석한다.

3. 사례연구 개요

1) 사업명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6차 산업 중심으로

2) 대상 :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있으며, 독립적 이동이 가능한 정신장애인, 신체기능에 제한이 없으며 지시이해 및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3) 기간 : 2015. 01. 01 ~ 2013. 8. 31

4) 진행일정

구분	시기	내용
현황조사	1월	인천지역 정신보건기관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조사
프로그램 준비	2월	프로그램 구성, 대상자 모집
진행	3월~11월	프로그램 진행
	7월	대상자 만족도 중간점검
분석	12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적합성 분석

5) 프로그램 목적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6차 산업과 관련된 직무에서 요구되는 재배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체험에 활용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향상한다.

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토룡이 사육,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 기술을 교육한다.

③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체험 안내 보조자 역할을 교육한다.

④ 3차 직종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이미지메이킹을 실시한다.

⑤ 외부 체험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한다.

6) 프로그램 내용

사회복귀시설의 클럽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한편, 본관의 직업지원팀 직원들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사회복귀시설 담당자가 프로그램 진행시 동행하기로 함.

내용 및 방법	- 작업 전, 중으로 올바른 작업태도 및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도 - 연중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기술 및 지식 교육 - ppt 및 관련서적을 통한 이론교육

	– 토룡이 사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직무기술 습득 훈련 – 체험 직무체험보조를 통한 서비스 훈련 –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취업 준비 훈련

Ⅳ. 연구결과

1. 진행내용

시 기	내 용 및 진행사항	비 고
1/9	‣ 사업설명 및 현황조사 대상자 모집, 업무연계의 용이함을 도모하기 위해 본관 부설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업무 협조를 구하였음.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인천 지역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농장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기관 내 클럽활동 중 환경부의 연간 사업으로 포함시켜 참여자를 함께 모집하기로 함.	
1/13	‣ 참여욕구조사 – 정신장애인 회원들에게 클럽활동 환경부에서 금년 진행하게 될 활동(토룡이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 희망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총 4명의 참여 장애인이 신청하였음.	
3/3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실시 프로그램 참여자인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토룡이사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음. 사업의 목적, 목표, 토룡이에 대한 교육, 사육장 라운딩을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함.	
3/24	‣ 직업훈련 – 직업준비교육(이미지메이킹)	
4/7	‣ 직업훈련 – 직업준비교육(이미지메이킹)	
4/21	‣ 직업훈련 – 토룡이 이론교육	
5/12	‣ 직업훈련 – 토룡이 이론교육	
5/26	‣ 직업훈련 – 직업준비교육(이미지메이킹)	
6/9	‣ 직업훈련 – 토룡이 이론교육	
6/23	‣ 직업훈련 – 직업준비교육(이미지메이킹)	
7/7	‣ 직업훈련 – 토룡이 사육 실습	
7/16	‣ 실무자 업무협의 – 사례공유 회의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회원 개개인의 특징과 개입시 유념할 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회의를 실시함.	
7/21	‣ 직업훈련 - 직업준비교육(이미지메이킹)	
8/4	‣ 실무자 업무협의 - 프로그램 중간점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실무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 점검하고 회원들에 대한 개입방향을 중간 점검 함. 사회복귀시설 내에서는 상반기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회원들 자체적으로 토룡이마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 결정하였음. 회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연결에 대해 공지할 경우 지레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차라리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차주 중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루터기 담당자들이 판단하기에 토룡이마을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규이용인이 있어 추천해 주기로 하였음. 또한 사례관리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변화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루터기 담당자와 본팀 사업담당자가 프로그램 이후에 참여자들에 대해 개별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8/10	‣ 중간점검 및 개별면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중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소감을 묻고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함.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직업준비교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음. 토룡이마을 프로그램이 향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된다는 부분을 알리고 ‘근로’와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참여자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음.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프로그램은 토룡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하기로 함.	
8/11	‣ 직업훈련 - 직업준비교육(포장기술 훈련)	
8/25	‣ 직업훈련 - 토룡이 사육 실습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이전에 비해 집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9/1	‣ 직업훈련 - 토룡이 관리 실습	
9/15	‣ 직업훈련 - 토룡이 관리 이론 교육	
10/5	‣ 직업훈련 - 토룡이 특강 1회차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토룡이 관련 이론 특강을 실시함.	
10/6	‣ 직업훈련 - 포장기술 특강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포장 기술과 관련된 특강을 실시함.	

10/12	‣ 직업훈련 - 토룡이 특강 2회차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토룡이 관련 이론 특강을 실시함.	
10/19	‣ 직업훈련 - 토룡이 특강 3회차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토룡이 관련 이론 특강을 실시함.	
10/26	‣ 직업훈련 - 토룡이 특강 4회차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토룡이 관련 이론 특강을 실시함.	
11/3	‣ 직업훈련 - 토룡이 관리 실습	

Ⅴ. 결론 및 제언

본 사례연구는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는 본 기관의 취약영역으로 판단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을 강화하며,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직종 위주의 보호작업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에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차산업을 바탕으로 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변화 사항을 관찰 기록하여 정신장애인과의 프로그램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직업재활욕구가 없는 참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종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에서 직업동기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룡이의 습성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직종의 특성상 지적 능력의 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 정신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에 비해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더불어 고령의 정신장애인들은 취업 현장에서 나이로 인한 제약을 받기 쉬우며, 직업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으나 본 직종의 경우 생산성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일반고용이 아닌 정부지원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일반고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직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직종의 일반화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은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제약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 및 일자리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정신장애인들로 하여금 직업생활에 대해 경험하고 일반고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례연구 15-28

해맑음땀방울농장 프로그램이 성인지적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직업지원팀
연구자	김정혁 사회복지사
연구기간	2015.3.3.~ 2015.10.30. / 총 27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환경의 개선,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취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장애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며 장애인 자신의 자존감을 고취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직업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생계수단이라는 의미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아실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나운환, 2003).

최근 20여 년 사이, 우리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개정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과시키는 등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국내 장애관련 고용정책은 경증장애인만을 주요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특성상 국가적인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과 같은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 되어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직업적 중증인 성인지적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독립을 돕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연구가설 포함)

본 연구는 해맑음땀방울농장 프로그램이 성인지적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에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가. 지적장애

지적장애(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달 장애 상태로, 지적,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지적장애 자체가 질병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기준인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Fourth Edition: DSM-IV)에 따르면 정신지체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인 기능이 뚜렷이 평균 이하이다. 개인적으로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대략 70이하의 소견을 보인다.(유아인 경우에는 임상적인 소견에 의하여 평균 이하의 지적인 기능상태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이다)
2) 다음 항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항목에서 현재의 적응 기능(예: 개인의 연령이나 문화 집단에서 기대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개인의 효율성)결함이나 장해를 동반한다: 의사소통, 자기-돌봄,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적 기술, 지역 사회 자원의 활용, 자기-관리, 기능적 학업 기술, 직업, 여가, 건강 및 안전.
3)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지적 기능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

-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지능지수 50~55에서 약 70까지
-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지능지수 35~40에서 50~55까지
-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지능지수 20~25에서 35~40까지
- 아주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 지능 지수 20 또는 25이하
- 정도를 세분할 수 없는 정신지체: 정신지체라는 강한 심증은 있지만, 표준화 검사에 의해 지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나. 원예치료

식물이나 식물을 통한 원예활동에 의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원예치료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원예에 대한 관심도와 적용분야에 따라 원예치료의 수용정도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날 원예치료는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의 개요

‘해맑음땀방울농장’ 은 본관 직업지원팀 사업으로 도심근교농업을 통하여 성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적응력 향상 및 직장생활 적응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재배기술훈련, 판매훈련, 작물파종 관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대상은 성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초기평가 이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선정함. 사업기간 및 이용기간은 2015년으로 하되 다음 년도 신청을 통하여 이용자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용함.

2. 연구일정

구분	시기	내용
1회	4월	사전 상황평가, 영농수행평가 작성
2회	4-8월	프로그램 진행
3회	8월	중간평가
4회	9-10월	프로그램 진행
5회	10월	사후 상황평가, 영농수행평가 작성, 최종평가

3. 자료수집 방법

① 사전, 사후 상황평가지를 작성한다.
② 사전, 사후 영농수행평가

4. 자료분석 방법

① 상황평가를 통해 직업기능 향상 수준을 측정한다.
② 영농수행평가를 통해 직업기능 향상 수준을 측정한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농장전담반)

연번	성명	성별	장애유형	등급	분류
1	김*수	남	지적장애	2	중증
2	진*혜	여	지적장애	2	중증
3	전*식	남	지적장애	3	중증

2. 프로그램 일정

구분	시기	내용
1회	4월	쌈채소 수확 및 판매, 감자파종, 작물모종정식, 다육식물관리
2회	5월	쌈채소 수확 및 판매, 감자파종, 작물모종정식, 다육식물관리
3회	6월	쌈채소 수확 및 판매, 작물모종정식, 작물관리, 다육식물관리
4회	7월	쌈채소, 방울토마토 수확 및 판매, 다육식물관리
5회	8월	쌈채소, 방울토마토, 감자 수확 및 판매, 배추모종정식,
6회	9월	쌈채소 수확 및 판매, 배추모종정식, 다육식물관리
7회	10월	쌈채소 수확 및 판매, 쌈채소 모종정식, 다육식물관리

3. 사전 상황평가 및 사후 상황평가

1) 사전 상황평가

상 황 평 가 지					
성 명	김*수	생년월일	1986년 11월 11일	장애유형 및 등급	지적장애(2급)
평 가 일 시	2015년 04월 06일 (09:00~10:00)			평가사 : 김정혁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4	⑤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5
1	2	3	④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4
1	2	3	④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4
1	2	3	④	5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4
1	2	③	4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3
1	2	③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3
1	2	③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3
1	2	③	4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3
1	2	3	④	5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4

총점 38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③	4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3
1	2	③	4	5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3
1	2	3	④	5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4
1	2	③	4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3
1	2	3	④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4
1	2	③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4
1	2	③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3
1	2	3	④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4
1	2	③	4	5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3
1	2	3	④	5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4
1	2	③	4	5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3	④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4
1	2	3	④	5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4
1	2	3	④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③	4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3
1	2	3	④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4
1	2	3	④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4

총점 64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1	2	③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3
1	2	③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3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1	2	3	④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4
1	2	③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3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4	⑤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5
1	2	3	④	5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4
1	2	③	4	5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3
1	2	3	④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4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③	4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1	2	③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1	②	3	4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2
1	2	③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3

총점 64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4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3	④	5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4
1	2	③	4	5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3
1	2	3	④	5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3
1	2	3	④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1	2	3	4	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
1	②	3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2

총점 44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
일상생활기능	10	50	38	76%
직업기능	18	90	64	71%
직무관련기능	18	90	64	71%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44	73%
계	58	290	210	72%

상 황 평 가 지

성 명	진*혜	생년월일	1990년 01월 17일	장애유형 및 등급	지적장애(2급)
평 가 일 시	2015년 04월 06일 (09:00~10:00)			평가사 : 김정혁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③	4	5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3
1	②	3	4	5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2
1	2	③	4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3
1	2	③	4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3
1	②	3	4	5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2
1	2	③	4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3

1	②	3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2
1	②	3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2
1	2	③	4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3
1	②	3	4	5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2

총점 25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②	3	4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2
1	2	③	4	5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3
1	2	3	④	5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4
1	②	3	4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2
1	②	3	4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2
1	2	③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3
①	2	3	4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1
1	②	3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2
1	②	3	4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2
1	2	③	4	5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3
1	2	③	4	5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3
1	②	3	4	5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2
①	2	3	4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1
1	②	3	4	5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2
1	②	3	4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2
1	2	③	4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3
1	②	3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2
1	②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2

총점 41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②	3	4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2
1	②	3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2
1	②	3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2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1	2	③	4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②	3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2
①	2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1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3	4	⑤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5
1	2	③	4	5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3
1	②	3	4	5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2
1	②	3	4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2
1	2	③	4	5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①	2	3	4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1

					안정적으로 옮긴다.	
①	2	3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1
1	②	3	4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2
1	②	3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2

총점 42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4
1	②	3	4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2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3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②	3	4	5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2
1	②	3	4	5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2
1	2	3	④	5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1	②	3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2
1	2	③	4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1	②	3	4	5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
1	2	③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3

총점 34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일상생활기능	10	50	25	50%
직업기능	18	90	41	46%
직무관련기능	18	90	42	47%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34	57%
계	58	290	142	49%

상 황 평 가 지

성 명	전*식	생년월일	1996년 06월 10일	장애유형 및 등급	지적장애(3급)
평 가 일 시	2015년 04월 06일 (09:00~10:00)			평가사 : 김정혁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4
1	②	3	4	5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2
1	2	③	4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3
1	2	③	4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3
1	2	③	4	5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3
1	2	③	4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3
1	②	3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2
1	②	3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2
①	2	3	4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1
1	②	3	4	5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2

총점 25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②	3	4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2
1	2	③	4	5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3
1	2	3	④	5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4
1	②	3	4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2
1	②	3	4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2
1	2	③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3
①	2	3	4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1
1	②	3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2
1	②	3	4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2
1	2	③	4	5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3
1	2	③	4	5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3
1	②	3	4	5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2
①	2	3	4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1
1	②	3	4	5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2
1	2	③	4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3
1	②	3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2
1	②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2

총점 42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②	3	4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2
1	②	3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2
1	②	3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2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1	2	③	4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②	3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2
①	2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1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5
1	2	③	4	5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3
1	②	3	4	5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2
1	2	③	4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3
1	2	③	4	5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3
①	2	3	4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1
①	2	3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1
1	2	③	4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3
1	②	3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2

총점 45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4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3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3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③	4	5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3
1	②	3	4	5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2
1	2	3	④	5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3
1	2	③	4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1	2	③	4	5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
1	②	3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2

총점 37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
일상생활기능	10	50	25	50%
직업기능	18	90	42	47%
직무관련기능	18	90	45	50%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37	62%
계	58	290	149	51%

2) 사후 상황평가

상 황 평 가 지

성 명	김*수	생년월일	1986년 11월 11일	장애유형 및 등급	지적장애(2급)
평 가 일 시	2015년 10월 28일 (09:00~10:00)			평가사 : 김정혁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4	⑤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5
1	2	3	4	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5
1	2	3	4	⑤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5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3	4	⑤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5
1	2	3	4	⑤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5
1	2	3	4	⑤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5
1	2	3	4	⑤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5
1	2	3	4	⑤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5

총점 | 50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4	⑤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5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3	4	⑤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5
1	2	3	4	⑤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5
1	2	3	4	⑤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5
1	2	3	4	⑤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5
1	2	3	4	⑤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5
1	2	3	4	⑤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5
1	2	3	4	⑤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5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4

					한다.	
1	2	3	4	⑤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5
1	2	3	④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4	⑤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5
1	2	3	④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4
1	2	3	④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4

총점 | 86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5
1	2	3	4	⑤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5
1	2	3	4	⑤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5
1	2	3	④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4
1	2	3	4	⑤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4
1	2	3	4	⑤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4	⑤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4	⑤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5
1	2	3	4	⑤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4	⑤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5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4	⑤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4	⑤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④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4
1	2	3	④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4

총점 | 85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4	⑤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5
1	2	3	4	⑤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5
1	2	3	4	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5
1	2	3	4	⑤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3
1	2	3	④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1	2	3	4	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
1	2	③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3

총점 | 51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일상생활기능	10	50	50	100%
직업기능	18	90	86	96%
직무관련기능	18	90	85	94%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51	85%
계	58	290	272	94%

상 황 평 가 지

성 명	진*혜	생년월일	1990년 1월 17일	장애유형 및 등급	지적장애(2급)
평 가 일 시	2015년 10월 28일 (09:00~10:00)			평가사 : 김정혁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4
1	2	3	4	⑤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5
1	2	③	4	5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3
1	2	3	④	5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4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3	④	5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4
1	2	③	4	5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3
1	②	3	4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2
1	2	③	4	5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3

총점 | 36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4
1	2	3	4	⑤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5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③	4	5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3
1	2	3	④	5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4
1	2	③	4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3
1	②	3	4	5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2
①	2	3	4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1
①	2	3	4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1
1	②	3	4	5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2
1	2	③	4	5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3
1	2	③	4	5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②	3	4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2
1	2	③	4	5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3
1	②	3	4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2
1	2	3	④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4
1	2	③	4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3
1	②	3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2

총점 | 52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③	4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3
1	②	3	4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2
1	②	3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2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1	2	③	4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②	3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2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3
1	2	3	④	5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4
1	2	3	④	5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4
1	2	③	4	5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3
1	2	③	4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3
1	2	3	④	5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4
1	②	3	4	5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2
①	2	3	4	5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1
1	2	③	4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3
1	②	3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2

총점 | 50 |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4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3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②	3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2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③	4	5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3
1	2	3	④	5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4
1	2	3	④	5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1	②	3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2
1	2	③	4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1	2	3	④	5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
1	2	③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3

총점 | 40 |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일상생활기능	10	50	36	72%
직업기능	18	90	52	58%
직무관련기능	18	90	50	56%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40	67%
계	58	290	178	61%

상 황 평 가 지

성 명	전*식	생년월일	1996년 6월 10일	장애유형 및 등급	지적장애(3급)
평 가 일 시	2015년 10월 28일 (09:00~10:00)			평가사 : 김정혁	

평가기준 *1-매우 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1. 일상생활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용변 처리가 가능하다.	5
1	2	3	4	⑤	식사량을 조절하여 먹는다.	5
1	2	3	4	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5
1	2	3	4	⑤	적절한 몸치장 등 단정함을 유지한다.	5
1	2	3	4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5
1	2	3	4	⑤	개인위생을 청결히 유지한다.	5
1	2	3	4	⑤	생필품이나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5
1	2	3	④	5	화폐 단위를 알고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4
1	2	3	4	⑤	최소한의 가사활동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4

총점 | 48

2. 직업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간을 지킨다.	5
1	2	3	④	5	이용을 못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4
1	2	3	4	⑤	지각이나 결석, 조퇴 없이 출석을 유지한다.	5
1	2	3	4	⑤	작업수행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5
1	2	3	4	⑤	작업복을 자발적으로 갈아입는다.	5
1	2	3	④	5	새로운 작업에 관심을 보인다.	4
1	2	3	4	⑤	주위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5
1	2	3	④	5	필요 시 동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협조적이다.	4
1	2	3	④	5	그룹작업 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4
1	2	3	4	⑤	작업 및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킨다.	5
1	2	3	4	⑤	작업 중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고 따른다.	5
1	2	3	4	⑤	휴식시간 후 작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5
1	2	3	④	5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4
1	2	3	④	5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킨다.	4
1	2	3	④	5	특별한 격려 없이도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한다.	4
1	2	3	④	5	작업종료 시 도구 및 물품을 정리정돈한다.	4
1	2	③	4	5	자기가 맡은 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한다.	3

총점 | 79

3. 직무관련 기능

점수					항목	비고
1	2	3	④	5	지시할 경우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1	2	3	④	5	스스로 도구나 재료를 갖추고 작업을 준비한다.	4
1	2	③	4	5	공구를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한다.(전동드릴, 기계조작 등)	3
1	2	③	4	5	작업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한다.	3
1	2	3	④	5	말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4
1	2	③	4	5	문서로 지시한 방법대로 일을 수행한다.	3
1	2	③	4	5	전에 배웠던 기술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한다.	3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형태나 크기를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부품 조립 시 색을 구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4

1	2	3	④	5	50미만의 물건 수량을 셀 수 있다.	4
1	2	③	4	5	앉아서 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3
1	2	3	4	⑤	서서하는 작업을 1시간 이상 수행한다.	5
1	2	3	④	5	작업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로 물건을 이동시킨다.	4
1	2	3	4	⑤	가벼운 물건(1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4	⑤	보통 무게의 물건(10kg 이상 ~ 20kg 미만)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3	4	⑤	무거운 물건(20kg 이상)을 안정적으로 옮긴다.	5
1	2	③	4	5	불량품 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3
1	2	③	4	5	라인 작업대의 속도에 맞춰 작업을 수행한다.	3

총점 | 69

4. 직업관련 사회행동

점수					항목	비고
1	2	3	4	⑤	프로그램 시작, 종료 시 동료 및 담당자와 인사를 나눈다.	5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3	④	5	작업장에서 담당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4
1	2	③	4	5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3
1	2	3	④	5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4
1	2	3	④	5	작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킨다.	4
1	2	3	④	5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한다.	4
1	2	3	4	⑤	저속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1	2	③	4	5	작업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한다.	3
1	2	③	4	5	필요한 경우 동료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1	2	3	4	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
1	②	3	4	5	방문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	2

총점 | 46

■ 평가결과

평가영역	문항수	총점	획득점수	수행률(%)
일상생활기능	10	50	48	96%

직업기능	18	90	79	88%
직무관련기능	18	90	69	77%
직업관련 사회행동	12	60	46	77%
계	58	290	242	83%

4. 사전・사후 영농작업수행평가

수 행 평 가 척 도		영 농 작 업 수 행 도 검 사	
5	도움 없이 스스로 한다.		
4	혼자 할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3	언어적 지시로 가능하다.		
2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성 명	김*수
1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2015.04.09	2015.10.29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자 : 김정혁	평가자 : 김정혁
직업인식	신상 정보에 대해 알고 말할 수 있다.	5	5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4	5
	급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4	4
	자발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4	4
	지시에 따른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다.	4	4
	동료와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3	4
	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3	4
	작업 수행에 적합한 복장을 갖출 수 있다.	4	5
	농장에 관심이 많다	2	3
	바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	4	5
	작업 및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	3	4
	작업 및 쉬는 시간을 준수한다.	3	4
	작업 후 위생관리 및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	3	4
수 행 율		46 / 70.77%	55 / 84.62%
재배기술	재배 작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3	3
	재배 작물에 대한 습성 및 생육(계절별 관리)에 대해 안다.	3	4
	이랑과 고랑(두둑)에 대해서 안다.	4	4
	온도와 습도에 대한 이해 및 조절이 가능하다.	2	3
	작물에 적당량의 물을 줄 수 있다.	3	3
	적절한 일조량을 유지할 수 있다.	2	3
	먹이 및 거름(영양제 등)을 줄 수 있다.	3	3
	작물에 적합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3	3
	분갈이를 할 수 있다.	2	3
	분변토 채집을 할 수 있다.	3	3
	작물을 일정 간격으로 심을 수 있다.	4	4
	김매기를 할 수 있다.	3	3

	유인끈 묶기 및 걸기가 가능하다.	3		3	
	유인 집게 집기 및 걸기가 가능하다.	3		3	
	곁순치기를 할 수 있다.	2		2	
수 행 율		43	57.33%	47	62.67%
수확	작물의 수확 시기를 안다.	2		2	
	수확해야 할 작물의 구분이 가능하다.	3		3	
	수확량이 많다.	3		3	
	수확한 작물을 정성스럽게 다룰 수 있다.	3		3	
	수확한 작물을 주의하여 옮길 수 있다.	4		4	
	작물을 저장할 장소를 안다.	5		5	
수 행 율		20	66.67%	20	66.67%
판매	판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4		4	
	화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4		3	
	금액 및 거스름돈의 계산이 가능하다.	3		4	
	납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3	
	수확한 작물을 포장 할 수 있다.	3		3	
	인사(예절)를 잘 할 수 있다.	3		4	
	판매에 대한 흥미가 있고, 수익금에 관심이 많다.	4		5	
수 행 율		23	65.71%	26	74.29%
종 수 행 율		132	64%	148	72%

수 행 평 가 척 도		영 농 작 업 수 행 도 검 사		
5	도움 없이 스스로 한다.			
4	혼자 할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3	언어적 지시로 가능하다.			
2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성 명	진*혜	
1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2015.04.09		2015.10.29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자 : 김정혁		평가자 : 김정혁
직업인식	신상 정보에 대해 알고 말할 수 있다.	3		4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3		3
	급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2		3
	자발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1		2
	지시에 따른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다.	2		2
	동료와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2		2
	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		3
	작업 수행에 적합한 복장을 갖출 수 있다.	3		4
	농장에 관심이 많다	2		3
	바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	2		2
	작업 및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	3		4
	작업 및 쉬는 시간을 준수한다.	2		3
	작업 후 위생관리 및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	3		4

수 행 율		30	46.15%	39	60.00%
재배기술	재배 작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2		3	
	재배 작물에 대한 습성 및 생육(계절별 관리)에 대해 안다.	2		2	
	이랑과 고랑(두둑)에 대해서 안다.	2		2	
	온도와 습도에 대한 이해 및 조절이 가능하다.	2		2	
	작물에 적당량의 물을 줄 수 있다.	2		3	
	적절한 일조량을 유지할 수 있다.	2		2	
	먹이 및 거름(영양제 등)을 줄 수 있다.	3		3	
	작물에 적합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1		2	
	분갈이를 할 수 있다.	2		2	
	분변토 채집을 할 수 있다.	1		2	
	작물을 일정 간격으로 심을 수 있다.	2		2	
	김매기를 할 수 있다.	2		2	
	유인끈 묶기 및 걸기가 가능하다.	1		2	
	유인 집게 집기 및 걸기가 가능하다.	1		2	
	곁순치기를 할 수 있다.	2		2	
수 행 율		27	36.00%	33	44.00%
수확	작물의 수확 시기를 안다.	1		2	
	수확해야 할 작물의 구분이 가능하다.	2		2	
	수확량이 많다.	1		2	
	수확한 작물을 정성스럽게 다룰 수 있다.	2		3	
	수확한 작물을 주의하여 옮길 수 있다.	2		3	
	작물을 저장할 장소를 안다.	3		4	
수 행 율		11	36.67%	16	53.33%
판매	판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2		3	
	화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2		2	
	금액 및 거스름돈의 계산이 가능하다.	1		2	
	납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수확한 작물을 포장 할 수 있다.	2		2	
	인사(예절)를 잘 할 수 있다.	3		4	
	판매에 대한 흥미가 있고, 수익금에 관심이 많다.	3		3	
수 행 율		14	40.00%	18	51.43%
종 수 행 율		82	40%	106	52%

수 행 평 가 척 도		영 농 작 업 수 행 도 검 사	
5	도움 없이 스스로 한다.		
4	혼자 할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3	언어적 지시로 가능하다.		
2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성 명	전*식
1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2015.04.09	2015.10.29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자 : 김정혁	평가자 : 김정혁

직업인식	신상 정보에 대해 알고 말할 수 있다.	4		5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3		4	
	급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2		3	
	자발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2		3	
	지시에 따른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다.	3		4	
	동료와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3		3	
	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2		3	
	작업 수행에 적합한 복장을 갖출 수 있다.	3		4	
	농장에 관심이 많다	3		3	
	바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	2		3	
	작업 및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	3		4	
	작업 및 쉬는 시간을 준수한다.	2		3	
	작업 후 위생관리 및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	3		3	
수 행 율		35	53.85%	45	69.23%
재배기술	재배 작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3		3	
	재배 작물에 대한 습성 및 생육(계절별 관리)에 대해 안다.	2		2	
	이랑과 고랑(두둑)에 대해서 안다.	3		3	
	온도와 습도에 대한 이해 및 조절이 가능하다.	2		2	
	작물에 적당량의 물을 줄 수 있다.	3		3	
	적절한 일조량을 유지할 수 있다.	2		2	
	먹이 및 거름(영양제 등)을 줄 수 있다.	3		3	
	작물에 적합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2		3	
	분갈이를 할 수 있다.	2		3	
	분변토 채집을 할 수 있다.	3		3	
	작물을 일정 간격으로 심을 수 있다.	3		3	
	김매기를 할 수 있다.	2		3	
	유인끈 묶기 및 걸기가 가능하다.	3		3	
	유인 집게 집기 및 걸기가 가능하다.	3		3	
	곁순치기를 할 수 있다.	3		3	
수 행 율		39	52.00%	42	56.00%
수확	작물의 수확 시기를 안다.	2		2	
	수확해야 할 작물의 구분이 가능하다.	2		3	
	수확량이 많다.	3		3	
	수확한 작물을 정성스럽게 다룰 수 있다.	3		4	
	수확한 작물을 주의하여 옮길 수 있다.	3		3	
	작물을 저장할 장소를 안다.	3		4	
수 행 율		16	53.33%	19	63.33%
판매	판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3		4	
	화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3		4	
	금액 및 거스름돈의 계산이 가능하다.	3		4	
	납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3	
	수확한 작물을 포장 할 수 있다.	3		4	
	인사(예절)를 잘 할 수 있다.	3		4	
	판매에 대한 흥미가 있고, 수익금에 관심이	3		4	

	많다.				
수 행 율		20	57.14%	27	77.14%
총 수 행 율		110	54%	133	6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맑음땀방울농장 프로그램이 성인지적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에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직업훈련, 작물재배 및 수확, 판매훈련을 진행하고 사전·사후 상황평가 및 영농작업수행평가를 비교하였다.

1) 상황평가 결과 김*수씨는 72% → 94%, 진*혜씨는 49% → 61%, 전*식씨는 51% → 83%로 향상되었고, 영농작업수행평가로는 김*수씨 65.7% → 74.2%, 진*혜씨 40% → 52%, 전*식씨 54% → 65%로 향상되었다.

2) 이에 해맑음땀방울농장 프로그램이 성인지적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이 되었고, 프로그램 진행 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2016년도에 반영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15-29

지원고용 현장훈련 만족도요인과 취업여부에 대한 연구

팀 명	직업지원팀
연구자	이주미 직업재활사
연구기간	2015.02.02. ~ 11.20/38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서론

장애인에게 취업이란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성인으로서 한 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단순한 경제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직업을 통해 개인은 한 직장의 구성인인 근로자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소속감을 들 수 있게 한다.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경제생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자로 일을 하는 장애인도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애인들은 학력과 경력을 통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고, 창업을 통해 장애인 사업주가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가 취약한 정신장애인들을 스스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률을 %로 장애유형별 취업률을 보았을 때 지적장애의 경우 %로 지체나 시청각의 단순감각장애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통합된 지역사회에서의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고용은 일반 고용환경에서의 직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적합한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히 지원고용을 통한 취업 뿐만 아니라 취업된 고용환경에서 직업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을 강조해 2차적으로 직업유지의 기능을 한다.(김종인, 이상진, 이종길, 우주형, 김명자, 김혜정, 나동준, 정영오 2001).

본관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훈련 기간동안 훈련생에게는 직무에 대한 지도, 대인관계기술지도, 출퇴근지도 등 다양한 지원과 상담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고용 과정에서의 관심을 유도하여 가정에서의 지원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 업체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용 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본관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원고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 해 지원고용 실시 후 8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매년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의 결과보고용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고, 현장훈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와 취업률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할지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를 통해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취업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어떠한 요인이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지원고용 현장훈련 진행 시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

1. 지적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함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이하로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장애인복지봅에서 지적장애의 장애정도는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에서 각각 해당하는 항목들의 조합에 의해 측정되는데, 장애정도를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구분한다. 경도지적장애는 지는징수 50에서 70사이로 전체 지적장애의 약 80~85%를 차지하며 초등학교 6년까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뚜렷한 기질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중등도지적장애는 지능지도 35~49 사이로 전체 지적장애의 약 10%를 차지하며, 경련성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신체적 질환 등의 기질적 요인이 발견된다. 중도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20 ~34 사이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훈련불가능으로 보고 초등학교 1년 수준의 교육에도 어려움이 관찰되며,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기질적 요인이 발견된다. 최중도지적장애는 지능지수 20 미만으로 교육 불가능으로 보며, 전체 지적장애의 약 1%를 차지한다.(박승희, 신현기, 2003; 보건복지가족부 2007).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9조 제 2항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란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난 자"로 지칭하고 있다.

2. 지적장애인의 직업적특성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재활의 필요성은 단순히 임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제적 의의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넓혀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립시키고 일이라는 수단에 의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있다.(이현아,2006)

적업과 관련한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살폅면 지적장애인들은 작업지시의 이해부족, 생산력 저하, 작업태도의 산만성, 도구사용의 어려움, 이동기술의 문제, 직장예절 준수 미숙, 어린아이 같은 행동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엄승연, 1996).

또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지적장애인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은 생활환경에서 꼭 필요한 기술만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적장애인은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의 정도는 능력과 욕구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인 발달론적 관심에 의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지적장애인은 기술습득을 위한 시간의 양과 연습횟수에서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할때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횟수를 시도해야만 한다.

넷째, 지적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득한 기술에 대한 망각의 비율이높고, 망각된 기술을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다.

다섯째, 지적장애인은 학습의 전이 및 일반화의 정도가 떨어진다. 배운 기술을 다른 환경에 적용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지적장애인은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사용하는데 힘든 경우가 많다. 종합력이 부족하므로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 종합된 활동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원고용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경쟁적 노동, 통합된 작업환경,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 세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경쟁적 노동이란 주당 20시간 이상의 전일제나 시간제로 고용되어 노동법에 근거하여 임금을 받는 상태이다. 또한 동일지역에 고용된 비장애인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 ㅇ형의 노동을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동일 수준으로 수행하며 개인의 생산정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의 동일수준이나 최저임금 수준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을 작업활동 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이 받는 토큰임금이 아니라 지원고용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Federal Resister, August 14, 1987).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고용기간 동안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원고용 체계는 통합된 작업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된 작업환경이란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작업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에게 주로 실시해 오던 장기 직업재활 서비스 유형인 보호작업장 수준의 직업재활을 탈피하려는 것이다. 지원고용을 훈련식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정상화라는 철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장애인과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4. 지원고용 성공요인

지원고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요소가 있다. 황윤성(1998)은

이러한 요소들을 직업적응의 요소라고 정의하고 그 안에는 개인적인 욕구, 작업기술, 사회적 기술이 있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첫째, 개인적 욕구 -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의 지적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에 의존도가 특히 높고 취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정의를 지적장애인 개인에 대한 욕구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욕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리고 이 개인적 욕구는 직업에서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작업기술 - 비장애인들과 달리 지적장애인들은 작업기술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지원고용을 통한 지적장애인들의 이직 잉에서 작업기술의 부족을 중요한 요소로서 꼽고 있다. 더불어 엄승연의 연구에 의하면 사업주들이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하였을 경우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서 일을 능동적으로 못하거나 작업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57.1%로 가장 많이 꼽고 있다(엄승연, 1996:28). 따라서 작업기술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기술 - J.C.Rusch는 "사회적 기술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일 수 있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사회적 기술을 작업관련 사회적 기술과 작업 외의 사회적 기술로 나누고 있으며 이 사회적 기술을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각 직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지적장애인이 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향상될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개인적 능력과 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대응시켜주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Ⅲ. 연구의 방법

1. 사례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모두 수료한 구직자들이다. 지원고용 현장훈련의 대상은 지역사회 내 구직자 중 경쟁고용이 어려운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들이며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2명이지만 중도탈락한 2명의 구직자를 제외한 10명이 본 사례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연구도구

1) 지원고용 현장훈련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직업상담	지원고용 대상자, 보호자	① 시기 : 연중 ② 세부내용 ‣지원고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고용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유도
사전.현장 훈련	지원고용 훈련생	① 시기 : 연중 ② 세부내용 ‣출퇴근지도, 직무지도, 식사지도, 위생지도, 직장예절지도, 대인관계기술 및 의사소통기술 지도 등 사업체 내에서 훈련 실시

2) 지원고용 만족도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훈련생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에 대한 만족도 조사지를 제작하여 훈련이 끝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에는 성별, 연령대,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지원고용 현장훈련과 관련된 서비스 신청의 편리성, 사업수행기관/사업체(직무)/상사 및 동료의 협조도/직무지도원에 대한 만족정도, 전반적인 만족도, 실시시간, 훈련수당, 취업준비도움, 지원고용 프로그램 추천의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점수척도가 아닌 만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기에 사례연구에서는 5점척도를 활용하여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사례연구 목표

1) 지원고용 현장훈련생이 지원고용에 대한 만족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 만족도조사 요인별로 취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Ⅲ. 연구내용

1. 지원고용 현장훈련 평가

1) 사례 1. 강O민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강O민	남	1992.2.27	24	지적(3급)	프라임마리스/팬츄리직무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강O민	프라임마리스	사전	02.02 (1)일	이진선 (인)
		현장	02.03 - 02.13 (9)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5	5	출근할 때와 휴식시간 후 다시 업무를 시작할 때에 시작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먼저 가서 일을 시작함.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성실한 태도를 보임. 청결에 대한 부분은 면도를 잘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하니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임. 취업 후에도 위생관리는 신경써야 할 것임.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5	5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5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3	4	
	외모단정, 청결유지	3	4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3	5	초반에는 인사를 하지 않고 눈치를 보며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했지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됨. 직원들이 훈련생을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이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3	5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2	5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3	4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4	4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4	5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변명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음에 다시 그런 상황을 대면할 때는 지적한 것을 생각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임. 목표량을 달성하기 전 다시 생긴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먼저 있던 업무만을 함. 다 하고 나서 또 무엇을 해야 하나 찾도록 지도한 후에는 다른 일거리를 찾음.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4	5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5	5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2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2	3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4	4	
	정확성	3	4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며 수행하려고 함. 또한 방해요소가 있더라도 집중력을 보이며 완수함.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하게 함.
	집중력	5	5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4	5	
	숙련성	3	5	
총 점(만점 100점)		60	76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2) 사례2. 박O원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박O원	남	1989.07.13	27	지적(1급)	프라임마리스/기물관리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박O원	프라임마리스	사전	02.06 (1)일	이진선 (인)
		현장	02.09 - 02.27 (12)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4	5	핸드폰과 시계가 없어서 시간개념이 없었으나 훈련 후반부터는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출근을 해서 휴식시간동안 쉬고 근무시간이 되면 훈련생이 손목시계의 스스로 확인하고 지킬 수 있었음. 훈련 중 머리를 자르고 와서 위생상 깔끔해 보이고 스스로 취업을 위해 개선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임.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3	4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3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3	4	
	외모단정, 청결유지	4	4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4	4	초반에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눈치를 보거나 인사를 해도 작은 목소리로 해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인사하도록 지도함. 그 후부터는 동료들에게 잘 인사를 잘 하며 지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인사를 함. 하지만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에는 반응이 느리고, 일에 집중하고 있어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 동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지도필요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3	4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3	4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3	3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4	5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3	4	초반에는 '고블렛 핸들링하기'에 대한 단편적인 업무만 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하고 지시해야 했지만 후반부터는 기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훈련 3주차에는 목표량을 완수한 후에도 다른 일거리를 찾고 자신감 있게 그 후의 작업을 하겠다고 말함.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2	4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3	4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3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4	4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3	4	작업마다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른데 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 곳에 있는 도구들로 작업할 줄 앎. 반복적인 지시와 설명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가끔씩은 틀릴 때도 있지만 내버려두면 훈련생이 스스로 수정하고 다시 수행함. 작업속도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꼼꼼하고 불량없이 작업을 하는 것이 강점임.
	정확성	2	4	
	집중력	3	4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3	4	
	숙련성	3	4	
총 점(만점 100점)		60	78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3) 사례3. 이O래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이O래	여	1991.12.19	25	지적(2급)	논현신도시제일주유소/매장관리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이O래	논현신도시 제일주유소	사전	2015.03.23 (1)일	이주미 (인)
		현장	2015.03.24.~ 04.13(15)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5	5	지각을 한 적이 없으며 단정한 모습을 유지함. 작업복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 훈련기간동안 개선을 위한 지도를 함.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지시사항에 대한 수용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취업 후에도 주의사항이나 지시사항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5	5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5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4	3	
	외모단정, 청결유지	3	4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5	2	사전훈련시 선임자의 반복된 지시에 지겹다듯이 이야기를 해 마찰이 있었음. 평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함. 기존에 알고 있던 동료들이 많아 과격하게 어울려 주의를 주었으며 직장 내 선/후배관계, 직급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나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3	3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2	4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4	5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5	5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5	4	취업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하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러나 외부매장에 배치되어 내부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며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였음. 또한, 본인의 감정이나 신체컨디션에 따라 작업태도가 상이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일부 개선됨.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2	4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1	3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3	3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3	4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2	3	한번 숙지한 작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숙지하려고 노력을 해서 정확성이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본인이 하기 싫은 직무는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해 작업수행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지도를 실시함.
	정확성	3	4	
	집중력	3	4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4	4	
	숙련성	2	3	
총 점(만점 100점)		69	77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4) 사례4. 장O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장O	남	1986.04.10	29	지적(3급)	영농/작물관리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장O	㈜영농	사전	2015.03.23 (1)일	이주미 (인)
		현장	2015.03.24.~ 04.13(15)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5	5	근태는 매우 좋았음. 과도하게 일찍 출근을 해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훈련함. 주의사항은 잘 듣기는 하나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도 알았다고 답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또한 다소 거만한 태도로 작업에 참여해 하기 싫은 듯한 인상을 보일 때도 있어 적극적인 태도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함.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3	4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4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2	3	
	외모단정, 청결유지	3	3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4	5	평소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하지 않았으나 함께 훈련을 하는 훈련생과 서로 협조하면서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또한 작업환경에 사장님과 훈련생 2명이 주로 배치되어 있고 만족해함. 매장에서 근무를 할 때는 고객들에게 응대하는 법도 스스로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음.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2	4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3	4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4	5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4	4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3	4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 작업을 수행할 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과하게 의욕을 나타내 쉬지 않고 작업을 해 휴식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음. 의욕적인 모습은 좋지만 체력을 관리하면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4	5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2	4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1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3	4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3	3	작업수행에 있어서 속도가 향상되기보다는 정확하다는 직업적 강점이 있음. 느리지만 꾸준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책임감이 있어 취업으로 연계되었으며 향후 수행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응지도가 필요할 것임.
	정확성	1	3	
	집중력	2	5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3	3	
	숙련성	1	3	
총 점(만점 100점)		57	80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5) 사례5. 남O현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남O현	남	1993.09.19	21	지적(3급)	영농/작물관리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남O현	㈜영농	사전	2015.03.23 (1)일	이주미 (인)
		현장	2015.03.24.~ 04.13(15)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5	5	외부에 일을 하다 보니 땀이 많이 나서 위생관리를 요하나 훈련초기에는 작업복을 세탁하지 않았음. 시간이 지나고 작업복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지도하니 한결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었음.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면 감정이 상해 직무수행도에 영향을 미쳐 주의사항을 듣고 일관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추후 지도가 필요할 것임.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5	5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5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2	3	
	외모단정, 청결유지	3	4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4	5	함께 훈련하는 훈련생과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음. 또한 의사소통 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취업 후에도 대화예절에 대해 꾸준히 적응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3	3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1	4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4	3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2	3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1	3	한 가지 작업이 끝나고 다른 직무를 찾아서 하기보다 보고도 없이 앉아서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어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작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훈련기간이 지날수록 개선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음. 또한 취업에 대한 욕구가 훈련기간동안 커져서 적극적인 모습도 자주 보였음. 훈련초기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주의를 주었고 개선된 모습이 보였음.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2	3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3	4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3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3	4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2	4	작업수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업체측의 만족도가 높았음. 또한 본인도 복잡한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수행하였음. 그러나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수행도가 상이하여 감정을 조절하며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적응지도가 필요할 것임.
	정확성	4	5	
	집중력	4	4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4	4	
	숙련성	3	4	
총 점(만점 100점)		63	79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6) 사례6. 최O석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최O석	남	1992.04.27	24	지적(3급)	애슐리 연수점 / 기물관리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최O석	애슐리(인천연수점)	사전	2015.04.10 (1)일	고희진, 강명진 (인)
		현장	2015.04.13.~05.08 (18)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5	4	사전훈련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장훈련 시 간혹 촉박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음.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10분에서 15분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단축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훈련기간 동안 면도와 손톱길이를 보아 청결지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장훈련을 통해 출근시간 15분전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도함.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4	5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5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2	3	
	외모단정, 청결유지	3	3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3	4	훈련 초반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묵묵히 일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질문과 대답의 소리를 크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상사와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는 훈련생이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목소리가 작아 상대방이 잘못 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출•퇴근 시 크고 밝게 인사를 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 한 것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3	4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2	5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4	3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2	3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5	5	근무시간에는 다른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작업에만 집중하여 함. 그러나 아직 속도가 더디고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접시와 식기류 등이 자주 밀리는 모습을 보임.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 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며 직장생활에서는 다른사람의 의견이나 지적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훈련을 했으며 향후에도 지도가 필요할 것임.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2	3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5	5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2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4	3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4	4	식기세척기에 필요한 도구의 명칭을 모두 알고 스스로 작동시킬 수 있음. 집중하여 일하며 지시한 일은 그대로 소화하여 작업하나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을 보임. 주어진 작업량을 흡수하다가도 바빠지면 그대로 지체되며, 훈련 초반보다는 정확성과 속도는 증가하였지만 혼자 일일 작업량을 완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확성	3	4	
	집중력	5	5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2	2	
	숙련성	3	3	
총 점(만점 100점)		68	77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7) 사례7. 왕O호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왕O호	남	1993.11.03	23	지적(3급)	프라임마리스 / 팬츄리직무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왕O호	프라임마리스	사전	2015.05.06 (1)일	이주미 (인)
		현장	2015.05.07.~ 05.22(12)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5	5	훈련기간동안 지각이나 결근을 한적이 한번도 없으며 훈련시작 30분전에 출근을 해서 작업을 준비하는 자세를 보임. 중간에 교대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으나 휴식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해 훈련기간동안 휴식시간에 맞춰서 쉴 수 있도록 지도함. 매우 청결하며 음식물을 다루는 직무임에도 작업복도 깔끔하게 관리함.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5	5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3	4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4	5	
	외모단정, 청결유지	5	5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2	3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듣지만 반응이 별로 없으며 대답을 하더라도 불명확하게 이야기 하거나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어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함께 근무하는 선임자를 보고 배우기보다는 경쟁의식을 느껴서 직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경쟁의식보다는 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1	4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3	5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1	3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4	4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2	4	사전훈련과 훈련초기에는 업체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적극적인 자세는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2주차부터 한가할 때는 스스로 해야할 일을 찾아서 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자발적인 모습을 보이며 작업을 함.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3	5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5	5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1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4	5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2	4	작업에 대해 한번 설명하면 바로 수행이 가능하였고 집중력도 매우 좋음. 작업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주어진 작업량을 소화하지 못했으나 취업이 되어 장시간 반복해서 작업한다면 충분히 속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확성	2	4	
	집중력	3	5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2	3	
	숙련성	3	4	
총 점(만점 100점)		60	86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8) 사례8. 이O정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이O정	여	1979.08.07	37	지적(3급)	애슐리 연수점/기물관리	미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이O정	애슐리 연수점	사전	2015.05.20(01)일	정성자 (인)
		현장	2015.05.21.~ 06.17. (19)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4	5	- 본 훈련생은 지각을 하지 않으며 - 주의 사항 이나 지적을 듣기는 하나 듣는 즉시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음 - 일의 특성 상 저녁식사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없음에도 근무시간을 잘 지킴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4	5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4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3	4	
	외모단정, 청결유지	4	4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3	4	- 주위동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주위동료의 지적이나 요구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상사난 동료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2	3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2	3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3	3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2	3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3	4	-직업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지시사항 이나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 -예를 들면 포개어 세척기에 넣으면 깨끗이 닦이지 않음을 알려주면 세척하던 그릇들을 격하게 밀어내는 등의 자신이 화났음을 나타내는 무언의 행동을 함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2	4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3	4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3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1	3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3	4	-근무시간 동안 산만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편임 -행동이 느리긴 하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록 조금씩 속도가 증가함 -주어진 작업만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그 외 작업이 주어지면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미루거나 하지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
	정확성	3	4	
	집중력	4	4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2	4	
	숙련성	3	4	
총 점(만점 100점)		59	77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9) 사례9. 이O복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이O복	남	1991.11.29	25	지적, 뇌병변(3급)	티티아이/운반. 조립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이O복	티티아이	사전	2015.7.28 (1)일	이주미 (인)
		현장	2015.7.29.~9.6 (30)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5	5	기본적인 근태는 매우 좋은 편임. 아직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연락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보고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함.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연장훈련을 하면서 휴식시간과 근무시간을 잘 지키며 적응하는 모습을 보임.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져 위생에 신경써야 할 것임.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5	4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4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3	5	
	외모단정, 청결유지	4	5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4	5	기본적으로 예의를 잘 지키지만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없음. 현장훈련동안은 작업공간에 직원의 수가 적었지만 연장훈련 기간 동안은 다른 작업장에 배치되어 비장애인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취업 후 동료들과 친밀감이 더욱 향상된다면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3	4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2	3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2	4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3	4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3	4	훈련초기에는 수동적인 모습이었으나 작업이 익숙해지면서 자발적인 모습이 자주 나타남.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수정을 요구할 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적응지도가 필요할 것임.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1	3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3	4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3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2	3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1	3	지시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집중력도 높다는 직업적 강점을 지니고 있음. 직무가 수시로 변경되나 6주간의 훈련을 통해 업체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대부분 수행 가능함.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느라 숙련도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었기에 적응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확성	2	3	
	집중력	3	4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2	3	
	숙련성	1	3	
총 점(만점 100점)		56	78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10) 사례10. 박O원

(1) 훈련생 일반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장애명(등급)	훈련업체 및 직무	취업여부
박O원	여	1989.07.13	27	지적(2급)	드마리스 인천점/식기세척	취업

(2) 현장평가

훈련생명	사업체명	훈 련 기 간		직무지도원(담당자)
박O원	드마리스 인천점	사전	2015.10.08.~ 10.08. (01)일	정성자 (인)
		현장	2015.10.12.~ 10.30. (15)일	

구 분		사전	현장	평 가 소 견
근무태도	결근, 지각, 조퇴	3	5	- 본 훈련생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소 부족하여 출근 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정해 주어야 함 - 작업의 특성 상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비교적 지시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음. -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결근, 지각, 조퇴시 보고하기	3	4	
	휴식시간과 근무시간 지키기	3	5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기	3	4	
	외모단정, 청결유지	3	4	
대인관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어사용	3	4	- 상사 및 동료, 고객에게 인사함에 있어 다소 지도가 필요함 - 사회성은 좋지만 상사, 동료들의 이야기에 대해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훈련기간동안 지도하였음.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주위동료와 협조를 잘한다	3	5	
	상사, 동료, 고객에게 인사하기	2	4	
	질문에 적절한 답변하기	2	4	
	다른사람의 의견 청취하기	2	4	
작업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	2	4	-잘못을 지적하면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며 대답을 하지 않으며, 가끔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 -자신의 일을 스스로 수행하기보다는 지시에 따르는 편임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함.
	자발적으로 작업하기	2	4	
	열심히 작업에 몰두한다	2	4	
	목표량 완수 후 할 일 찾기	2	4	
	지적에 대한 호의적 반응	2	4	
작업수행	도구나 기계를 잘 다룬다.	2	4	-근무시간 동안 산만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편임 -직무를 수행할수록 비교적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작업속도가 증가함. -작업방법을 익히는 속도는 느리지만 비교적 지시한 방법대로 작업을 수행함
	정확성	2	4	
	집중력	3	5	
	주어진 작업량을 완수한다.	2	3	
	숙련성	2	3	
총 점(만점 100점)		48	82	
비고	※ 항목별 점수채점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2. 지원고용 만족도 조사

지원고용 만족도조사는 지원고용 현장훈련이 끝난 후 진행되었으며 3주간의 현장훈련에 대한 내용을 훈련생 및 보호자가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수행기관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2) 업체(직무)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3) 상사 및 동료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4) 직무지도원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5) 훈련기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6) 훈련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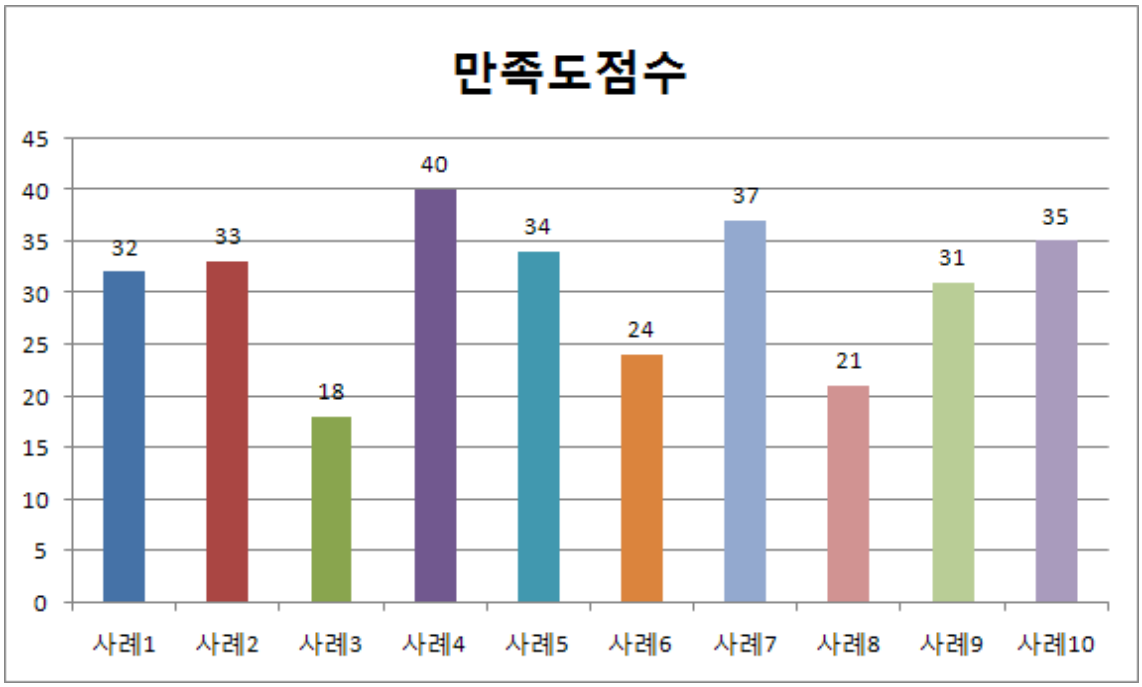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7) 취업준비도움여부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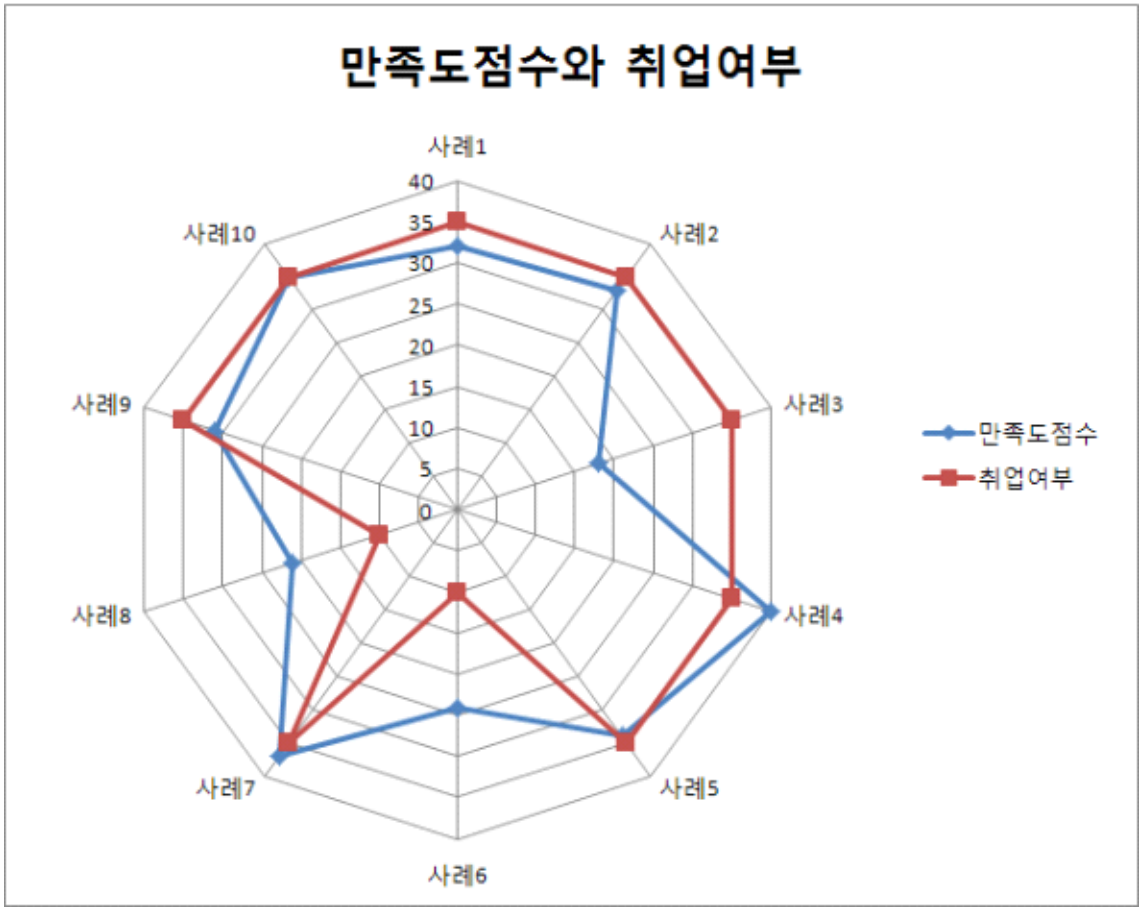
(8) 전반적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취업여부
사례1		○			취업
사례2		○			취업
사례3		○			취업
사례4	○				취업
사례5		○			취업
사례6		○			미취업
사례7	○				취업
사례8		○			미취업
사례9		○			취업
사례10		○			취업



Ⅳ.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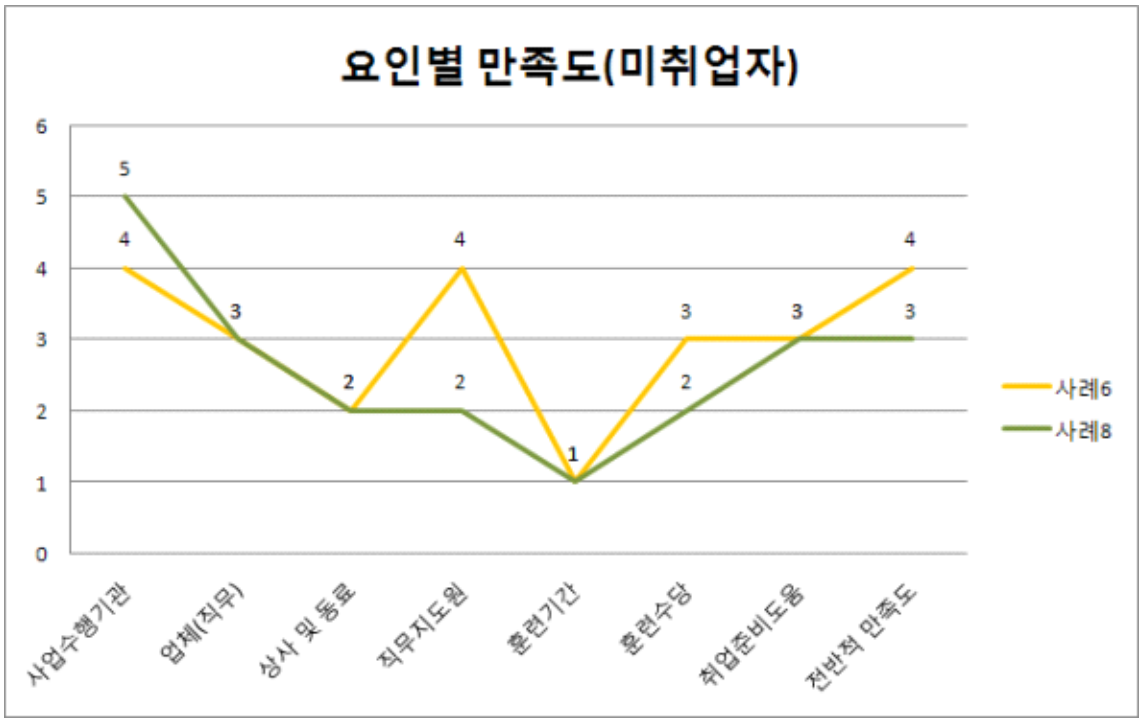
1) 지원고용 현장훈련 만족도와 취업여부



만족도점수와 취업여부을 분사형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사례 3을 제외하고 만족도 점수의 그래프와 취업여부의 그래프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원고용 현장훈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훈련결과가 취업으로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3의 경우 모든 설문조사에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변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요인별로 보면 만족하는 요인과 불만족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족도조사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요인별 만족도조사 결과와 취업여부의 상관관계

요인별로 분석을 할 때에는 취업을 한 사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미취업을 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지 확인하였다. 사업수행기관, 업체(직무), 상사 및 동료, 직무지도원, 훈련기간, 훈련수당에 대해 제일 만족도가 낮은 요인이 미취업의 원인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훈련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위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두 미취업자 모두 업체(직무), 상사 및 동료, 직무지도원, 훈련기간에 불만족한 점수를 보인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훈련기간으로 두 훈련생 모두 기본 3주간 현장훈련과 연장훈련으로 1주일을 더 훈련에 참여하였다. 훈련기간에 대한 불만족도가 연장훈련 때문에 훈련이 길어진 것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 중에 하나인 상사 및 동료에 대한 점수인데 두 훈련생 모두 불만족에 응답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훈련생이 같은 훈련업체에서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향후 같은 업체에서 훈련이 진행된다면 상사 및 동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결과라고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본관에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고용의 현장훈련기간동안의 만족도가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단순하게 현장훈련의 만족도가 취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현장훈련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취업자가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고, 어떠한 요인이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참여한 훈련생 중 현장훈련기간을 모두 수료한 10명을 대상으로 3~6주간의 현장평가 결과와 현장훈련이 종결된 후 진행되는 만족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현장훈련 시 본관의 지원고용 담당자가 직무지도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외부 직무지도원(재활학과 전공 대학생, 사회복지사,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를 활용하여 직무지도가 이루어졌기에 다양한 직무지도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직무지도 시 단순히 업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업체 내 규칙준수, 대인관계기술 향상지원,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지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지원고용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은 2명이 미취업되었으며 지원고용 만족도조사결과와 취업이라는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인별로 살펴보면 현장훈련의 만족도요인 중에서 미취업자들에게 가장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것은 훈련기간이나 상사 및 동료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훈련생들이 훈련기간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아마도 상사 및 동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연장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취업이라는 것은 직무수행도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및 상사와의 상호작용이나 지시수용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고용 만족도조사 자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만족도조사를 놓고 취업여부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것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 지원고용 현장훈련이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업체에 선배치하여 직무지도원을 통해 지원받으며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향후 지원고용 시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상사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업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 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위영, 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서울 : 도서출판 나눔의 집.

이현아(2006).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민식(2009). 행복을 부르는 세 잎 클로버'장기근속 지적장애인의 직업유지 특성 탐색'.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허경아(1998). 정신지체인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지원고용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혜련(2006). 정신장애인의 지원고용을 통한 직업생활 유지에 관한 사례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영애(1998). 정신지체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김봉선(2004). 정신지체인 지원고용과 관련 요인들의 상호작용. 성균관대 대학원

2015 전문자료집 - 사례연구

남동발간 2015-11호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인** : 서 현 정

■**편집인** : 이 현 정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홈페이지** : www.ndjb.or.kr